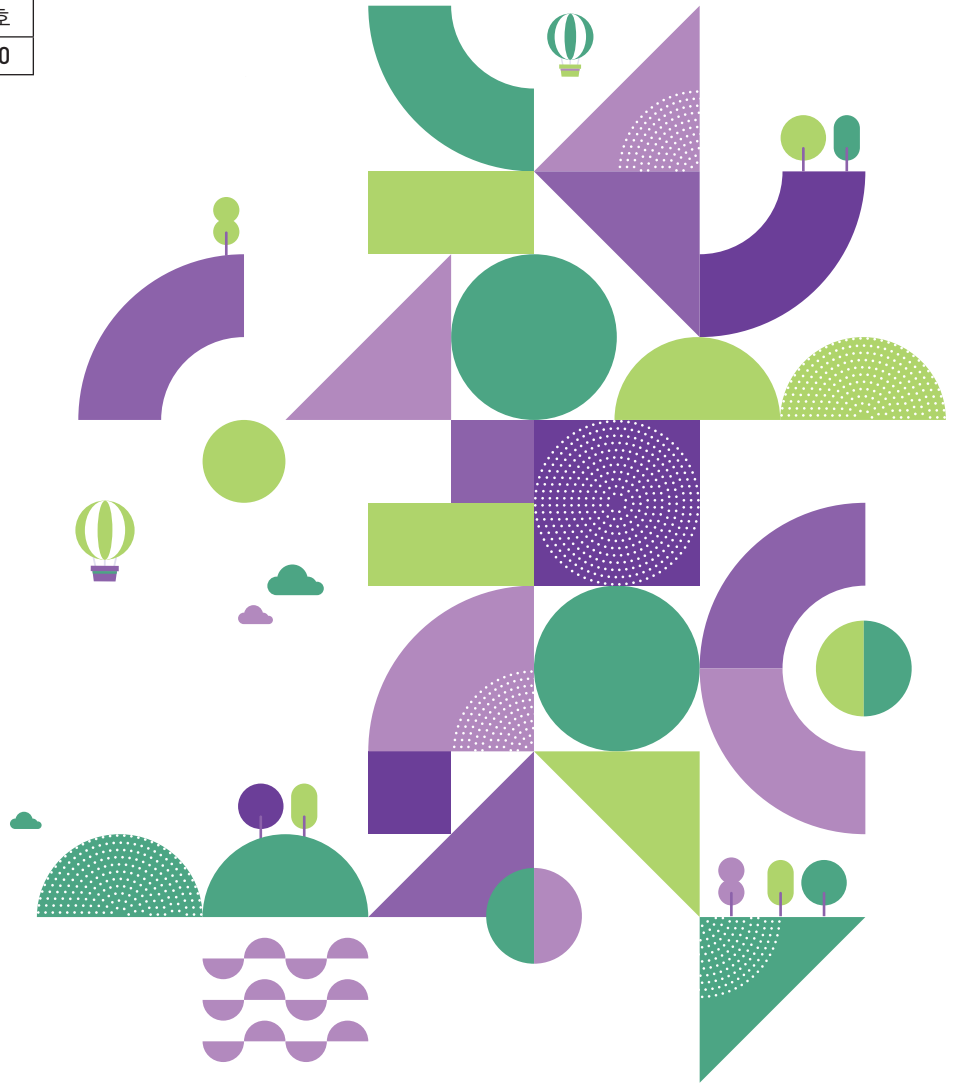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0202-10



# 2019

---

##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b>I</b>	<b>2019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평가</b>	<b>1</b>
	1. 문화관광축제 현황 .....	3
	2. 문화관광축제 평가 .....	8
<b>II</b>	<b>지자체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종합</b>	<b>15</b>
	1. 개 요 .....	17
	(1) 조사목적 · 17	(2) 조사방법 · 17
	(3) 조사 및 분석 시 주의사항 · 18	(4) 축제설문 · 19
	2. 분석대상 및 평가항목 .....	20
	(1) 종합분석 대상축제 · 20	(2) 대상축제 유형 구분 · 21
	(3) 평가항목 · 23	(4) 분석방법 · 24
	3. 방문객 만족도 결과 종합 .....	25
	(1) 연도별 만족도 변화 · 25	(2) 항목별 만족도 · 26
	(3) 축제 등급별 만족도 · 27	(4) 축제 유형별 만족도 · 32
	(5) 축제별 만족도 비교 · 37	
	4. 방문객 소비지출 결과 종합 .....	42
	(1) 전제 · 42	(2) 연도별 소비지출 변화 · 42
	(3) 항목별 소비지출 · 43	(4)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 44
	(5)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 47	(6) 축제별 소비지출 비교 · 51
	5. 외지관광객 비율 .....	55
	6.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	56



대구광역시

- 1.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 59
- 2. 대구치맥페스티벌 ..... 60

인천광역시

- 3.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 61

광주광역시

- 4. 추억의충장축제 ..... 62

경기도

- 5. 이천쌀문화축제 ..... 63
- 6.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 64
- 7. 수원화성문화제 ..... 65
- 8. 시흥갯골축제 ..... 66
- 9. 여주오곡나루축제 ..... 67

강원도

- 10. 평창효석문화제 ..... 68
- 11.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 ..... 69
- 12. 춘천마임축제 ..... 70
- 13. 횡성한우축제 ..... 71
- 14. 강릉커피축제 ..... 72
- 15. 평창송어축제 ..... 73

### 충청북도

- 16. 괴산고추축제 ..... 74
- 17. 음성품바축제 ..... 75

### 충청남도

- 18. 한산모시문화제 ..... 76
- 19. 서산해미읍성축제 ..... 77
- 20. 강경젓갈축제 ..... 78
- 21. 부여서동연꽃축제 ..... 79

### 전라북도

- 22. 무주반딧불축제 ..... 80
- 23. 임실N치즈축제 ..... 81
- 24. 고창모양성제 ..... 82
- 25. 순창장류축제 ..... 83
- 26. 완주와일드푸드축제 ..... 84

### 전라남도

- 27. 담양대나무축제 ..... 85
- 28.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 86
- 29. 보성다향대축제 ..... 87
- 30. 강진청자축제 ..... 88
- 31. 정남진장흥물축제 ..... 89
- 32. 영암왕인축제 ..... 90

### 경상북도

- 33. 문경차사발축제 ..... 91
- 34. 봉화은어축제 ..... 92
- 35. 고령대가야체험축제 ..... 93
- 36. 영덕대게축제 ..... 94
- 37. 포항국제불빛축제 ..... 95

### 경상남도

- 38. 산청한방약초축제 ..... 96
- 39. 통영한산대첩축제 ..... 97
- 40. 밀양아리랑대축제 ..... 98

### 제주도

- 41. 제주들불축제 ..... 99

## IV

### 전문가 현장평가 축제별 결과

101

- 개 요 ..... 103

### 대구광역시

- 1.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 104
- 2. 대구치맥페스티벌 ..... 110

### 인천광역시

- 3.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 115

### 경기도

- 4. 여주오곡나루 ..... 119

### 강원도

- 5. 횡성한우축제 ..... 120
- 6. 강릉커피축제 ..... 123
- 7. 평창송어축제 ..... 129

### 충청북도

- 8. 괴산고추축제 ..... 134
- 9. 음성품바축제 ..... 139

### 충청남도

- 10. 한산모시문화제 ..... 144
- 11. 서산해미읍성축제 ..... 149
- 12. 강경젓갈축제 ..... 152
- 13. 부여서동연꽃축제 ..... 153

### 전라북도

- 14. 고창모양성제 ..... 158
- 15. 순창장류축제 ..... 161
- 16. 완주와일드푸드축제 ..... 168

### 전라남도

- 17. 영암왕인축제 ..... 175

### 경상북도

- 18. 고령대가야체험축제 ..... 180
- 19. 영덕대게축제 ..... 183
- 20. 포항국제불빛축제 ..... 189

### 경상남도

- 21. 밀양아리랑대축제 ..... 192





2019 문화관광축제 >>>

I

# 2019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평가



K o r e a   C u l t u r e   &   T o u r i s m   I n s t i t u t e



## 1

## 문화관광축제 현황

## (1) 연도별 축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축제의 선정방법은 각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에서 축제를 추천하면 관광·축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 등 콘텐츠, 축제 운영, 발전 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표 1〉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개수	25	30	29	30	37	45	52	52	56	57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수	44	44	45	42	40	44	43	41	40	41

## (2) 2019년 축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문화관광축제로 41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대표 축제 3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1개임
- 최근 문화관광축제의 경향은 관광객이 단순히 보는 관광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관광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역별 축제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축제를 기획하여 축제의 본질과 지역전통문화의 주체성 유지에 바탕을 두고 관광객 참여형 축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는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활용한 정보제공 및 온라인 홍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관광박람회, 전시회 참여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축제의 경쟁력 및 자립성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축제의 평가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 간접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인을 매혹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표 2〉 2019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대구	유망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5.2~5.6	약령시약전골목 일원	• 한방 힐링 클러스터, 사상제질관, 한방힐링센터, 테마한약재 전시관, 한약재도매시장 체험 등
	유망	대구치맥 페스티벌	7.17~7.21	대구 두류야구장, 2.28기념탑 주차장, 두류공원로드 등	• 개막 축하공연, 치맥 콘서트, Cass Day, 치맥 EDM라이브 등
인천 (1)	유망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7.13~8.11	송도달빛축제 공원, 월미도, 글로벌캠퍼스 등	•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판타유스스타, 라이브클럽뮤직파티, 펜타라이브스테이지 등
광주 (1)	최우수	추억의충장축제	10.3~10.6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추억의 고고장, 충장 퍼레이드, 청바지 리폼경연대회, 동구민 어울림 한마당 등
경기 (5)	최우수	이천쌀문화축제	-	-	-
	최우수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축제	-	-	-
	우수	수원화성축제	10.3~10.6	수원화성 일원	• 무예브랜드 공연 '야조, 미디어아트 진찬연' 한중록(1795), 수원등불축제 스탬프투어 프로그램 등
	우수	시흥갯골축제	9.20~9.22	시흥갯골생태 공원 일원	• 갯골퍼레이드, 어쿠스틱 음악제, 갯골뷰 재즈살롱, 바람댕, 국악당 등
	유망	여주오곡나무축제	-	-	-
강원 (6)	우수	평창효석문화제	9.7~9.15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대취타 공연, 전통민속공연극, 메밀꽃 마당극, 뗏목체험, 사랑의 타임캡슐 등
	우수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9.3~9.8	원주따뚜공연장, 원일로 문화의 거리	• 댄싱카니발 경연, 프린지 페스티벌 및 프리댄신 페스타, 축하공연 등
	우수	춘천마임축제	5.25~6.2	KT&G상상마당 춘천, 일송 아트홀, 중앙로, 송암 스포츠타운 및 춘천시 일원	• 마임프린지, 물의도시 : 아수라장, 물위의 火루방 "물·火일체", 불의도시 : 도깨비난장 등

〈표 계속〉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강원 (6)	유망	횡성한우축제	10.2~10.6	횡성군 횡성읍 섬강둔치 일원	•머슴들 들기 대회, 한우 더덕 요리경연, 횡성한우난장, 한우주제관 등
	유망	강릉커피축제	10.3~10.6	강릉 아레나 및 안목해변	•G1 가곡의밤, 바리스타 핸드드립 퍼포먼스, 커피라운지, 커피세미나, 강릉커피 홈로스팅 챔피언십 등
	유망	평창송어축제	12.22~1.27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둔치 일원	•송어 얼음낚시, 송어품물 퍼레이드, 전통썰매, 눈썰매, 스노우레프팅, 송어요리 개발 및 시식 등
충북 (2)	유망	괴산고추축제	8.29~9.1	괴산군청 앞 광장 일원	•황금고추를 찾아라, 속풀이 고추난타, 고추요리 경연대회, 막고난장, 고추거리퍼레이드 등
	유망	음성품바축제	5.22~5.26	음성 설성공원 및 꽃동네 일원	•품바촌 체험, 품바의상패션쇼, 음성군 꽃잔치, 품바왕들의 귀환, 추억의 고고장 등
충남 (4)	유망	한산모시문화제	6.7~6.10	충남서천군 한산모시관 일원	•한산모시베틀쇼, 모시트롯, 길쌈놀이시연, 향토음식마당, 대장간시연, 모시 옷입기대회 등
	유망	서산해미읍성축제	10.1~10.13	해미읍성 일원	•주제체험,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 태종대왕 수라상, 병영체험, 야간기획공연 등
	유망	강경젓갈축제	-	-	-
	유망	부여서동연꽃축제	7.5~7.7	부여 공남지 일원	•2019 연꽃축제 점등 퍼레이드, 천하일화 연꽃 판타지쇼, ICT 연꽃 주제관, 세계나라 연꽃 영상교, 연꽃 수박화채 만들기, 연꽃 전망대 등
전북 (5)	대표	무주반딧불축제	8.31~9.8	지남공원 일원	•공연행사, 반딧불이 신비 탐사, 체험 프로그램, 쉼다리 체험 등

## 〈표 계속〉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전북 (5)	우수	임실N치즈축제	10.3~10.6	임실치즈테마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대표 왕 치즈파자 만들기, 우유드림, 행복드림 퍼레이드, 나만의 1인 피자 만들기, 치즈팔이 소녀, 아모르 파티(EDM) 등</li> </ul>
	유망	고창모양성제	10.3.~10.7	전북 고창군 고창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성놀이 재연 및 체험, 강강술래 재연 및 경연대회, 한복을 입어라, 모양성 전국 가요제, 모양성 그리기 대회 등</li> </ul>
	유망	순창장류축제	10.18~10.20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장류 플러워 팬슬 만들기, 콩이공원 밭줄 체험, 도전! 다함께 순창고추장 만들자! 등</li> </ul>
	유망	원주와일드푸드축제	9.27~9.29	고산 자원 휴양림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일드 쿠킹쇼, 외푸 토트즐 매장 특집, 전국와일드푸드요리대회, 청소년 광끼 페스티벌, 이색음식체험 등</li> </ul>
전남 (6)	최우수	담양대나무축제	5.1~5.6	죽녹원, 관방제림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산제, 담양 별빛여행 대통도자기만들기, 대나무문화산업전, 대나무놀이기구 체험, 대나무연 만들기 등</li> </ul>
	최우수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3.21~3.24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및 의신면 모도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풍물 뱃놀이, 문화교류공연, 병할머니 가족 대행진, '신비의 땅을 울려라' 북놀이 퍼레이드 등</li> </ul>
	최우수	보성다향대축제	5.2~5.6	한국 차 문화 공원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차 스탬프 투어, 한국명차 선정대회, 차잎따기, 녹차요정 퍼포먼스, 차훈명상 등</li> </ul>
	우수	강진청자축제	10.5~10.9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만의 도자기 채색 체험, 청자 인화문 찍기, 청자 백일장, 희망의 불꽃 화목가마 불지피기, 청자 조각하기 체험 등</li> </ul>
	우수	정남진장흥물축제	7.26 ~8.1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 황금물고기잡아라, 수중 줄다리기, 장흥블라주, 대형 물놀이장, 육상 체험 프로그램 등</li> </ul>
	유망	영암왕인문화축제	4.4~4.7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인박사 추모 한시현장백일장, 낭만벚꽃 버스킹, 천자문놀이문화체험, 영암 3대 민속놀이공연 등</li> </ul>

〈표 계속〉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경북 (5)	대표	문경찾사발축제	4.27~5.6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 찾사발 빚기, 찾사발 그림그리기, 아바위꾼을 찾아라, 왕의 찾자리, 차담이 어드벤처 등
	우수	봉화은어축제	7.27~8.4	봉화읍 내성천 일원	• 봉화워터파크, 은어맨손잡이, 은어 반두잡이, 어린이물놀이장, 가재마을체험, 키즈공작소 등
	유망	고령대가야체험축제	4.1~4.14	대가야읍 일원	• 대가야 체험축제, 딸기수확체험, 녹색체험마을 지역농, 특산물 전시판매, 대가야 고상기옥 생활체험 등
	유망	영덕대게축제	3.21~3.24	강구항 해파랑공원 일원	• 황금대게낚시, 대게신고달리기, 어린이 대게잡이, 나들이 영덕대게맛을 알아?, 대게문화공연 등
	유망	포항국제불빛축제	5.31~6.2	포항 형산강체육공원 일원	• 불빛 퍼레이드, 그랜드 피날레(대한민국), 렛츠씽 핑팡 페스티벌, 스탬프투어, 나눔나라 동화나라 등
경남 (3)	대표	산청한방약초축제	9.27~10.9	산청 IC 입구 축제광장 일원, 동의보감촌 일원	• 한방진료 무료체험, 약선음식 전시, 약초와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 올바른 약초 달이기 체험 등
	우수	통영한산대첩축제	8.10~8.14	도남관광단지 및 통영시 일원	• 이순신의 밤바다, 신명나게 두드락, 청춘 바다 콘서트, 수군수군 콘서트, 통영 승전무 공연 등
	유망	밀양아리랑대축제	5.16~5.19	경남 밀양시, 영남루 및 밀양강변 일원	• 아리랑주제관, 밀양가아 오딧세이, 응답하라1919, 밀양아리랑경연대회, 아리랑주제공연, 거리에 술공연 등
제주 (1)	최우수	제주들불축제	3.7~3.10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	• 제주전통문화체험, 들불과 함께 춤을, 들불큰북행운이벤트, 마조제, 프린지공연 '들불감성' 등

주: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우축제(최우수), 이천쌀문화축제(최우수), 강경젓갈축제(유망). 여주오곡나루축제(유망)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취소됨

## 2

## 문화관광축제 평가

## (1) 평가 개요

## ■ 평가 목적

- 1998년부터 추진 된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 제도는 지역축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었으며, 우수 지역축제가 세계적 축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 바 있음
  -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평가 등)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축제를 육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축제육성 정책을 마련함
- ※ 사업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2(지역축제 등)

## ■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19년 1월 ~ 12월
- 평가대상 : 2019년 문화관광축제 41개 및 문화관광육성축제 57개

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육성축제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3개	7개	10개	21개	57개

- 평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 평가내용 : 전문가 현장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온라인평가, 지자체 자체 성과평가, 종합평가

## ■ 2019년도 추진(개선) 방향

- 신규축제 진입
  - (정량요건 도입) 문화관광관광축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정량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존평가 실시) '19년 유망축제(21개)와 문화관광육성축제(57개)는 최소 정량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종전처럼 소비자평가, 현장평가, 문체부 평가를 통해서 문화관광축제 지정 여부를 결정함



- 문화관광육성축제 확대('18년 40개 → '19년 57개)
  - 신규축제 발굴을 위해 17개 시도별로 추천 개수 확대
    - ※ 7개 특별·광역시 3개 이내, 8개 광역도 4개 이내, 세종특별자치시 2개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3개 이내로 추천
- 빅데이터 분석대상 축제 확대
  - 성장가능성 높은 신규 축제 발굴 및 지역축제 발전을 위해 문화관광축제 41개와 문화관광육성축제 57개 외의 지역축제에 대해 추가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방문객, 관외방문객, 매출액) 등을 제공함

## (2) 2019년 평가 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전문가 현장모니터링 (유망 및 육성축제)

#### ■ 평가위원단 구성 및 축제 배정

- 전문가 평가단
  - 각 축제별로 민간전문가 등 총 3명 배정
  - \* 민간전문가 평가위원 별도 주심 및 부심 구분 없음(상하반기 평가위원 별도 구성)
- 평가위원 소속 및 축제 활동이력 등을 고려(상피제 적용)하여 문체부 및 한국관광공사에서 평가대상축제를 배정함(상·하반기 구분)

#### ■ 평가 준비 : 기획서 사전 검토 등

- 지자체는 축제 개시 1개월 이전에 2019년 '축제 기획서' 및 '축제 방문객 집계 계획서'를 문체부 및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함
  - 지자체 축제 기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축제 탄생목적, 금회 축제의 기획의도, 금회 축제의 주제, 대표 프로그램,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중장기 운영계획
-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축제의 2019년 축제 기획서, 축제 방문객 집계 계획서, 2018년 현장 평가 보고서를 축제 개시 전에 평가위원에게 송부함

## ■ 평가 지표 및 점수부여 방법

- 평가지표
  -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45%), 축제의 운영(20%), 축제 발전역량(30%), 축제의 효과(5%)
- 각 평가위원은 개별적으로 축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각 보고서(의명)를 해당 지자체에 송부, 반론 의견을 회신 받아 각 평가위원에게 전달하며 각 평가위원은 독립적으로 최종 현장평가 점수를 부여함
  - 동일 축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편차가 10점 이상일 경우, 평가위원간 협의를 거쳐 편차를 10점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은 점수 부여 시 등급별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 권장하며 이 때 총점 기준, 감점 사항은 제외함

## ■ 현장 평가 방식 : 2일 이상 체류 평가

- 축제 지역에서 1박 이상, 최소 2일 이상(축제장 내 총 8시간 이상) 체류하며, 대표(주제) 프로그램 및 주간+야간 프로그램을 고루 체험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함
  - 일반 소비자 관점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기간 중 일정시간 동안은 지자체 동행 없이 축제장 암행 관람을 권장(예 : 1일차는 암행, 2일차는 지자체 협조)
- 각 평가위원은 각자 전문지식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이후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함
- 문화관광축제 개선에 대한 제안 등 모니터링 보고서는 축제 전반에 대하여 살핀 후 정리된 의견으로 작성·제출하며, 가급적 현장에서 개인 단위의 즉흥적인 지적이나 개선 요구는 지양함

## ■ 평가결과

- 최종 종합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모니터링 보고서 및 지자체 의견을 종합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최종 점수에 일부 반영함
- 각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축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며, 지자체 의견을 회신 받은 후 2주 이내에 평가표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함

## ② 문화체육관광부 : 소비자평가

### ■ 실시개요

- 목적
  - 문화관광축제 대상 관람객 관점에서 축제의 효용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평가요소 필요함 (2016년 평가부터 신규 도입)
- 대상 및 시기
  - 대상 : 2019년 문화관광축제 41개 및 문화관광육성축제 57개
  - 시기 : 연중(축제기간 중 또는 축제기간 이후)

### ■ 측정방법

- 방법
  - 축제 참가 소비자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인지 조사 : 전국 만 20세 이상 1개 이상 축제 참가자
    - 만족도 조사 : 만 20세 이상 각 축제 참가자
- 유효표본수
  - 전국 지역별 비례할당 (등급별 차등 할당)
- 조사내용
  - 축제 만족도(축제 사전 및 현장안내, 프로그램 운영, 음식 및 기념품, 편의시설 등)

## ③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빅데이터 분석

### ■ 통신 및 신용카드 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

- 개요
  - 분석대상 : 축제기간 내국인(지역 내·외 구분) 및 외국인 방문객
  - 분석지역 : 2019년 문화관광축제 41개 및 문화관광육성축제 5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신청한 축제 등
  - 분석기간 : 최근 3년간의 방문객 수 및 소비지출액 변화 추정

## ○ 분석조건 및 내용

## - 방문객 수

- 축제 방문인구 산정 시 축제 지역에서의 체류시간을 산정하여 실제 축제에 영향을 준 방문인원만 산정
- 행사구역 및 주변구역 유동인구 요약(일평균 방문객 수), 성/연령별 방문객 요약, 시도 및 시군구 유입인구 요약 등

## - 소비지출액

- 행사지역 및 주변 구역 신용카드 지출액 분석

(내국인은 지역내외구분, 성/연령별/, 업종별 등 분석, 외국인은 국가별, 업종별, 국내지역 별 등 분석)

※ 축제 유형분류 및 빅데이터 분석 상세 내용, 분석 방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 ④ 지자체 : 자체 성과평가

## ■ 방문객 만족도 조사 및 경제효과(직접효과) 분석

- 자체성과평가 지침(붙임 참고)에 따라 조사 및 분석 실시

- 방문객 만족도 조사

- 축제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축제별 설문조사 시 공통적으로 조사할 만족도 평가 항목(10개 항목)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결과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함

- 경제 직접효과 분석

- 지역주민과 지역 외 주민의 총 지출액을 구분하여 직접 경제효과를 분석함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미인정)

## ■ 방문객 수 집계

- 방문객 집계 지침에 따라 최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출함

※ 자체 성과지표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⑤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평가 (유망 및 육성축제)

#### ■ 종합평가

- 2019년도 성과보고서 및 2020년도 계획서(지자체 제출, 향후 5년 중장기 운영계획 포함)을 토대로 평가하되, 현장모니터링보고서(지자체 의견 포함)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지자체 자체 성과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시함

#### ■ 자체성과지표 측정 결과 반영

- 각 축제별 기획 목적 및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한 자체 성과지표 결과(특산물 판매실적, 브랜드 인지도, 관광객 수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된 결과치)를 최종 선정 시 반영함

### (3) 평가결과 활용

- 2020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자료로 활용함
  - 평가별 최종심사 반영비율(안) : 전문가 현장평가(45% 내외), 소비자 모니터링(15% 내외), 종합평가(40% 내외)
  - ※ 최종 반영 비율은 2020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계획 배포 시 확정
- 축제별 현장모니터링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보고서를 발간함
- 축제별 현장모니터링 시 개선 필요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지자체 개선실적을 축제 평가 및 선정 시 반영

#### (4) 2019년 문화관광축제 평가대상

○ 총 41개 축제 : 대표축제 3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1개

※ 돼지열병으로 인해 4개 축제 미개최 : 강경젓갈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등급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대구(2)	-	-	-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인천(1)	-	-	-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광주(1)	-	추억의충장축제	-	-
경기(5)	-	이천쌀문화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수원화성문화축제 시흥갯골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강원(6)	-	-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평창효석문화제 춘천마임축제	횡성한우축제 강릉커피축제 평창송어축제
충북(2)	-	-	-	괴산고추축제 음성품바축제
충남(4)	-	-	-	한산모시문화제 서산해미읍성축제 강경젓갈축제 서동연꽃축제
전북(5)	무주반딧불축제	-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원주와일드푸드축제 고창모양성제
전남(6)	-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강진청자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경북(5)	문경전통찻사발축제	-	봉화은어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영덕대게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경남(3)	산청한방약초축제	-	통영한산대첩축제	밀양아리랑축제
제주(1)	-	제주들불축제	-	-
계(41)	3개	7개	10개	21개

2019 문화관광축제 >>>

# II

## 지자체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종합







## 1

## 개 요

## (1) 조사목적

- 과학적인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2019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소비지출 규모를 조사하여 해당 축제를 진단한 후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 발전을 도모함
  - 축제별로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및 분석 실시

## (2) 조사방법

## ■ 조사기관

- 축제 주관기관이 선정한 전문기관 위촉 수행

## ■ 조사시기

- 축제 전체기간(토·일요일 포함)

## ■ 조사대상자

- 지역주민과 외래 관광객(타 지역거주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 ■ 공통조사항목

- 총 22개 항목(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
  - 방문객 만족도(10개) : 축제의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사전홍보 등
  - 방문객의 소비지출(6개) :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등
  -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사항(6개) : 방문목적, 체류기간, 숙박여부, 재방문 등

## ■ 유효표본 : 200명 이상

- 축제 순수방문 목적객만 표본 대상에 포함
- 축제 전체기간 일자별 균일하게 무작위적으로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 응답방법

- 7단계 측정(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


## ■ 세부 설문내용

구분	항목 수	주요 내용
방문객 만족도	10개	• 축제의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사전홍보 등
방문객 비용지출	6개	•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기타 일반사항	7개	• 성별, 연령, 방문목적, 체류기간, 숙박여부, 재방문, 거주지

### (3) 조사 및 분석 시 주의사항

- 설문기간은 축제 전체기간에 걸쳐 같은 비율로 설문지를 받아야 하고 무작위적이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함
- 설문에 응한 방문객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게 된 주된 동기가 축제를 보러온 경우가 아니면 설문조사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공통조사항목 이외 자체적으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 경우, 공통조사항목(10개)에 대한 결과 값 구분하여 분석함
- 7단계 측정을 임의로 구성하거나 공통조사항목을 생략할 경우 선정 시 불이익을 제공됨

(4) 축제 설문



문화체육관광부

안녕하세요? 당 축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변 및 정보는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I.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축제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축제 관련 프로그램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축제 관련 먹거리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축제 관련 살거리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축제 관련 사전 홍보가 잘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축제장 내 안내·해설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 됐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축제장 시설이 안전해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축제장의 접근성 및 주차장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방문을 유도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 소비지출	아래 금액은 본인 포함하여 (      명)이 지출한 총액입니다.	
교통비	_____ 원	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주유비, 주차료,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등
숙박비	_____ 원	민박, 호텔, 모텔, 펜션, 콘도 등
식음료비	_____ 원	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음식값, 음료비
유흥비	_____ 원	축제장 밖에서 지출한 관람료, 노래방, 술값 등
쇼핑비	_____ 원	축제 기념품, 농특산물 구입비 등
기타	_____ 원	체험비, 입장료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비용

III. 일반사항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녀 <input type="checkbox"/>	연령	_____ 세
방문목적	축제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왔다 (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		
체류기간	지금까지 축제장에 머문 시간 (머물 시간 포함하여 _____ 시간)		
숙박여부	당일 <input type="checkbox"/> 1박 2일 <input type="checkbox"/> 2박 3일 <input type="checkbox"/> 3박 4일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올해 첫 방문 <input type="checkbox"/> 이전에도 방문했음 (총 _____ 회)		
거주지	지역주민 <input type="checkbox"/> 외지인일 경우 ( _____ 시·도    _____ 시·군)		

## 2

## 분석대상 및 평가항목

## (1) 종합분석 대상축제

- 종합분석은 크게 방문객 만족도와 방문객 소비지출로 구분되며, 2019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축제 41개 중 돼지열병으로 인해 취소된 축제 4개를 제외한 37개 대상으로 비교·분석함
- 돼지열병으로 인한 미개최 축제(4개) : 강경젓갈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안성맛춤사당바우덕이축제

## ■ 방문객 만족도 분석 대상 : 37개

- 2019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37개 축제를 분석에 반영함

## ■ 방문객 소비지출 분석 대상 : 37개

- 2019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37개 축제를 분석에 반영함

## [종합분석 대상축제 (가나다 순)]

만족도 (37개)	소비지출 (37개)
강진청자축제, 강릉커피축제, 고령대기야축제, 고창모양성제, 괴산고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전통찹사발축제, 밀양아리랑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서동연꽃축제, 수원화성문화축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영덕대게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원주와일드푸드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임실N치즈축제, 정남진장홍물축제, 제주돌불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추억의충장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송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포항불빛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축제, 횡성한우축제	강진청자축제, 강릉커피축제, 고령대기야축제, 고창모양성제, 괴산고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전통찹사발축제, 밀양아리랑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서동연꽃축제, 수원화성문화축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영덕대게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원주와일드푸드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임실N치즈축제, 정남진장홍물축제, 제주돌불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추억의충장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송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포항불빛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축제, 횡성한우축제

## (2) 대상축제 유형 구분

- 2019년 문화관광축제는 전통역사형, 문화예술형, 지역특산물형, 자연생태형, 주민화합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8년에 비해 지역특산물형, 주민화합형 축제 비율은 증가한 반면, 전통역사형 축제의 비율은 감소함

### ■ 전통역사 유형 : 7개

- 강진청자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고창모양성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해미읍성축제

### ■ 문화예술 유형 : 10개

- 밀양아리랑대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추억의 충장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평창효석문화제

### ■ 지역특산물 유형 : 14개

- 강경젓갈축제, 강릉커피축제, 괴산고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순창장류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영덕대게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임실N치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횡성한우축제

### ■ 자연생태 유형 : 6개

- 봉화은어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서동연꽃축제, 시흥갯골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평창송어축제

### ■ 주민화합 유형 : 4개

- 대구치맥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제주들불축제, 포항불빛축제

[유형별 축제 현황]

구분	전통역사형	문화예술형	지역특산물형	자연생태형	주민화합형	계
2019년	7개 (17.0%)	10개 (24.5%)	14개 (34.0%)	6개 (14.5%)	4개 (10%)	41개 (100.0%)
2018년	10개 (25.0%)	10개 (25.0%)	11개 (27.5%)	6개 (15.0%)	3개 (7.5%)	40개 (100.0%)

[2019 문화관광축제 유형별 현황]

축제명칭	유효표본(매)	유형	축제명칭	유효표본(매)	유형
강경젓갈축제	-	지역특산물	여주오곡나루축제	-	지역특산물
강릉커피축제*	373	지역특산물	영덕대게축제*	391	지역특산물
강진청자축제	459	전통역사	영암왕인문화축제	514	문화예술
고령대가야축제	339	전통역사	원주와일드푸드축제	215	지역특산물
고창모양성제	211	전통역사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	433	문화예술
괴산고추축제	323	지역특산물	음성품바축제	317	문화예술
담양대나무축제	516	지역특산물	이천쌀문화축제	-	지역특산물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274	전통역사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488	문화예술
대구차맥페스티벌*	776	주민회합	임실N치즈축제	210	지역특산물
무주반딧불축제	218	자연생태	정남진장흥물축제	513	주민회합
문경찰사발축제	707	전통역사	제주들불축제	453	주민회합
밀양아리랑대축제	255	문화예술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456	자연생태
보성다향대축제	489	지역특산물	추억의충장축제	353	문화예술
봉화은어축제	368	자연생태	춘천마임축제	613	문화예술
부여서동연꽃축제	462	자연생태	통영한산대첩축제	270	전통역사
산청한방약초축제	437	지역특산물	평창효석문화제	288	문화예술
서산해미읍성축제	444	전통역사	평창송어축제*	515	자연생태
수원화성축제	328	문화예술	포항국제불빛축제*	289	주민회합
순창장류축제	211	지역특산물	한산모시문화제	356	지역특산물
시흥갯골축제	291	자연생태	횡성한우축제*	271	지역특산물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 제	-	문화예술	41개		

주1: \* 신규축제

주2: 돼지열병으로 인한 미개최 축제(4개)는 강경젓갈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임

### (3) 평가항목

- 축제방문객들의 만족도와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전체 평균값과 대비시켜 각 축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함
- 2019년에는 만족도 평가항목 10개, 소비지출 평가항목 6개의 2018년에 사용한 측정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만족도의 경우 7단계 측정(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을 적용하여 분석함

[2019 문화관광축제 만족도 및 소비지출 평가항목]

구 분	설 문 내 용
만족도	1 이 축제가 재미있다
	2 축제 관련 프로그램이 좋다
	3 축제 관련 먹거리가 좋다
	4 축제 관련 살거리가 좋다
	5 축제 관련 사전 홍보가 잘 되었다
	6 축제장 내 안내·해설이 좋다
	7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 됐다
	8 축제장 시설이 안전해 보였다
	9 축제장의 접근성 및 주차장이 좋다
	10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방문을 유도하겠다
소비지출	교통비(주유비, 주차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등)
	숙박비(민박, 호텔, 모텔, 펜션, 콘도 등)
	식음료비(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음식값, 음료비)
	유형비(축제장 밖에서 지출한 관람료, 노래방, 술값 등)
	쇼핑비(축제 기념품, 농특산물 구입비 등)
	기타(체험비, 입장료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비용)

## (4) 분석방법

### ■ 축제 방문객 만족도

- 방문객 만족도는 연도별·항목별·등급별·유형별·축제별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을 추진함
- 연도별 만족도의 경우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관광축제 전체에 대한 평균만족도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10개의 만족도 측정항목이 동일하게 측정된 2018년도와 2019년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함
- 축제 등급별 만족도는 문화관광축제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2018년도와 2019년도 등급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각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등급 간 비교를 실시함
- 축제 유형별 만족도는 지역축제 총괄표의 축제종류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및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축제 유형별 비교분석을 실시함
- 축제별 만족도는 2019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37개 축제 각각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함

### ■ 축제 방문객 소비지출

- 방문객 소비지출은 연도별·항목별·등급별·유형별·축제별 소비지출로 구분하여 분석을 추진함
  - 연도별 소비지출의 경우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으며, 항목별 소비지출은 6개의 소비지출 항목 중 교통비를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해 최근 3년 평균 소비지출과 2019년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함
  -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은 문화관광축제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은 지역축제 총괄표의 축제종류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축제유형에 따른 항목별 소비지출을 비교함
  - 축제별 소비지출은 2019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37개의 축제 전체를 대상으로 항목별 소비지출과 전체 소비지출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함
- ※ 2018년과 비교하지 아니하는 등급별·유형별·축제별 소비지출 분석은 기존 지자체에서 조사한 교통비를 포함하여 6개 항목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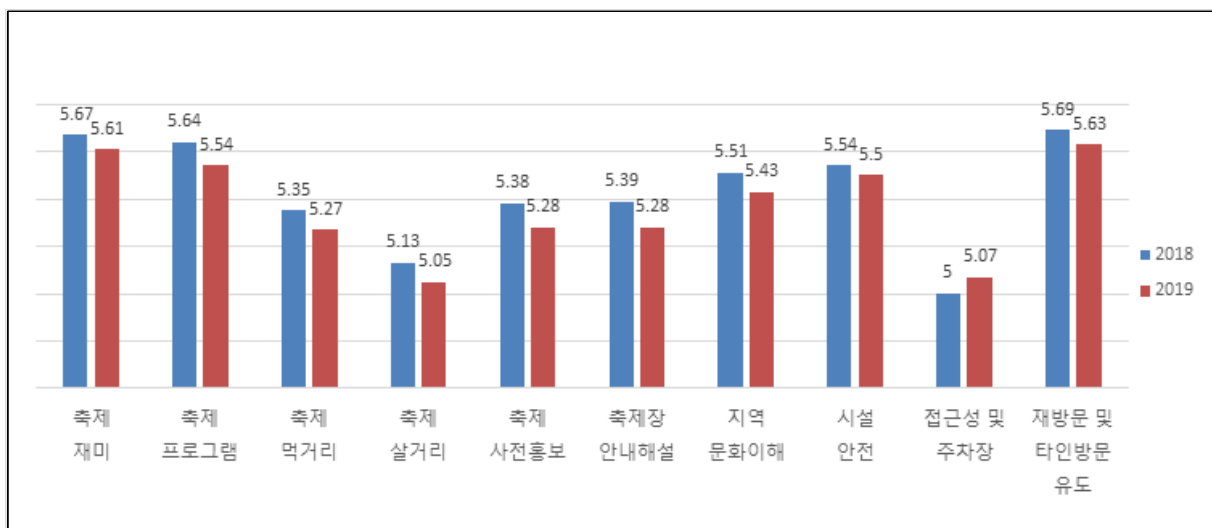


## (2) 항목별 만족도

- 2019년 만족도 중 가장 높은 항목은 「재방문 및 타인방문유도」로 5.63점(7.0만점)을 기록함
  - 그 다음으로 「축제재미」 5.61점, 「축제프로그램」 5.54점, 「축제시설안전」 5.51점, 「지역문화 이해」 5.4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가장 낮은 항목은 「축제 살거리」이 5.05점을 기록함
  - 그 다음으로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5.06점, 「축제먹거리」 5.27점, 「축제사전홍보」와 「축제장 안내해설」 5.28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가 5.63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인 축제 방문 및 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분석됨
- 축제 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 재미」와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가 각각 5.61점, 5.54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문화관광축제가 방문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으로 판단됨

[2019 문화관광축제 항목별 만족도]

항목 연도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 먹거리	축제 살거리	축제 사전홍보	축제장 안내해설	지역 문화이해	시설 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2018년	5.67	5.64	5.35	5.13	5.38	5.39	5.51	5.54	5.00	5.69
2019년	5.61	5.54	5.27	5.05	5.28	5.28	5.43	5.51	5.06	5.63



[문화관광축제 항목별 만족도 비교(2018, 2019년)]

### (3) 축제 등급별 만족도

-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는 대표축제 3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1개를 선정하여 지원·추진함
-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부합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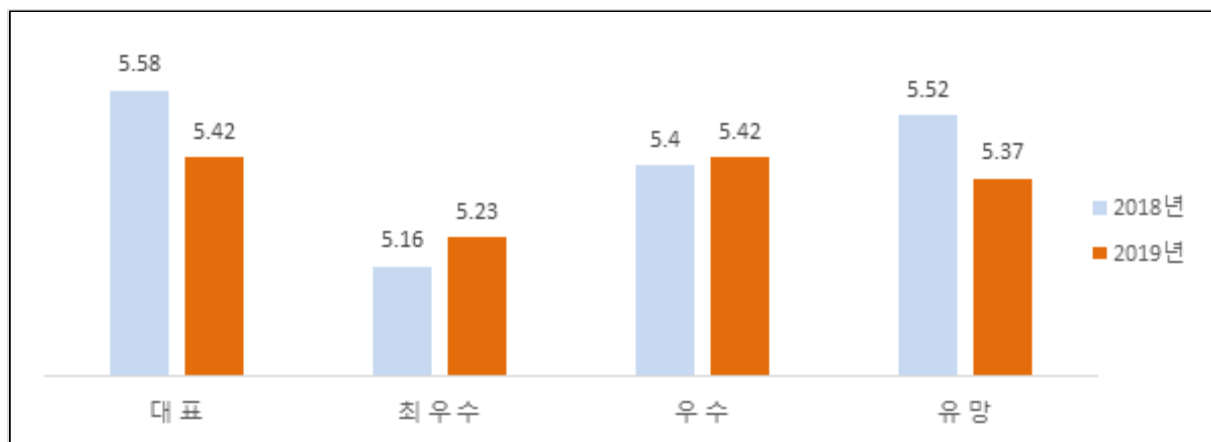
#### ■ 대표축제가 가장 높은 만족도 보임

- 등급별 만족도 평균에서는 대표축제 5.42점, 최우수축제 5.23점, 우수축제 5.42점, 유망축제 5.37점으로 나타나 이 중, 대표축제와 우수축제가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2018년에는 대표축제가 가장 높았고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19년에는 대표축제/우수축제, 유망축제, 최우수축제 순으로 높게 분석됨
  -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최우수축제의 관광객 만족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 전년대비 등급별 만족도

- 2019년 최우수축제, 우수축제의 만족도는 전년대비 향상된 반면, 대표축제, 유망축제의 만족도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 \ 등급	대 표	최 우수	우 수	유 망
2018년	5.58	5.16	5.40	5.52
2019년	5.42	5.23	5.42	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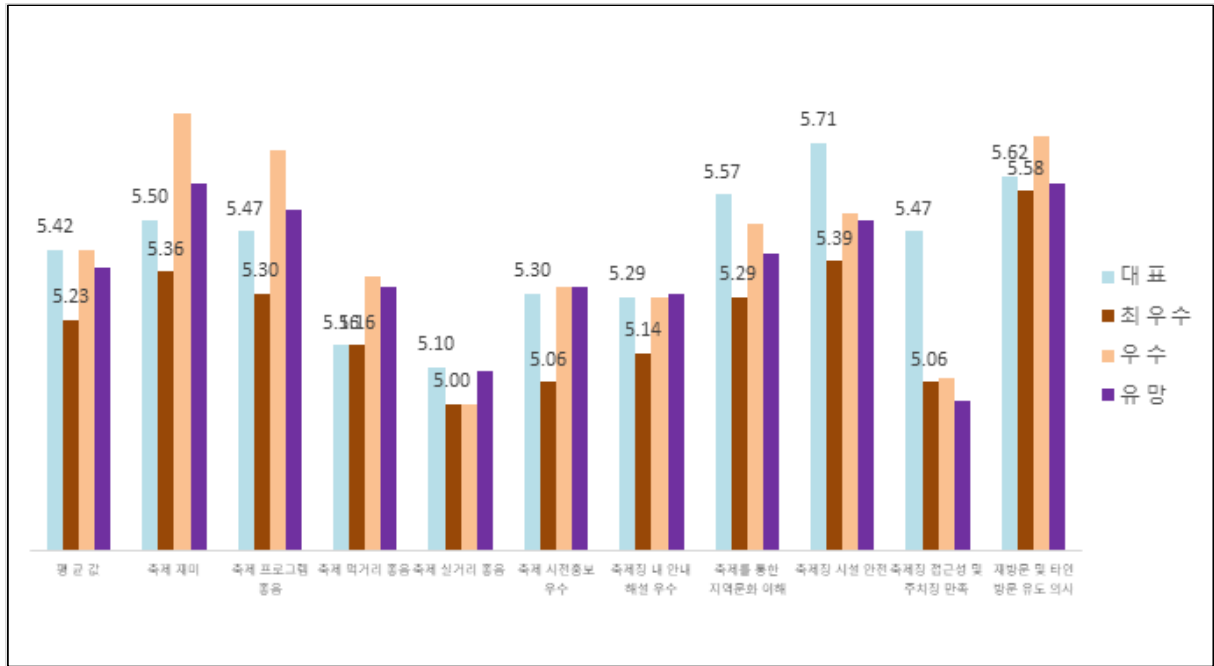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만족도 비교(2018, 2019년)]

### ■ 등급별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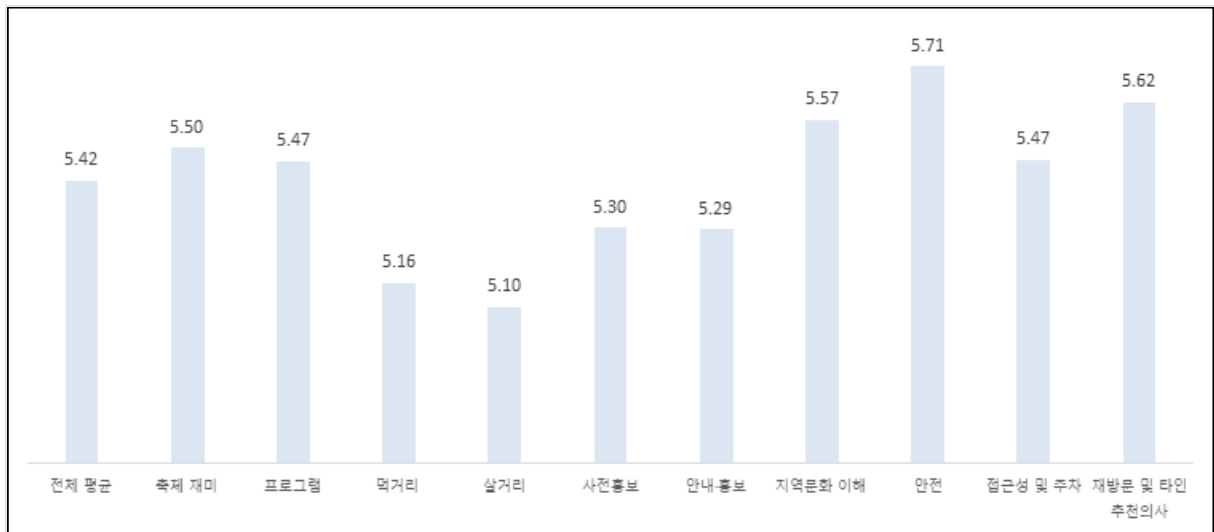
- 대표축제
  - 대표축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축제장 시설 안전(5.71)」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항목은 「축제 살거리(5.10)」로 분석됨
- 최우수축제
  - 최우수축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5.58)」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항목은 「축제 살거리(5.00)」로 분석됨
- 우수축제
  - 우수축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축제 재미(5.79)」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항목은 「축제 살거리(5.00)」로 분석됨
- 유망축제
  - 유망축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축제 재미/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5.60)」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항목은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5.01)」으로 분석됨

[2019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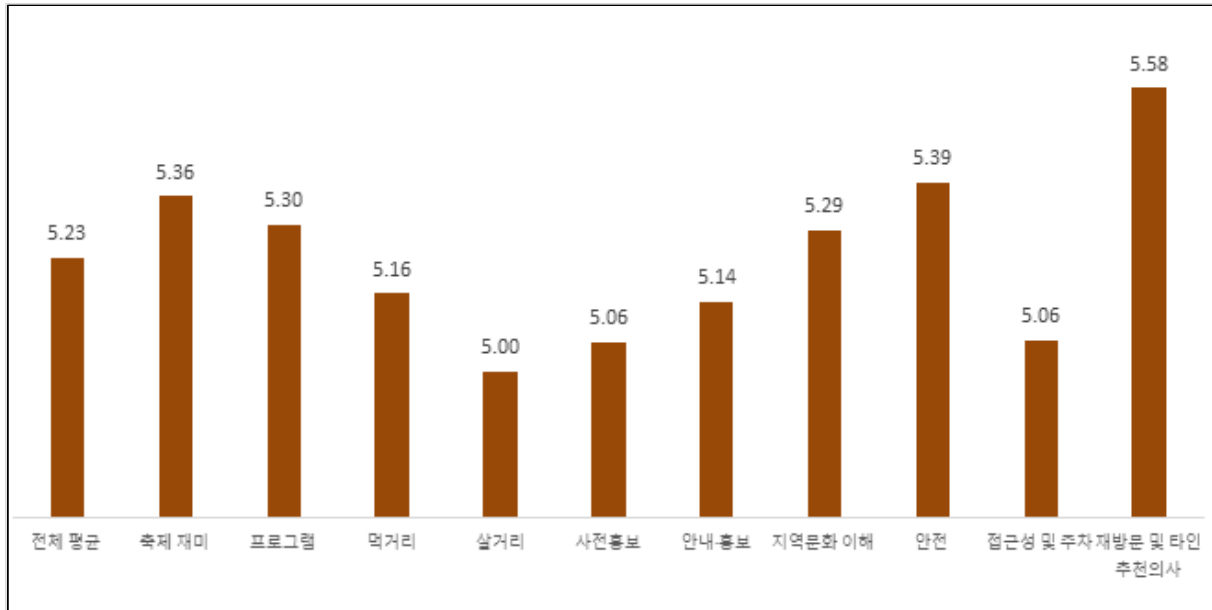
항목 \ 등급	대 표	최 우수	우 수	유 망
<b>평균 값</b>	5.42	5.23	5.42	5.37
축제 재미	5.50	5.36	5.79	5.60
축제 프로그램 좋음	5.47	5.30	5.69	5.53
축제 먹거리 좋음	5.16	5.16	5.35	5.32
축제 살거리 좋음	5.10	5.00	5.00	5.09
축제 사전홍보 우수	5.30	5.06	5.32	5.32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5.29	5.14	5.29	5.30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5.57	5.29	5.49	5.41
축제장 시설 안전	5.71	5.39	5.52	5.50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5.47	5.06	5.07	5.01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5.62	5.58	5.73	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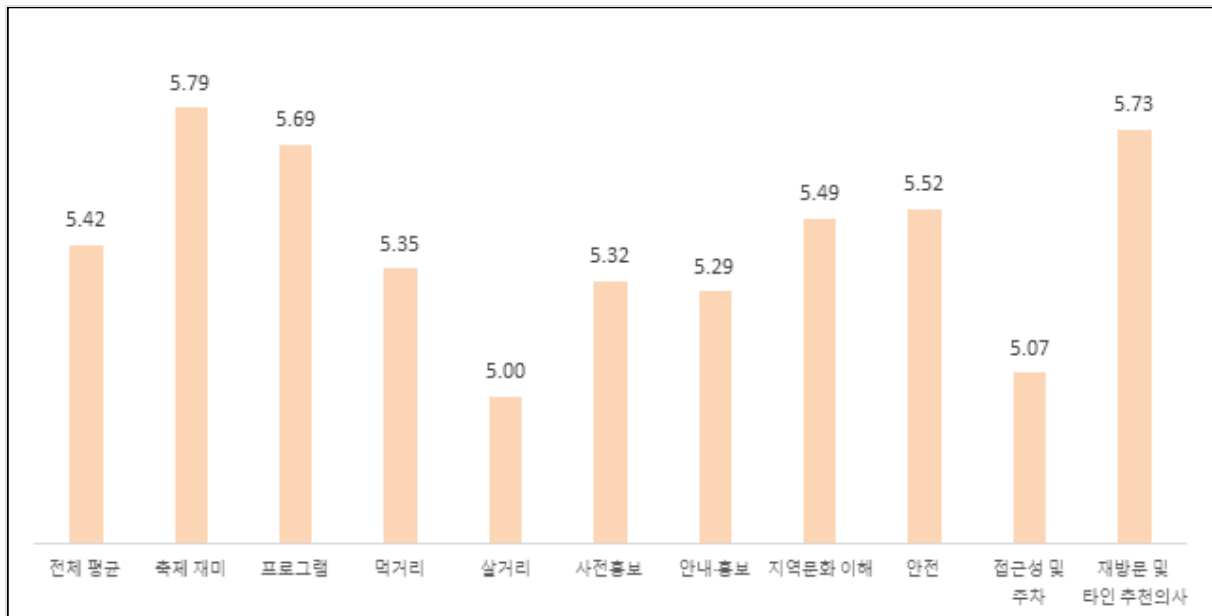
[2019년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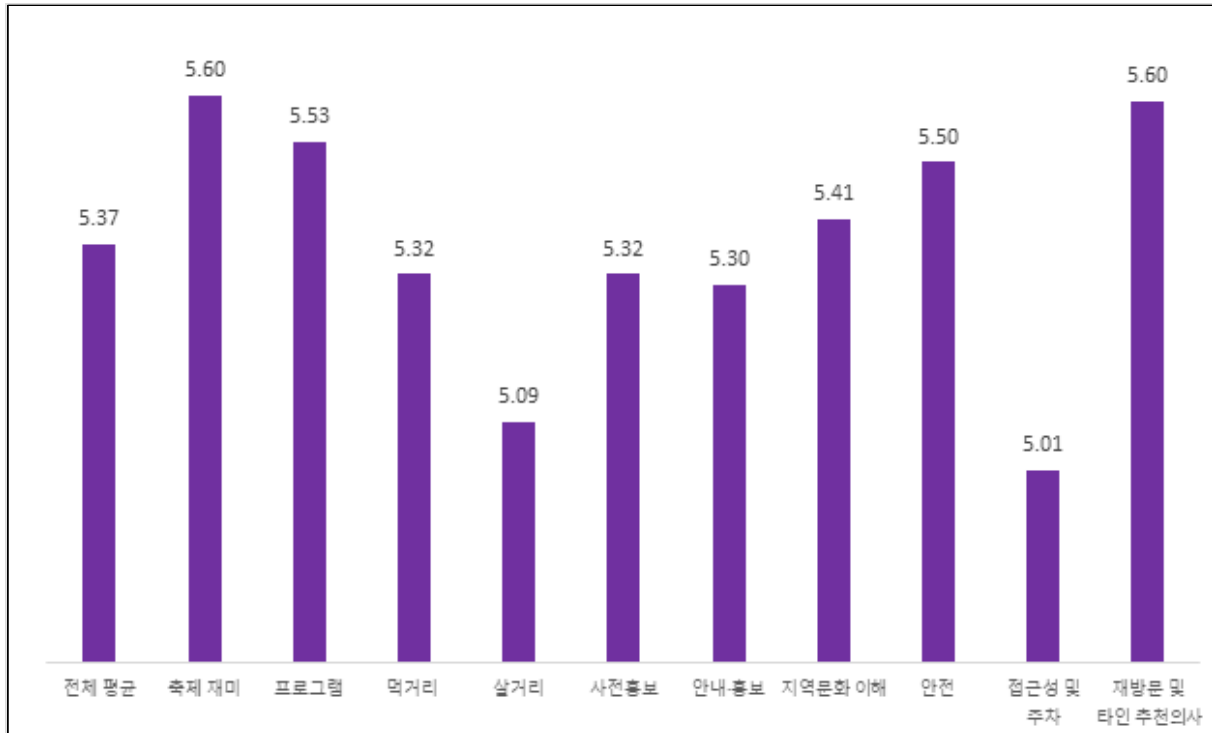
[2019년 대표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2019년 최우수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2019년 우수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2019년 유망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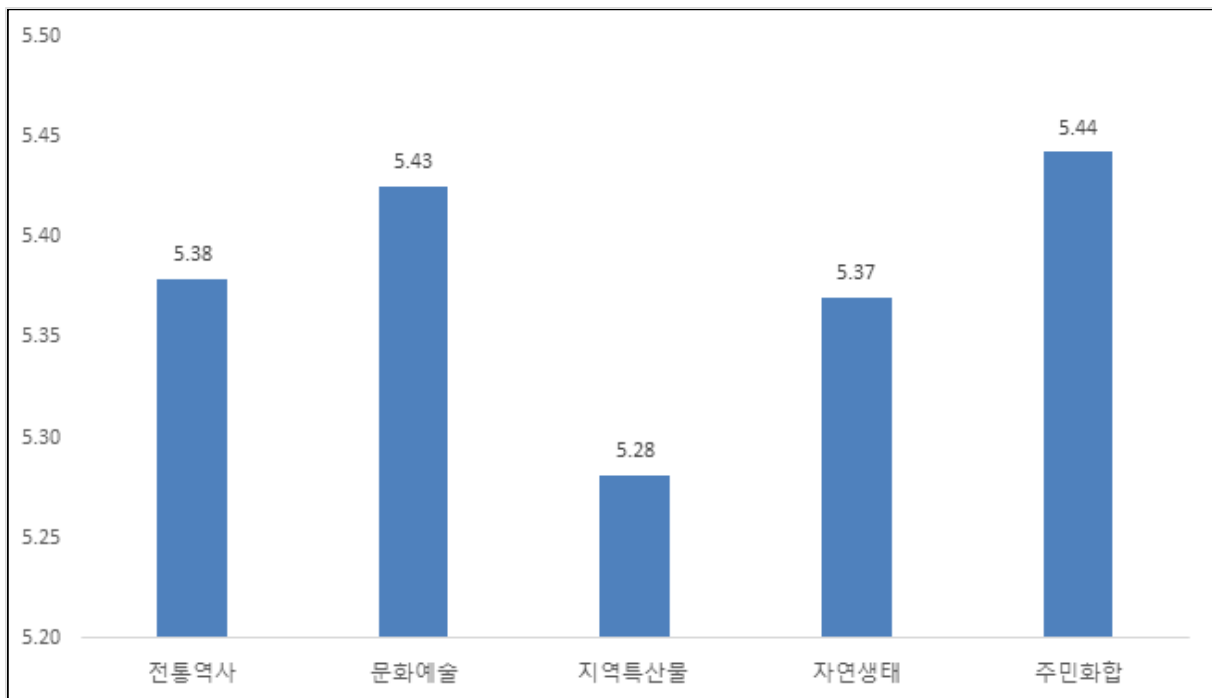
#### (4) 축제 유형별 만족도

##### ■ 축제 유형별 현황

- 2019년 문화관광축제의 유형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전통역사형, 문화예술형, 지역특산물형, 생태자연형, 주민화합형 축제로 구분함
  - 전통역사형 : 7개
  - 문화예술형 : 10개
  - 지역특산물형 : 14개
  - 자연생태형 : 6개
  - 주민화합형 : 4개

##### ■ 주민화합형 축제가 높은 만족도 보임

- 축제 유형별로 전반적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주민화합형이 5.4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문화예술형 5.43점, 전통역사 5.38점, 자연생태 5.37점, 지역특산물형 5.28점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 문화예술형 5.64점, 자연생태형 5.48점, 지역특산물형 5.38점, 전통역사형 5.34점, 주민화합형 5.11점 순



[2019년 문화관광축제 축제 유형별 전반적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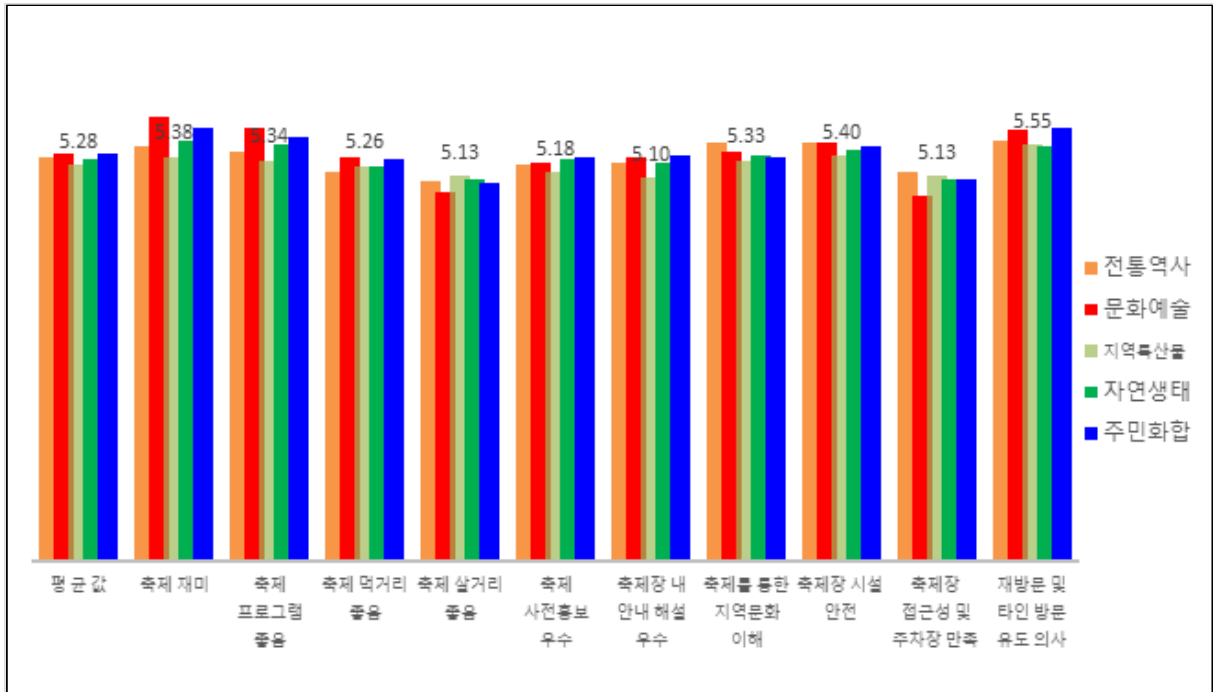


■ 항목별로 축제유형에 따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들이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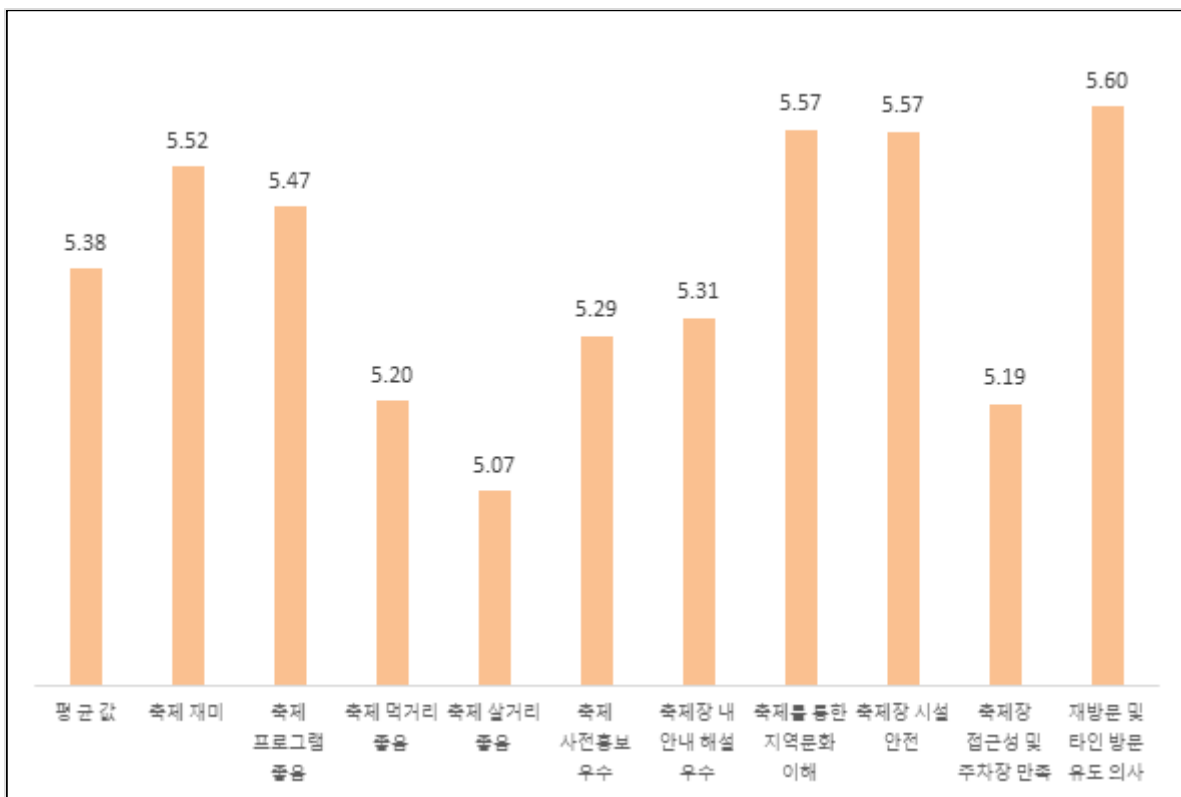
- 유형별로 만족도가 5.40점 이상이 되는 항목
  - 전통역사형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지역문화의 이해」, 「축제시설안전」,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항목
  - 문화예술형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지역문화이해」, 「축제시설안전」, 「축제 시설 안전」,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항목
  - 지역특산물형 : 「축제 시설안전」,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항목
  - 자연생태형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지역문화이해」, 「축제시설안전」,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항목
  - 주민화합형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축제시설안전」,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항목
  
- 세부항목별 축제유형에 따른 만족도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각의 축제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5.40점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축제유형 구분이 적절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냄
  - 5.40점 기준은 2018년 문화관광축제 유형별 만족도 기준과 동일

[2019 문화관광축제 유형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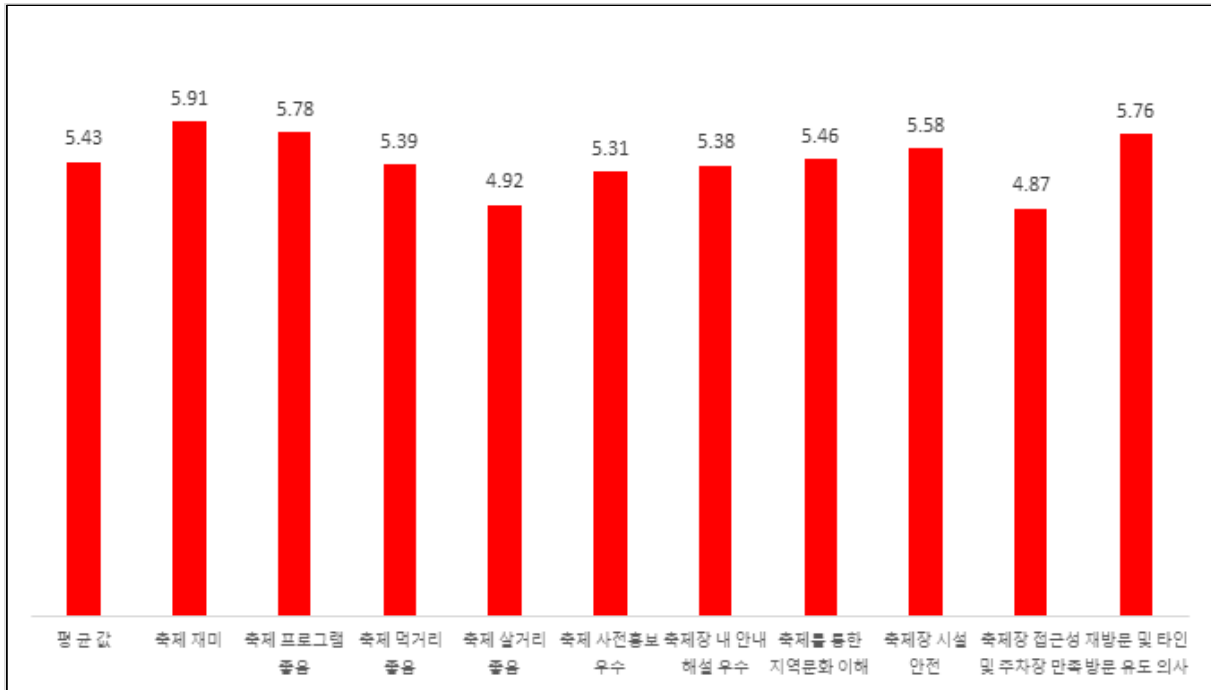
구 분	전통역사형	문화예술형	지역특산물형	자연생태형	주민화합형
<b>평균 값</b>	<b>5.38</b>	<b>5.43</b>	<b>5.28</b>	<b>5.37</b>	<b>5.44</b>
축제 재미	5.52	5.91	5.38	5.59	5.78
축제 프로그램 좋음	5.47	5.78	5.34	5.55	5.66
축제 먹거리 좋음	5.20	5.39	5.26	5.27	5.37
축제 살거리 좋음	5.07	4.92	5.13	5.09	5.05
축제 사전홍보 우수	5.29	5.31	5.18	5.36	5.39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5.31	5.38	5.10	5.31	5.41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5.57	5.46	5.33	5.42	5.39
축제장 시설 안전	5.57	5.58	5.40	5.48	5.53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5.19	4.87	5.13	5.09	5.09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5.60	5.76	5.55	5.54	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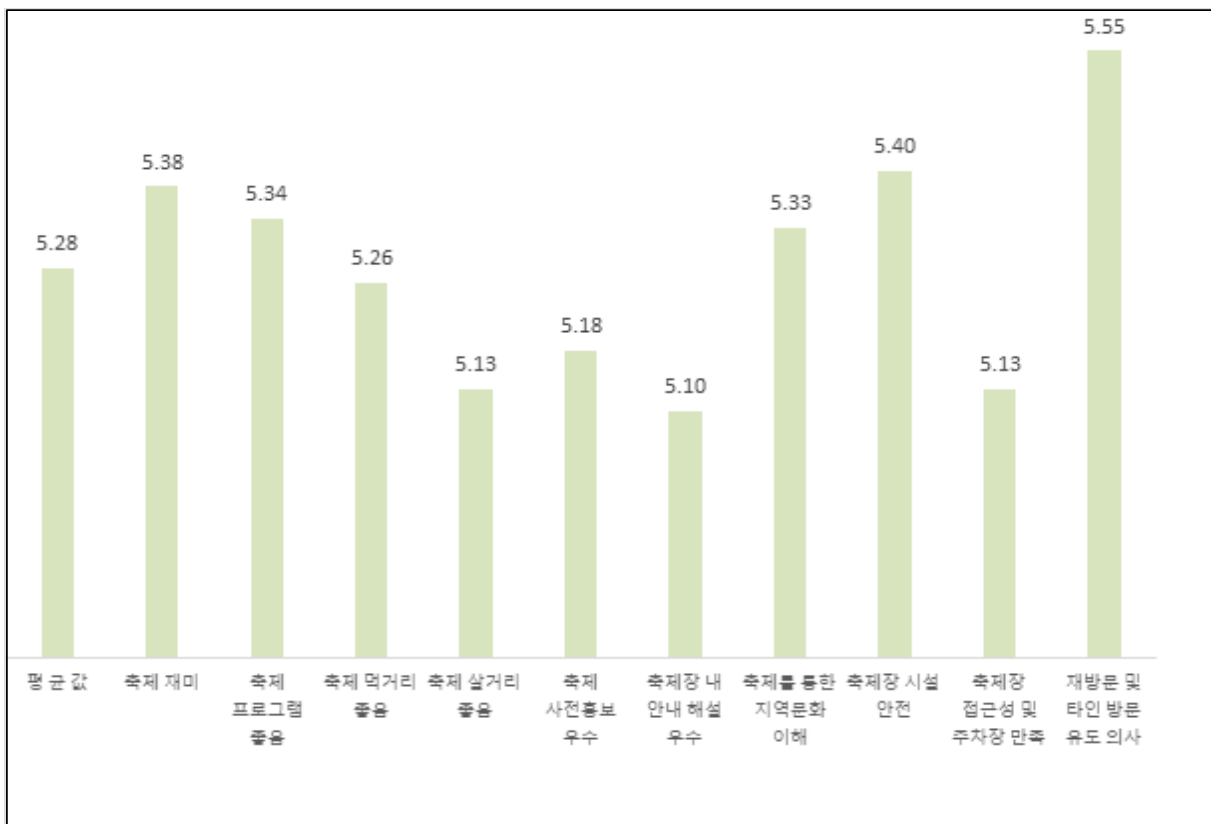
[2019년 문화관광축제 축제유형별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전통역사형 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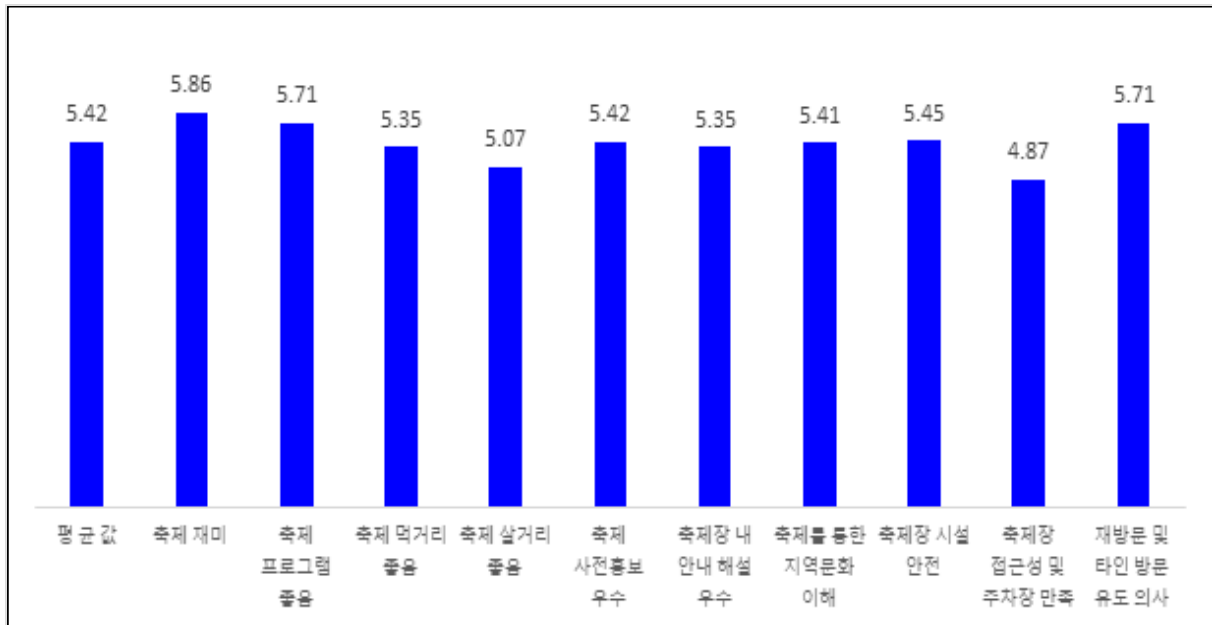
[문화예술형 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지역특산물형 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자연생태형 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주민화합형 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 (5) 축제별 만족도 비교

- 축제별 방문객 만족도는 각 축제별 주최 측이 제출한 자체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써, 축제마다 서로 다른 평가기관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축제 간 우열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각 축제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관광 축제의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 축제별 만족도 비교 대상 : 41개 축제
  - 대표축제 : 3개 축제
  - 최우수축제 : 7개 축제
  - 우수축제 : 10개 축제
  - 유망축제 : 21개 축제
- ※ 돼지열병으로 인해 4개 축제(강경젓갈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안성맛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미개최됨

### ■ 대표축제 만족도 비교

축제 등급		대표축제			
항목	전체평균	무주 반딧불축제	문경 찻사발축제	산청한방 약초축제	평균
전체만족도	5.37	5.56	5.19	5.50	5.42
축제재미	5.61	5.71	5.27	5.52	5.50
프로그램	5.54	5.68	5.19	5.53	5.47
먹거리	5.29	5.43	4.78	5.26	5.16
살거리	5.05	5.22	4.77	5.30	5.10
사전홍보	5.28	5.48	5.12	5.29	5.30
안내해설	5.28	5.57	5.08	5.23	5.29
지역문화	5.43	5.70	5.46	5.55	5.57
시설안전	5.50	5.80	5.51	5.81	5.71
접근성/주차장	5.07	5.23	5.21	5.97	5.47
재방문/추천의사	5.63	5.79	5.49	5.57	5.62

### ■ 최우수축제 만족도 비교

축제 등급		최우수축제							
항목	전체 평균	추억의 충장	이천쌀 문화	안성 바우덕이	담양 대나무	신비의바닷길	보성 다향대	제주들불	평균
전체만족도	5.37	5.48	--	--	5.04	5.14	5.04	5.48	5.23
축제재미	5.61	5.72	--	--	5.12	5.15	5.15	5.65	5.36
프로그램	5.54	5.66	--	--	5.13	5.07	5.07	5.57	5.30
먹거리	5.29	5.48	--	--	5.04	4.96	4.74	5.58	5.16
살거리	5.05	5.19	--	--	4.77	4.91	4.76	5.37	5.00
사전홍보	5.28	5.55	--	--	4.89	4.95	4.87	5.04	5.06
안내해설	5.28	5.31	--	--	4.93	4.93	5.00	5.54	5.14
지역문화	5.43	5.35	--	--	5.17	5.31	5.11	5.50	5.29
시설안전	5.50	5.61	--	--	5.21	5.33	5.25	5.53	5.39
접근성/주차장	5.07	4.98	--	--	4.81	5.36	5.02	5.15	5.06
재방문/추천의사	5.63	5.91	--	--	5.30	5.41	5.46	5.82	5.58

### ■ 우수축제 만족도 비교

축제 등급		우수축제					평균
항목	전체평균	수원화성 문화제	시흥 갯골축제	평창 효석문화제	댄싱카니발	춘천 마임축제	
전체만족도	5.37	5.33	5.07	5.54	5.66	5.48	5.42
축제재미	5.61	5.88	5.36	5.92	6.24	6.19	5.79
프로그램	5.54	5.78	5.38	5.66	6.11	6.04	5.69
먹거리	5.29	4.64	4.90	5.57	5.93	6.16	5.35
살거리	5.05	4.60	4.78	5.11	5.22	4.79	5.00
사전홍보	5.28	5.29	5.12	5.06	5.85	5.10	5.32
안내해설	5.28	5.43	4.98	5.22	5.53	5.34	5.29
지역문화	5.43	5.72	5.14	5.73	5.52	5.44	5.49
시설안전	5.50	5.67	5.19	5.66	5.66	5.39	5.52
접근성/주차장	5.07	4.48	4.46	5.53	4.57	5.54	5.07
재방문/추천의사	5.63	5.77	5.35	5.94	5.94	5.80	5.73

〈표 계속〉

축제 등급		우수축제					
항목	전체평균	임실 N치즈축제	강진청자 축제	정남진 장흥물축제	봉화은어 축제	한산대첩 축제	평균
전체만족도	5.37	5.50	5.51	5.19	5.48	5.40	5.42
축제재미	5.61	5.69	5.71	5.50	5.87	5.58	5.79
프로그램	5.54	5.60	5.61	5.38	5.81	5.56	5.69
먹거리	5.29	5.53	5.21	4.95	5.45	5.18	5.35
살거리	5.05	5.33	5.17	4.85	5.10	5.05	5.00
사전홍보	5.28	5.40	5.43	5.15	5.46	5.32	5.32
안내해설	5.28	5.16	5.35	5.09	5.41	5.38	5.29
지역문화	5.43	5.54	5.60	5.21	5.52	5.49	5.49
시설안전	5.50	5.49	5.69	5.31	5.61	5.48	5.52
접근성/주차장	5.07	5.42	5.66	4.88	4.91	5.21	5.07
재방문/추천의사	5.63	5.86	5.70	5.62	5.66	5.70	5.73

■ 유망축제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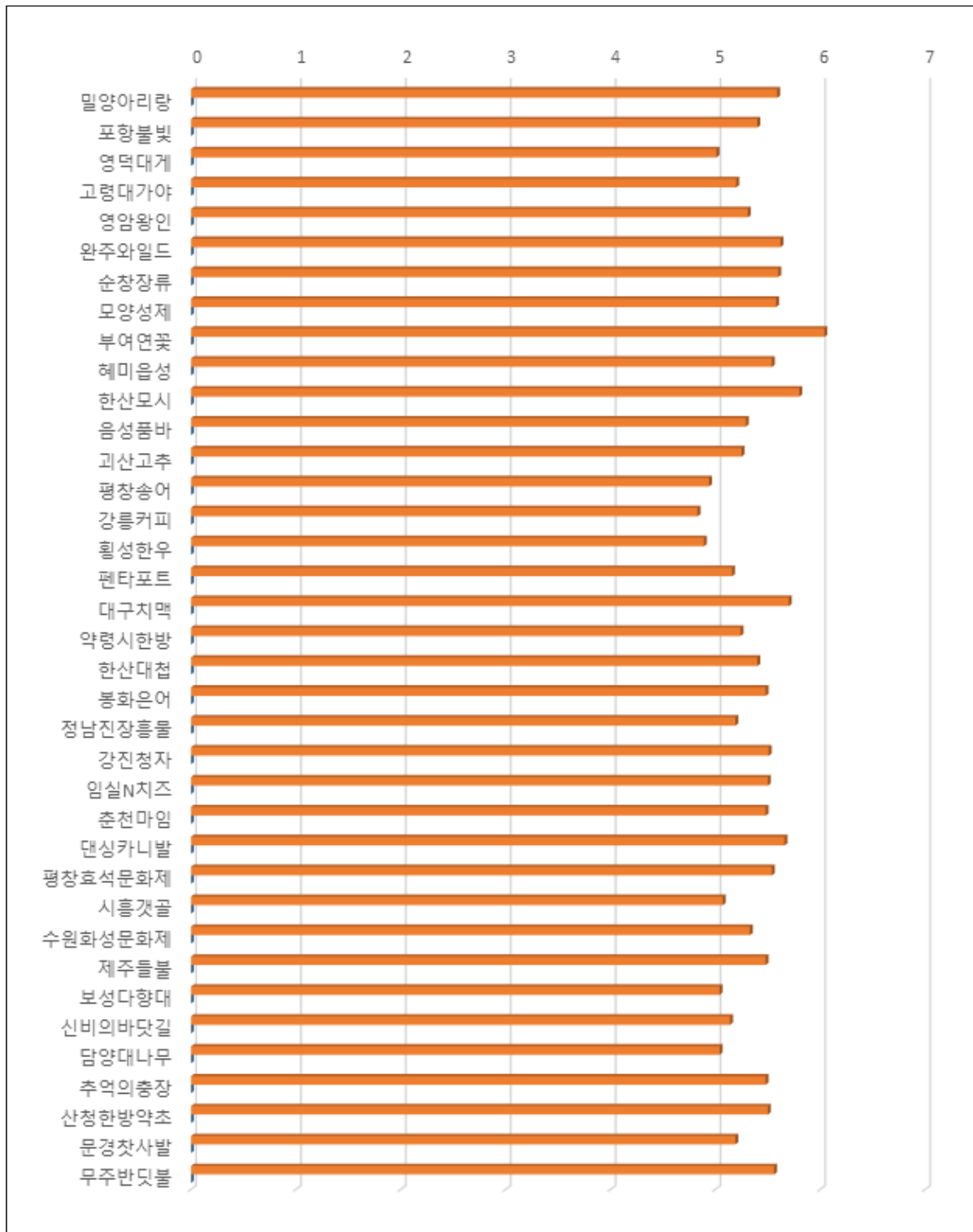
축제 등급		유망축제							
항목	전체 평균	약령시 한방	대구 차맥	펜타 포트	여주 오곡	횡성 한우	강릉 커피	평창 송어	평균
전체만족도	5.37	5.24	5.70	5.16	--	4.89	4.83	4.94	5.37
축제재미	5.61	5.36	6.00	6.07	--	4.76	5.00	5.32	5.60
프로그램	5.54	5.28	5.90	5.61	--	4.84	4.97	5.23	5.53
먹거리	5.29	5.06	5.60	4.79	--	5.02	4.58	5.06	5.32
살거리	5.05	5.10	4.90	4.33	--	4.93	4.69	4.67	5.09
사전홍보	5.28	5.13	5.90	4.78	--	4.94	4.70	5.11	5.32
안내해설	5.28	5.25	5.70	5.54	--	4.84	4.56	4.92	5.30
지역문화	5.43	5.47	5.40	4.52	--	4.84	4.72	4.67	5.41
시설안전	5.50	5.47	5.90	5.64	--	4.96	5.00	4.81	5.50
접근성/주차장	5.07	4.79	5.70	4.76	--	4.63	4.84	4.72	5.01
재방문/추천의사	5.63	5.44	6.00	5.58	--	5.16	5.28	4.87	5.60

〈표 계속〉

축제 등급		유망축제							
항목	전체 평균	과산 고추	음성 품바	한산 모시	해미 읍성	강경 젓갈	부여 연꽃	모양 성제	평균
전체만족도	5.37	5.25	5.29	5.80	5.54	-	6.04	5.58	5.37
축제재미	5.61	5.34	5.91	6.06	5.66	-	6.15	5.76	5.60
프로그램	5.54	5.33	5.79	6.00	5.69	-	6.13	5.75	5.53
먹거리	5.29	5.11	5.09	5.96	5.68	-	5.83	5.40	5.32
살거리	5.05	5.24	4.80	5.54	5.27	-	5.84	5.18	5.09
사전홍보	5.28	5.15	5.31	5.66	5.44	-	6.02	5.44	5.32
안내해설	5.28	5.23	5.12	5.48	5.53	-	6.03	5.45	5.30
지역문화	5.43	5.40	5.59	5.90	5.76	-	6.16	5.86	5.41
시설안전	5.50	5.46	5.56	5.86	5.64	-	6.16	5.73	5.50
접근성/주차장	5.07	4.64	4.18	5.57	5.01	-	5.87	5.41	5.01
재방문/추천의사	5.63	5.56	5.53	5.98	5.73	-	6.16	5.83	5.60

축제 등급		유망축제							
항목	전체 평균	순창 장류	완주 와일드	영암 왕인	고령 대가야	영덕 대게	포항 불빛	밀양 아리랑	평균
전체만족도	5.37	5.60	5.62	5.31	5.20	5.01	5.40	5.59	5.37
축제재미	5.61	5.79	5.78	5.36	5.31	4.98	5.95	5.92	5.60
프로그램	5.54	5.69	5.71	5.43	5.18	4.89	5.77	5.92	5.53
먹거리	5.29	5.71	5.72	5.31	5.06	5.21	5.34	5.55	5.32
살거리	5.05	5.56	5.47	4.96	4.96	4.85	5.08	5.25	5.09
사전홍보	5.28	5.54	5.48	5.27	5.13	5.04	5.46	5.58	5.32
안내해설	5.28	5.38	5.47	5.26	5.14	4.86	5.30	5.69	5.30
지역문화	5.43	5.76	5.59	5.36	5.37	5.06	5.44	5.89	5.41
시설안전	5.50	5.56	5.61	5.44	5.47	5.20	5.37	5.63	5.50
접근성/주차장	5.07	5.28	5.54	5.02	5.05	4.73	4.64	4.78	5.01
재방문/추천의사	5.63	5.73	5.85	5.64	5.34	5.30	5.65	5.70	5.60





[2019년 문화관광축제 축제별 전체 만족도 비교]

## 4

## 방문객 소비지출 결과 종합

## (1) 전제

- 2019년 축제 소비지출 분석에서는 응답자들의 교통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에 이어 지자체에서 조사한 교통비 항목을 포함하여 분석함
  - 2016년까지 교통비 항목을 제외한 이유 : 오류 발견
    - 원칙적으로 방문객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 교통비 항목은 축제를 개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기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총교통비용(거주지→경유지→축제장)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 ※ 단, 연도별 축제 소비지출 비교에서는 교통비 항목 제외(2016년까지 자료 없음)
  - 아울러, 각각의 설문조사기관에서 집계한 소비지출 금액이 너무나 큰 편차를 보임. 일부는 객관성이 다소 미흡한 수치들이 발견되므로,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숫자는 단순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 연도별 소비지출 변화

-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소비지출 금액은 1인당 52,365원으로써 전년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남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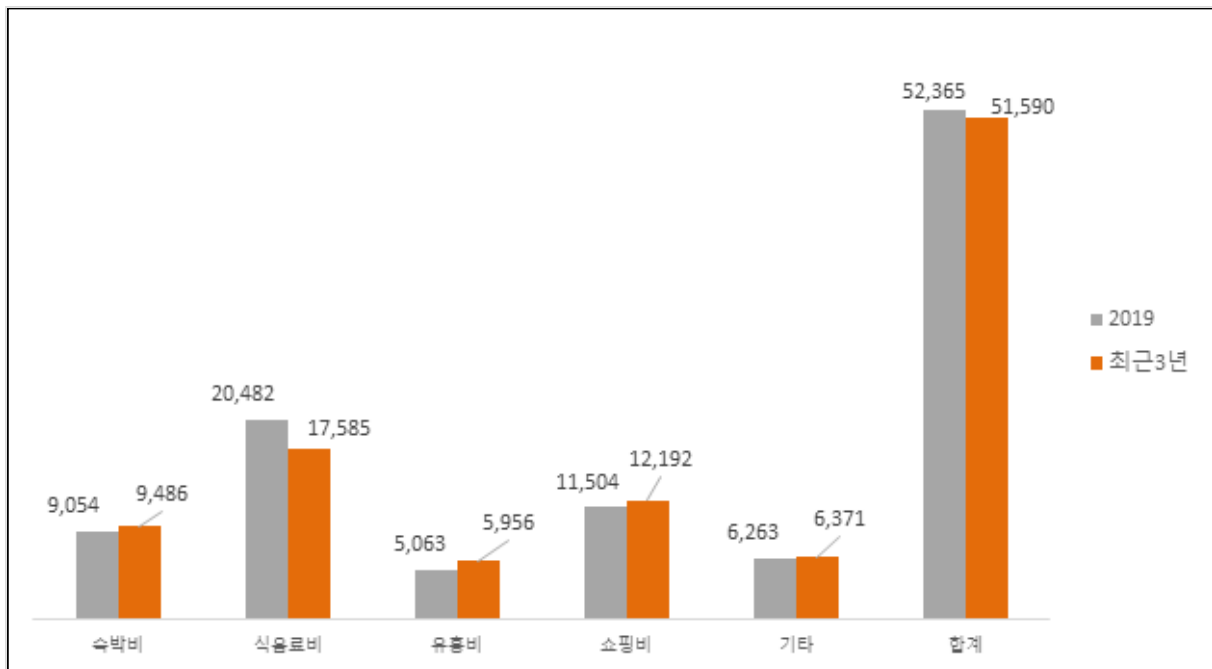
년 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2007	8,521	16,761	5,605	17,317	4,708	52,912
2008	7,707	15,128	5,150	14,876	5,393	48,254
2009	7,944	16,902	4,695	14,974	5,601	50,116
2010	8,712	16,163	4,777	14,846	4,112	48,610
2011	10,287	17,502	5,488	14,970	4,570	52,817
2012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2013	9,395	17,392	5,709	12,285	5,349	50,130
2014	11,135	21,099	5,548	13,233	5,445	56,460
2015	9,478	16,144	4,978	10,607	6,924	48,131
2016	9,688	16,987	6,140	13,275	5,833	51,923
2017	10,416	19,013	5,361	12,064	6,807	53,661
2018	8,354	16,756	6,368	11,236	6,472	49,186
최근 3년 평균	9,486	17,585	5,956	12,192	6,371	51,590
2019	9,054	20,482	5,063	11,504	6,263	52,365

### (3) 항목별 소비지출

- 2019년도 축제방문객의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식음료비가 39.0%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쇼핑비 22.0%, 숙박비 17.3%, 기타비 12.0%, 유흥비 9.7%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과 비교해 보면, 식음료비만 증가하고 나머지 숙박비·유흥비·쇼핑비·기타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식음료비 증가액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기 때문에 2019년 전체 소비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임
- 이에, 향후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제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숙박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특색 있는 지역 특산물 및 기념품 등 살거리의 개발이 요구됨

[2019 문화관광축제 항목별 소비지출 현황]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2019년	금 액 (원)	9,054	20,482	5,063	11,504	6,263	52,365
	구성비(%)	17.3	39.0	9.7	22.0	12.0	100.0%
최근 3년	금 액 (원)	9,486	17,585	5,956	12,192	6,371	51,590
	구성비(%)	18.4%	34.1%	11.5%	23.6%	1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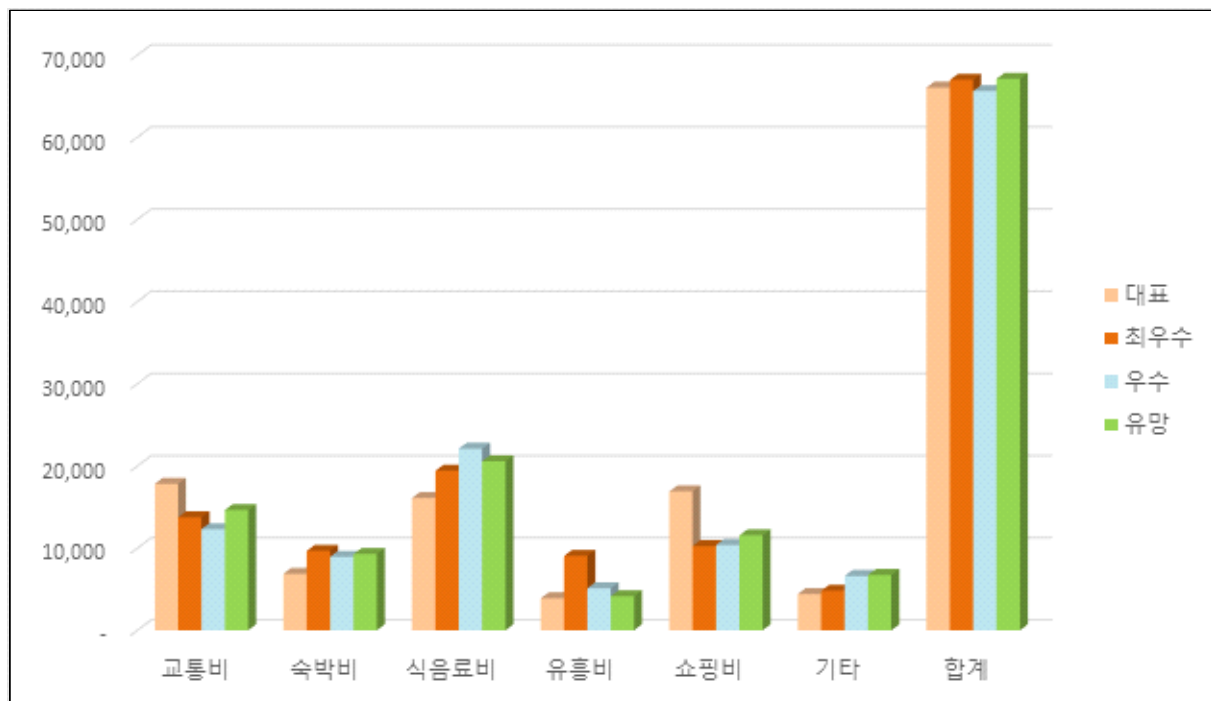
[2019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지출 세부항목 비교]

#### (4)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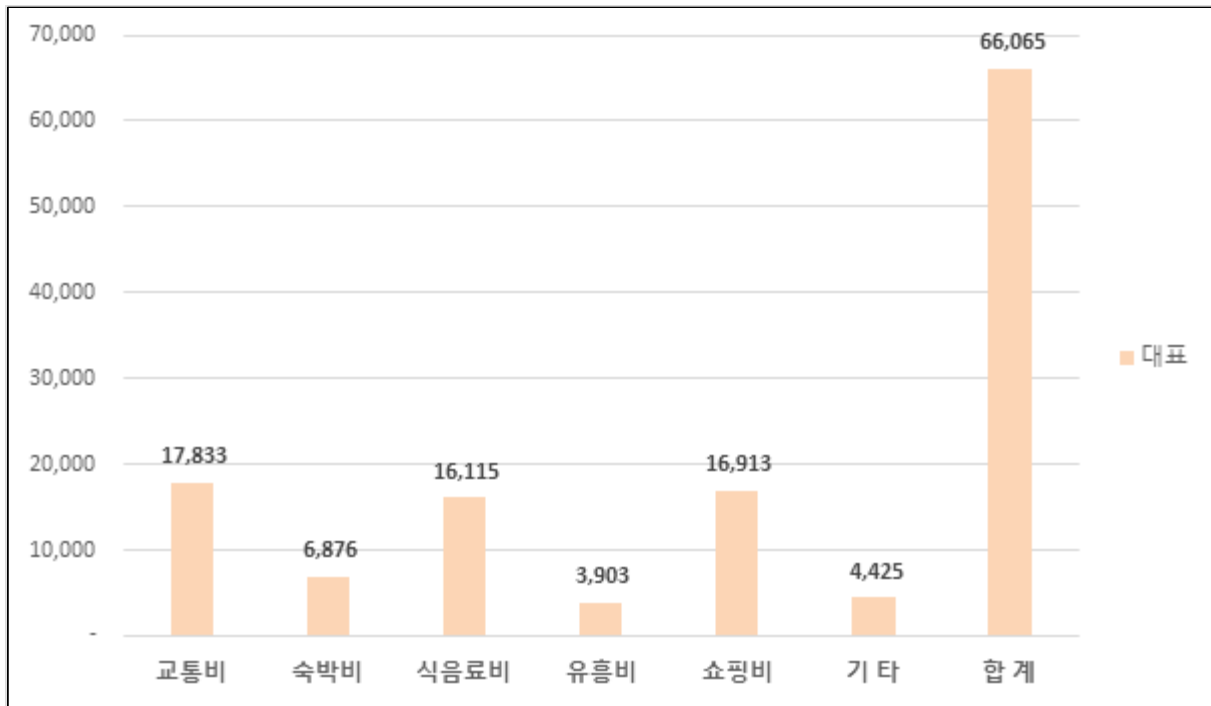
- 다른 년도와 소비지출을 비교했을 때는 자료 확보의 문제 및 데이터 오류성으로 인해 교통비를 제외하였으나, 2018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지출만을 분석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포함함
-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을 축제 등급별로 비교해 보면 최우수축제가 67,006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망축제 66,981원, 대표축제 66,065원, 우수축제 65,518원 순으로 나타남
- 등급별 소비항목별로 살펴보면, 모든 축제등급에서 식음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모든 축제등급에서 유희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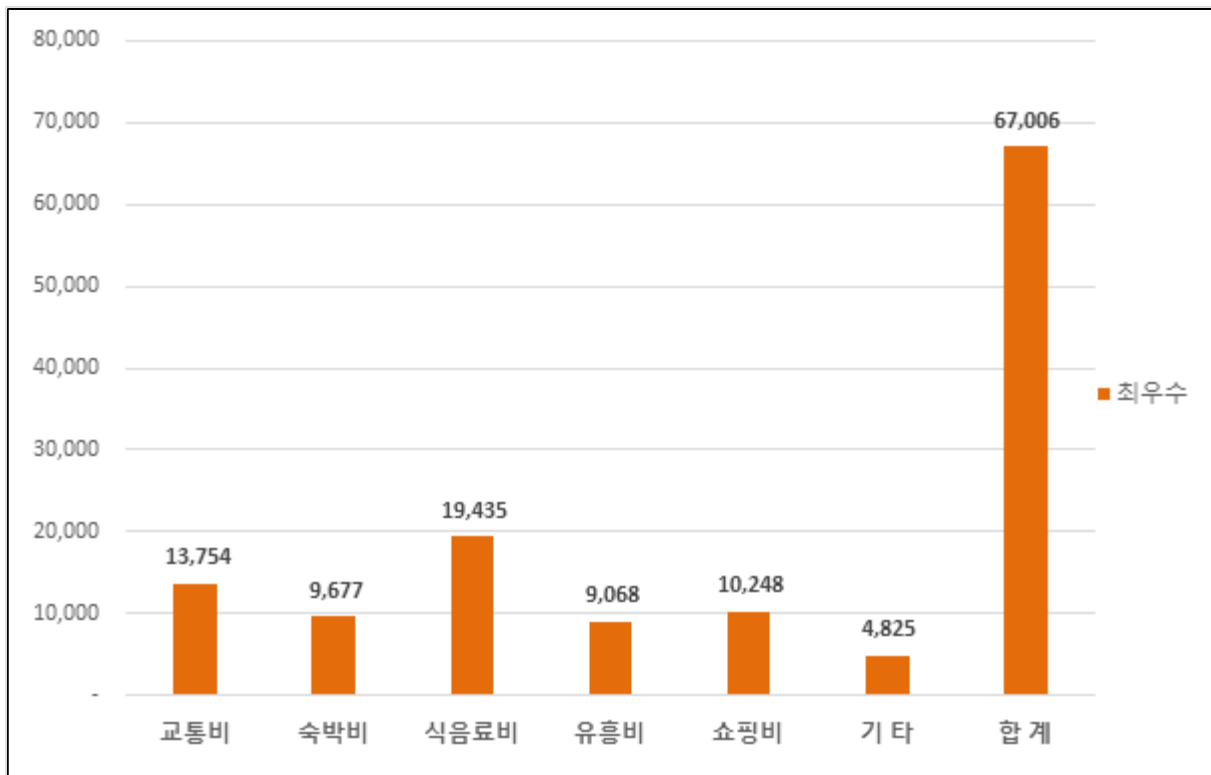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희비	쇼핑비	기타	합계
전체	14,150	9,054	20,482	5,063	11,504	6,263	66,515
대표	17,833	6,876	16,115	3,903	16,913	4,425	66,065
최우수	13,754	9,677	19,435	9,068	10,248	4,825	67,006
우수	12,316	8,953	22,114	5,129	10,381	6,624	65,518
유망	14,637	9,287	20,588	4,158	11,571	6,741	66,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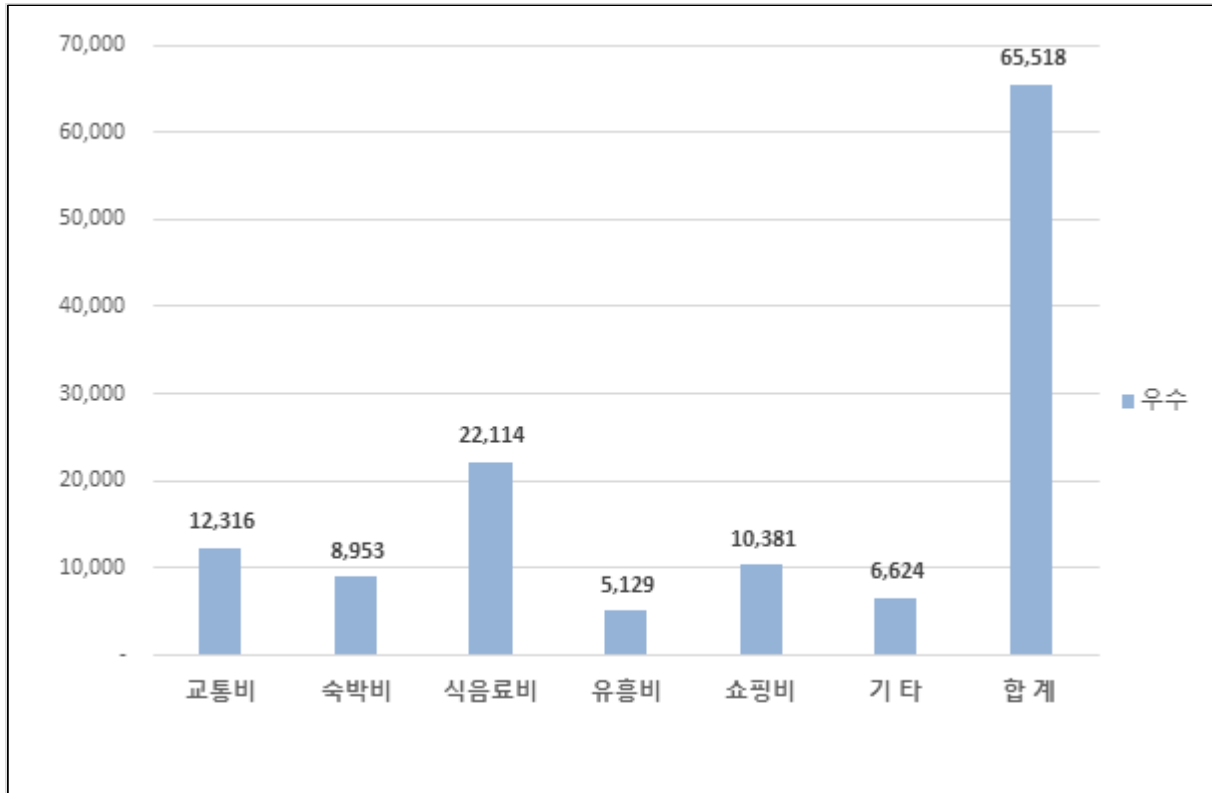
[2019년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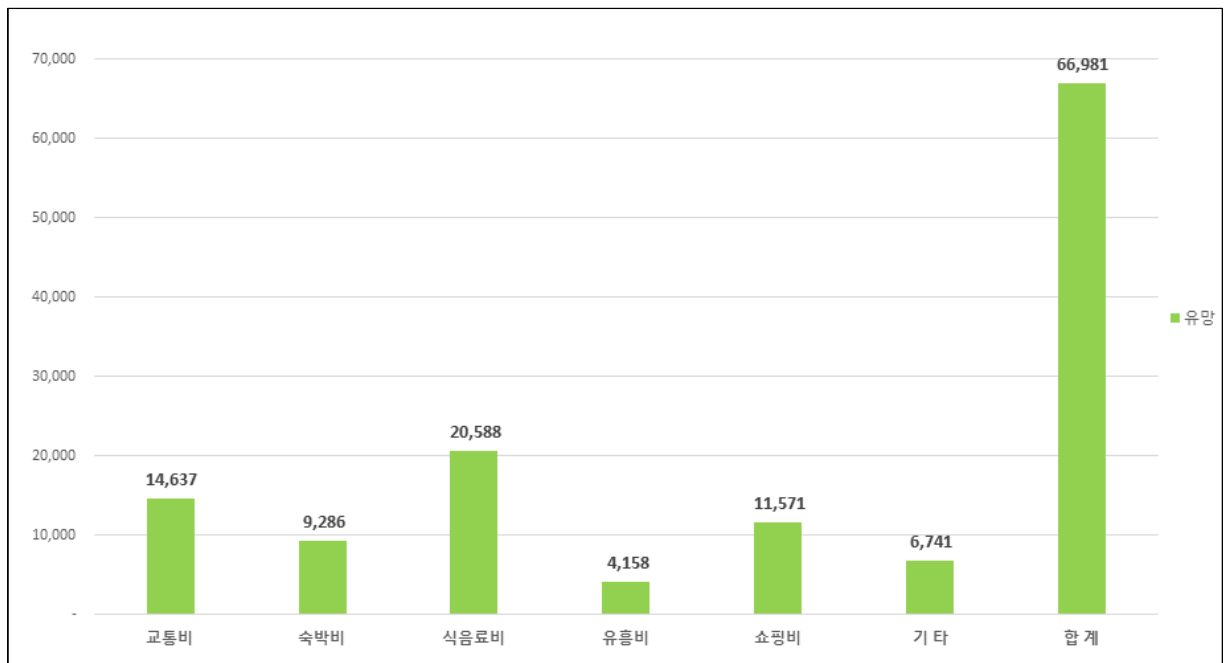
[2019년 대표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2019년 최우수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2019년 우수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2019년 유망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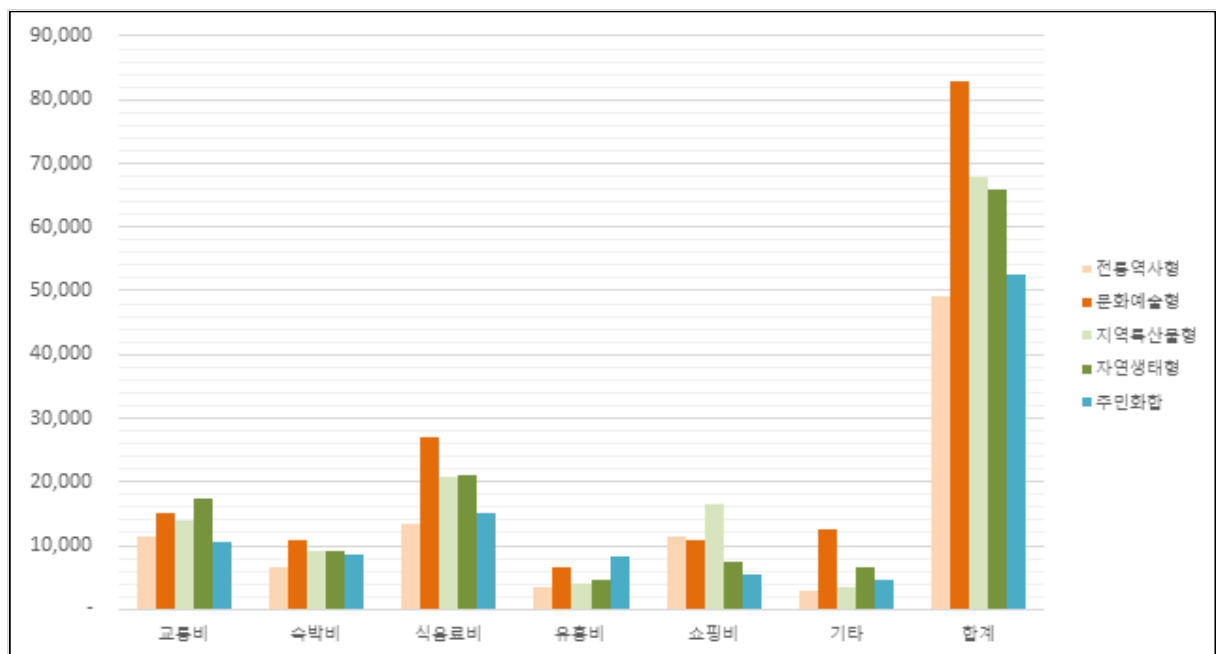
### (5)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 2019년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분석에서는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  
 - 2016년 이전에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시 교통비를 제외하였으나, 2017년부터 방문객들의 교통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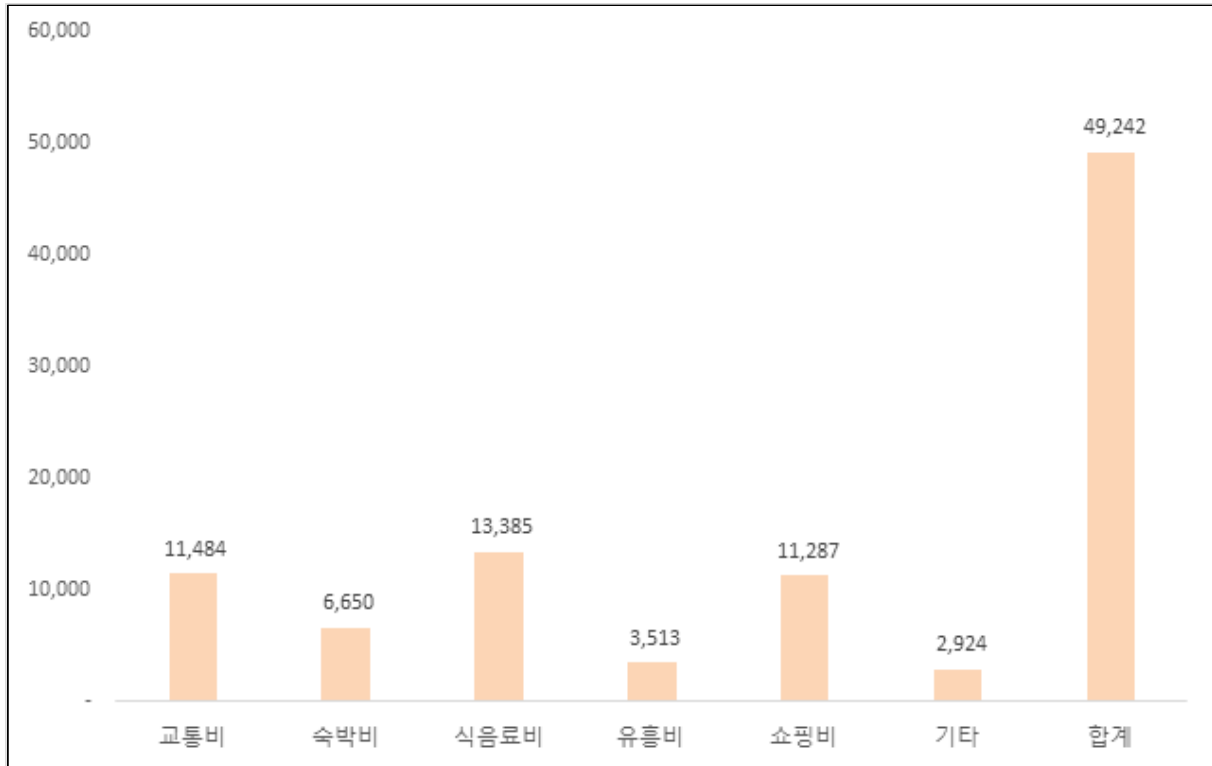
-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유형별 소비지출은 전통역사축제, 문화예술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생태자연축제, 주민화합축제로 구분하여 비교함
- 유형별 평균 소비지출액은 문화예술축제가 82,94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특산물축제(68,002원), 생태자연축제(65,906원), 주민화합축제(52,670원), 전통역사축제(49,242원) 순으로 나타남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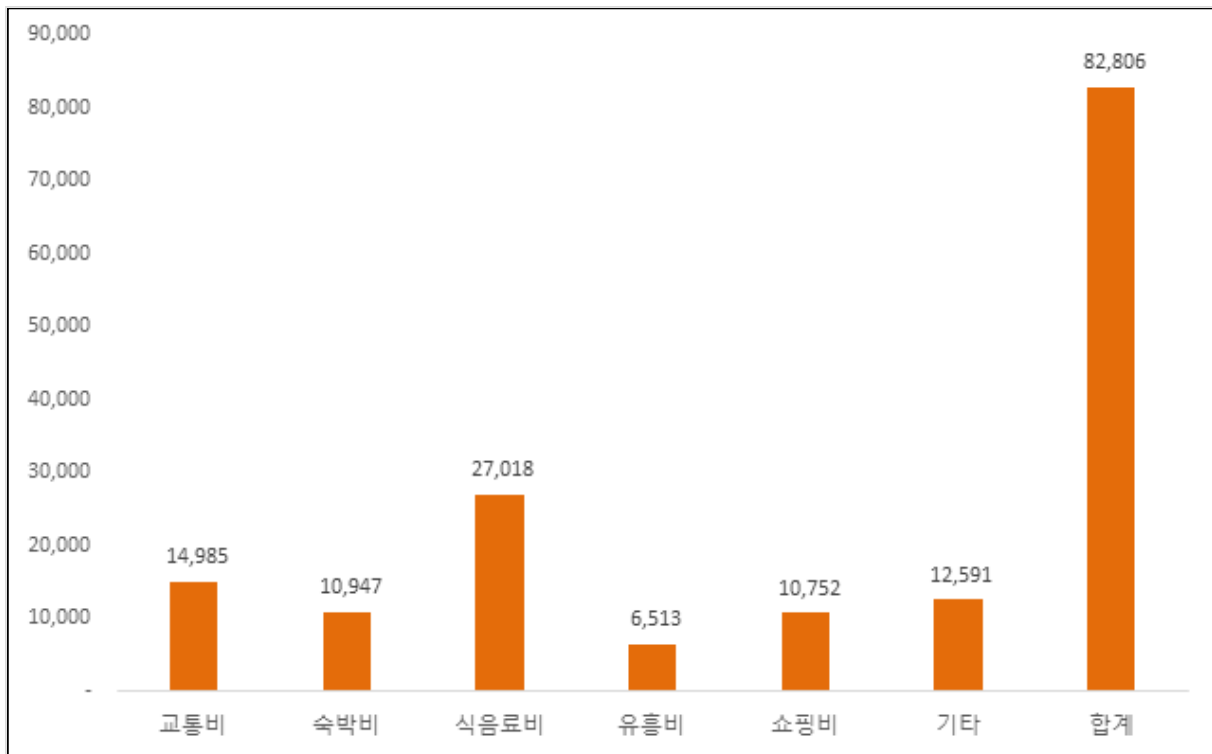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희비	쇼핑비	기타	합계
평 균	13,658	8,891	19,461	5,376	10,284	6,003	<b>63,753</b>
전통역사축제	11,484	6,650	13,385	3,513	11,287	2,924	<b>49,242</b>
문화예술축제	14,985	10,947	27,018	6,513	10,752	12,592	<b>82,944</b>
지역특산물축제	13,877	9,129	20,702	3,961	16,633	3,432	<b>68,002</b>
생태자연축제	17,351	9,148	21,032	4,528	7,354	6,494	<b>65,906</b>
주민화합축제	10,595	8,582	15,165	8,362	5,392	4,574	<b>52,670</b>



[2019년 문화관광축제 축제유형별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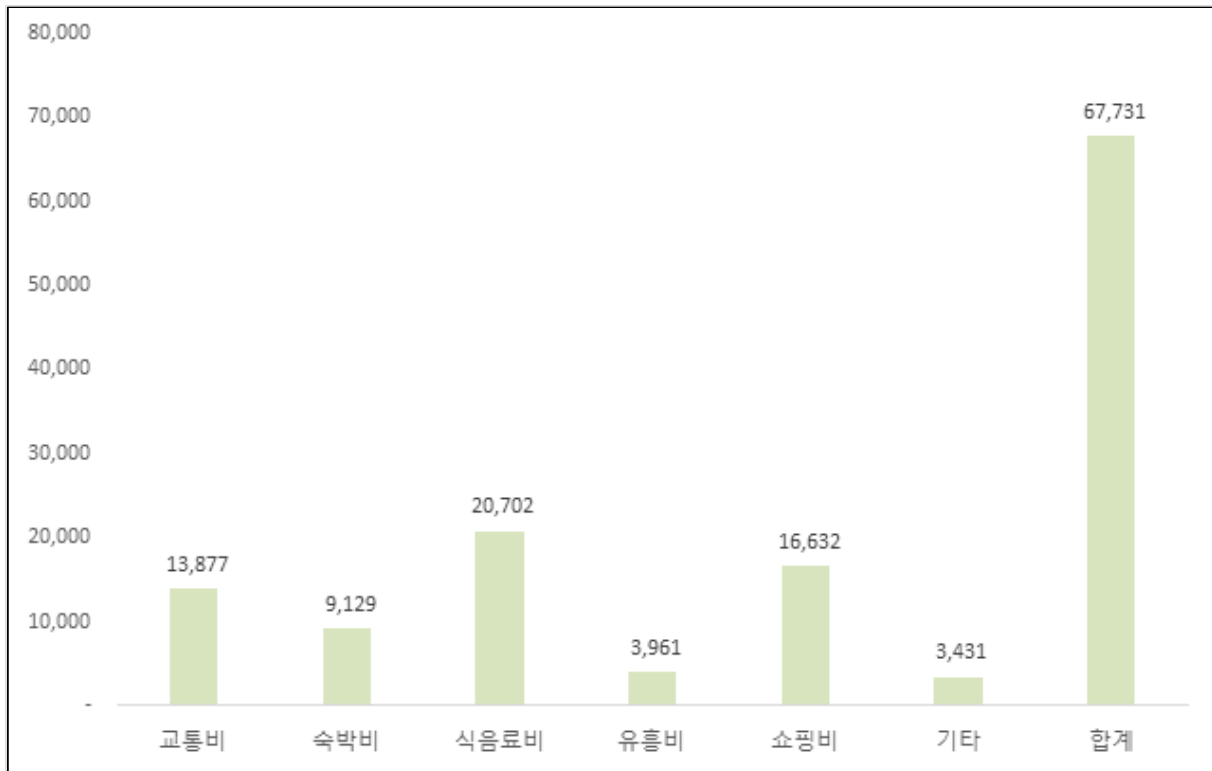


[2019년 전통역사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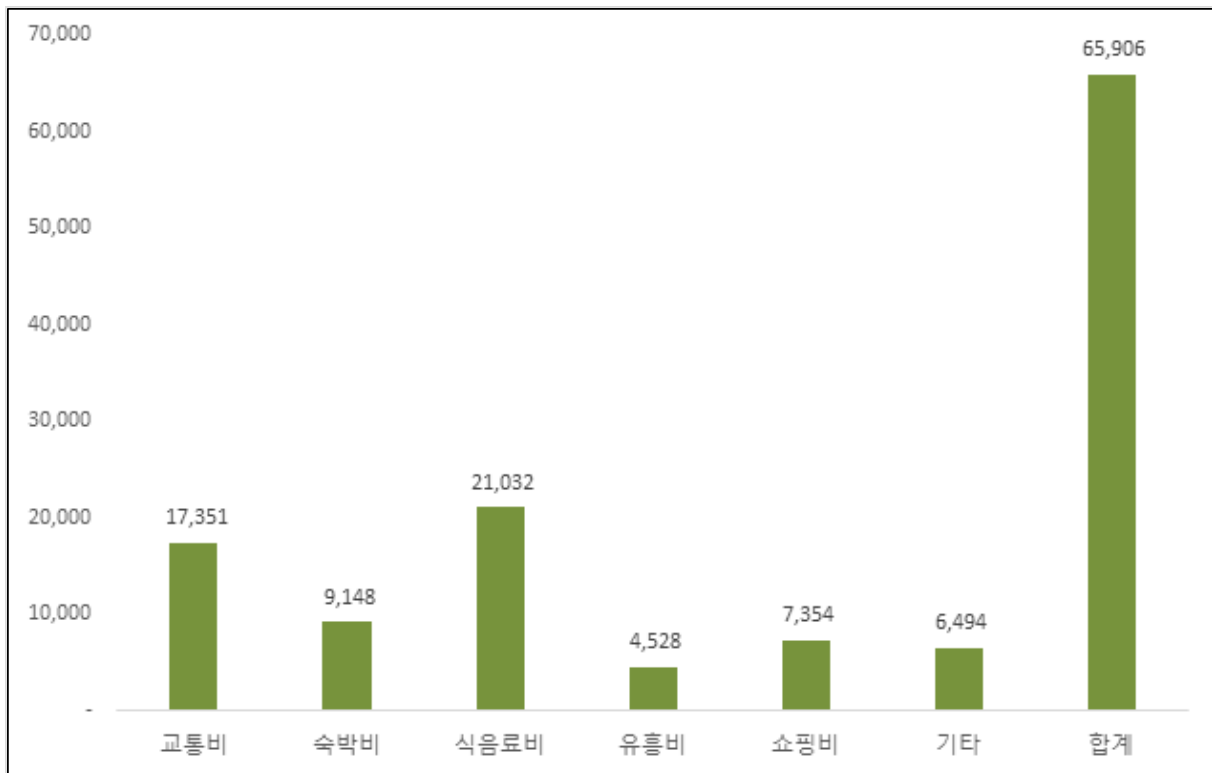


[2019년 문화예술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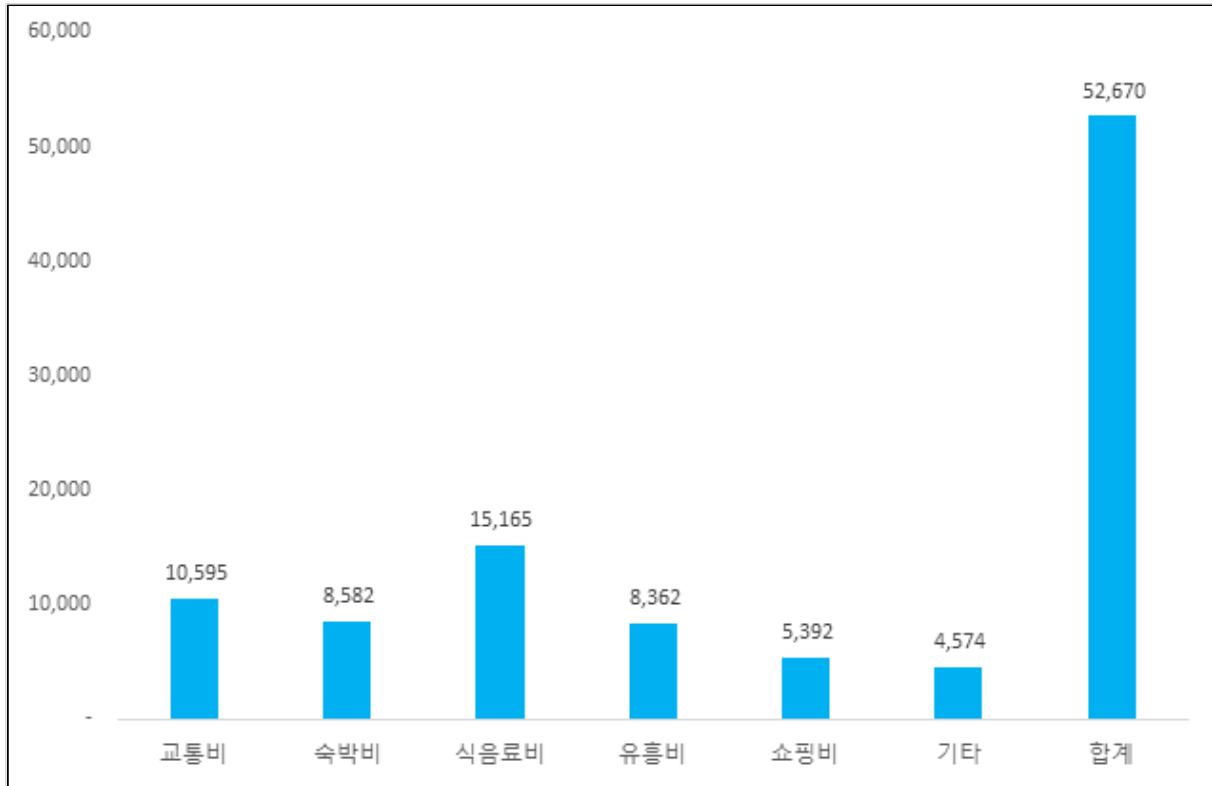




[2019년 지역특산물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2019년 생태자연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2019년 주민화합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 (6) 축제별 소비지출 비교

### ■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축제 : 인천펜타포트축제

- 2019년에 문화관광축제 중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축제는 ‘인천펜타포트축제(207,480원)’으로 나타나며, 교통비를 제외해도 ‘인천펜타포트축제(181,810원)’가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춘천마임축제(116,651원), 영덕대게축제(110,304원), 강릉커피축제(104,502원), 음성품바축제(87,788원), 횡성한우축제(87,479원) 순으로 높았음
  - 교통비를 제외하면 강춘천마임축제(94,985원), 영덕대게축제(90,289원), 강릉커피축제(82,240원), 횡성한우축제(75,928원),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64,864원)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 항목별로 소비지출이 높은 축제

- 교통비
  - 무주반딧불축제(27,414원), 부여서동연꽃축제(26,989원), 인천펜타포트축제(25,670원), 음성품바축제(25,090원), 강릉커피축제(22,262원), 춘천마임축제(21,66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숙박비
  - 인천펜타포트축제(30,360원), 강릉커피축제(21,934원), 평창효석문화제(21,527원), 영덕대게축제(20,462원), 춘천마임축제(17,119원), 통영한산대첩축제(16,104원), 제주들불축제(13,12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식음료비
  - 인천펜타포트축제(58,170원), 영덕대게축제(44,550원), 춘천마임축제(36,675원), 횡성한우축제(32,951원),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29,661원), 음성품바축제(28,304원), 부여서동연꽃축제(28,27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유희비
  - 제주들불축제(21,890원), 인천펜타포트축제(13,180원), 추억의충장축제(9,709원), 춘천마임축제(9,165원), 음성품바축제(8,278원),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8,006원), 강릉커피축제(7,92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쇼핑비

- 산청한방약초축제(29,273원), 괴산고추축제(25,690원), 황성한우축제(21,171원), 강릉커피축제(20,713원), 음성품바축제(18,963원), 강진청자축제(18,910원), 임실N치즈축제(17,623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기타비

- 인천펜타포트축제(69,780원), 춘천마임축제(17,981원), 평창송어축제(9,548원), 평창효문화제(8,778원), 정남진장흥물축제(8,107원), 봉화은어축제(7,907원),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7,408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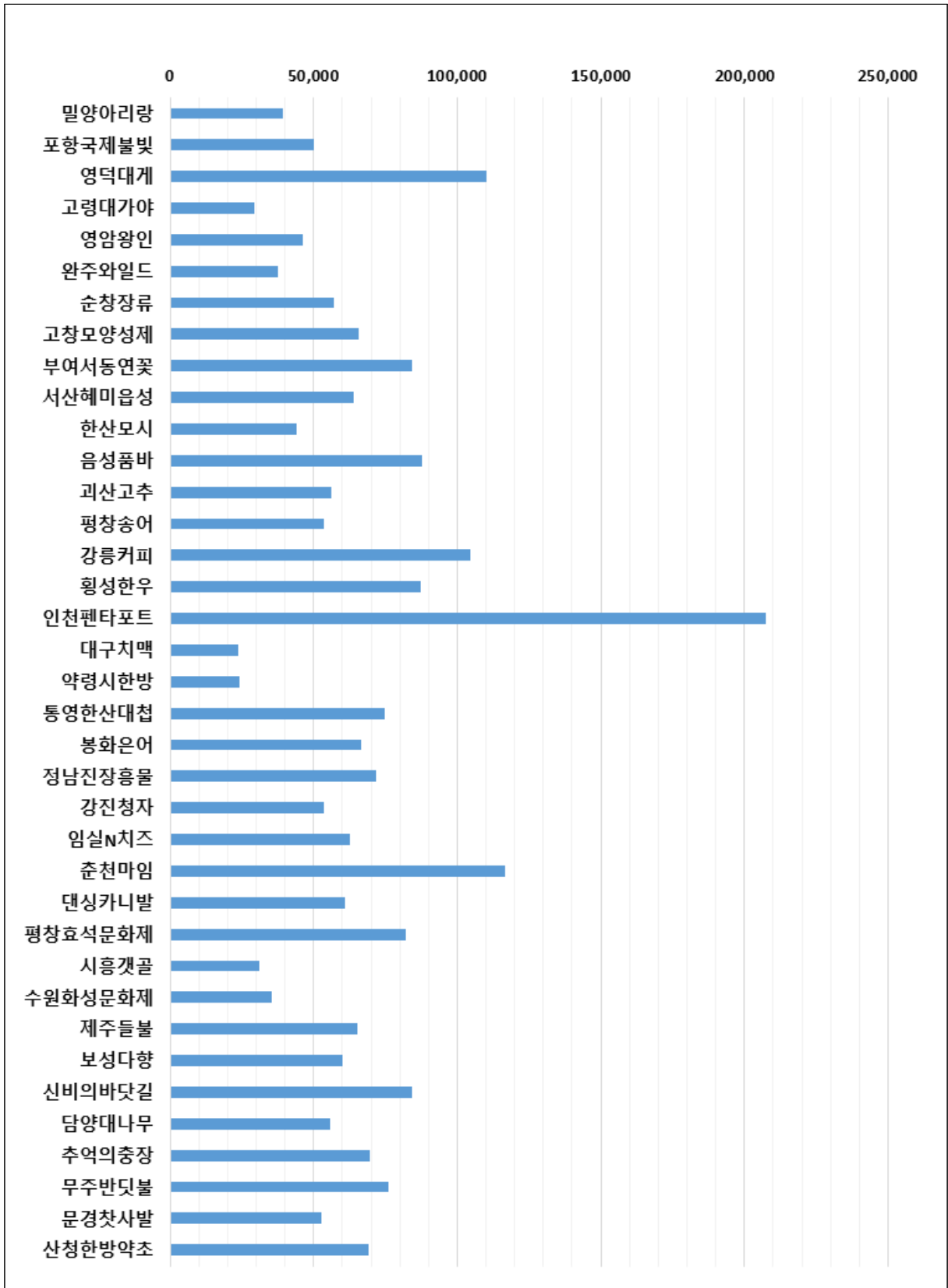
(단위: 원)

축제등급	축 제 명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b>평 균</b>	<b>14,150</b>	<b>9,054</b>	<b>20,482</b>	<b>5,063</b>	<b>11,504</b>	<b>6,263</b>	<b>66,515</b>
대표	산청한방약초	12,237	4,914	14,840	3,517	29,273	4,491	69,272
	문경찾사발	13,848	6,923	12,586	2,622	13,914	2,940	52,833
	무주반딧불	27,414	8,792	20,918	5,571	7,553	5,842	76,090
최우수	추억의층장	13,342	4,506	23,900	9,709	13,881	4,314	69,652
	이천쌀문화	-	-	-	-	-	-	-
	안성맞춤	-	-	-	-	-	-	-
	담양대나무	12,030	9,519	19,045	4,010	7,471	3,628	55,703
	신비의바닷길	19,241	12,535	24,000	6,929	13,992	7,408	84,105
	보성다향	12,855	8,705	21,270	2,801	10,955	3,653	60,240
	제주들불	11,300	13,120	8,960	21,890	4,940	5,120	65,330
우수	수원화성문화제	6,699	4,132	13,830	1,944	5,691	3,069	35,365
	시흥갯골	2,306	-	19,266	564	2,270	6,822	31,228
	평창효석문화제	18,477	21,527	19,906	3,406	9,984	8,778	82,078
	댄싱카니발	6,762	2,344	29,661	8,006	10,326	3,605	60,704
	춘천마임	21,666	17,119	36,675	9,165	14,045	17,981	116,651
	임실N치즈	12,182	5,240	21,431	4,179	17,623	2,133	62,788
	강진청자	11,140	3,020	15,270	2,320	18,910	3,000	53,660
	정남진장흥물	15,122	10,186	23,790	6,301	8,002	8,107	71,508
	봉화은어	14,878	9,861	19,413	7,740	6,550	7,907	66,349
	통영한산대첩	13,932	16,104	21,897	7,663	10,414	4,835	74,845

<표 계속>

(단위: 원)

축제등급	축 제 명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형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b>평 균</b>		<b>14,150</b>	<b>9,054</b>	<b>20,482</b>	<b>5,063</b>	<b>11,504</b>	<b>6,263</b>	<b>66,515</b>
유망	약령시한방	4,584	2,118	6,367	351	9,216	1,656	24,293
	대구치맥	4,344	1,511	15,331	1,842	113	452	23,593
	인천펜타포트	25,670	30,360	58,170	13,180	10,320	69,780	207,480
	여주오곡나루	-	-	-	-	-	-	-
	횡성한우	11,551	12,184	32,951	5,271	21,171	4,351	87,479
	강릉커피	22,262	21,934	24,733	7,926	20,713	6,934	104,502
	평창송어	13,276	12,858	14,319	1,786	1,584	9,548	53,372
	괴산고추	14,447	1,037	12,831	328	25,690	1,647	55,980
	음성품바	25,090	5,532	28,304	8,278	18,963	1,622	87,788
	한산모시	10,570	4,887	10,129	6,025	10,601	1,862	44,073
	서산해미읍성	19,724	5,172	16,531	5,963	11,806	4,779	63,975
	강경젓갈	-	-	-	-	-	-	-
	부여서동연꽃	26,989	10,844	28,276	4,580	12,175	1,437	84,301
	고창모양성제	12,940	11,907	20,040	4,772	11,013	5,108	65,780
	순창장류	16,670	8,331	13,867	2,604	13,125	2,427	57,023
	완주와일드	7,826	3,205	12,076	1,675	9,646	3,274	37,702
	영암왕인	8,827	7,020	17,708	1,943	8,107	2,606	46,211
	고령대가야	13,374	1,592	7,406	841	4,940	1,066	29,219
	영덕대게	20,015	20,462	44,550	5,239	16,690	3,348	110,304
포항국제불빛	11,615	9,509	12,580	3,417	8,512	4,617	50,251	
밀양아리랑	8,333	5,981	15,009	2,987	5,456	1,570	39,336	



[2018년 문화관광축제 축제별 전체 소비지출 비교]

# 5 외지관광객 비율

## ■ 전체 외지관광객 비율은 70.9% 차지

- 2019년 문화관광축제를 방문한 참가자 중에서 외지관광객은 70.9%, 지역주민은 29.1%로 나타나, 외지관광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축제별 외지관광객 방문 비율을 살펴보면, 순창장류축제 9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평창효석문화제 95.1%, 완주와일드푸드축제 94.7%, 영덕대게축제 94.2%, 고창모양성제 92.8%, 보성다향대축제 92.8%, 담양대나무축제 92.6%, 정남진장흥물축제 92.1%, 임실N치즈축제 90.3% 순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 방문 비율이 높은 축제로는 원주다이내믹댄싱축제 88.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84.0%, 대구치맥축제 77.7%, 제주들불축제 65.5%, 시흥갯골축제 63.6% 순으로 높았음

축제명칭	비율(%)		축제명칭	비율(%)	
	지역주민	외지관광객		지역주민	외지관광객
강경젓갈축제	-	-	여주오곡나루	-	-
강릉커피축제	43.2	56.8	영덕대게축제	5.8	94.2
강진청자축제	21.2	78.8	영암왕인문화	14.8	85.2
고령대가야	18.3	81.7	완주와일드	5.3	94.7
고창모양성제	7.2	92.8	댄싱카니발	88.4	11.6
괴산고추축제	25.1	74.9	음성품바축제	28.4	71.6
담양대나무	7.4	92.6	이천쌀문화	-	-
대구약령시	84.0	16.0	인천펜타포트	30.1	69.9
대구치맥	77.7	22.3	임실N치즈	9.7	90.3
무주반딧불	14.2	85.8	정남진장흥물	7.9	92.1
문경찾사발	12.0	88.0	제주들불축제	65.5	34.5
밀양아리랑	48.6	51.4	신비의바닷길	11.6	88.4
보성다향대	7.2	92.8	추억의충장	23.2	76.8
봉화은어축제	13.0	87.0	춘천마임축제	53.2	46.8
부여서동연꽃	10.0	90.0	통영한산대첩	59.6	40.4
산청한방약초	28.3	71.7	평창효석문화제	4.9	95.1
서산해미읍성	21.6	78.4	평창송어축제	22.5	77.5
수원화성문화제	51.5	48.5	포항국제불빛	44.7	55.3
순창장류축제	2.2	97.8	한산모시문화제	25.0	75.0
시흥갯골축제	63.6	36.4	횡성한우축제	19.8	80.2
안성맛춤남사당	-	-	<b>평균</b>	<b>29.1</b>	<b>70.9</b>

## 6

##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 ■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87.7% 차지

- “○○축제가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 주 동기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즉,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사람의 비율은 87.7%로 높게 나타남
  - 2018년 89.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이 높은 축제
  - 밀양아리랑축제 9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강진청자축제 97.7%, 포항국제불빛축제 97.3%, 담양대나무축제 96.3%, 시흥갯골축제 95.9%, 보성다향제 95.9% 순으로 높았음

[2019 문화관광축제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축제명칭	비율(%)	축제명칭	비율(%)	축제명칭	비율(%)
대구한방문화	78.8	평창송어축제	78.3	보성다향제	95.9
대구치맥	95.3	괴산고추축제	83	강진청자축제	97.7
인천펜타포트	94.6	음성품바축제	92	정남진장흥물	94.7
추억의충장	81.3	한산모시문화	92.3	영암왕인문화	94.7
이천쌀	-	서산해미읍성	87	문경차사발	59.4
안성맞춤남사당	-	강경젓갈축제	-	봉화은어축제	79.6
수원화성문화	83.5	부여서동연꽃	93.3	고령대가야체험	85.4
시흥갯골축제	95.9	무주반딧불축제	92	영덕대게축제	75.2
여주오곡나루	-	임실N치즈축제	94.8	포항국제불빛	97.3
평창효석문화제	80.9	고창모양성제	84.8	산청한방약초	86.5
댄싱카니발	93.8	순창장류축제	95.7	통영한산대첩	90.3
춘천마임축제	75.3	완주와일드푸드	94.4	밀양아리랑대축제	99.2
횡성한우축제	94.3	담양대나무축제	96.3	제주들불축제	82.6
강릉커피축제	54.2	신비의바닷길	94.4	<b>평균</b>	<b>87.7</b>



2019 문화관광축제 >>>

# III

## 지자체의 축제별 설문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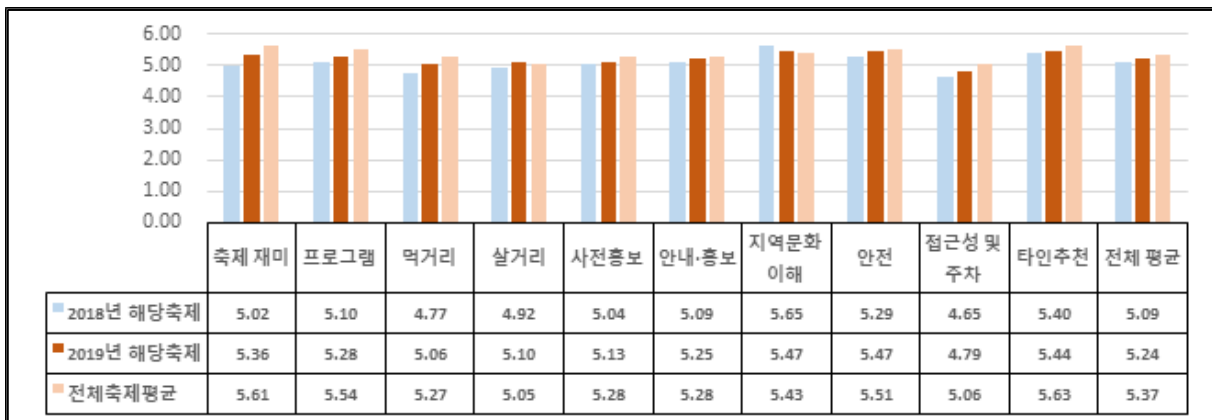


1

##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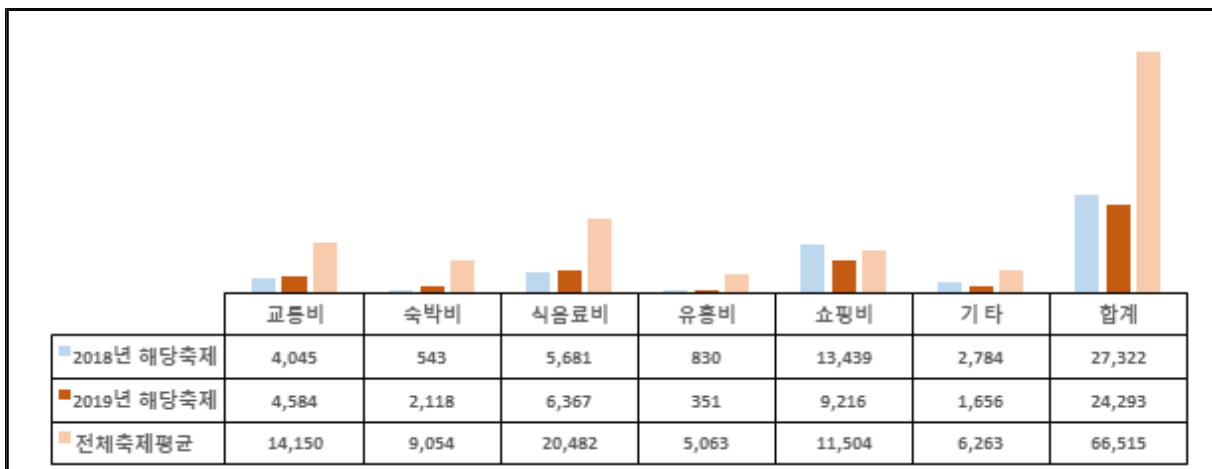
### 만족도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이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지역문화이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반영한 특색 있는 테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029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36.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유흥비·쇼핑비·기타비가 감소하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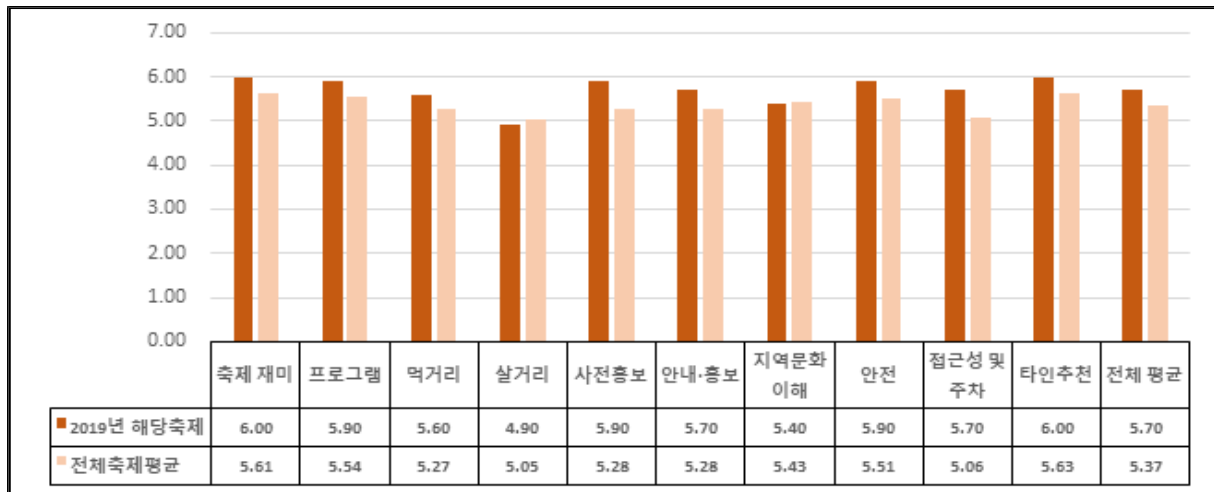


## 2

## 대구치맥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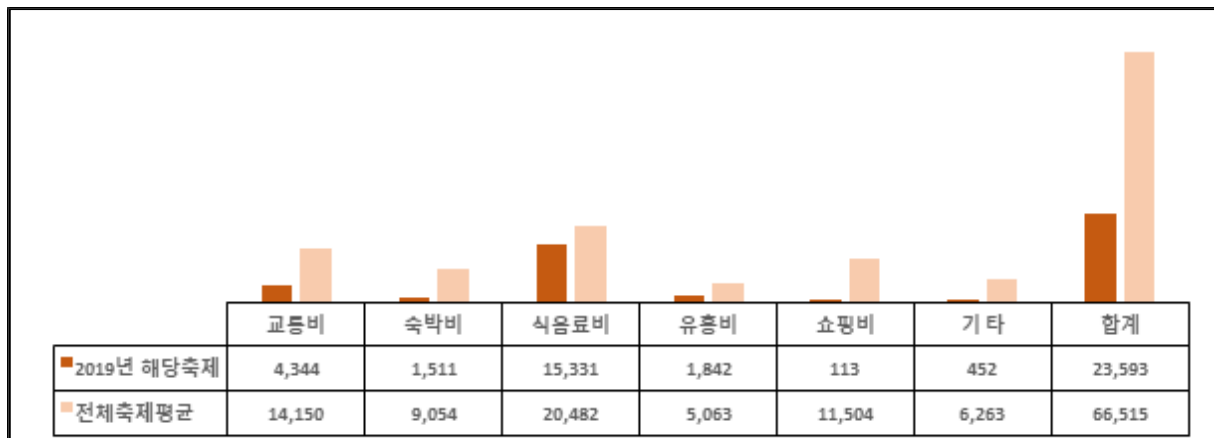
## 만족도

대구치맥페스티벌은 2019년 신규축제로서 만족도는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축제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안전, 타인추천 등이 높은 반면, 살거리, 지역문화의 이해 등이 낮게 나타나,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살거리 개발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35.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축제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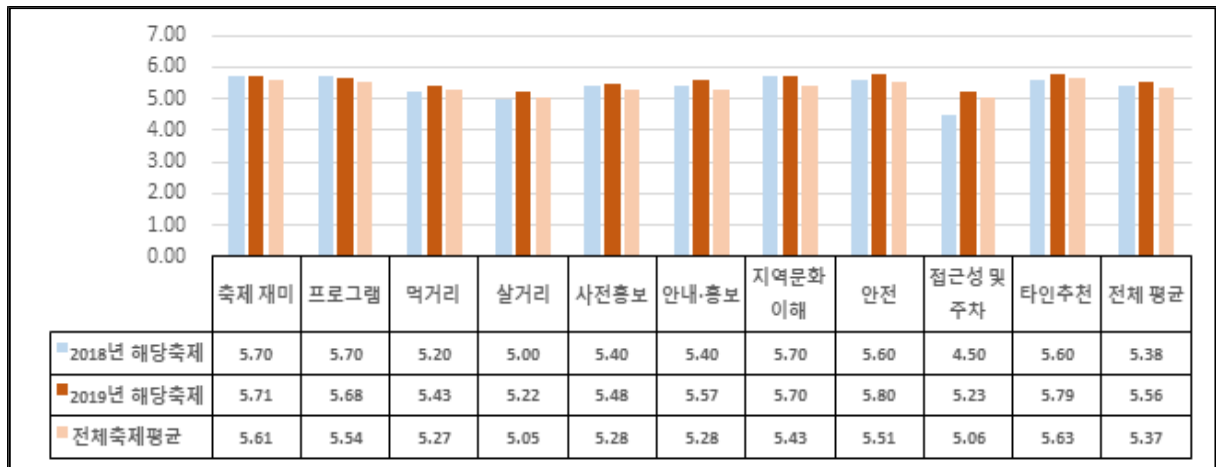


### 3

##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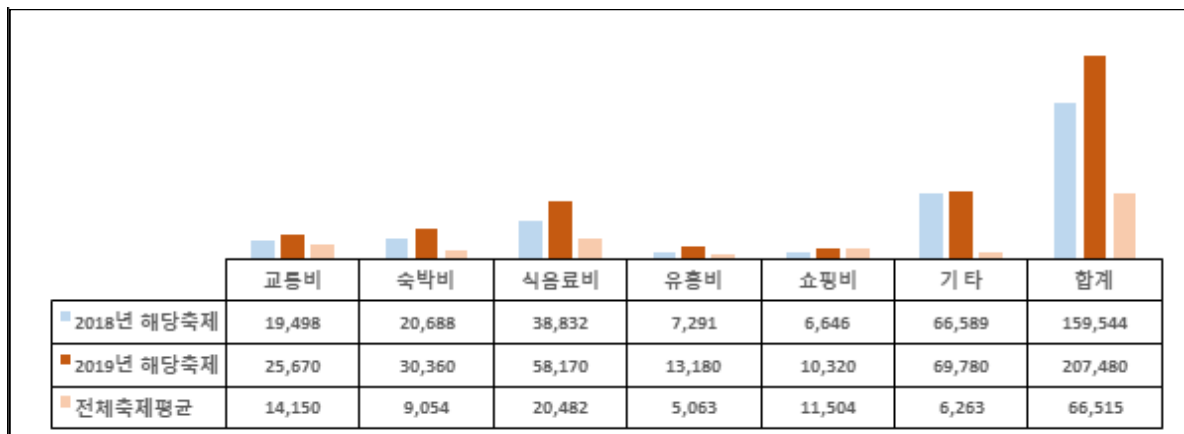
### 만족도

인천펜타포트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보다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축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통한 변화가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47,9365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311.9%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쇼핑비가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특산물·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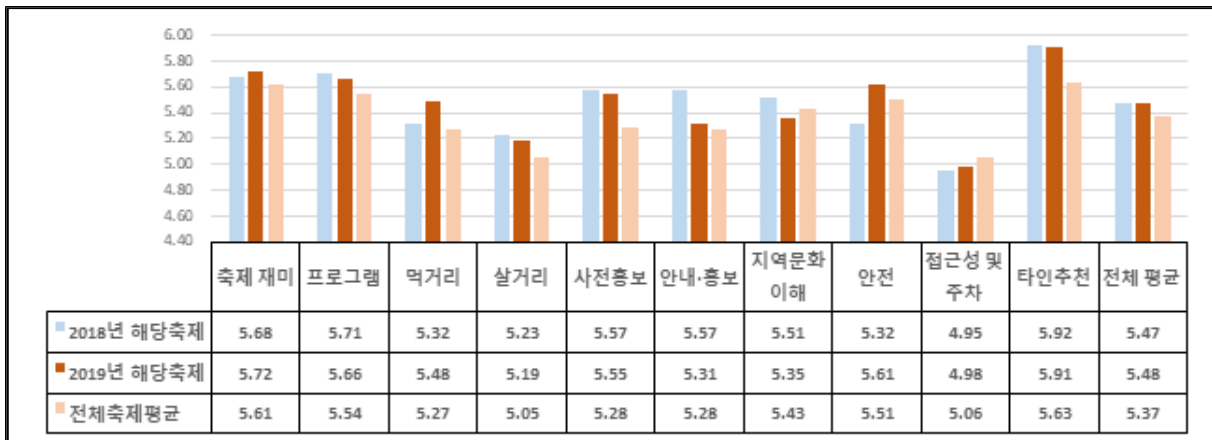


## 4

## 추억의충장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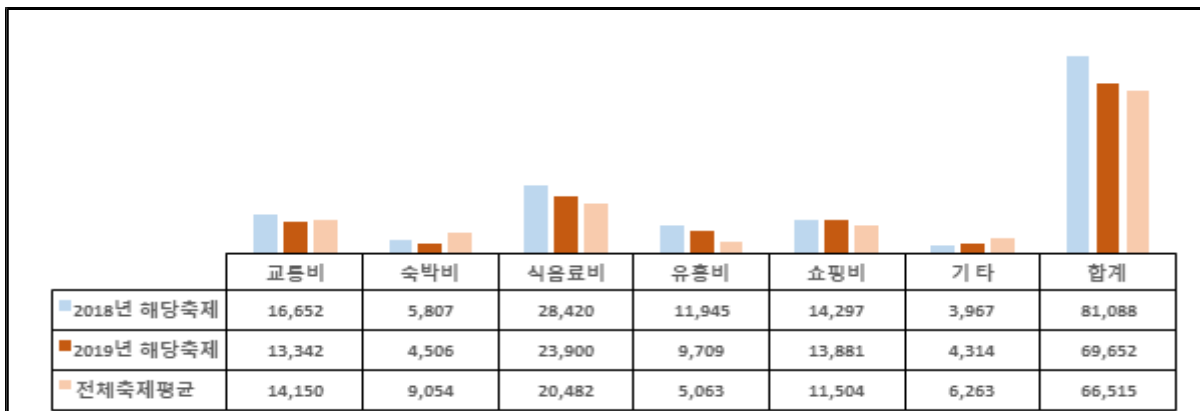
## 만족도

추억의충장축제의 만족도는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살거리·사전홍보·안내/홍보·지역문화의 이해·타인추천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지역문화의 이해·접근성 및 주차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1,436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04.7%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기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교통비·숙박비·기타비 항목이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숙박방문객 유치 등이 요구됨



5

이천쌀문화축제

- 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제 미개최

## 6

##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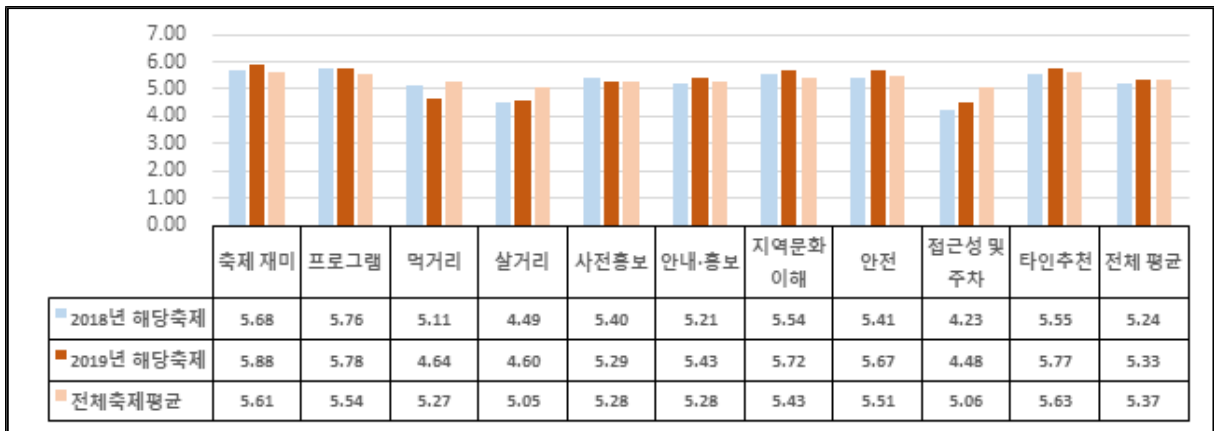
- 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제 미개최



# 7 수원화성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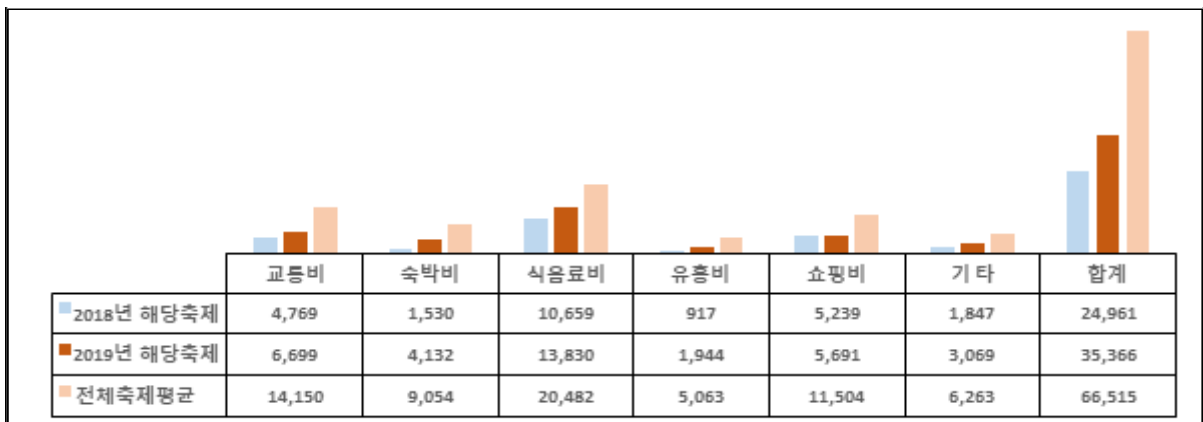
## 만족도

수원화성문화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먹거리·사전홍보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먹거리·살거리·접근성 및 주차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먹거리 및 살거리 발굴과 함께 사전 홍보체계의 개선 등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0,405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53.2%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축제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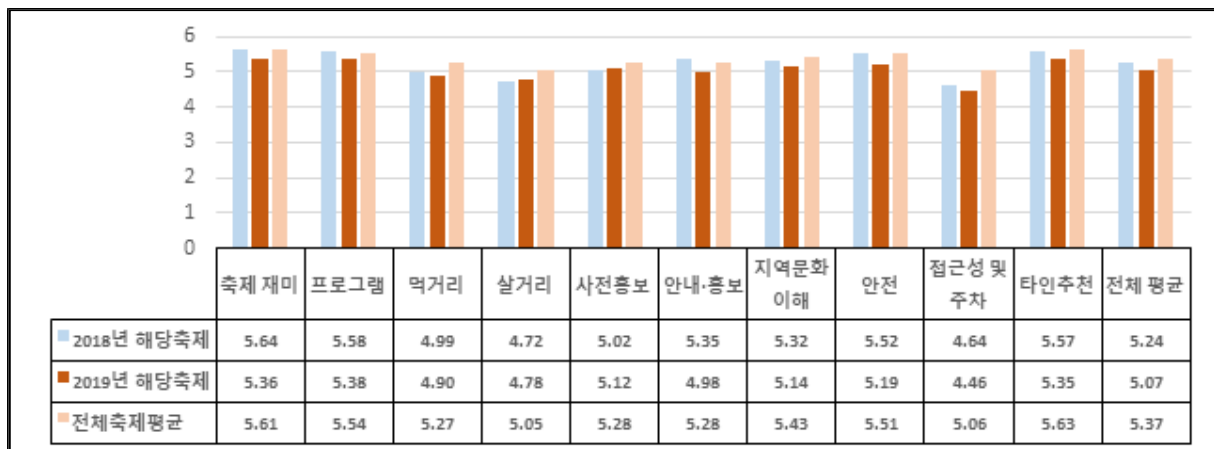


## 8

## 시흥갯골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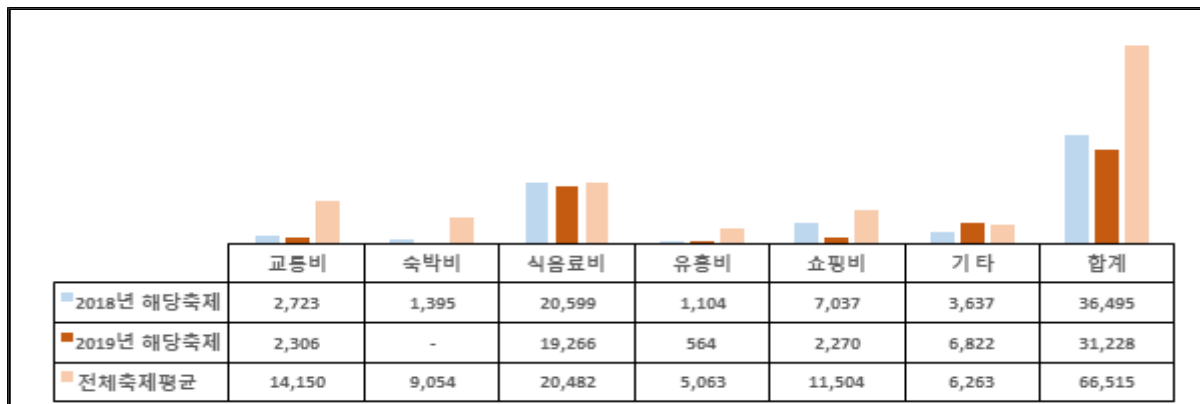
## 만족도

시흥갯골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낮았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살거리·사전홍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축제 전반에 걸친 개선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5,267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46.9%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기타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기타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축제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9

여주오곡나루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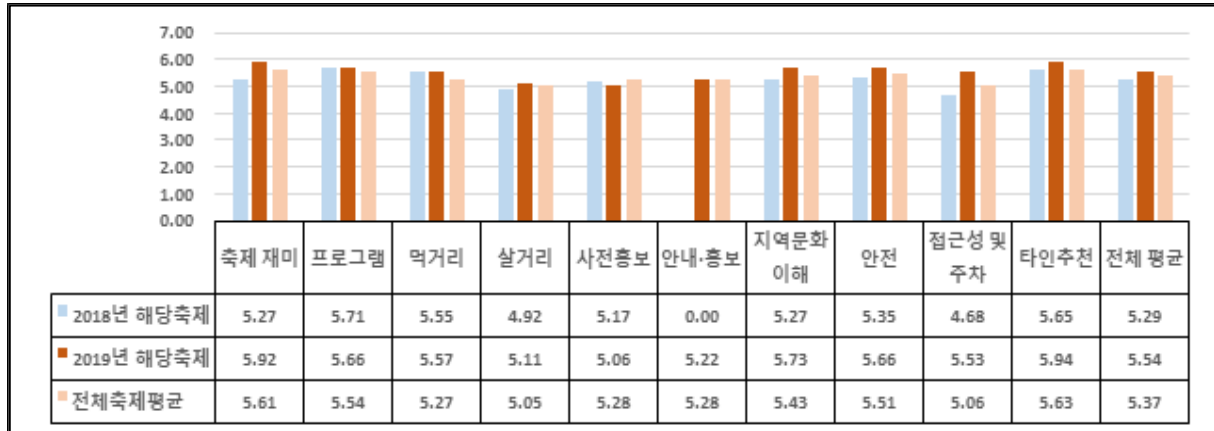
- 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제 미개최

## 10

## 평창효석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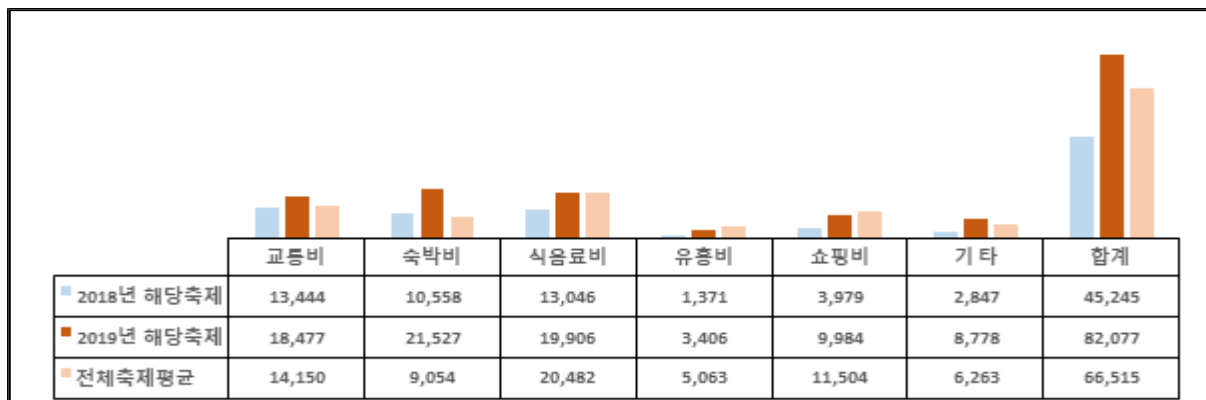
## 만족도

평창효석문화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사전홍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사전홍보·안내/홍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축제의 인지도 개선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6,833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23.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식음료비·유흥비·쇼핑비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특색 있는 음식 개발, 다양한 특산물, 기념품 발굴을 통한 살거리 개발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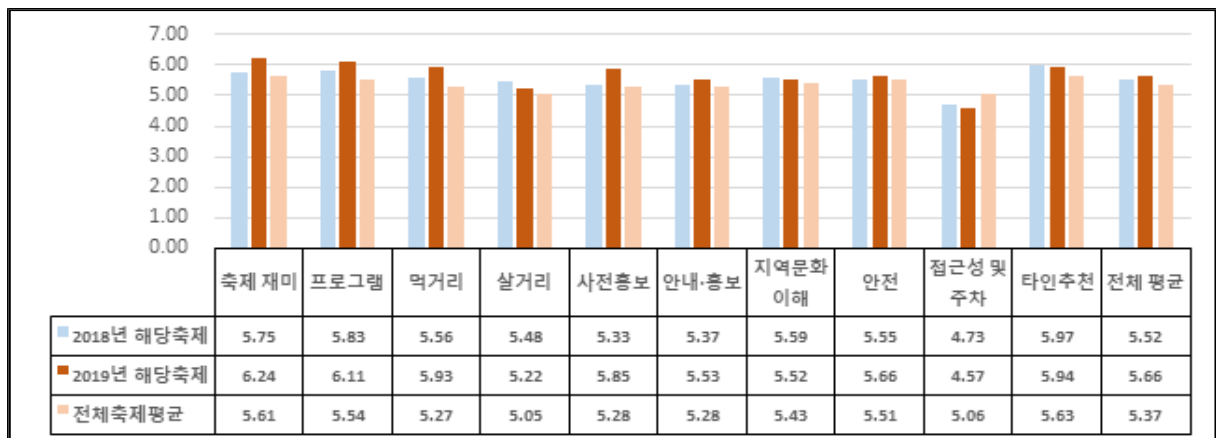


# 11

##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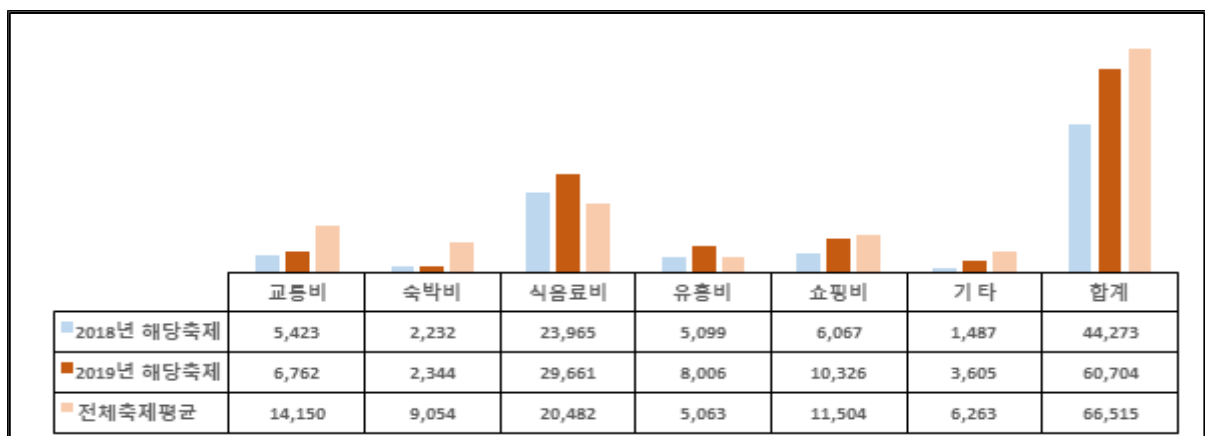
### 만족도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살거리·지역문화의 이해·접근성 및 주차·타인추천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접근성 및 주차장 항목만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물·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 교통체계 개선 등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6,431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91.3%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숙박비·쇼핑비·기타비 항목이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 및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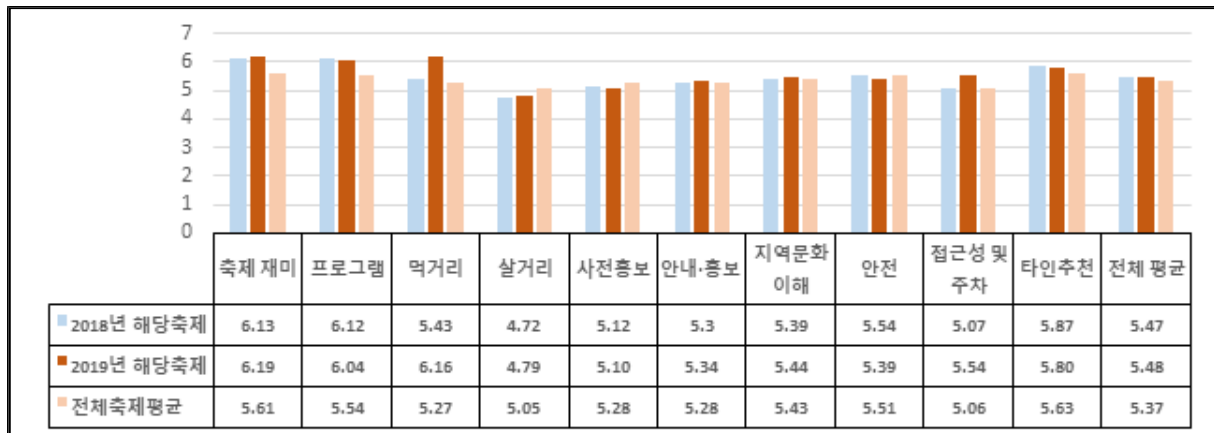


## 12

## 춘천마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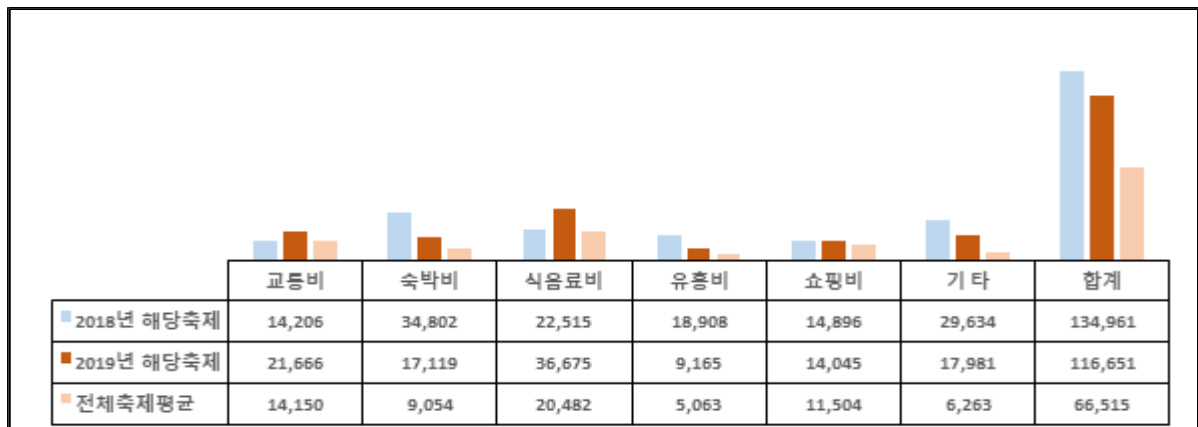
## 만족도

춘천 국제마임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높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사전홍보·안전·타인추천 항목이 낮았으며 전체 축제평균 대비 살거리·사전홍보·안전 항목이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과 안전체계 확립 등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8,310원 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의 175.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숙박비·유희비·쇼핑비·기타비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 소비지출이 매우 높은 축제라 할 수 있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난 즐길거리 개발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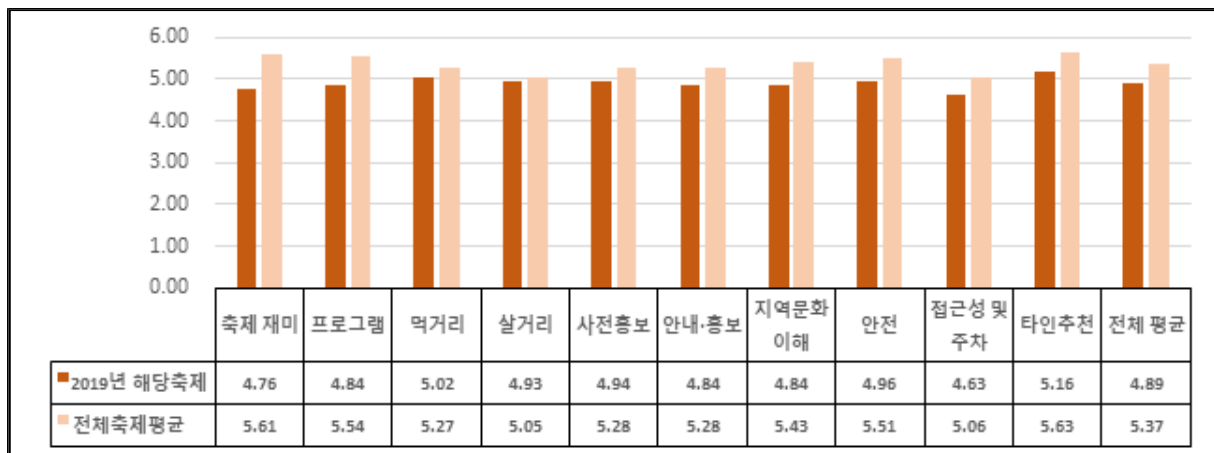


# 13

## 횡성한우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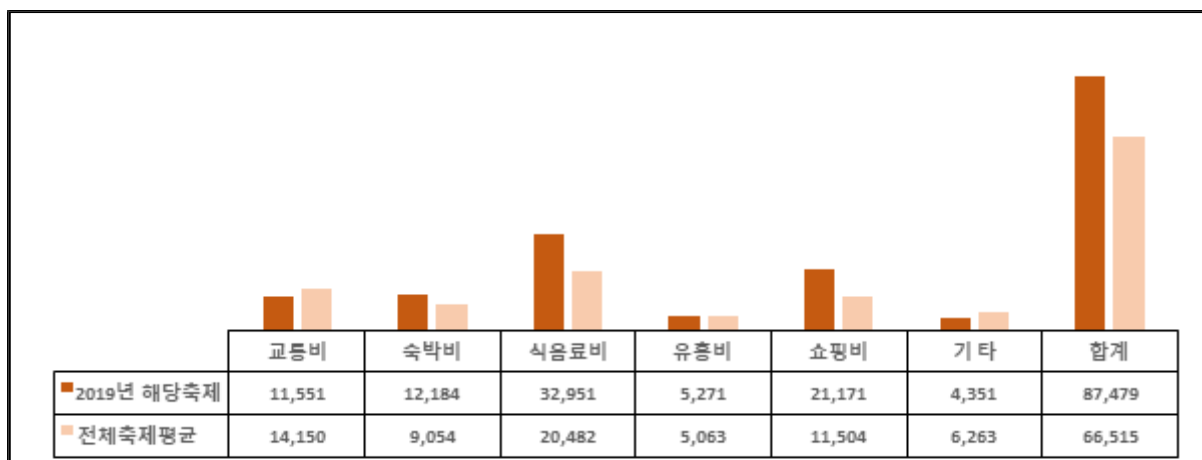
### 만족도

횡성한우축제는 2019년 신규축제로서, 축제만족도는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통해 축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31.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기타비가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입장료, 즐길거리 등 기타비의 강화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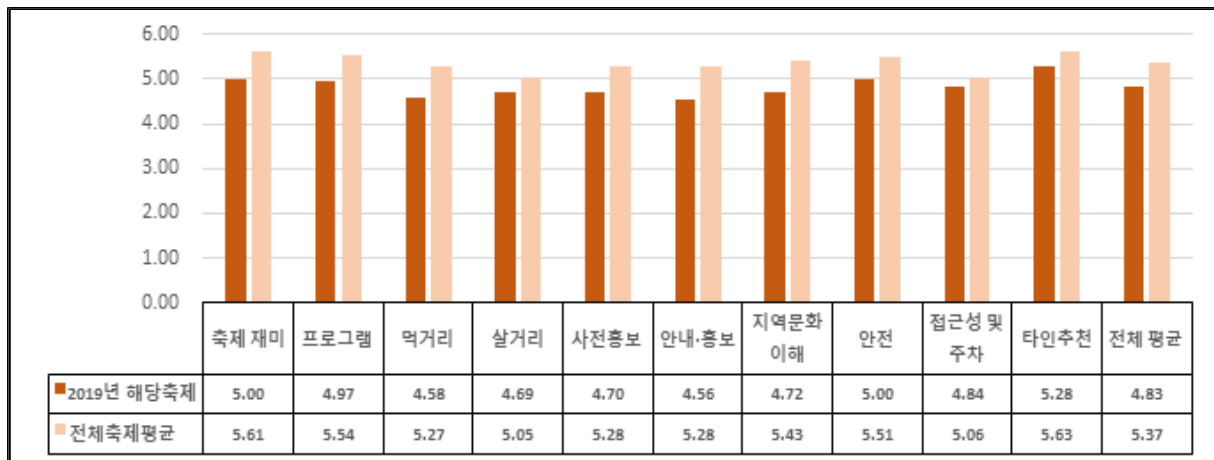


## 14

## 강릉커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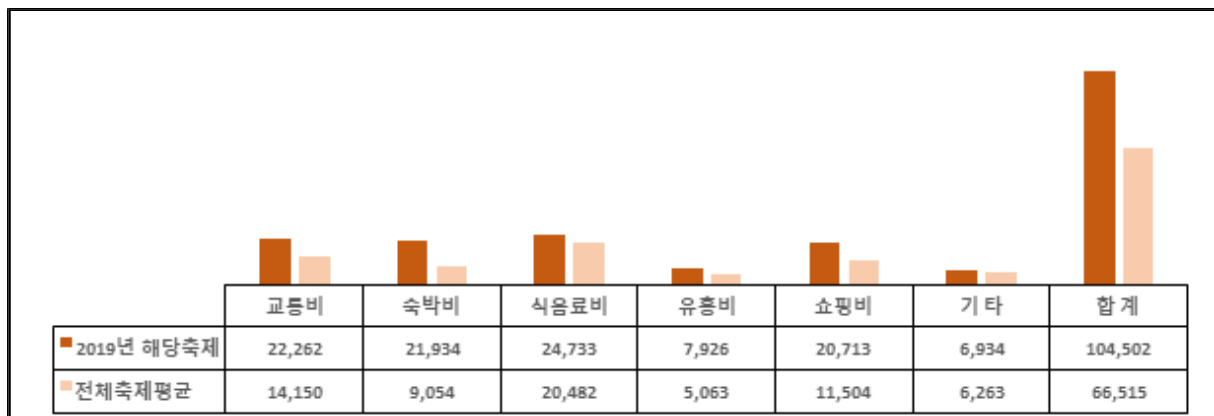
## 만족도

강릉커피축제는 2019년 신규축제로서 축제 만족도는 전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통해 축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57.1%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익성 창출이 높은 축제라 할 수 있음. 다만, 지금보다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즐길거리 강화를 통한 유흥비, 기타비의 강화가 요구되며 주변 지역과 연계한 체류시간 확대 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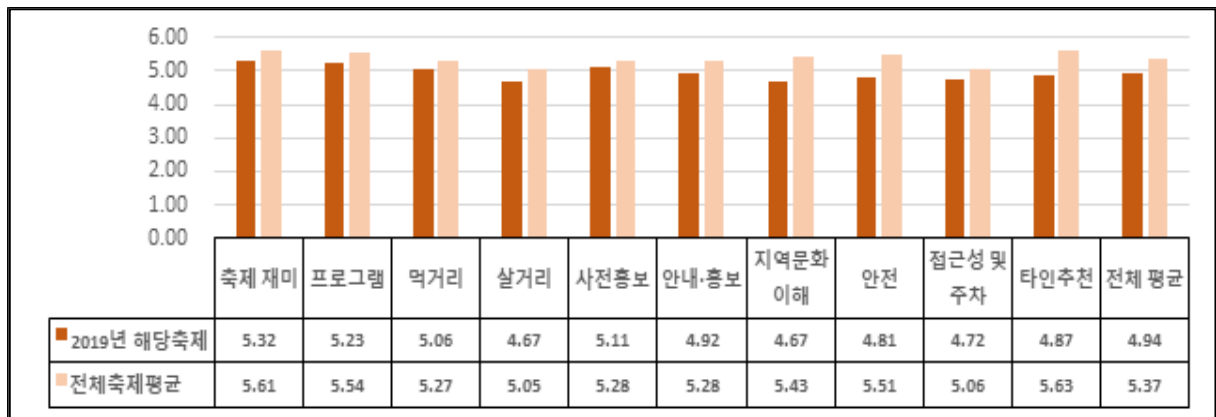


15

평창송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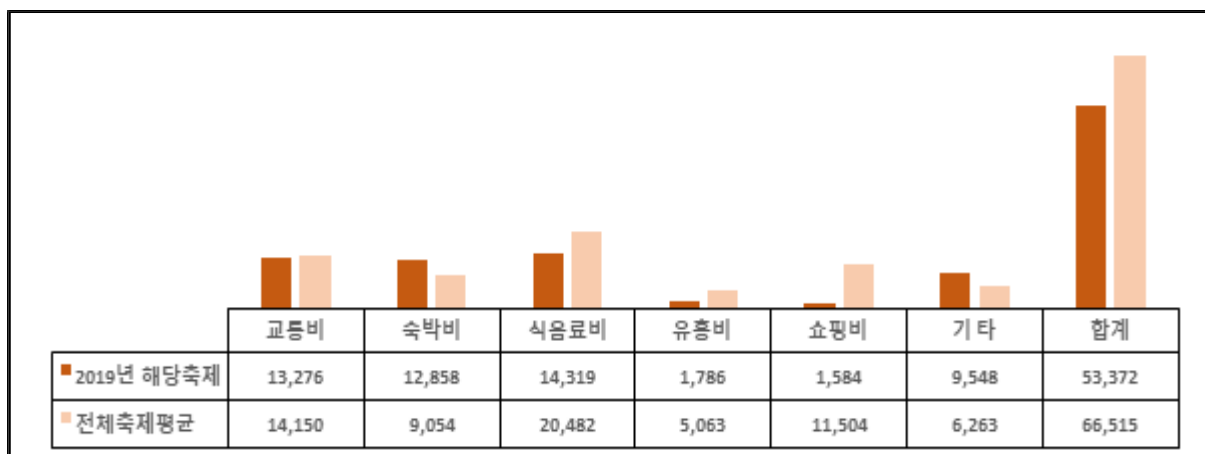
만족도

평창송어축제는 2019년 신규축제로서 축제 만족도는 전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통해 축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80.2%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식음료비·유흥비·쇼핑비가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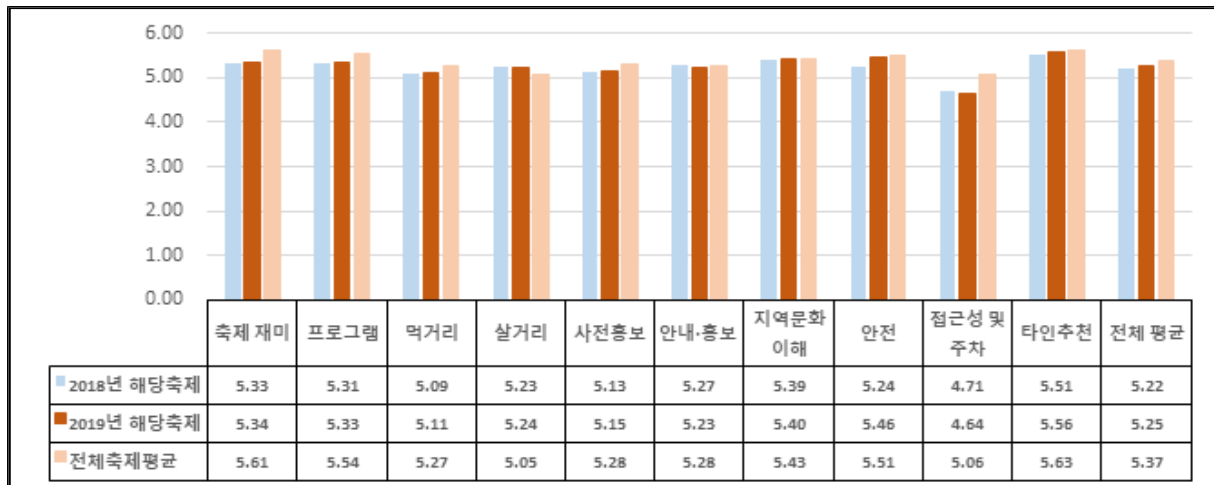


## 16

## 괴산고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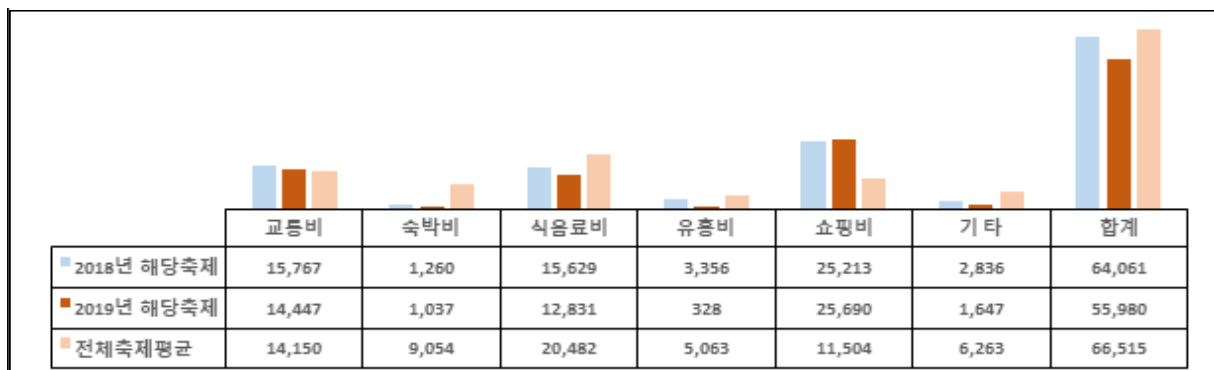
## 만족도

괴산 고추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안내/홍보·접근성 및 주차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 대비 살거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홍보체계, 교통체계, 시설안전체계 등의 강화가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8,081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84.2%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쇼핑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교통비, 쇼핑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확대 방안 및 먹거리, 체험거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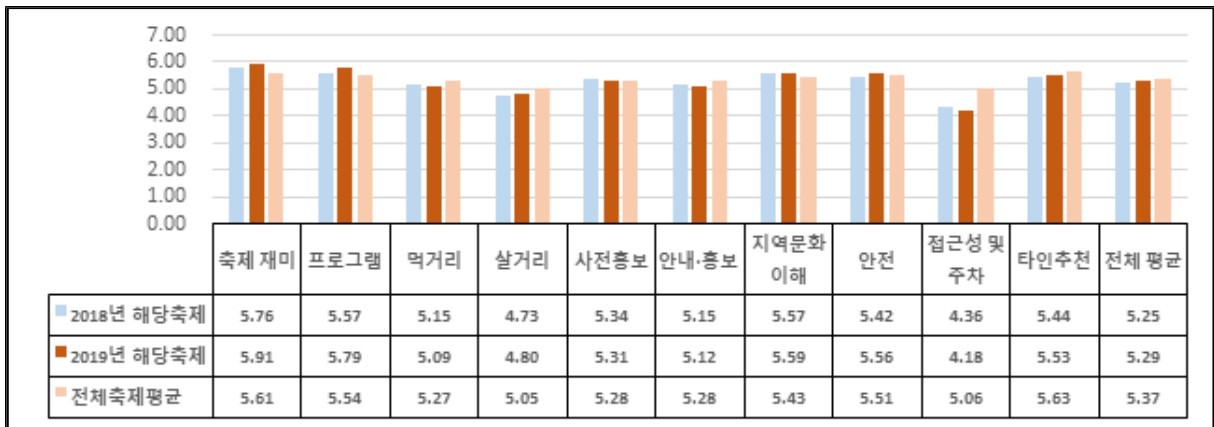


# 17

## 음성품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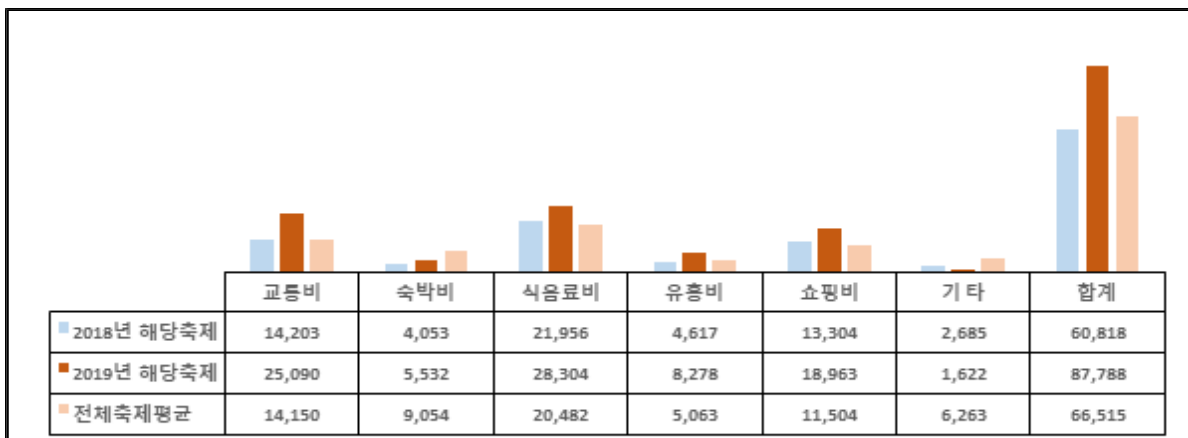
### 만족도

음성 품바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높았으며 2019년 축제 전체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먹거리·사전홍보·안내/홍보·접근성 및 주차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 대비 먹거리·살거리·안내/홍보·접근성 및 주차·타인추천 항목이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 및 살거리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6,970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32.0%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기타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숙박비·기타비가 낮았음. 이에 축제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숙박객 유치 방안 및 다양한 즐길거리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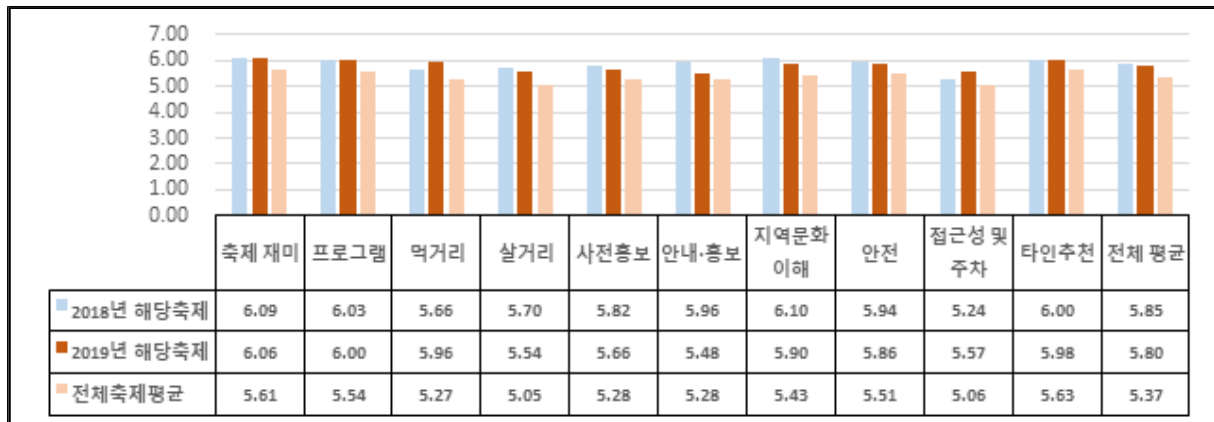


## 18

## 한산모시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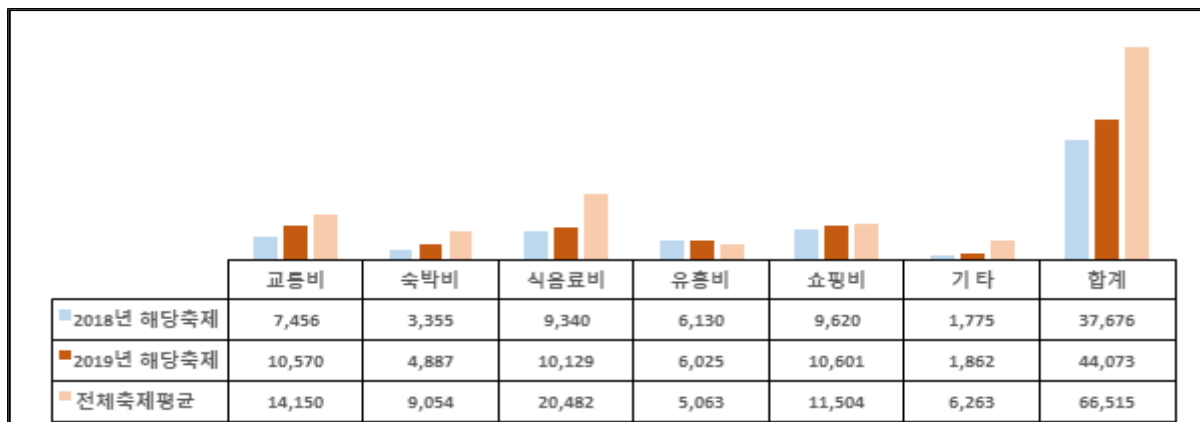
## 만족도

한산 모시문화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낮았으며 2019년 축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먹거리·접근성 및 주차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았으며 전국 평균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6,397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66.3%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유희비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유희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축제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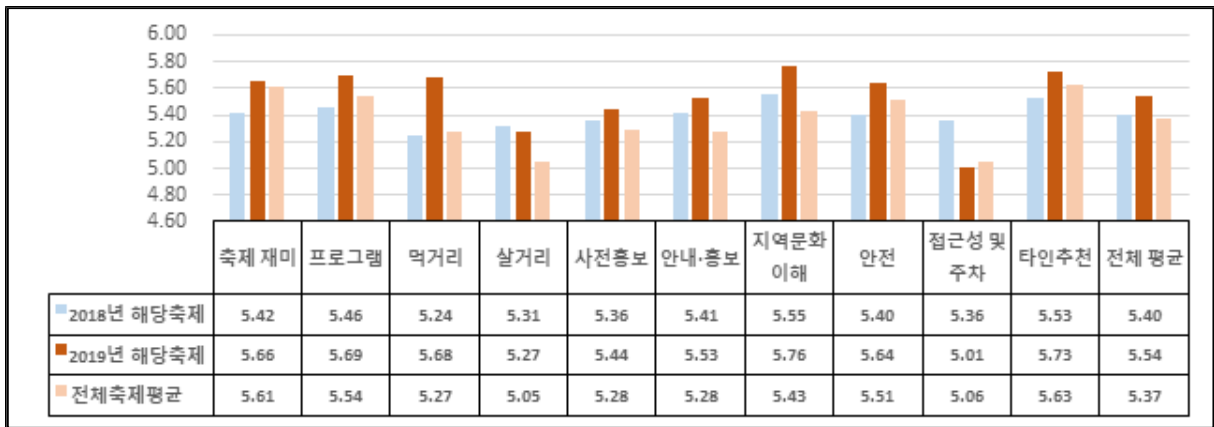


# 19

## 서산해미읍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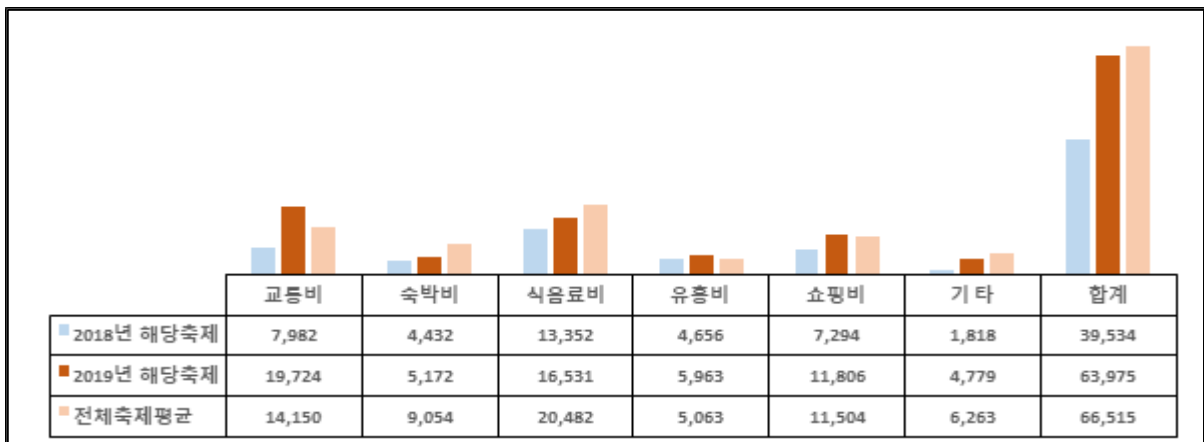
### 만족도

서산해미읍성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높았으며 2019년 축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살거리·접근성 및 주차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았으며 전국 평균 대비 접근성 및 주차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객의 접근성 강화와 주차장 개선 등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4,441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96.2%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숙박비·식음료비·기타비가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숙박객 유치 방안 및 다양한 먹거리 발굴이 요구됨



## 20

## 강경젓갈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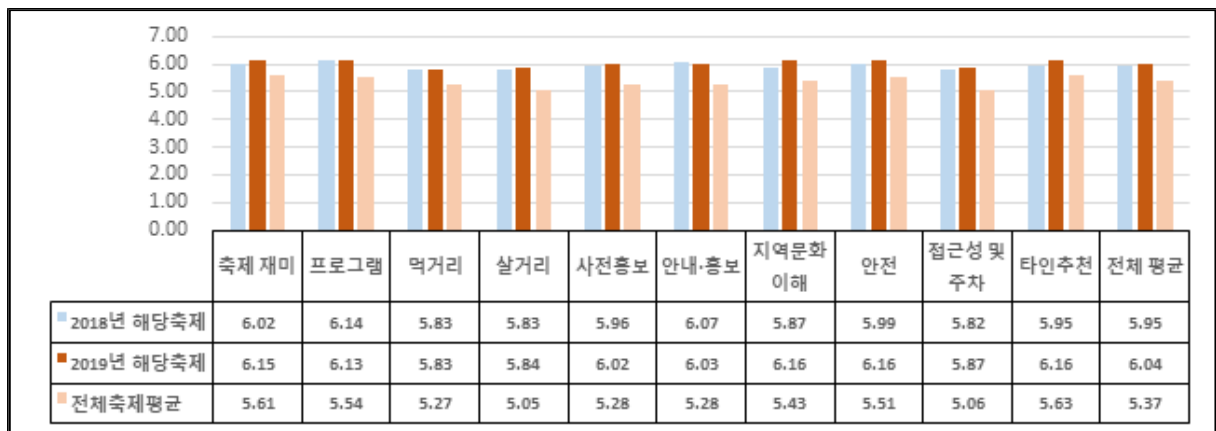
- 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제 미개최

# 21

## 부여서동연꽃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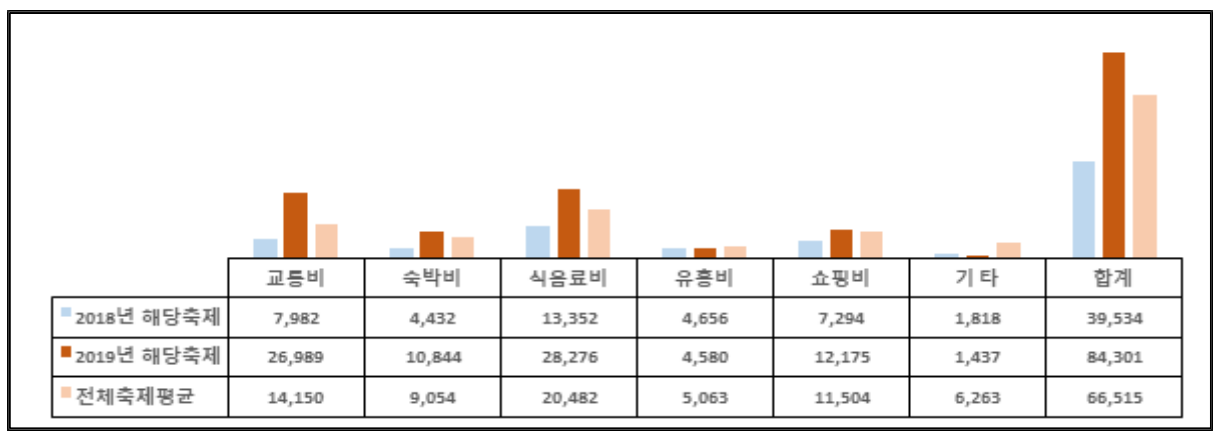
### 만족도

서동연꽃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안내/홍보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이색적인 축제 프로그램 발굴 및 축제장내의 안내 및 홍보체계 개선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44,767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26.7%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유희비·기타비가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유희비·기타비 항목이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축제장과 지역 내 다양한 즐길거리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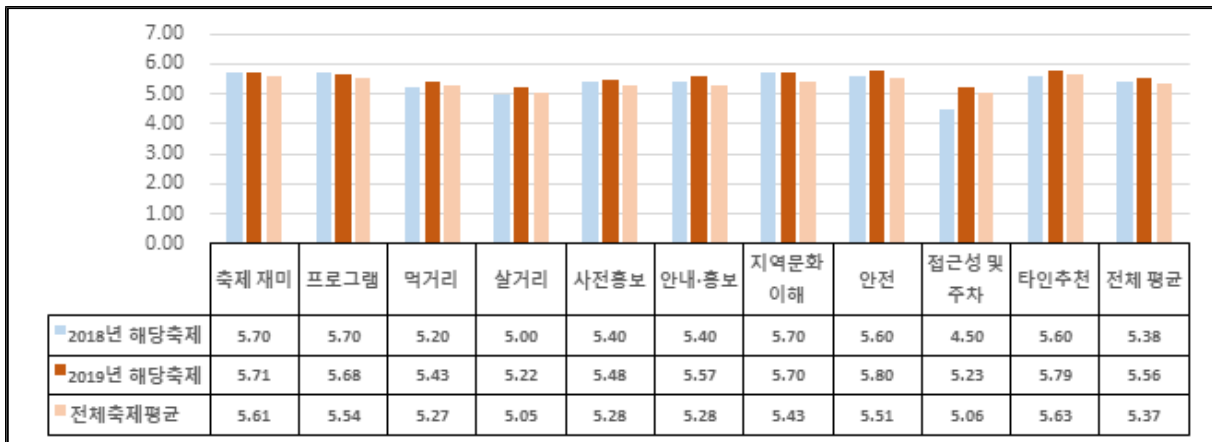


## 22

## 무주반딧불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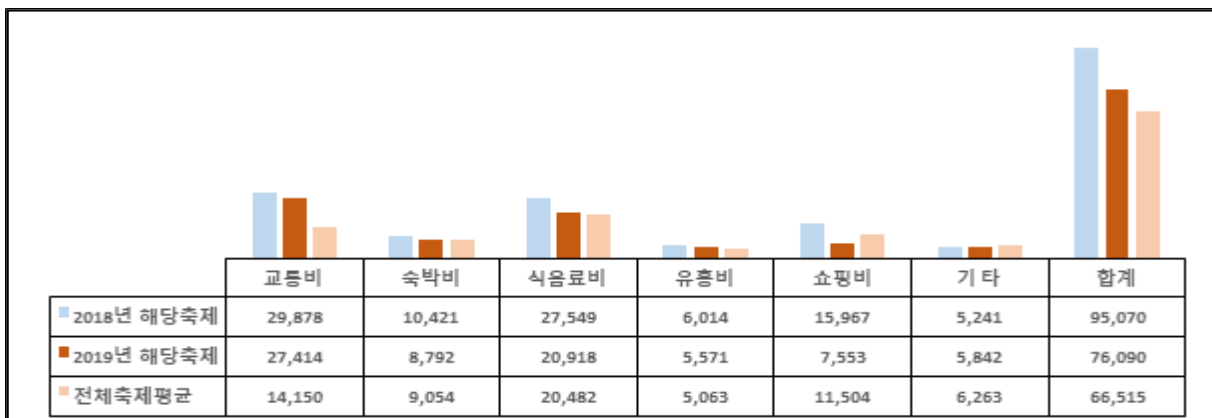
## 만족도

무주반딧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이색적인 축제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8,980원 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의 114.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기타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숙박비·쇼핑비·기타비 항목이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방안 및 다양한 특산물, 기념품 발굴을 통한 살거리 개발이 요구됨





# 23

## 임실N치즈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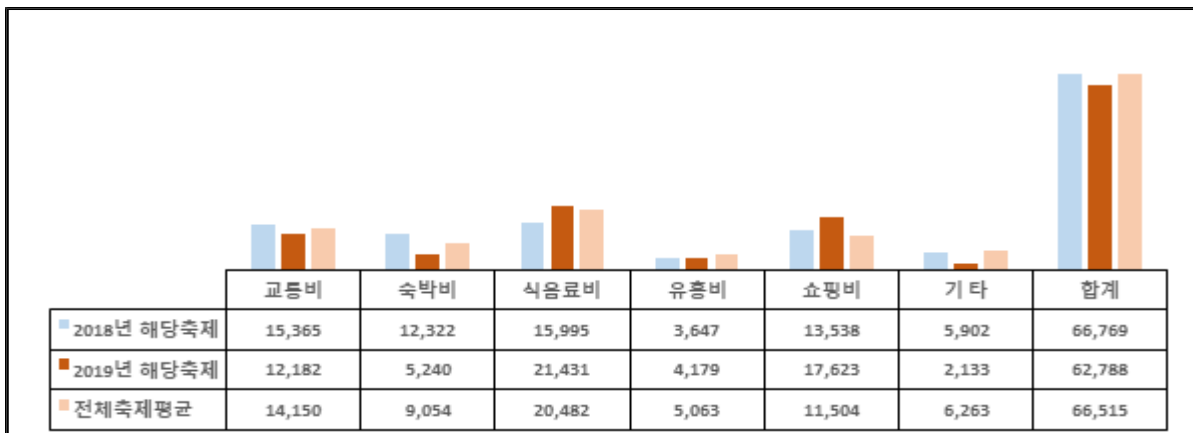
### 만족도

임실N치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지역문화 이해·접근성 및 주차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안내/홍보·안전 항목이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장 내 안내 및 홍보체계 강화, 안전체계 강화, 교통 체계 및 주차장 개선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981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94.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교통비·숙박비·기타비가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숙박비·유흥비·기타비가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방안 및 다양한 즐길거리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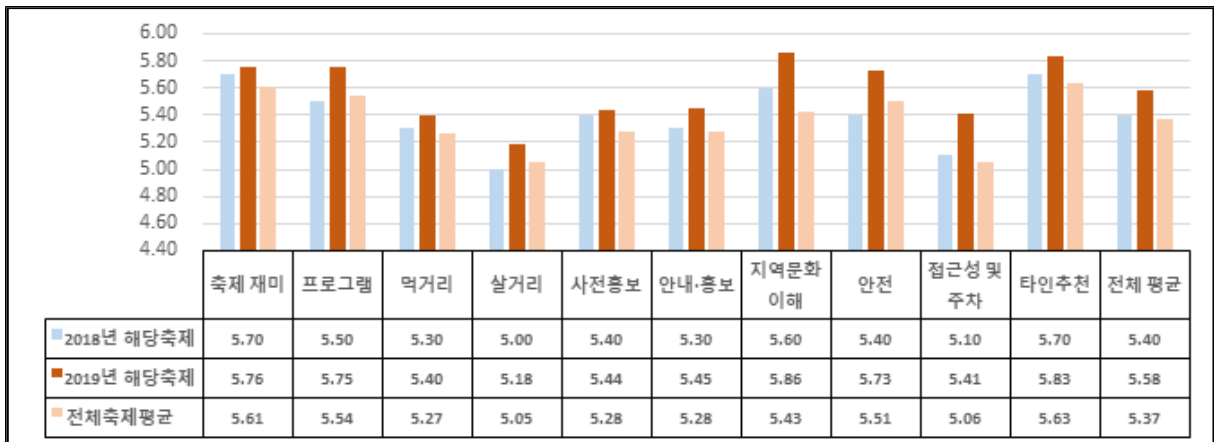


## 24

## 고창모양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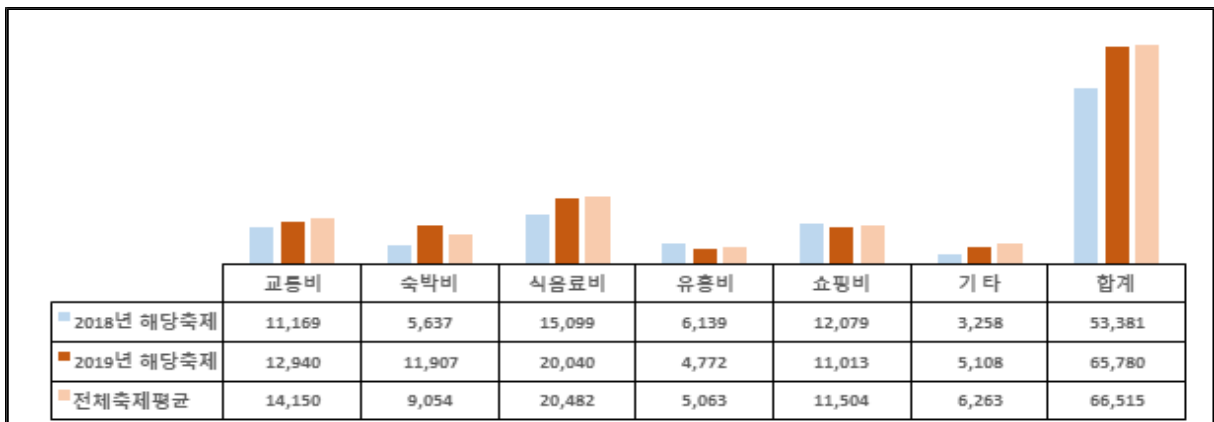
## 만족도

고창 모양성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 평균에 비해 높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항목 중 낮게 나타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산물 및 기념품 등 살거리 개선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2,398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98.9%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유흥비·쇼핑비가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숙박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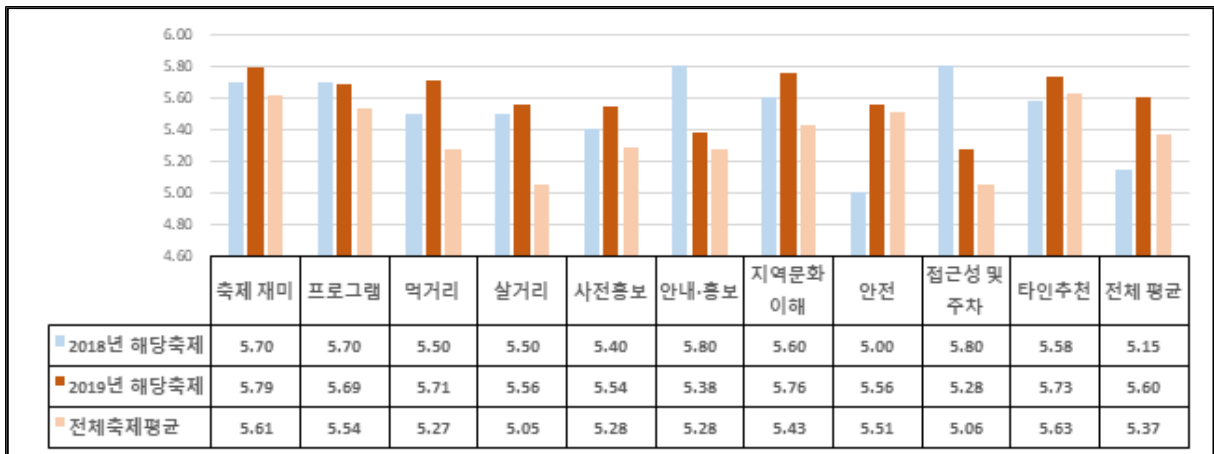


# 25

## 순창장류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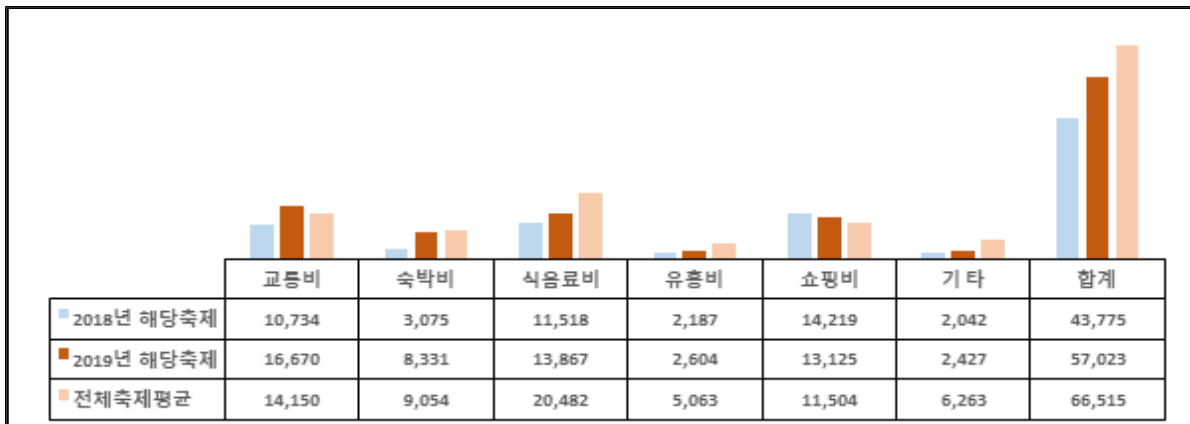
### 만족도

순창 장류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안내/홍보·접근성 및 주차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화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장 내 안내/홍보 체계 개선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3,248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85.7%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쇼핑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기타비 항목에서 모두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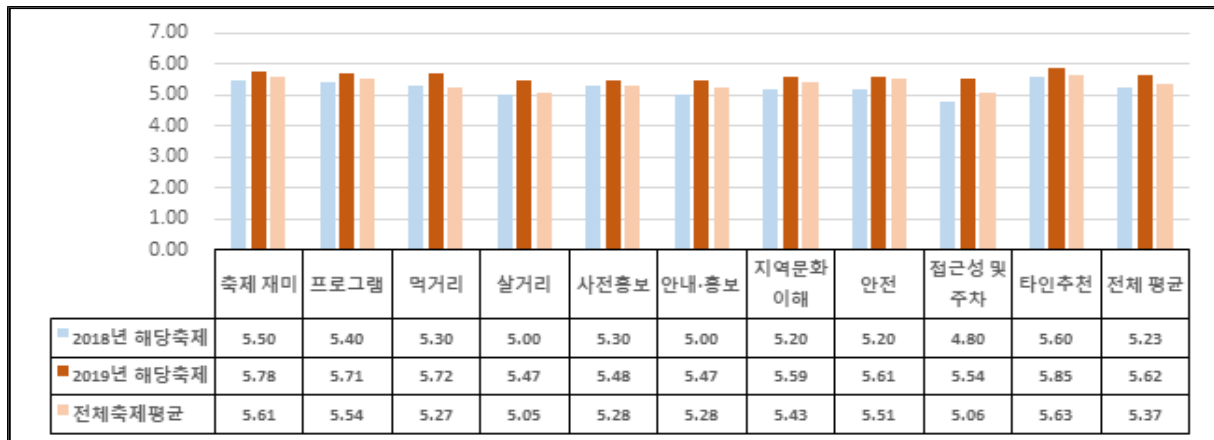


## 26

## 완주와일드푸드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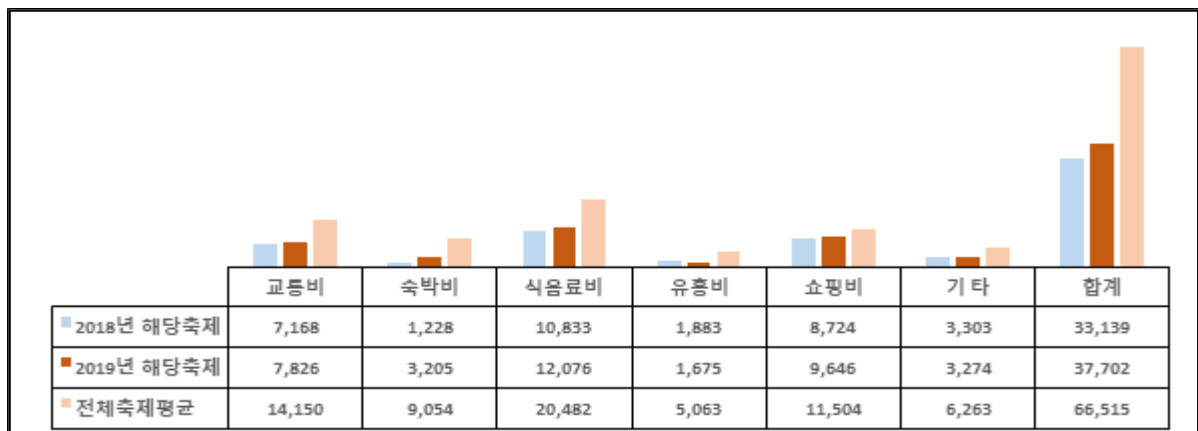
## 만족도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난 살거리, 사전홍보, 축제장 내 안내/홍보의 개선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4,563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56.7%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유희비·기타비가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체류시간 증대 방안 및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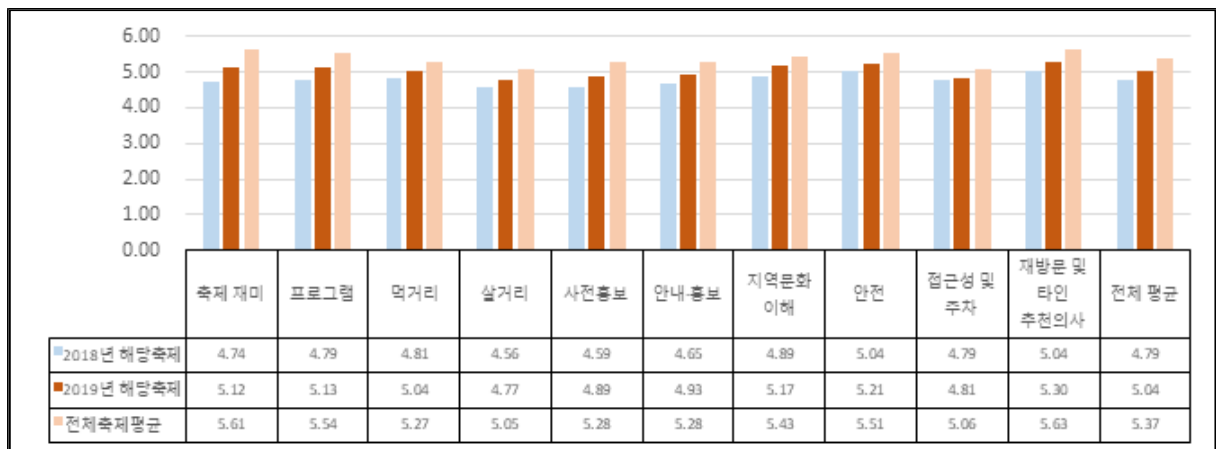


27

담양대나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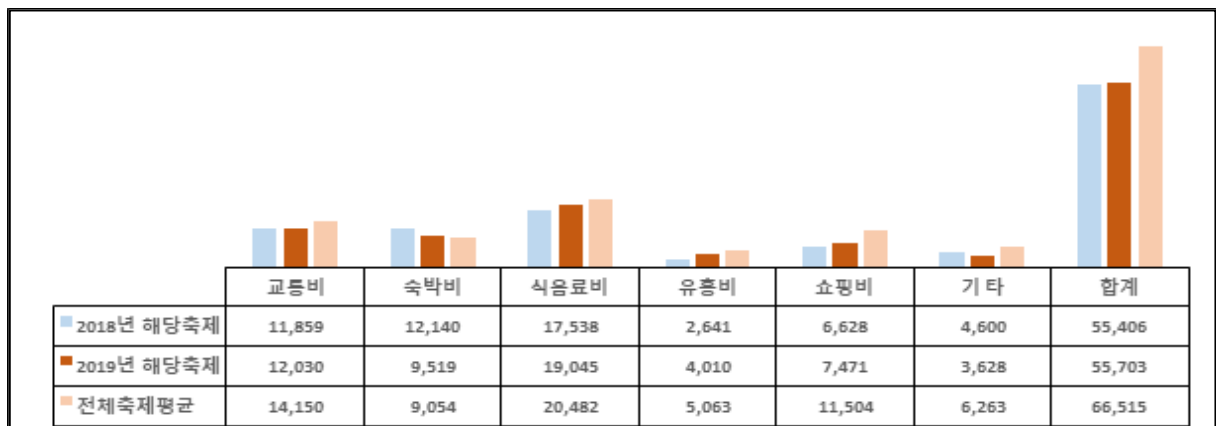
만족도

담양대나무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축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97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83.7%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숙박비·기타비가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숙박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적으로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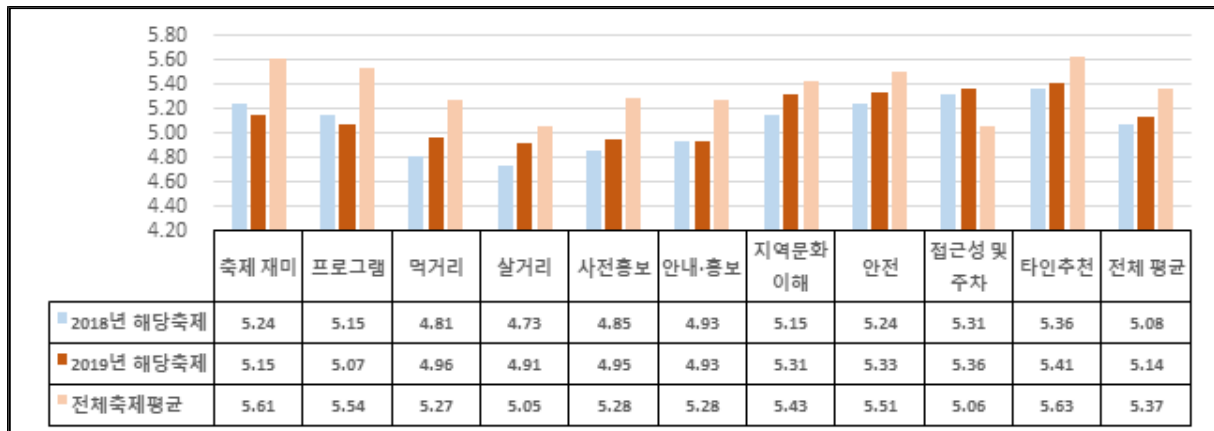


## 28

##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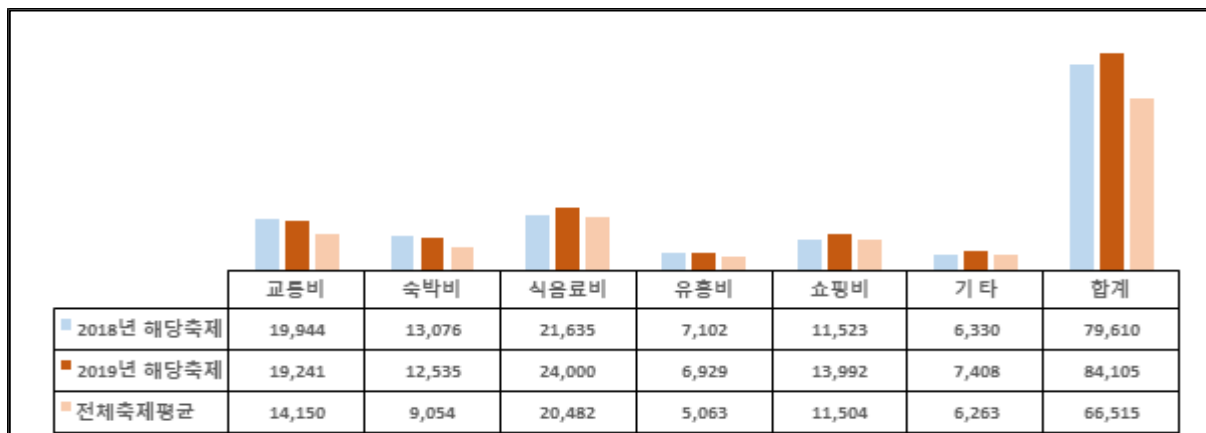
## 만족도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재미·프로그램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접근성 및 주차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통해 축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4,495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26.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교통비·숙박비·유형비가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모든 항목이 높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숙박객 유치 및 즐길거리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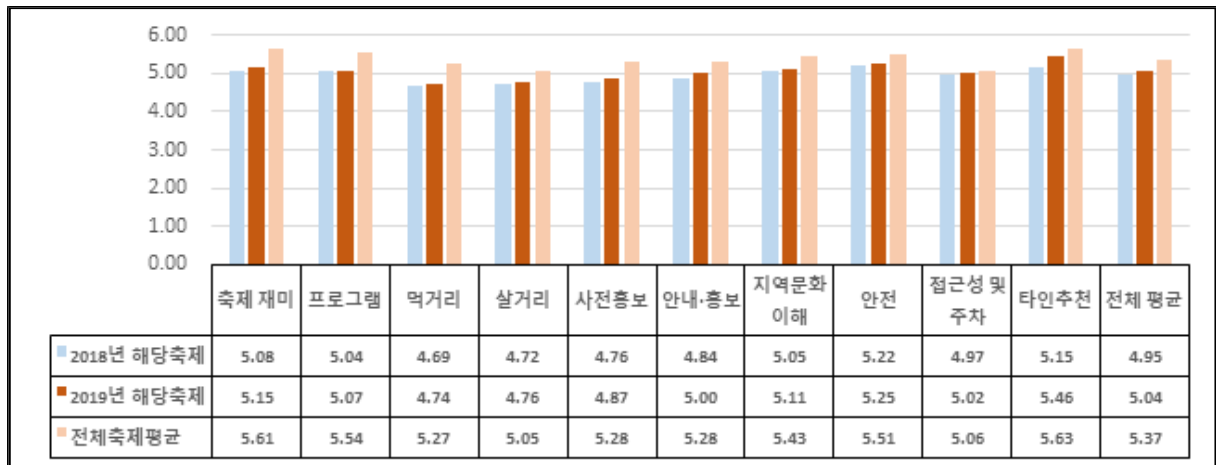


29

보성다향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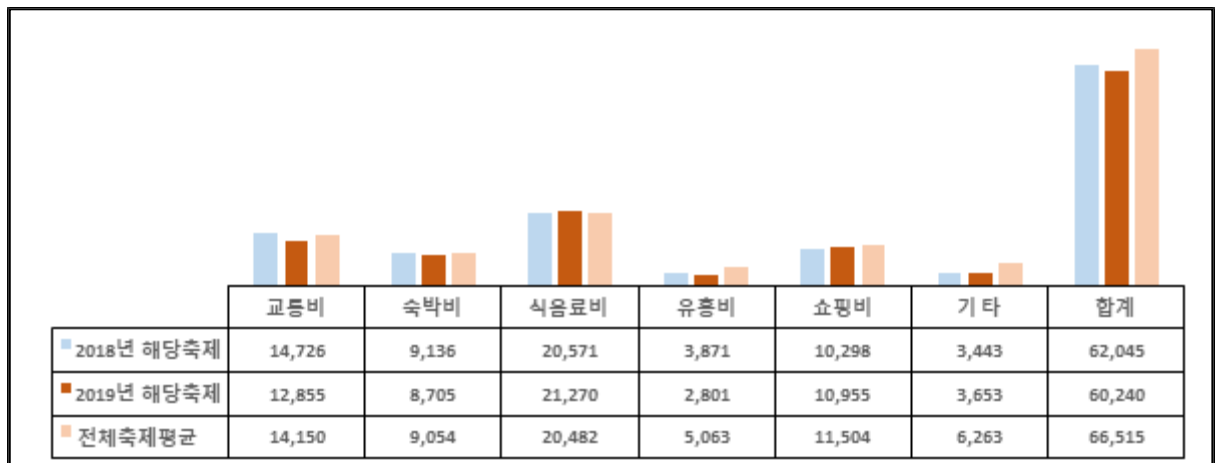
만족도

보성 다향대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축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805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90.6%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교통비·숙박비·유흥비가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식음료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적으로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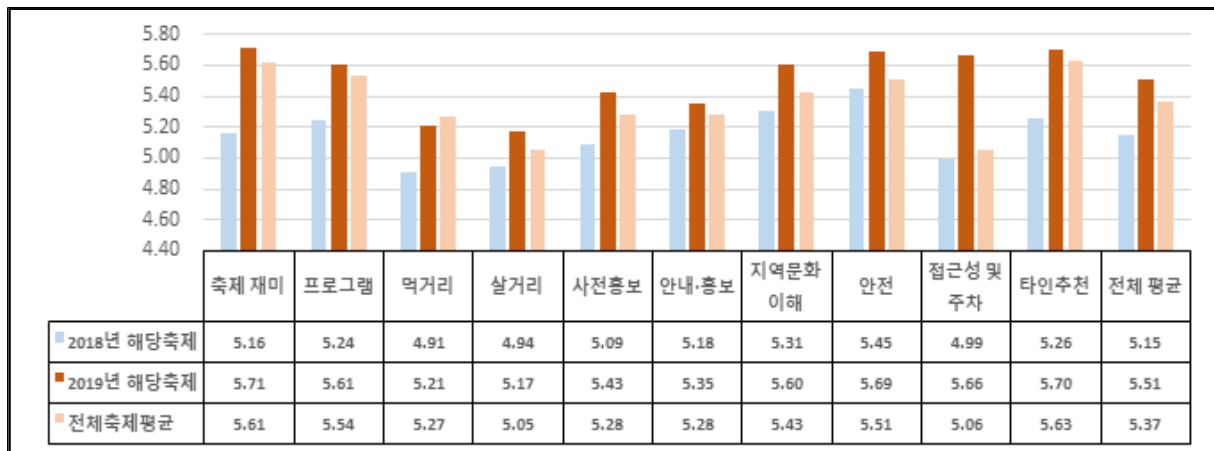


## 30

## 강진청자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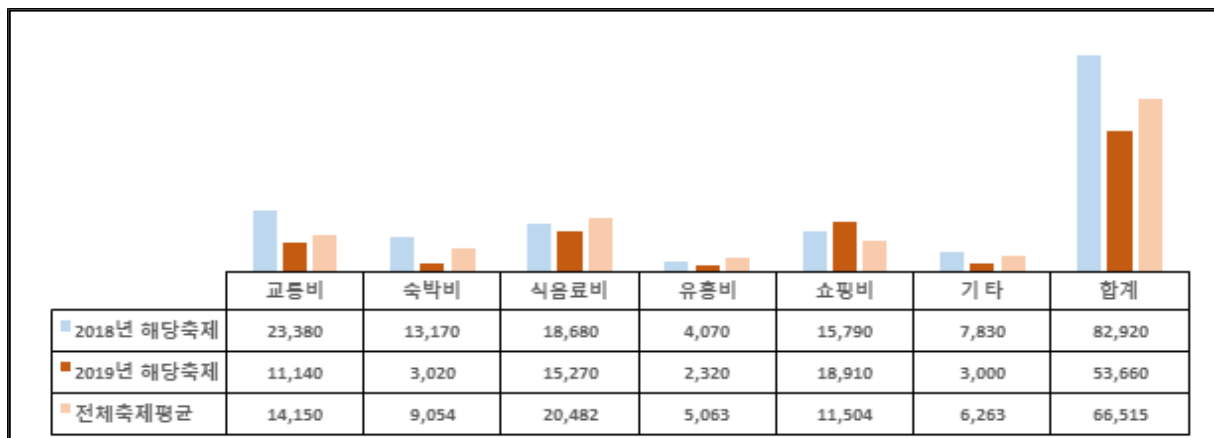
## 만족도

강진 청자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먹거리 항목이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먹거리 개발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9,260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80.7%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쇼핑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쇼핑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적으로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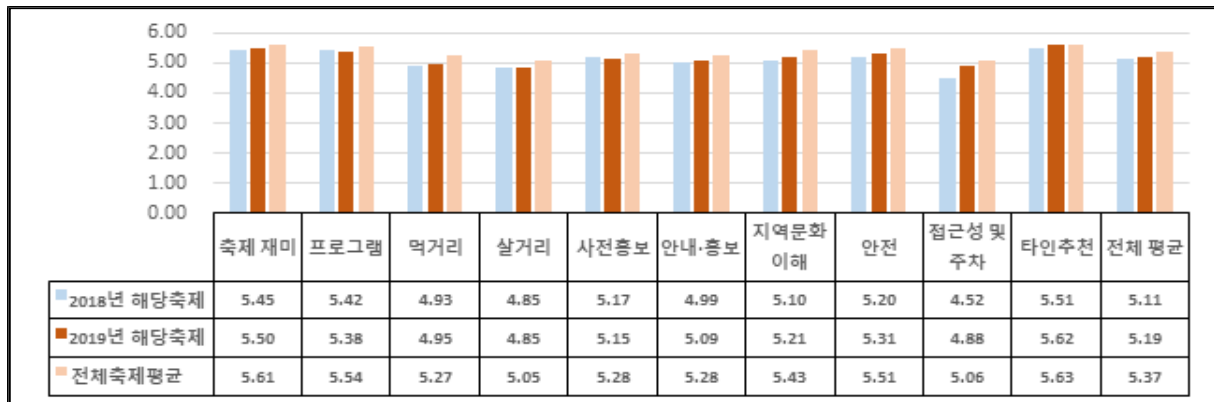


# 31

## 정남진장흥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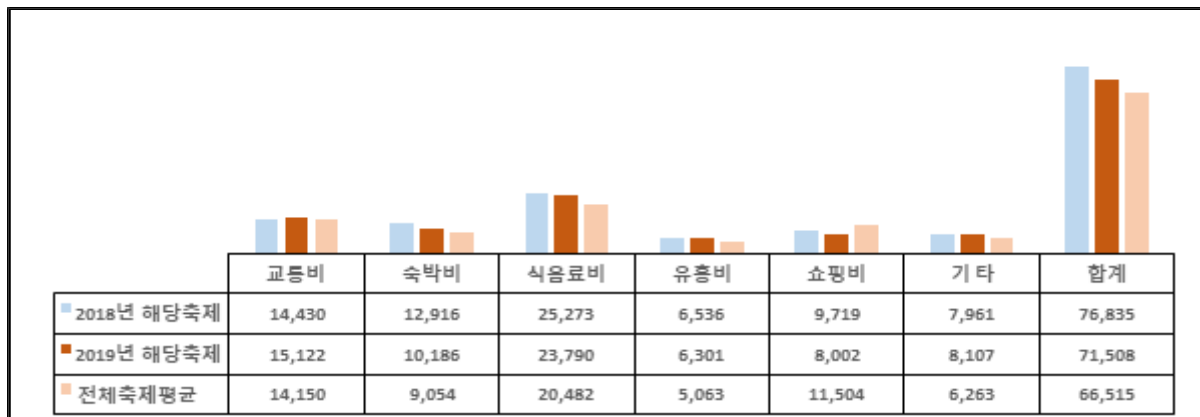
### 만족도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사전홍보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축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5,327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07.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숙박비·식음료비·유희비·쇼핑비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특산물, 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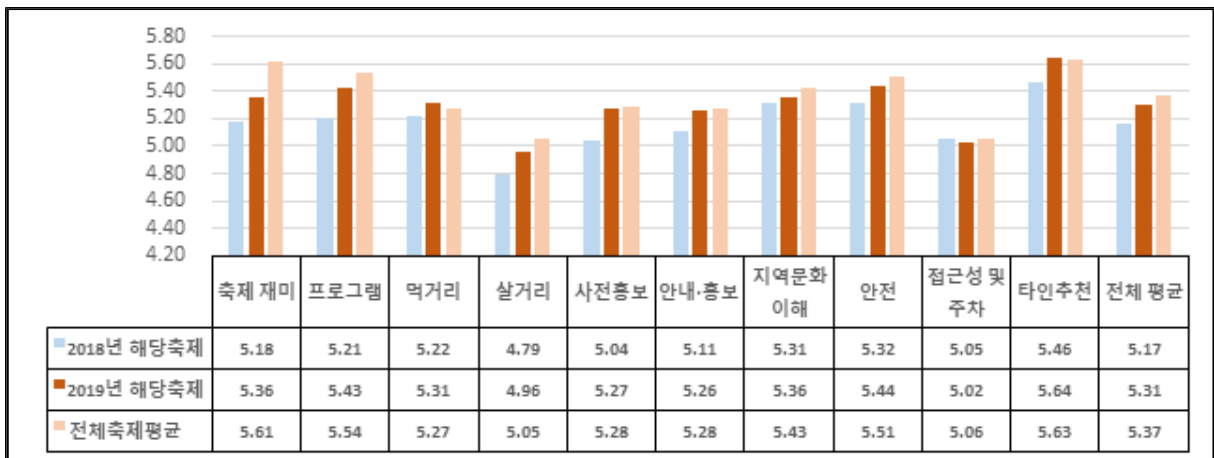


# 32

## 영암왕인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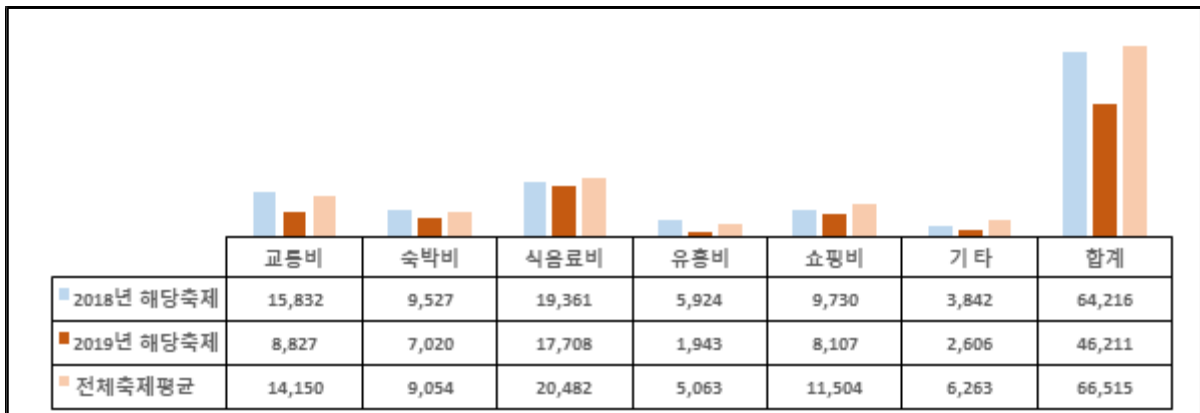
### 만족도

영암 왕인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접근성 및 주차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먹거리·타인추천을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통해 축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8,005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69.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축제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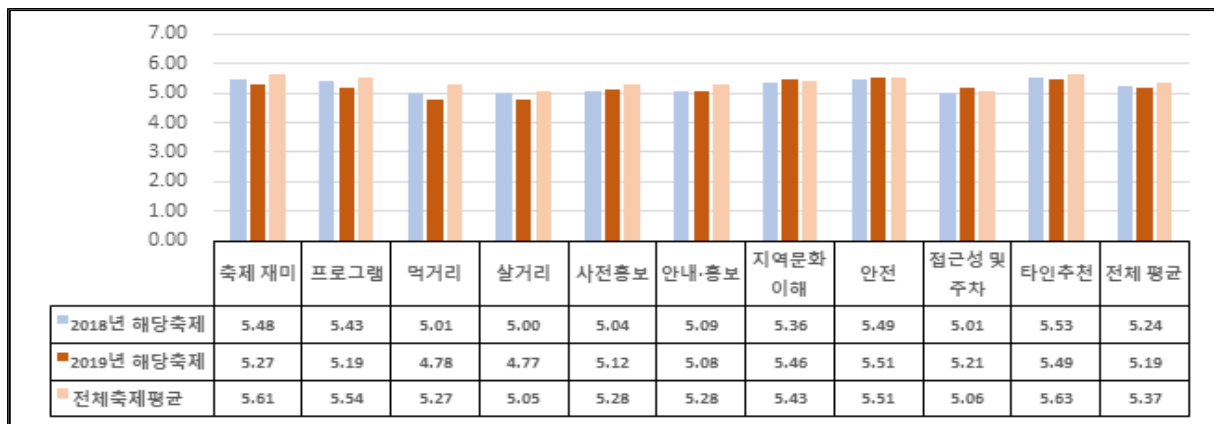


# 33

## 문경찾사발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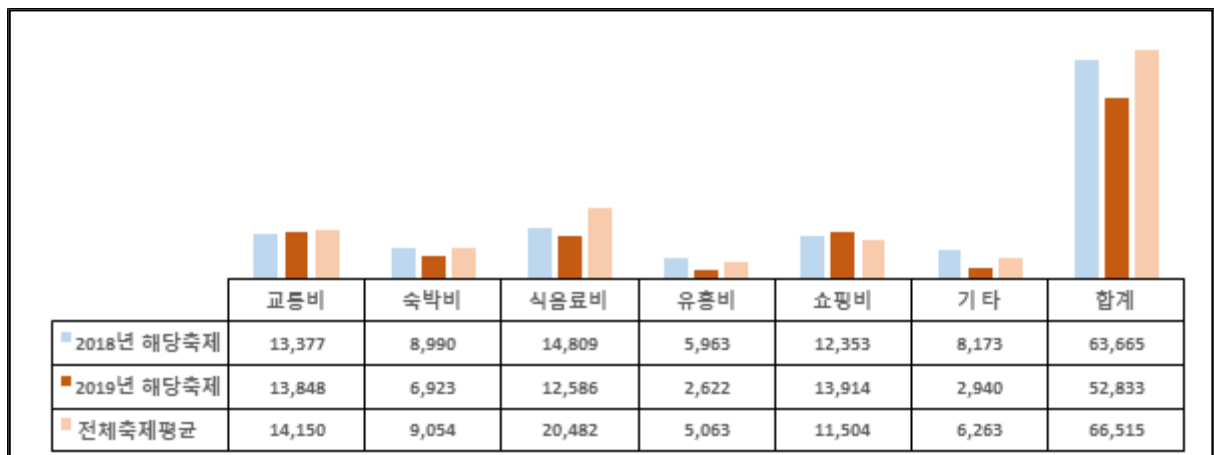
### 만족도

문경 찾사발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낮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재미·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안내/홍보·타인추천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 대비 지역문화 이해·접근성 및 주차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통해 축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0,832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79.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식음료비·유홍비·기타비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쇼핑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축제 수익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특색 있는 음식, 상품, 체험거리 등의 개발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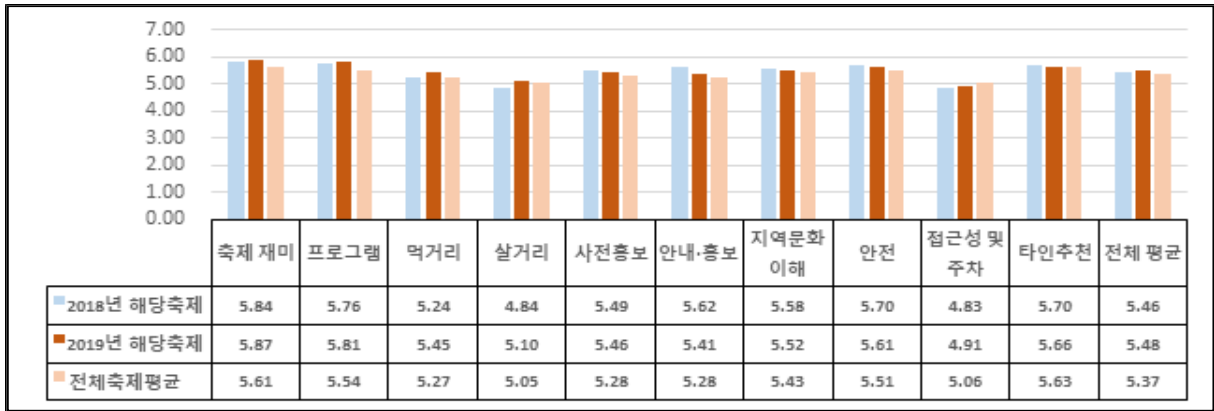


# 34

## 봉화은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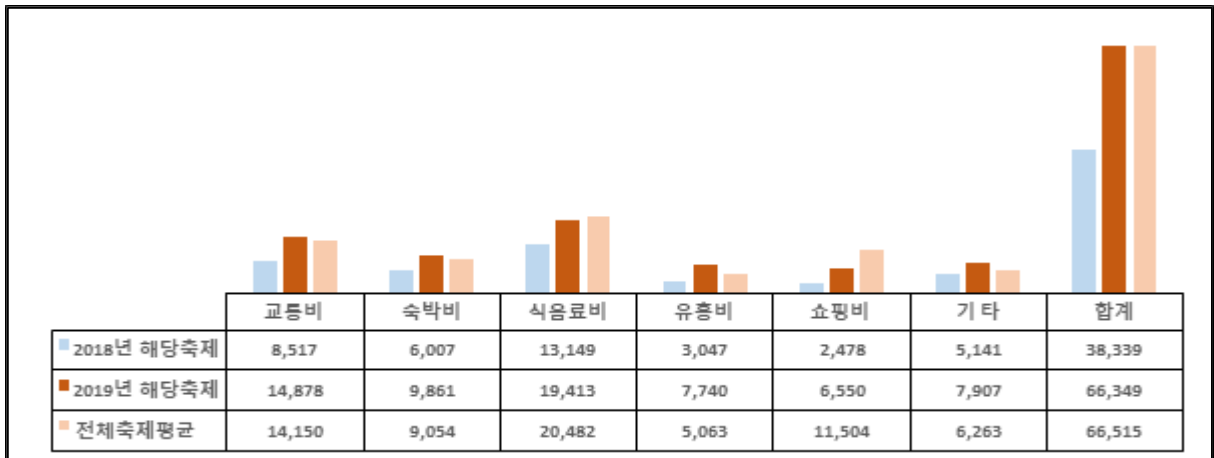
### 만족도

봉화은어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사전홍보·안내/홍보·지역문화이해·안전·타인추천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 대비 접근성 및 주차 항목이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 홍보체계 강화 및 교통 및 주차체계 개선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8,010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99.8%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식음료비·쇼핑비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특산물, 기념품 발굴을 통한 살거리와 먹거리 개발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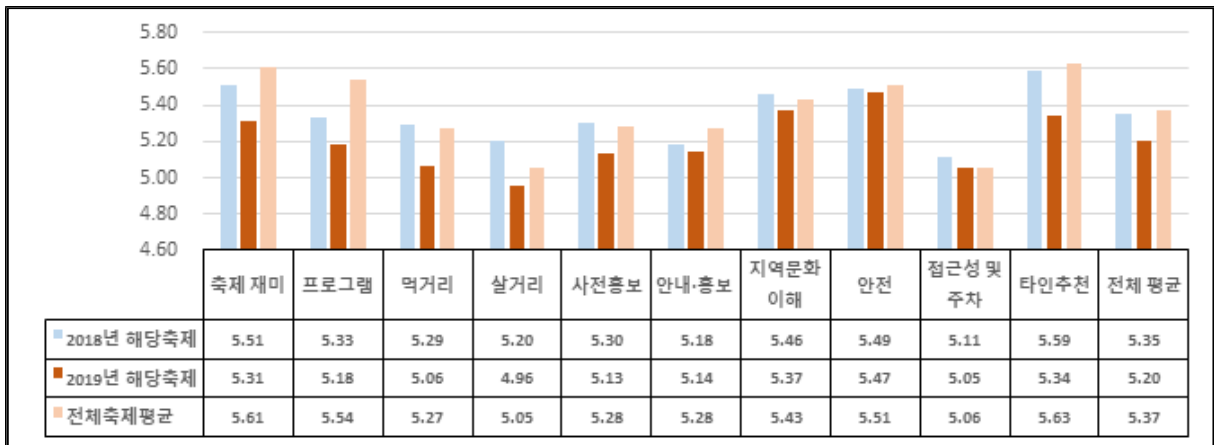


# 35

## 고령대가야체험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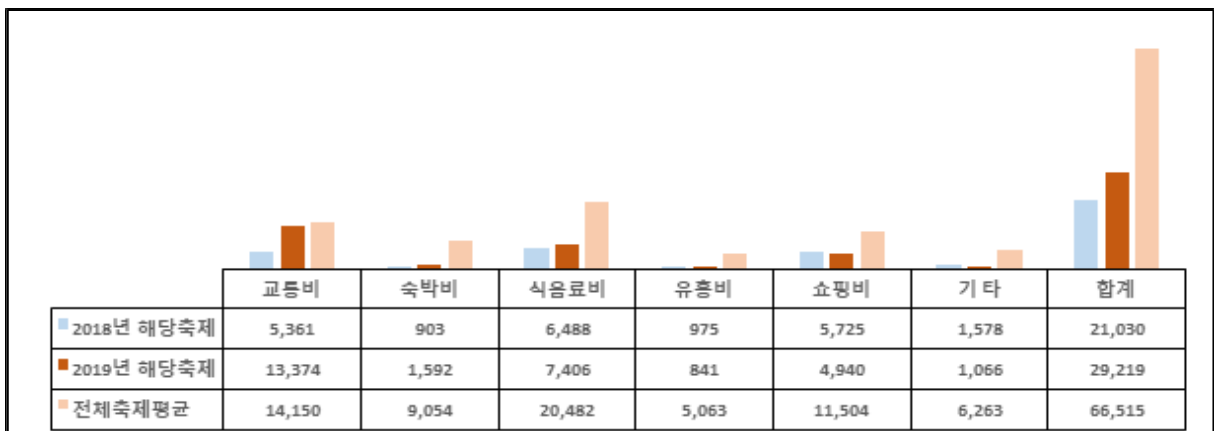
### 만족도

고령 대가야체험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낮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및 전국 평균 대비 모두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통해 축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8,189원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의 43.9%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유희비·쇼핑비·기타비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축제 수익창출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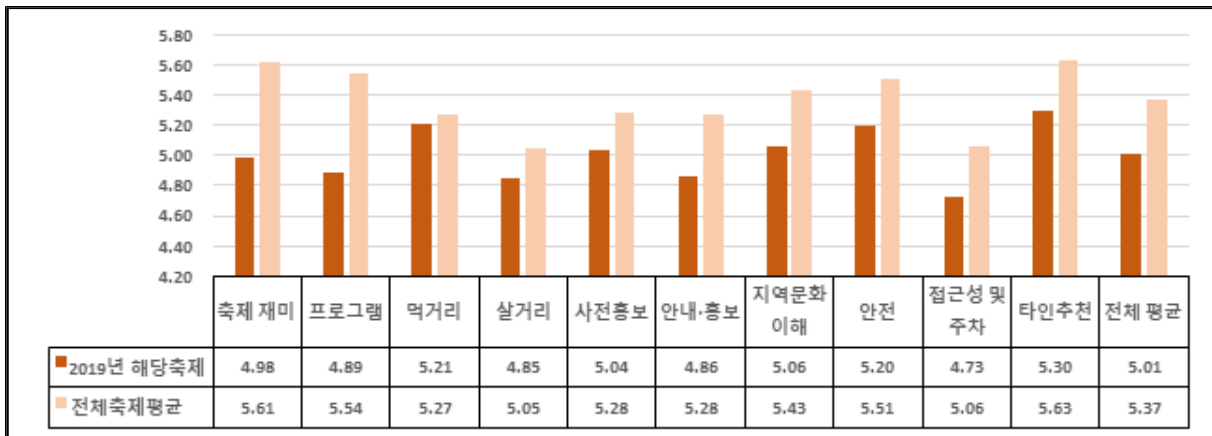


# 36

## 영덕대게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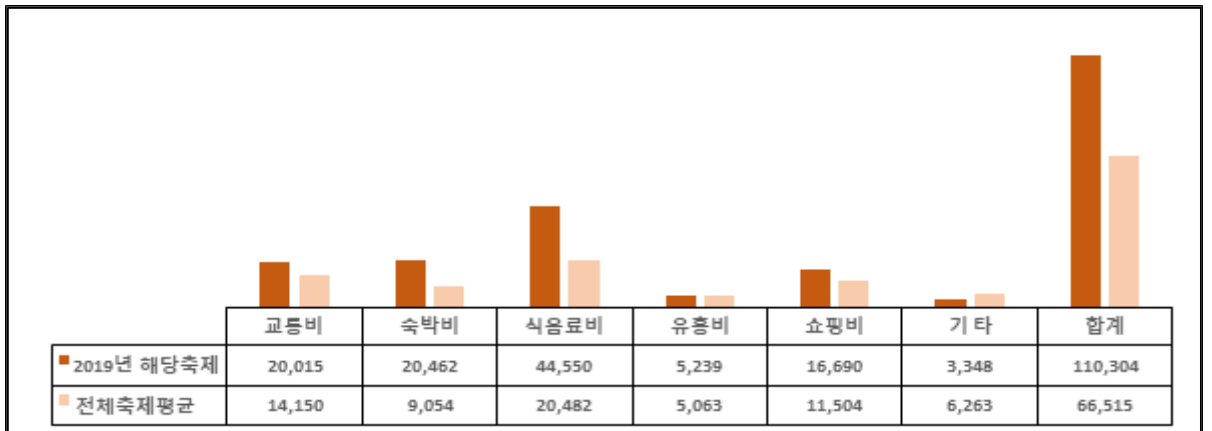
### 만족도

영덕대게축제의 만족도는 2019년 신규축제로서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나,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축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65.8%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기타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익성 창출이 높은 축제라 할 수 있음. 다만,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즐길거리 확대를 통해 유희비와 기타비의 수익 창출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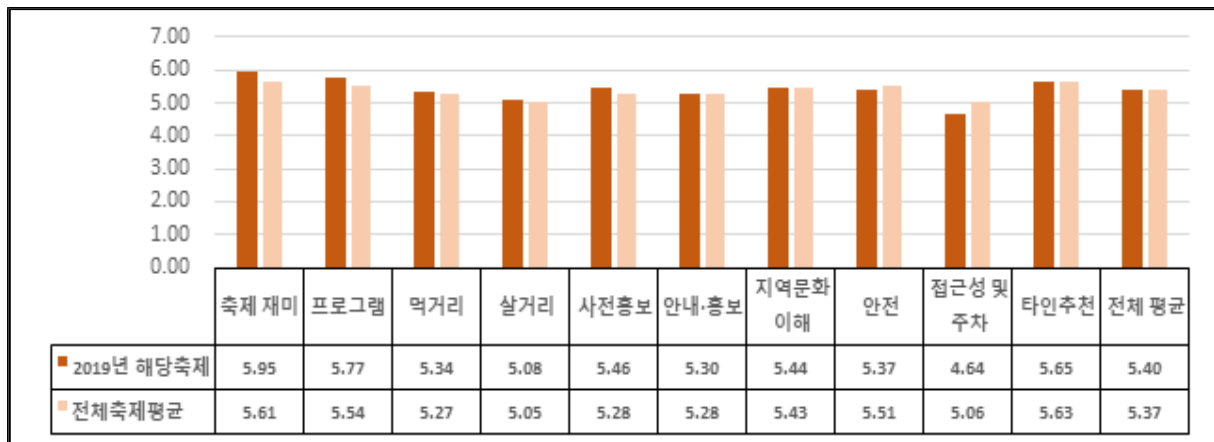


# 37

## 포항국제불빛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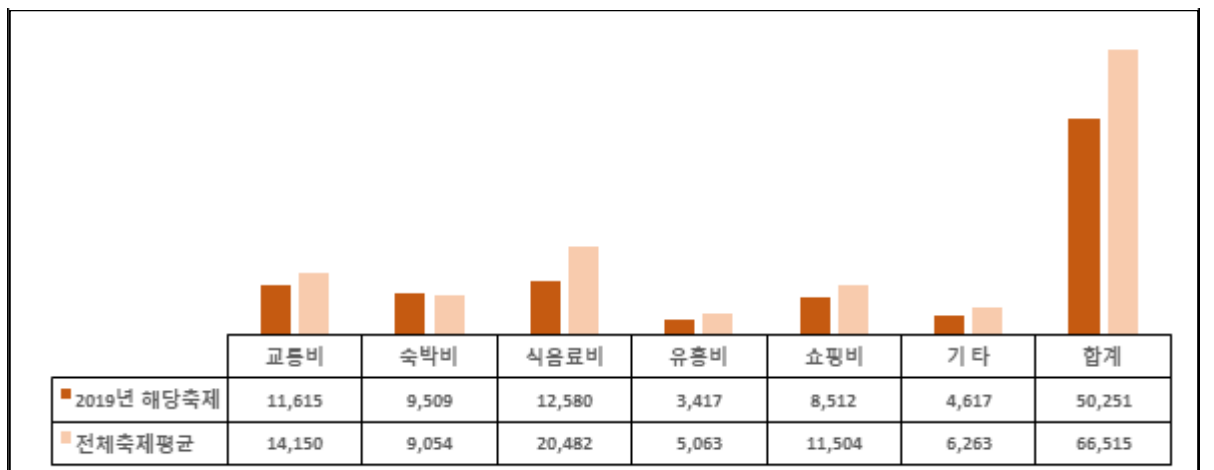
### 만족도

포항국제불빛축제의 만족도는 2019년 신규축제로서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안전·접근성 및 주차 항목이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장 내 안전체계 강화, 교통체계 및 주차장 편의 개선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75.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숙박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지역성을 반영한 먹거리, 다양한 체험거리, 특산물·기념품 등 살거리 발굴 등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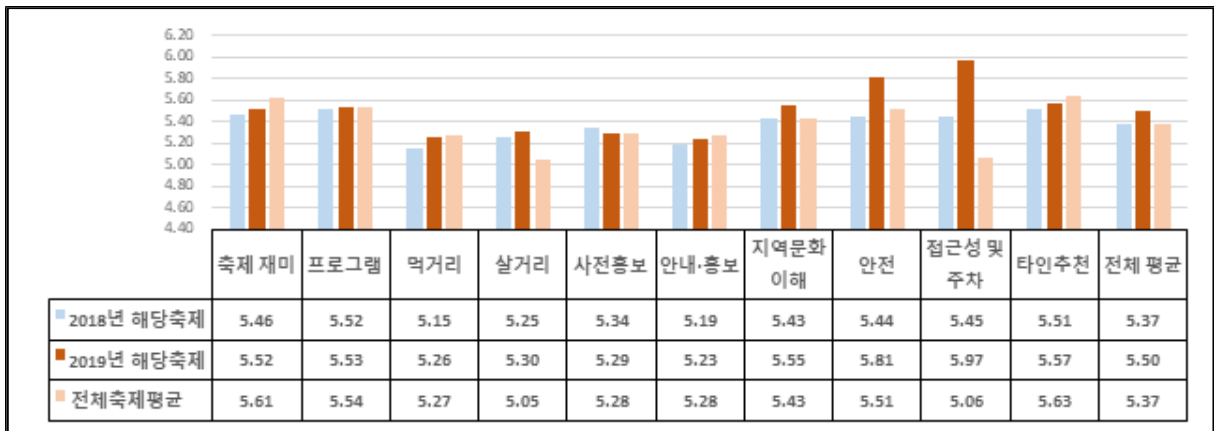


# 38

## 산청한방약초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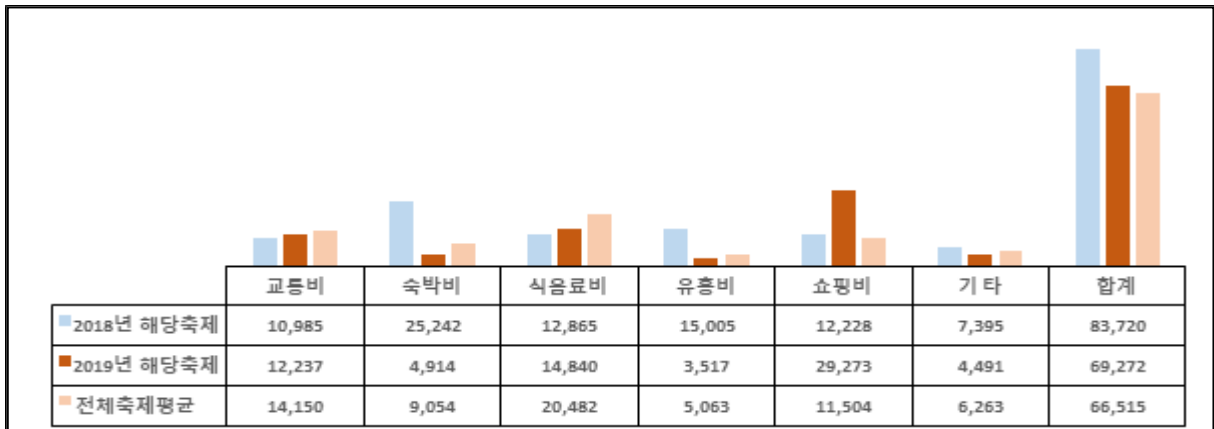
### 만족도

산청한방약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사전홍보 항목이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축제재미·프로그램·먹거리·안내/홍보·타인추천 항목이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사전 홍보체계 강화,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지역성을 반영한 먹거리 개발 등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4,448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04.1%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숙박비·유희비·기타비가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쇼핑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체류시간 확대 방안 및 먹거리, 체험거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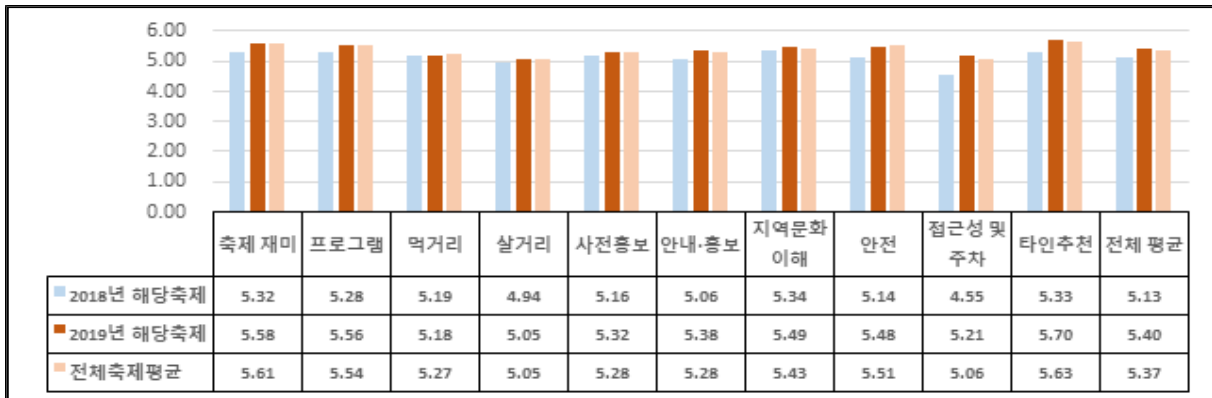


# 39

## 통영한산대첩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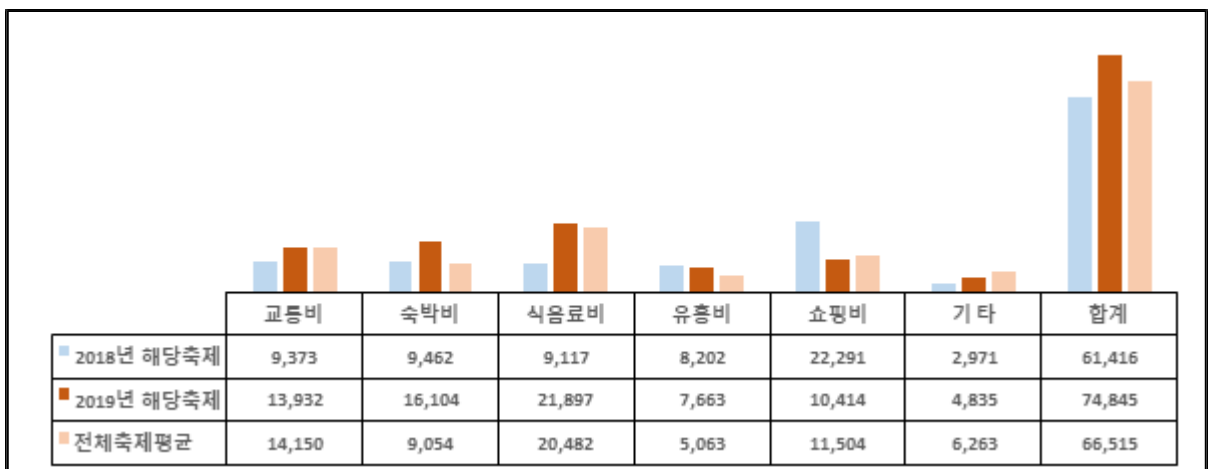
### 만족도

통영 한산대첩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먹거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축제재미·먹거리·안전 항목이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의 흥미성 유발,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 축제장 내 안전체계 강화 등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3,429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12.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쇼핑비, 유희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모두 높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쇼핑비·기타비가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특산물, 기념품 발굴을 통한 살거리 개발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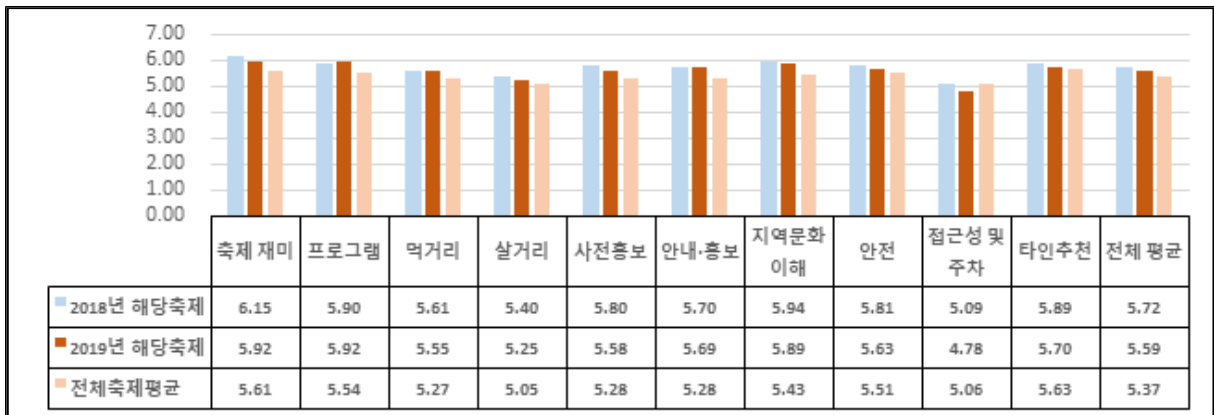


# 40

## 밀양아리랑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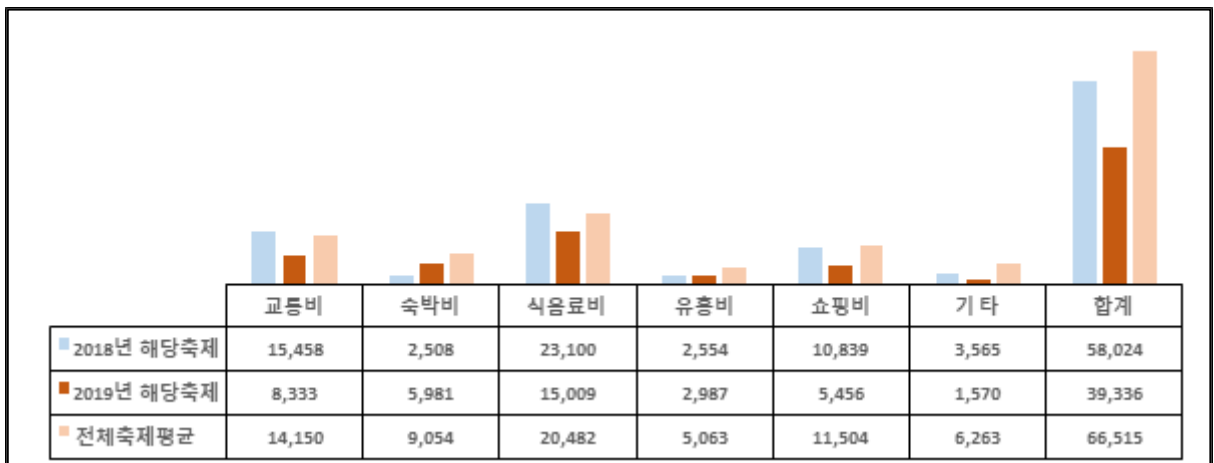
### 만족도

밀양 아리랑대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접근성 및 주차 항목이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등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8,688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59.1%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숙박비·유흥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축제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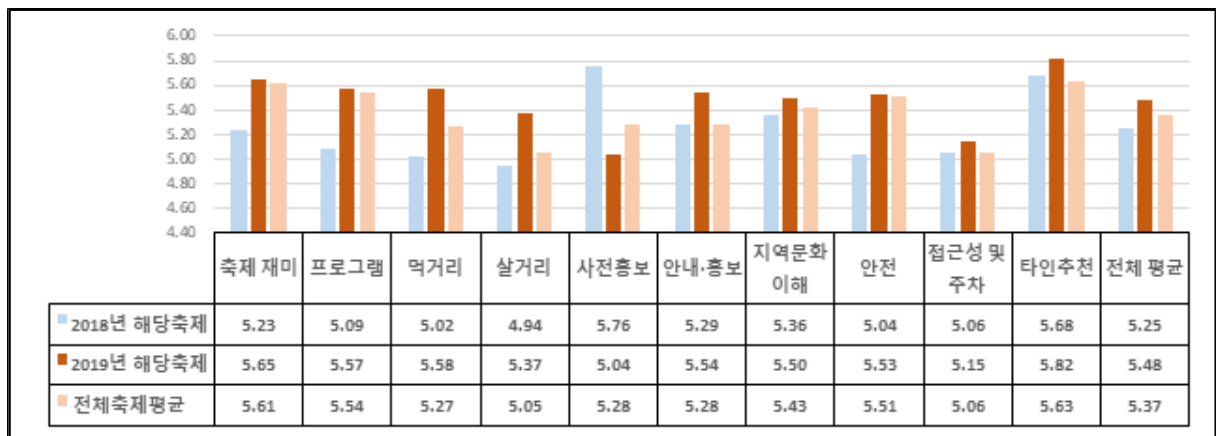


# 41

## 제주들불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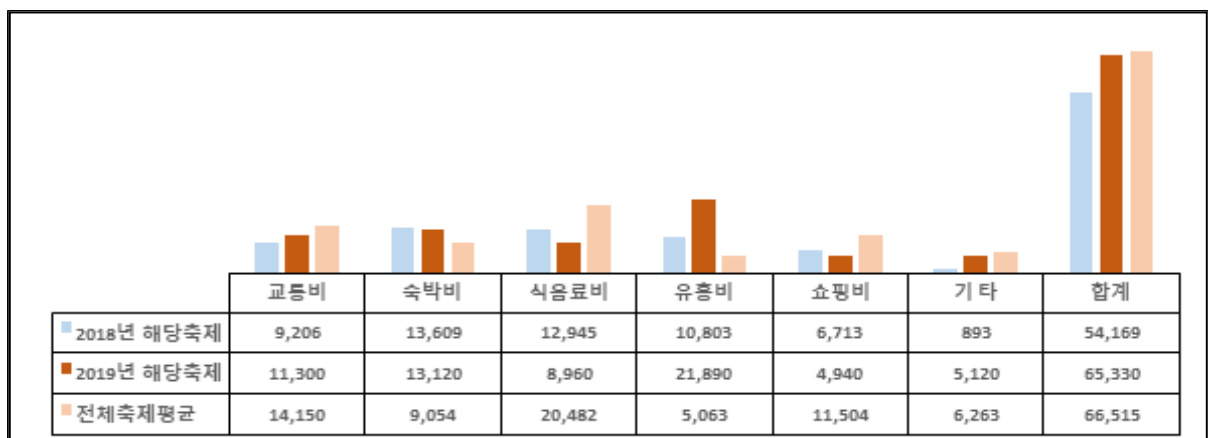
### 만족도

제주 들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전체 축제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및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모두 사전홍보 항목이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축제 사전 홍보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1,161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98.2%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숙박비·식음료비·쇼핑비가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교통비·식음료비·쇼핑비·기타비가 낮았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과 특산물, 기념품 등 다양한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2019 문화관광축제 >>>

# IV

## 전문가 현장평가 축제별 결과 (유망축제)





## 개 요

- 문화관광축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질적 제고를 위하여 매년 문화관광축제에 대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장 평가를 위하여 관광 및 문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외부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축제별로 민간전문가 등 총 3명의 평가위원이 축제 개최 기간 동안 직접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참관평가 항목기준’에 의거 평가함
  -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45%), 축제의 운영(20%), 축제 발전역량(30%), 축제의 효과(5%)

### 〈2019년 문화관광축제 참관평가 항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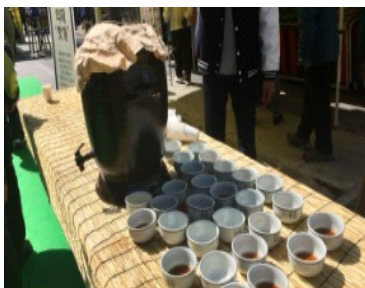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1) 축제기획서	○ 축제 기획서의 전반적인 분야(축제 목적 및 방향, 콘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
2) 축제의 특성/ 축제 콘텐츠	○ 축제 주제(소재)관련 대표 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완성도
	○ 타 축제와의 소재 및 프로그램 차별성과 매력성 - 축제 방문객에 위한 특색있는 참여·체험 프로그램/축제 캐릭터 개발 등
	○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연계투어/ 체류형 야간프로그램 등
3) 축제의 운영	○ 자원봉사자 교육시스템 등 행사장내 운영 효율성
	○ 축제 기획·운영 전문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정도
	○ 축제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 - 타 지자체 등과 축제 홍보·마케팅 협업, 지역 외 전국단위 홍보 등
	○ 접근성·공간배치 등 행사장 환경 및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4) 축제발전성	○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
	○ 축제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지방자치단체장의 육성의지 등 성장가능성
5) 축제의 성과	○ 안정적인 축제(상설)조직체 구성 및 운영여부, 축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 여부
	○ 축제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 및 국내외 인지도(홍보효과 등)
	○ 방문객 만족도 및 지역경제 효과
	○ 방문객 수 집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정도

## 1

##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 (1) 개요

- 기 간 : 2019. 5. 2(목) ~ 5. 6(월) / 5일간
-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시(약전골목) 일원
- 주 최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 주 관 : (사)약령시보존위원회
- 주요행사
  -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 테마 프로그램
    - 고유제, 2019명 정성탕 나누기, 전승기에 경연대회, 약령술문, 올해의 약차 나눔, 약손 힐링공방, 약초동산, 한방미용체험, 약령다방, 한약재 도매시장 체험, 약령 청춘 보부상, 사상체질체험관, 한방힐링센터, 마음치유소, 테마한약재 전시관, 약초꽃 사진전, 약령시이야기 사진전
  - 체험 프로그램
    - 한방 환 만들기, 전통 한약 달이기, 황금 경옥고를 찾아라, 약 저울달기, 건강기원등 달기, 한방 어울마당(메인무대), 한방족욕체험
  - 기타 프로그램
    - 약령시가수왕(메인무대), 한방먹거리 장터, 한방 푸드트러, 약령예술인 한마당, 근대문화 골목투어, 달빛 야경투어





## (2) 평 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 가 내 용
<p>우수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콘텐츠인 한방을 이용하여 체험, 전시, 판매 등 5가지로 구분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하였음</li> <li>○ 특히, 행사 개최장소가 평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심 중앙상가 지역과 인접하여 있으며, 20~30대 층 이외에도 가족단위 및 노년층이 고루가 참가한 축제이었음</li> <li>○ (사단법인)약령시보존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대구시 및 중구청)에서는 재정 등 축제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li> <li>○ 대부분의 축제 프로그램은 한방과 관련이 높은 콘텐츠로 구성되어 축제 기획의 명확성 및 주제 관련성은 매우 높음</li> <li>○ 가족동반 및 젊은 층을 목표로 한 체험 및 전시물도 충분히 제시되고 있음</li> <li>○ 도심에서 개최되는 ‘거리 및 산업형 축제’로 행사장 중심부에 위치한 한방박물관을 상설화하면 관광상품으로도 개발할 가능성이 높음</li> <li>○ 행사종료 이후 7월말 평가보고를 하고, 8월부터는 차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연간 단위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됨</li> <li>○ 소재가 명확한 축제로 오랜 축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축제공간과 방문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음</li> <li>○ 사상체질관, 한방힐링센터, 테마한약재 전시관 등 주제성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우고 치밀한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li> <li>○ 공연, 전시, 판매, 체험 경연 등 고르게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참여만족도를 높이고 기존의 한의약박물관 등의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사장을 배치하고 활용하였음</li> <li>○ 소재가 명확한 축제로 오랜 축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축제공간과 방문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음</li> <li>○ 사상체질관, 한방힐링센터, 테마한약재 전시관 등 주제성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우고 치밀한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li> <li>○ 공연, 전시, 판매, 체험 경연 등 고르게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참여만족도를 높이고 기존의 한의약박물관 등의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사장을 배치하고 활용하였음</li> </ul>
<p>부족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재정투입(전체 510백만원) 규모 가운데 민간부분의 참여도가 4%(20백만원)에 불과하여 축제의 자생력과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li> <li>○ 한방 콘텐츠에 대한 관심 부족 층이 많아 행사기간 내내 지속적인 축제 참가자 모집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임</li> <li>○ 전체적으로 행사장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도심형 축제에서 느끼는 혼잡도는 높지 않았음</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 중간에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어 축제 참가자 이동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사장이 단절된 느낌을 가져옴(중간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통제가 필요)</li> <li>○ 축제 아이템과 연관된 대구지역 산업과 관련성이 있는 청년창업 아이템이 부족함</li> <li>○ 약령시에는 현재도 180여개소의 한의원, 한약방 등이 운영되고 있는 영남지역 최대의 한방문화 거점임. 축제장소를 약령시 골목으로 한정하지 말고 한약방과, 건물 옥상, 약업사 등 약령시를 채우고 있는 다양한 공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스토리가 있는 한약방의 신청을 받아 사전예약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실제 한약방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원장님들을 만날 수 있게하는 등 참여상인들이 자신의 공간에서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과 만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함. 살아있는 약령시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체험박물관에서 전시된 전시품을 관람하는 것과 다른 매력을 줄 수 있음</li> <li>○ 약령시를 구성하고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약령시의 구성원들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정례적으로 열리는 축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짐. 축제의 준비과정, 기획과정에 상인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함</li> <li>○ 프로그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많다고 느껴짐. 매년 평가를 통해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확인하여 주요 프로그램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한방문화축제를 상징하는 대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가는 전략이 필요함</li> </ul>

##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 입구 및 주요지점에 안내 및 안전요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음</li> <li>○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며 주변 교통여건도 아주 좋음</li> <li>○ 중간부분에 한방박물관(행사운영본부)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양쪽 거리에 행사장이 비치되어 있어 관람객 동선이 양호함</li> <li>○ 축제 행사는 주변 한약 상가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임</li> <li>○ 진행 및 안내요원, 자원봉사자 등은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대체로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음</li> <li>○ 부족한 한방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재배되고 있는 한방약초를 전시하여 생동감이 있으며, 소나무가지를 이용한 약령술문 체험 등 아이디어를 갖춤</li> <li>○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적절하게 비치되어 있음</li> <li>○ 초가문양의 부스설치는 약령시 분위기를 드러내는데 적절해보임</li> <li>○ 행사장의 구성을 '떡어보길', '함께하길', '치유되길', '사고팔길', '쉬어가길'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배치하였고, 테마별 Zonning을 통해 방문객들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였음</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 입구에 관람객 입장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크고 폐쇄형이어서 일반 관람객을 행사장으로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들었음</li> <li>○ 행사장 내부 이외에 지하철 입구 등 주요지점에 안내 요원 배치가 필요함</li> <li>○ 한방 콘텐츠는 대체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선호하지만, 행사장소 인근은 젊은 층이 밀집된 공간으로 인해 목표고객 계층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li> <li>○ 전반적으로 준비된 행사 콘텐츠에 비하여 전체 입장객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임</li> <li>○ 따라서 행사 장소 규모 및 재정 투입규모는 현재 정도로 적절해 보임</li> <li>○ 약령시 골목내에 위치한 공공공간, 상업공간들의 적극적인 축제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어야 함</li> <li>○ 제일교회 같은 공간은 축제기간 중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축제기간 중 방문객들을 통해 소개되고,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제일교회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임</li> <li>○ 한방 관련된 공간이외에도 다양한 거점 공간들이 축제와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li> <li>○ 전체 예산에서 민간이 투입하는 예산은 2천만원으로 전체 행사의 4%에 불과함</li> <li>○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한방문화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역의 자발적인 민간예산의 적립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형 축제 추진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li> <li>○ 특히,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축제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의 수혜자인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축제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훈련, 교육, 경험이 지속되어야 함</li> <li>○ 현재 약령시보존위원회는 주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시와 구와 함께 공동주최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연중 축제를 준비하면서 약령시의 상인들이 하나의 상인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위주의 지원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행사장 가로변에 기존에 입주한 한방 업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발전가능성은 있음</li> <li>○ 올해로 42년째 개최되고 있는 역사성을 부각하고, 전국적으로 한방 콘텐츠의 희소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개최될 필요성은 있음</li> <li>○ 동성로, 백화점 등 주변 상가와 연계하여 축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동성로축제와 공동 홍보방안 등)</li> <li>○ 약령시보존위원회가 상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축제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며, 이 조직을 중심으로 민간 부분의 축제 운영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 마련 및 추진 필요</li> <li>○ 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에서의 취재가 일부 이루어짐</li> <li>○ 대표프로그램의 하나인 사상제질관의 입장유료화를 통한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수익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제 통용화폐인 약령통보를 활용한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li> <li>○ 상인들이 축제준비과정부터 축제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까지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함. 지역시민들도 상당수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축제의 공공부분에서의 축제 지원 비율이 매우 높음(국비 70백만원, 대구시 400백만원, 중구청 20백만원, 민간 20백만원). 따라서 민간 부분에서 재정 확보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li> <li>○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제이며, 외국인 대상 홍보가 강화되고, 외국인 참여프로그램들을 늘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대응태세를 지금보다 강화하여 실질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li>○ 한방약초탕, 인삼튀김 등 한방관련 먹거리들이 판매되고 있었으나 충분치 않아 보임. 먹어보길 먹거리 장터의 메뉴도 좀 더 한방축제에 어울리는 메뉴로 구성되길 기대함</li> <li>○ 공공에서의 지원 분야를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 안전, 교통, 안내 및 홍보, 시설물 설치 등</li> <li>○ 젊은이의 특기를 살린 소규모 공연(노래, 춤, 이색 공연)이 없어 축제의 생동감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li> <li>○ 메인 무대 행사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살려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li> <li>○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포토스팟, 체험거리를 늘려나갈 필요</li> <li>○ 젊은 층을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방송,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주력할 필요</li> <li>○ 주변 상가와 중복이 되지 않은 먹거리 아이템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li> </ul>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 방문객 집계지침을 준수하여 유인측정 방식으로 집계가 이루어짐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7시, 1일 9시간, 행사기간 중 2일, 2인 교대근무)</li> <li>○ 집계요원의 근무태도는 대체로 양호하며,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li> <li>○ 방문객 집계 장소는 방문객 진입 경로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8곳에서 운영됨</li> <li>○ 집계요원이 집계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형 축제로 인하여 축제 관람 목적의 방문자와 일상적 방문자와의 구분이 불명확함</li> <li>○ 방문객 집계 개소가 8곳으로 집계 지침에 따라 5곳 이하로 감축 운영 필요: 도심형 축제이므로 주 진입로를 위주로 5개 이하로 한정할 필요(중복 측정 최소화)</li> <li>○ 집계요원이 한동안 멍하니 집계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무리는 없어보임</li> <li>○ 2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으나 2개소의 집계요원은 평가위원이 다닐때는 1명씩만 배치되어 있었음</li> </ul>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로 연예인 동원 행사 없이 일반 참가자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li> <li>○ 개회식 등도 간소하게 수행하였으며, 축제와 무관한 정치적 또는 의례적 행사는 배제하였음</li> <li>○ 쓰레기처리 등 청결은 대체로 무난하게 잘 이루어졌으며 대구시한의사회에서도 한방시술 코너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임</li> <li>○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약령시보존협회의 회원은 120명 정도이며, 행사 운영의 주축을 이룸</li> <li>○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한방문화축제와 연계하고 있음</li> <li>○ 현장운영, 프로그램 기획, 환경연출, 지역자원 활용면에서 유망축제가 아닌 우수축제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제로 평가됨</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 주변에서의 행사 안내 다소 부족: 행사장 입구부터는 행사안내가 이루어지지만 전철역 등 주변 진입로에서의 행사장 안내 부족 (주변 일대에 가로등 배너 등 홍보물 설치하여 행사안내 및 분위기 고조 필요)</li> <li>○ 행사기간 중 대구컬러풀페스티벌 거리축제가 개최되었지만 상호 공동 홍보 노력은 부족해 보임</li> <li>○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수백 년을 이어 온 자원을 잘 활용하여, 축제를 통해 약령시를 전국적으로 알려내고, 약령시의 특화된 상품을 만들고, 외국인들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반드시 들러가야 하는 공간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축제를 잘 활용해야 함</li> </ul>

## 2

## 대구치맥페스티벌

## (1) 개요

- 기 간 : 2019. 7. 17(수) ~ 7. 21(일) / 5일간
- 장 소 : 대구 두류야구장, 2.28기념탑 주차장, 두류공원로드 등
- 주 최 : 대구광역시
- 주 관 : (사)한국치맥산업협회
- 주요행사
  -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 공연 프로그램 : 뮤지컬 갈라 거리공연, 야간 상설 거리공연, 동성로 야외무대 등
  - 기타 프로그램 : 야간 상설 카페, 수성못 수상무대가 등

## (2) 평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축제는 방문객이 치맥을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삼고 있음</li> <li>○ 대형 공연이나 이벤트는 많지 않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운영하면서 방문객을 만족시키고 있음</li> <li>○ 공연 등 여타의 프로그램은 치맥을 즐기기 위한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음</li> <li>○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지역 인사의 축사나 의전 등은 최소화하고 현장 담당자와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함</li> <li>○ 프리미엄 치맥클럽, 치맥 아이스펍, 치맥 라이브 파크 등 3개 장소에서 서로 다른 공연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객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치맥을 즐길 수 있도록 함</li> <li>○ 저녁 9시9분 방문객이 일제히 건배하는 구구타임을 운영하고 있음</li> <li>○ 치킨의 가격과 양을 줄여(18,000원→10,000원)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함</li> <li>○ 대구의 대표산업인 치킨브랜드를 축제의 주요 콘텐츠로 부각시킨 관광형 산업축제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등을 통해 축제육성과 산업지원의 두 가지 측면을 적절히 혼합한 축제로 평가할 수 있음</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치킨과 맥주라는 컨셉으로 축제를 운영하면서 대중성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치킨과 맥주를 즐기면서 동시에 다양한 음악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임</li> <li>○ 축제와 산업이 공존하는 ‘관광형 산업축제’ 개최로 도심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타 축제와 차별화된 성공축제 개최</li> <li>○ 대구시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을 통해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대구시 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 대구은행, 꼬꼬하임 등 지역업체 참가로 신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 및 대구시 홍보의장으로 활용</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을 만큼 대구 치맥페스티벌만의 독특한 이벤트가 하나쯤 있어야 차별성과 화제성을 높일 수 있음</li> <li>○ 전국에 비슷한 컨셉의 축제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치킨과 맥주 이외에 대구치맥페스티벌만의 독특한 문화 아이템을 발굴하여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예. 대구 치맥&amp;락뮤직 페스티벌)</li> <li>○ 대구치맥페스티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구의 치킨산업과 전체 대구경제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li> <li>○ 축제 슬로건이 ‘여름에 치맥은 확실한 행복! 가자~ 치맥의 성지 대구로!’인데, 축제 정체성 측면에 있어 치맥의 성지의 대구인 지역적 고유성을 어필하는데 한계가 있음</li> <li>○ ‘치맥의 성지’로 거듭나기 위한 대구가 가진 치킨과 맥주의 정체성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음</li> <li>○ 야간형 축제이지만, 주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li> </ul>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명의 주류 단속반과 250명(정복 170명, 사복 80명)의 경찰이 교대로 행사장을 순찰하고 있어서 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불편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li> <li>○ 운전자의 음주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음</li> <li>○ 인근 지역 치킨 배달 업체에게 부스를 제공하여 오토바이 배달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함</li> <li>○ 노점상에게 부스를 제공하여 혼잡을 방지하고 상생함</li> <li>○ 사전에 협의되지 않고 나타나는 노점은 공원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퇴장시킴</li> <li>○ 저녁에 개최되는 축제의 특성상 청소 시각도 늦어질 수 밖에 없지만 새벽 5시까지 매일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함</li> <li>○ ‘클리닝 타임’이 있어서 방문객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함</li> <li>○ 지역 대학생 250명을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현장 운영과 온라인 홍보에 활용하고 있음</li> <li>○ 폭우로 인해 행사장이 질퍽거리자 즉각적으로 마사토 150톤을 뿌려서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했음</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안내요원 등은 곳곳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었음</li> <li>○ 많은 인원을 수용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의 장소였으며, 각각의 장소는 용도에 맞게 관람객들이 취향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음</li> <li>○ 대구치맥페스티벌 관광상품(치맥열차) 개발·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모객을 추진함. 개막일에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환영행사 개최로 외국인 방문객 수용태세를 갖추</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외 축제의 특성상 우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이에 대한 대비와 대안 그리고 복구 방안을 마련해 두면 좋을 듯함</li> <li>○ 행사장 방문당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여름축제의 특성상 우천시를 대비하여 방문객들에게 미리 우비나 우산을 배포하는 배려가 필요함</li> <li>○ 프리미엄 치맥클럽행사장은 우천으로 인해 좌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음. 여름장마를 대비하여 우천시에도 관객들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li> <li>○ 야간형 축제로 축제조명 설치가 미비하며, 더운 날씨에 대비한 시설이 필요함(예를 들어, 아이스 존 등)</li> <li>○ 방문 당일 사망사건도 있어 야간형 축제의 안전 위협요인 대응이 미흡함</li> <li>○ 축제장 동선이 매우 복잡하므로, 입구에 LED를 활용한 축제장 안내가 필요함</li> <li>○ 두류역에서부터 축제장까지의 거리가 있음에도, 두류역에서 축제장까지의 안내체계가 미비함</li> <li>○ 축제장 근처의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함</li> <li>○ 외국인 안내 체계가 미흡함</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한국치맥산업협회가 상시 축제조직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축제 준비 기간이 충분하고 다년간의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음</li> <li>○ 해마다 새로운 시도를 해가면서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li> <li>○ 축제 자체는 무료로 운영하여 개방적이면서도 일부 좌석은 유료로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음</li> <li>○ 치맥 열차 여행 상품을 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li> <li>○ 축제전문가 포럼 및 중장기 마스터 플랜 구축 등으로 축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li> <li>○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상설 조직은 아니지만 축제의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음</li> <li>○ 축제음식개발을 위해 매년 치맥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수한 음식은 차후 축제의 메뉴로 개발된다고 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가 치맥의 성지라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산업축제 역할 강화를 위해 치맥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영첼린지 운영, 영세 치킨업소 부스비 면제 등으로 동반성장을 도모함</li> <li>○ 한국치맥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대구치맥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안정적인 축제 추진이 이루어짐</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축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약하고 왜 대구에서 치맥 축제가 개최되는지 의구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li> <li>○ 행사의 성격상 지역주민보다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참여가 주를 이루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li> <li>○ 치맥페스티벌을 대표할만한 기념품을 20여종 개발했다 해도, 치맥페스티벌을 대표할만한 매력적인 기념품이 없음</li> <li>○ 치맥페스티벌과 대구 지역관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미비함(치맥페스티벌 방문객 할인 이벤트 등)</li> <li>○ 비주류 방문객(미성년자 등)을 위해 맥주를 대체할 만한 음료 개발이 필요함</li> </ul>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 전문 업체를 고용하여 집계하고 있음</li> <li>○ 축제의 주 행사장내 총 4 군데에서 방문객 수 집계</li> <li>○ 2인 1조로 운영됨</li> <li>○ 집계요원들은 사전교육 이수</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 전문 업체를 고용하여 집계하고 있음</li> <li>○ 축제장 입구가 다양하여 중복집계의 가능성이 있음</li> </ul>

##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까지 1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제였으나 올해에는 친환경적인 특수 전분 컵을 사용하고 있음</li> <li>○ 연예인 출연 무대가 있으나, 전체 예산 대비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음</li> <li>○ 형식적인 의례 식순이나 불필요한 내부인사 소개는 없었음</li> <li>○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대구의 치킨산업의 부흥과 홍보를 위해 개최되었고 현재 꾸준한 인지도 형성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는 행사가 되었음. 앞으로 현재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치맥과 어울릴만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비슷한 컨셉의 타축제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li> <li>○ 축제의 청년문화 모델 제시로 주된 참가층(치맥리더스)의 니즈를 반영한 축제 기획 및 홍보로 주 타겟의 요구를 반영한 축제 기획 및 홍보였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행사장이 다섯 군데에 조성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행사장이 정돈되지 않고 산만한 인상이 있음</li> <li>○ 우천으로 인해 취소가 된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우천에 대비한 플랜B 프로그램을 항상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li> <li>○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구치맥페스티벌만의 정체성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li> <li>○ 주 타겟이 20~30대라, 40~50대가 즐길만하나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음</li> <li>○ 지역에서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구시내 전체가 축제분위기가 나게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li> </ul>

3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1) 개요

- 기간 : 2019. 7. 13(목) ~ 8. 11(월) / 35일간
- 장소 : 송도달빛축제공원, 월미도, 글로벌캠퍼스 등 인천 전역
- 주최 :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관광공사, 경기일보
- 주요행사
  -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펜타유스스타, 라이브클럽뮤직, 펜타라이브스케이지 등

(2) 평가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록페스티벌 대표축제 답게 3개의 스폰서 무대 및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이 무대 진행이 안정적</li> <li>○ 송도23호 근린공원(송도달빛축제공원)은 랜드마크 1호공원으로 센트럴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며 수용면적이 10만명 이상으로 좋은 입지</li> <li>○ 국제적 규모를 지향하는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외에 사전에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인천 지역 라이브클럽들에서 벌이는 펜타 라이브뮤직 파티, 국내 록음악 발전을 위해 신인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펜타 유스스타, 인천지역 시민들의 록 음악 향수를 통해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펜타라이브 스테이지 등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설계하였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분위기 관찰 결과, 8.9. 9시 이후 진행된 개막제 펜타락쇼의 사회자 진행이 록페스티벌에 걸맞는 세대, 문화, 감성 코드를 살리지 못하였고, 록페스티벌의 정신, 록스피리트 등 주고객이 동의하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어나운스먼트를 구사하지 못함</li> <li>○ 드론쇼, 불꽃놀이 등 좋은 시도를 하였으나, 드론쇼 통해 음악축제의 사회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시도 필요(예를 들어 평화, 환경, 치유 등 결정해 주장할 필요가 있음)</li> </ul>

##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장소 선택 좋고 공원시설 활용 등 우수. 잔디밭에 의자와 테이블 배치 등 무대와 공연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어메니티 디자인이 우수</li> <li>○ 3개 무대와 외곽 캠핑장, 텐트 랜탈, 카라반 등 조닝이 우수</li> <li>○ 셔틀서비스 등 관록이 오랜 인천지역 록페스티벌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보임</li> <li>○ 안전요원 및 주차안내, 현장안내 등 스태프 활동 안정적이고 친절함</li> <li>○ 8.9, 첫날 목에 가는 펜던트 형태의 지도 제공 등 아이디어 좋고 스태프들의 현장안내와 행사장 홍보 바람직</li> <li>○ 8.10. 두 번째 날 코카콜라 체험존과 코카콜라 후원 열기구 계류 프로그램이 관람객 인기를 끌고, 안전에 문제없이 진행되어 핫존을 이루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SNS 홍보의 핵심역할</li> <li>○ 8.11. 마지막 날 9시 이후 순차적 철수, 존 정리 등 진행 잘 되고 있었음</li> <li>○ 3개 무대의 프로그램 교차 진행이 안정적이며 시간엄수. 스태프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 좋은 편</li> <li>○ 계획상 주차장이 2018년 대비 2배증가로 되어 있음. 셔틀버스 운행대수가 10대로, 두 코스에 무료로서, 운행간격도 15분으로 적정하여 주차장 공급과 함께 교통편의 문제를 잘 해결한 것으로 평가함(광주와 부산에서 출발하여 대구와 전주 대전 등 경유하는 유료 셔틀버스 등은 높이 살만한 서비스)</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지 인근은 넘치는 병들이 쓰레기통 밖으로나가거나 분리수거 효과를 저해하는 것을 관찰함</li> <li>○ 밤 10시 이후 중앙CP 등 진행측의 부스 옆 등나무교실에 도시락 뚜껑 등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음. 늘 대기하는 안전요원, 소방관, 순찰자 등이 상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므로 특히 청결과 오물관리에 신경을 써야만, 진행자와 이용자, 관람객 모두에게 좋을 것임</li> <li>○ 행사장규모, 푸드존, 수영장과 같은 부대존 등의 수로 볼 때 현장이 복잡하게 조닝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으므로, 행사장 대형지도가 더 많은 곳에 배치될 필요</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러스 형 및 돔 형의 맥주제공 바 등 그늘을 형성하는 가설건물 실내형 서비스들이 고객 편의 및 프로그램 다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li> <li>○ 마케팅 프로그램 중 코카콜라 포토존의 호응이 좋으며, 코카콜라와 열기구의 결합 등 포토존을 형성하는 마케팅 효과가 좋음. 특히 열기구의 활용을 권장할 만함</li> <li>○ 신인 음악인 오디션 발굴로 국내 록음악 발전을 표방하였다는 점이 바람직함 (다만 펜타유스스타를 조금 더 매체홍보하는 데 투자하여, 신인 아티스트 발굴의 브랜드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라이브클럽 활성화를 위한 펜타라이브 뮤직파티, 지역주민들이 록음악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준 펜타 라이브스테이지 등 본 행사 전 7월동안 개최되는 잔치를 통해 지역 내 축제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다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경진대회 등을 포함시켜 록음악 축제를 개최하는 도시의 위상을 만드는 사전작업을 키울 필요가 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사회적기업, 공방 참여 등 지역축제로서 노력이 잘 드러내지만 이들 역시 음악인들처럼 사전 오디션을 통한 선발을 하는 등 축제의 장을 만들어, 단순한 입장방식을 넘어선 참여유도하는 것이 지역축제의 성장에 도움이 됨</li> <li>○ 먹거리의 경우는 단순히 지역업체를 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특색 먹거리를 개발하는 노력, 특히 록페스티벌 전통을 가진 옥외음악축제에 어울리는 지역주민의 음식, 간식 등을 개발하고 공모하는 등 더욱 제대로 양성하기 바람</li> </ul>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객 메인게이트 입장객 체크 확인(유인측정 스텝, 핸드계수기 사용)</li> <li>○ 티켓팅 성과확인 방식으로 방문모객 및 구매집객 파악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음(사후 행사장 입장 교환팔찌 재고수량 파악)</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행사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함</li> <li>○ 행사장 내 안내와 현장홍보 좋고 록페스티벌로서 1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곳으로서 광고홍보가 잘 이뤄졌고 행사장 내의 SP 프로그램 역시 잘 진행됨</li> <li>○ 신인 아티스트를 기르는 펜타유스스타는 계획서류 상 작년과 달리 최종전 서울 1회 아닌 인천 2회 진행하였고, 전년도에는 우승팀 3팀이 펜타포트록페스티벌 무대에 섰으나 올해는 6팀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도록 늘었음. 또 전년도 유스타 우승팀 축하공연이 이뤄지는 등 펜타포트록 페스티벌 사전 붙임 프로그램으로서 전통과 관습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평가됨</li> <li>○ 월미도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과 부평, 송도 등 주민과 방문객 집객지를 정하여 7월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펜타라이브스테이지 역시 사전홍보와 함께 주민참여를 알리는 기본 장치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게 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장, 시의원의 개회사, 기념사, 축사 등 생략하고 영상인사로 대신하였지만, 그 사실을 강조하여 영상에 소개하는 시간이 3분 이상으로, 사회자가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일반 지자체 문화행사와 달리 하위문화 코드를 강조하는 현장의 열기를 저해한 바 있음</li> <li>○ 록페스티벌의 홍보 좋으나 평화, 인권 등 록 정신을 드러내는 주제를 함께 제시하여야 국제적으로 음악인들에게 존중받는 록콘서트 행사가 될 수 있으며 공연하는 음악인 등 참여자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음</li> <li>○ 록음악행사 및 2,3일 여행매력이 있는 인천의 관광축제로 홍보는 잘 되고 있으나, 인천시민과 연수구민 등 지역민에게 록음악인 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축제로 방문할 만한 것이라고 자리매김하는 PR을 더욱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30대의 록음악 애호가와 청년문화층이 와서 즐기는 수영장, 캠핑과 병행하여 가족이 즐길 수용장, 캠핑, 공원이 해가림막(비가림막 텐트) 등을 매력물로 어떻게 어떤 매체로 제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ul>

4

여주오곡나루축제

- 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제 미개최

## 5

## 횡성한우축제

### (1) 개요

- 기 간 : 2019. 10. 2(금) ~ 10. 6(화) / 5일간
- 장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섬강둔치 일원(횡성읍 삼일로 93)
- 주 최 : 횡성군
- 주 관 : 횡성문화재단
- 주요행사
  -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 즐길거리 : 스탬프투어, 머슴돌 들기 대회, 캐치 한우리, 각종체험, 섬강 산소길 걷기, 길거리 씨름대회, 포토존(행사장 곳곳), EDM파티 등
  - 먹거리 : 횡성한우 구이터, 횡성한우 통바베큐, 한점하우스, 먹거리 부스, 농산물 직거래, 한우 더덕 요리경연 등
  - 볼거리 : 횡성한우난장, 아름다운 섬강야경, 문화예술단체 거리예술제, 한우 주제관, 개막공연, 특설무대, 돌다리&목교, 조형물 등

### (2) 평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성한우의 상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그 성과라고 볼 때 축제의 콘텐츠가 명확하게 한우와 결부되었고 민간 주도의 지역 문화 예술의 토양도 가꾸는 기획안이어서 우수한 문화관광축제의 반열에 들 수 있음</li> <li>○ 19회가 되며 지역축제에서 전국축제를 넘어 글로벌축제로 발돋움해가는 성장 원년이 될 만큼 변화된 기획을 해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프로그램도 풍성하고 한우퍼레이드 등 퍼포먼스도 화려한데 구태여 슈퍼 연예인을 집객의 도구로 쓸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볼 때이며, 횡성과 횡성한우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형 공연물이 제작되었으면 함</li> <li>○ 먹거리 축제로 특산물 축제인 만큼 식도락가를 위한 맛 프로그램이 좀 더 있어야 함</li> </ul>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성읍내와 섬강둔치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의 배치 및 유도 동선의 디자인이 탁월함</li> <li>○ 셔틀버스 운행체계나 주차장 확보 교통안내 등 선진적 운영능력을 보임</li> <li>○ 강건너 야시장과 놀이터 등 축제장 양분 Zoning 합리적임</li> <li>○ 캐릭터 개발로 24가지 기념품 판매소 활기를 띠</li> <li>○ 스템프투어에서 특산물 엽전, 송아지 한마리 등 차별화함</li> <li>○ 화장실 배치, 휴게시설, 강건너 장터, 곳곳 포토존 등 만족</li> <li>○ 반갑소 고맙소 건강하소 놀랍소 내가졌소 간직하소 등 부스마다 소자(字)돌림 명명이 효과를 봄</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성한우의 브랜드 통합과 인지도 향상이 중요하지만 횡성축협이 축제참여관련 잡음은 시급히 해결해야 함</li> <li>○ 축제참여객 세대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평균연령이 높은 편임. 축제 추진위 조직에 지역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해야 할 것임</li> <li>○ 연계관광지 안내에는 좀 소극적인 편이며 횡성호수길이나 둔내 안흥 등 연계하여 체류기간을 늘리는 노력이 더 필요함</li> </ul>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성군에서 한우 축산농가와 유통상가 등 한우산업의 행정 지원과 브랜드 통합 등 마케팅 지원에 나서고 있고, 횡성문화재단에서 민주도로 정체성과 대동성 기반의 횡성한우축제 발전 전략을 세워가고 있음</li> <li>○ 축제의 지속가능경영지수 증대를 위한 횡성군의 사업 의지가 대단히 높고 축제조직의 재무구조와 거버넌스 및 사회공헌도가 건강하게 자리 잡혀가고 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주도의 주민참여 자발성과 재정자립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축제 유료화와 체류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는 수익성 확보 노력이 좀 더 필요함</li> </ul>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 없음
부족한 점	○ 없음

##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들어 축제전문가의 손길이 투입되어 예술성, 심미성, 대동성, 관광성 등 상당히 발전된 우수한 문화 관광축제임</li> <li>○ 한우 통바베큐, 발골 퍼포먼스, 한우난장 소떼퍼레이드, 한점쉐프 등 킬러콘텐츠의 무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li> <li>○ 황성군새마을부녀회, 황성손맛사업단, 생활개선회, 노인자원봉사클럽, 공군부대대민봉사 등의 한우구이터 배치라든가, 감각 있는 캐릭터 상품개발, 또는 기업 스폰서링 안정감 등을 볼 때 지역단체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나 지역민의 고용창출 성과 기대감이 대단히 높음</li> <li>○ 인트로 동영상에서 하누툰 같은 짧은 감각의 센스 돋보임</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명과 프로그램명의 신선한 작명이 돼가고 있고, 영문표기도 Hanu가 Hanwoo로, 축제명도 Happy Hanwoo Festival로 표기하여 감각이 매우 좋으나,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네이밍 마케팅이 필요함</li> <li>○ 섬강의 운치와 함께 가을 황성의 로맨스 선사할 축제의 무대를 클래식 음악보다 유명 연예인이 차지하고 있음</li> </ul>

# 6 강릉커피축제

## (1) 개요

- 기 간 : 2019. 10. 3(목) ~ 10. 6(일) / 4일간
- 장 소 : 강릉 아레나 및 안목해변
- 주 최 : 강릉시
- 주 관 : 강릉문화재단
- 주요행사
  - 커피 이벤트 : (전야제) G1 가곡의 밤(리셉션 사전진행), (개막식) 10人 10味 바리스타 핸드드립 퍼포먼스, 커피 라운지, 세계는 향기롭다(대사관 참여 프로그램), 커피별별서점, 강릉바리스타어워드, 강릉핸드드립어워드, 강릉컵테이스터스 챔피언십, 강릉커피홈로스틸챔피언십 등
  - 커피투어/체험 : 커피투어버스 운영, 스탬프(영수증)챌리, 강릉커피축제와 함께하는 강릉생 명밤길걷기, 커피 로스팅 체험, 커피 점토 체험 및 환경 캠페인 등

## (2) 평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를 주제로 축제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ffee Culture, Coffee Forum, Coffee Award, Coffee Tour, Performance, Exhibition 등 6개의 테마로 축제가 구성되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커피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li> <li>- 특히 '세계는 향기롭다' 주제에서는 커피산지 대사관을 초빙하여, 커피산지의 상품 체험 및 관련 세미나도 경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향후 축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기반을 시도하였음</li> <li>- 또한 '커피라운지' 에는 강릉의 커피업체만이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커피업체들의 제품을 전시하여, '강릉커피축제'가 강릉의 지역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의 커피축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엿보임</li> </ul> </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예술 공유 프로그램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지역 청년예술가 전시존, VIVA VIVA MUSEUM FESTIVAL, 강릉 1,000인 음악회 등 강릉지역을 근거로 활동하거나 운영중인 문화예술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람객들에게 강릉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li> </ul> </li> <li>○ 시민 참여 프로그램 연계로 축제 분위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인 100昧 바리스타 퍼포먼스, 기업체 후원 가곡의 밤, 관광공사 후원 K-POP 콘서트 등 ‘강릉커피축제’를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축제분위기 조성</li> </ul> </li> <li>○ 축제 장소 이원화로 다양한 경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아레나에서의 축제 메인행사 진행 및 안목해변 에서의 버스킹 및 이벤트 진행 등으로 행사를 이원화하여, 강릉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강릉커피축제를 야외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li> </ul> </li> <li>○ 커피라는 일반적인 소재를 강릉시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만들면서 동행안의 관광도시강릉에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한 것은 대단히 높은 성과라 볼 수 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커피축제의 정체성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맥락적인 측면에서 우선 ‘커피도시강릉’ 이라는 주제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강화가 필요함</li> <li>- 강릉커피협회 등 행사에 참가하고 진행하시는 여러참가자 분들에게 ‘강릉이 커피도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그데 대한 명확한 답변을 쉽게 설명해주는 분이 없었음</li> </ul> </li> <li>○ 전시회 또는 박람회 형식과 차별화되는 축제 구성에 대한 컨셉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아레나를 중심으로 진행된 메인 축제의 경우 축제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커피라운지, 커피어워드, 커피포럼 등의 전시와 세미나가 중심이 된 행사로서 축제보다는 전시회나 박람회의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행사였음</li> <li>- 지역축제로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컨셉 보완이 필요함</li> </ul> </li> <li>○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VA VIVA MUSEUM은 강릉지역의 다양한 박물관 연합전으로 기획되었으나, 실제 전시내용은 매우 빈약한 편이었으며, 구색맞추기식 프로그램으로 느껴짐</li> <li>- ‘세계는 향기롭다’를 주제로 커피산지 대사관 초빙 및 커피산지 상품 체험과 세미나 진행은 ‘강릉커피축제’의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시도 였으나. 부스내 콘텐츠 구성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함</li> </ul> </li> <li>○ 커피라는 소재가 축제의 대표소재인 것과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녹여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 현재까지는 커피라는 소재를 중심소재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소재를 대표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li> </ul>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p>우수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 접근 안내 관리가 우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으로 향하는 도로 표지판과 행사장 안내가 조직적으로 잘 관리되었음</li> <li>- 강릉아레나의 대형 주차장을 활용하여, 접근로에서부터 주차안내가 시작되었으며, 강릉아레나 주차장 만차 시 주변 교회주차장으로의 안내 등이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졌음</li> </ul> </li> <li>○ 자연친화적 커피축제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장 전체구역에서 플라스틱 사용 금지 및 종이컵 등1회용품 사용제한 캠페인을 부각시켜 환경 축제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였음</li> <li>- 강릉맥주 시음 및 판매부스의 경우 친환경 소재인 PLA컵을 사용한다는 포스터를 부착하여 축제 방침과부합되는 시음경험을 제공하였음</li> </ul> </li> <li>○ 분리배출(종이/플라스틱/캔/병/유리/일반으로 구분) 모니터링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 곳곳에 분리배출 모니터링단이 배치되어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음</li> </ul> </li> <li>○ 유희공간인 강릉아레나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계올림픽 개최시설인 강릉아레나를 활용하여 행사장을 운영함으로써, ‘제11회 강릉커피축제’ 행사기간이 태풍으로 인한 우천피해가 많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진행한 대부분의 메인행사들은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진행되었음</li> <li>- 또한 유희공간인 강릉아레나를 활용한 점은 올림픽 시설의 재활용에 대한 우수한 사례였음</li> </ul> </li> <li>○ 태풍으로 당초 계획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하였지만, 마지막 날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li> </ul>
<p>부족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ffee Forum과 Coffee Award가 실내행사장인 강릉아레나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행사간 소음이 간섭되며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ffee Forum의 경우 5개 타임의 토크쇼와 4개 타임의세미나로 진행 되었고, Coffee Award의 경우 강릉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 강릉바리스타어워드, 강릉사이포 니스트 챔피언십, 강릉핸드드립어워드, 강릉홈로스팅 챔피언십 등 5개의 경연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서로 동시에 행사가 진행될 경우 프로그램 진행시 발생하는 소음이 상호간 간섭되며 프로그램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음</li> <li>- 두 개의 프로그램 진행위치가 아레나 내 상대적으로 가장 멀게 배치되고, 스피커의 방향이 반대로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포럼의 경우 어워드 행사에서 큰 박수소리가 날 경우 포럼 내용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li> <li>- 차기행사 진행시 포럼과 어워드 행사는 서로 시간대를 달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행사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간대를 달리할 경우 프로그램별 관람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li> </ul> </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시음용 종이컵 사용에 대한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라운지 대부분의 업체가 커피시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축제장 전체로 분리수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축제의 모토에 비해 시음용 종이컵의 사용량이 매우 많았음</li> <li>- 개인 텀블러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텀블러의 재사용 등 시음방법의 보완이 필요함</li> </ul> </li> <li>○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회 강릉커피축제'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강릉지역의 침수 등 지역전체가 비상상황인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야외행사의 경우 전일정이 취소되는 날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안내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음</li> <li>- 또한 강릉아레나 야외부스는 우천으로 관람객의 이동이 거의 없었던 행사일경우 야외부스에 대한 운영지침이 관리되지 못하며 이로 인한 행사관련자 들간의 다툼이 관람객에게 노출되기도 하였음</li> <li>- 축제의 또 다른 행사장인 안목해변의 경우, 강릉커피축제 야외행사장으로 다양한 버스킹 및 이벤트가 준비되었으나 우천으로 행사가 전면 취소되기도 하였음. 이에 대한 일부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li> </ul> </li> <li>○ 올림픽파크의 스포츠 시설을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간확보와 시설의 문화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경기장이라는 딱딱한 콘크리트 공간과 생태문화자원인 커피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판단됨</li> <li>○ 상품으로서의 커피 이전에 하나의 식물로서의 커피의 의미나 가치가 좀 더 강조되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됨. 자기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관람객에게 대중교통 수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지되거나 안내가 있었다면 더욱 편안한 관람이 되었을 것으로 봄</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운영 재정자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업체 후원 및 부스 판매 등 축제운영의 재정 자립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li> </ul> </li> <li>○ 축제 관련 산학연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학 연계하여 축제 서포터즈 운영, 지역대학 및 커피업계 연계하여 커피어워드 진행 등 산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제의 지속가능성 기반 구축 및 축제 진행 안정화</li> </ul> </li> <li>○ 축제 관련 다양한 업체 후원 네트워크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공장, 커피샵, 커피 관련 물품업체 등 Supply &amp; Demand 관련 다각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향후 커피산업의 체계화를 위한 역할 가능</li> </ul> </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를 매개로 하여 강릉 및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 문화예술 활동가, 사회적 기업 등이 자신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상품도 판매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li> <li>○ 강릉의 문화활동 단체나 커피 관련 업체나 단체 등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의 활동을 홍보하면서 지역의 특성의 하나를 이해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커피축제만의 차별화 된 경험 제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커피축제가 전시회나 박람회의 성격과 차별화된 축제경험을 관람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li>- 커피시음, 커피세미나 등은 커피 관련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오히려 더욱 큰 규모로 경험할 수 있으므로, 강릉커피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리미티드에디션의 커피상품 또는 커피 관련 체험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li> </ul> </li> <li>○ 강릉지역의 문화예술 박물관 연합전시는 컨셉은 좋았으나, 각각의 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단지 팸플릿으로만 설명되고 실제 축제장의 전시장에는 물품만 전시되어 있어서 관람객의 흥미를 끌지 못함</li> <li>○ 커피축제가기 때문인지, 강릉시의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부스는 없었음. 외부에서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보다는 강릉 내부 시민들을 위한 행사에 더 큰 방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됨</li> </ul>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계시간 : 9시간 집계 진행 준수하고 있었으며, 집계요원 운영시간은 2시간 내로 교체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li> <li>○ 교육이수 : 집계요원 모니터링 결과 사전교육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시간제 교대 시 전임자에게 집계방법에 대해서만 안내받았다고 답변하였음</li> <li>○ 집계위치 : 집계요원은 지정된 곳에서 이탈하지 않고 집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li> <li>○ 산출 : 집계요원 시간당 집계인원 확인결과 1인당 300명에서 400명 사이로 최대 7천명 이하 준수하였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표축제 프로그램으로 종합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목해변 커피거리 이벤트 운영, 기업체 후원 가곡의 밤, 관광공사 후원 K-POP 콘서트 등 강릉시민과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기획되었음</li> </ul> </li> <li>○ 강릉지역의 전형적인 지역적 고정이미지를 탈피하면서 보다 현대적이면서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커피라는 소재를 축제로 활용한 아이디어는 참신하면서 흥미로운 경험의 장이 될 수 있음</li> <li>○ 커피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커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스포츠시설에 문화예술적 이벤트를 접목시킴으로서 시설의 문화적 활용이라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임</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아레나 공간기획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아레나를 활용하여 강릉커피축제 메인행사를 진행하여 주차문제 보완, 실내행사 진행 등 장점이 많았으나, 행사기획에 비해 강릉아레나의 규모가 큰 편이어서 행사장 전체가 썰렁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음</li> <li>- 차기 행사 기획 시 콘텐츠의 규모확대 및 공간기획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ul> </li> <li>○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적 취향이며 다양한 예술/철학적 사고와도 연결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었음</li> <li>○ 커피 생산과 소비까지 이어지는 여러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공정무역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못해서 축제가 소재의 입체성을 살리지 못함</li> <li>○ 강릉시민은 전적으로 관객으로 머물러 있어서 축제에 참여하는 업체의 결과물을 소비하는 객체로만 머물러 있음. 강릉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li> <li>○ 외부에서 방문하는 외지인들의 교통편이나 안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외지인의 방문이 많아질 것임. 현재는 강릉시민들만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임</li> </ul>



## 7

## 평창송어축제

## (1) 개요

- 기간 : 2018. 12. 22(토) ~ 2019. 1. 27(일) / 37일간
- 장소 :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둔치 일원
- 주최 : 평창송어축제위원회
- 주관 : 평창송어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 프로그램 : 송어 얼음낚시, 맨손 황금송어잡기, 송어구이 체험, 겨울레포츠 등

## (2) 평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주제가 명확하여 잠재관광객들에게 축제의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li> <li>○ 더불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으며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가 잘되어 있어 문화자원의 접목이 우수하다고 판단됨</li> <li>○ ‘얼음낚시’라는 점에서 유사 축제와의 차별성은 없으나, 축제 전체가 ‘송어얼음낚시’에 충분히 집중되어 있고, 축제 참가자들이 ‘송어얼음낚시’를 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음</li> <li>○ “KTX타고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해발 800미터 고원 얼음판에서 송어낚시 체험”의 주제로 축제 주제(소재)와 부합된 핵심프로그램을 개발함</li> <li>○ 평창에서 생산되는 송어로 오대천의 맑은 물을 활용하여 방문객이 함께 낚시를 즐기고 이를 현지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축제임</li> <li>○ 축제장 방문객은 오대산 국립공원, 방아다리약수, 대관령 양떼목장 등 방문유도로 축제가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축제의 부족한 점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지역자원, 예를 들어 평창군의 특산품을 보다 다양화하여 관광객들에게 구매를 유도하고 지출을 유도하였으면 더욱 좋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li>○ 가장 중요한 차별 요소인 '송어'에 대한 소개가 축제 전반에서 부족하다고 느낌.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모두 '송어'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참가자들이 '낚시'라는 행위보다 '송어'를 인지하고, '송어'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향후 재방문에 대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li>○ 평창지역의 특산물과 송어축제를 collaboration한 축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 개발이 필요함</li> <li>○ 화천산천어축제의 동물 학대 논란이 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평창 송어축제의 생태학적 접근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요원이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관계자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음</li> <li>○ KTX 진부역에서부터 평창송어축제에 대한 소개 및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li> <li>○ 얼음낚시 참가자가 낚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축제 운영요원들이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었음</li> <li>○ 축제 진행 및 안내요원을 비롯해서 식당 내 지역 상인들도 과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친근하고 친절했음. 이것은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창송어축제〉가 소박하고 따뜻한 지역축제라는 느낌을 줌</li> <li>○ 행사장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쉽게 설명되고 있으며 장소선정은 방문객들이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음</li> <li>○ 또한 방문객들이 잡은 송어를 요리할 수 있는 시설과 동선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충분한 자원봉사자 인력과 안내요원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li> <li>○ 진부역이 개관하여 평창송어축제장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편리했으며, 진부역-축제장 교통편 이벤트를 개발하여 접근성 제고에 노력함</li> <li>○ 진부체육공원을 활용하여 비교적 넓은 주차공간과 행사장을 갖추고 있었음</li> <li>○ 기존 게이트볼장 실내를 활용하던 어린이 실내낚시터를 개장하여 어린이들도 송어낚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li> <li>○ 코레일, KTX·평창 택시 결합상품을 출시하여 축제장까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운 날씨에 진행되는 축제이다 보니 행사진행요원과 안전요원들이 다소 경직되어 있었지만, 방문객들을 접하는 태도와 서비스가 잘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li> <li>○ 일부 참가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송어를 낚거나, 흘치기 등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낚시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음. 낚시동호회 등 전문가들이 축제에 많이 참가하고, 또 초보자들에게 낚시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불법적인 낚시에 대한 제지나 룰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li> <li>○ 진행자가 있는 맨손송어잡기대회는 평창송어축제에 대한 소개나 참가자 독려 등 축제 진행에 적합한 진행으로 프로그램을 유쾌하게 만든 반면, 놀이광장 '디스크팡팡' DJ는 참가자의 몸무게나 외모에 대한 비하 등 부적절한 멘트가 상당수 있었음</li> <li>○ 평창송어축제는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많고, 놀이광장은 특히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러한 진행에도 부적절한 표현이 없는지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li> <li>○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축제 행사요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안내, 유니폼 등)</li> </ul>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의 경우 방문객이 너무 많아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적인 독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지역특산물인 송어를 주제를 축제가 진행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됨</li> <li>○ 지역의 6개 단체를 이용하여 축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됨</li> <li>○ 축제 발전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온 바, 재정자립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제영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li> <li>○ '양 먹이주이'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삼양목장의 양을 축제장에 배치하여 방문객들이 실제 양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은 지역과 연계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음</li> <li>○ 축제조직위원회 21명,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20명, 아르바이트 20명 총 166의 운영스텝을 평창군민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음</li> <li>○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며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li> <li>○ 평창송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과 축제 아이템(송어)이 부정적인 이미지 없이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축제의 지속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전반에서 어린이를 배려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눈에 띄었음. 다양한 놀이시설과 실내어린이 낚시 등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고, 이는 평창송어축제가 가족 중심의 축제라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li> <li>○ 상품권으로 지역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축제 수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창의 특산품을 잘 모르는 축제 참가자들에게 평창의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임</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의 경우, 지역 먹거리가 다양한 반면 축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먹거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음. 따라서 향후에는 방문객들이 쉽게 먹을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먹거리가 체험을 이용하여 보다 확충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li>○ 축제 행사장이 참가자 규모에 비해 협소하다고 느껴졌음. 특히 얼음 낚시터에 비해 구이터가 있는 연동하우스, 농산물판매장 등은 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동 경로가 좁고 복잡해서 축제 행사장에서 너무 외진 곳에 있다는 인상을 줌</li> <li>○ 평창송어축제는 '낚시하고 잡은 송어를 먹는 행위'까지가 축제의 주요 이벤트이므로, 낚시터만큼 식당에 대한 인상이 축제 경험에 대한 영향을 주므로, 낚시터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이나 식당 공간에 대해 참가자 시선에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li> <li>○ 경강선 KTX고속철도 도입에 따른 평창관광의 허브로서 접근성이 뛰어난 바, 향후에는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이 필요함</li> </ul>

##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이 열리는 주행사장으로 한정되어 있음</li> <li>○ 집계 범위와 방문객 집계장소가 정해져 있음</li> <li>○ 집계 장소 개소수가 5개 이하이지만 방문객의 집계가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음</li> <li>○ 집계 시간 9시간을 준수하고 있음</li> <li>○ 1인 2시간 이상 연속 집계불가사항을 준수하고 있음</li> <li>○ 평창송어축제의 경우 무인측정으로 축제장에 CCTV 무인계수기 측정으로 방문객 행태까지 살펴보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li> <li>○ 37일간의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일 방문객 현황을 집계하고 있었으며, 수입집계와 유료이용자를 합쳐 방문객 수 관리를 하였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계요원은 무인측정기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음</li> </ul>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p>우수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어축제는 명확한 주제를 이용하여 방문객을 유도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추구하는 ‘체험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평창이라고 하는 지역이 청정지역이며 겨울철 축제로서 그 의미가 충분하여 많은 호응이 있는 축제로 평가됨</li> <li>○ 연예인 동원이나 축제와 무관한 행사 등이 없이 지역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재정적인 독립이 충분히 예상되며 인근 자원과 연계되어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li> <li>○ 축제가 열리는 행사장 여러 곳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글루나 얼음조각과 같이 촬영 스폿으로 연출된 장소 외에도 실제 장소에서 보는 것보다 사진에서 더 멋지게 보이는 것을 확인했음</li> <li>○ 최근 축제에 대한 소개가 블로그를 넘어 SNS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처럼 사진의 결과물이 좋은 것은 중요한 홍보 포인트라고 생각됨</li> <li>○ 연예인 동원 등 과도한 예산지출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행사장을 주 무대로 한 개막식을 진행하였음</li> <li>○ 축제기간 37일의 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실행하였음</li> </ul>
<p>부족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현장은 주제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으나 ‘송어’라고 하는 주제를 벗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다양성을 체험과 연결시켜 진행한다면 보다 우수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li> <li>○ 평창송어축제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항의성 게시물이 상당수 있음. 하지만 이런 글에 대해 주최 측이나 운영자의 피드백은 전무함. 이것은 축제 참가자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li> <li>○ 일회성 축제가 아닌 만큼,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성실하게 피드백을 하는 것이 요구됨. 축제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예비 참가자들은 이러한 피드백을 보고 ‘문제점을 개선해가는 축제’라고 판단하고 축제 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임</li> <li>○ 만약, 이러한 사후관리가 어렵다면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기능을 없애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봄</li> <li>○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좋았지만, 송어구이나 회 외에 송어를 이용한 다른 메뉴가 없다는 점이 아쉬웠음</li> <li>○ 송어를 잡지 못했거나 또는 송어가 먹다가 부족하다면 송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식당이 있는 하우스를 나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는 별도의 구입처로 이동해야 했음. 송어를 좀 더 쉽게 구입하는 편이 판매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li> </ul>

## 8

## 괴산고추축제

## (1) 개요

- 기 간 : 2019. 8. 29(목) ~ 9. 1(일) / 4일간
- 장 소 : 괴산군청 앞 광장 일원
- 주 최 : 괴산군
- 주 관 : 괴산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놀이&열정 : (무대공연) 주무대/보조무대 공연 및 경연대회 (킬러콘텐츠) 황금고추를 찾아라, 속풀이고추난타 등
  - 휴식&힐링 : (먹거리) 고추음식체험존, 향토·읍면식당, 간이음식점(편의시설) 고객쉼터, 캠핑장, 가족쉼터(고추요리체험) 고추속체험, 전국고추요리경연대회, 각종고추요리체험
  - 체험&활력 : (놀이기반체험) 문화놀이기반체험부스, 전통놀이체험, 청소년체험 (물놀이장) 어린이물놀이장, 모래놀이터, 샤워시설(물고기잡이) 고추달린물고기잡기
  - 구매&청결 : (고추장터)읍면고추직판장, 고추방앗간 (농특산물판매장) 지역농특산물 판매
  - 화합&문화 : (전시행사) 고추·문화 관련(세계고추, 괴산고추품평, 괴산문화전시 등)(문화행사) 섯다리(꽃가마행렬), 고추거리퍼레이드(화합행사) 읍면화합민속경기(줄다리기·씨름 등)
  - 부대행사 : 화양구곡77자전거 그란폰도대회, 괴산민속예술경연대회, 전국농업인 노래자랑, 괴산고추축제발전세미나 등

## (2) 평 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 가 내 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민의 관심이 많은 생산품목이라 밤늦게까지 많은 지역민이 축제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가 묻어나고 있음</li> <li>○ 속 풀이 고추난타, 황금고추를 찾아라 등 고추를 주제로 한 대표프로그램에 대한 관광객의 참여도가 의외로 높아 축제와 잘 어울리고 있음</li> <li>○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에 차별성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가하는 등 기획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음</li> <li>○ 도심을 가로지르는 퍼레이드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축제의 관을 유도하기에 충분했고, 퍼레이드 자체에 시민들의 참여도 많았음</li> <li>○ 황금고추를 찾아라, 속풀이고추난타, 야간난타, 고추놀이, 고추품평회, 세계고추전시관운영 등 고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선명한 대회 주제를 나타냄</li> <li>○ 고추 출하시기에 맞춰 4일간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지역만외지 관광객 불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풍성하게 제공</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씨가 선선해 물놀이에 손님이 다소 적었으며, 심야영화도 30여명 수준으로 보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임</li> <li>○ 다양한 색을 기준으로 테마를 분류했는데 이런 색들과 테마가 잘 연계되지 않고 무심결에 지나칠 수 있는 분위기이므로 고추와의 연계 등으로 자연스럽게 축제의 테마가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음(퍼레이드 등에서도)</li> <li>○ 거리 퍼레이드가 고추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일본불매 등 애국분위기가 많아 아쉬움</li> <li>○ 연계 관광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어서 추진하지 않았으나 괴산의 관광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괴산 걸어보기 등 가까운 지역이나 관광지 등과 축제 참가자의 연계는 필요해 보임</li> <li>○ 군 단위 지역의 축제라 문화자원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이 충분치 않은 단점이 있음</li> <li>○ 향토문화축술타회의 경우 추후에는 한반도 고추유래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면 축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li> <li>○ 전국고추요리경연대회의 경우 수준 높은 레시피가 다량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식당가에서 활용도가 없음. 차제에는 고추를 이용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진행, 지역 식당가에서 밑반찬에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확보하는 게 의미 있다고 사료됨. 식당의 스토리텔링 요소가 될 수 있음</li> </ul>

##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무대는 청소년경연대회, 하천변에는 농악 예선 등 복잡했지만 묘하게 참석자도 분리되고 방문객도 분리되는 등 큰 틀에서의 동선 구성은 자연스러웠음</li> <li>○ 행사장이 지역의 중심부근에 있고, 터미널 등과 가까워 장소 선정은 적절해 보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더 나은 행사장이 될 것 같음.</li> <li>○ 행사장이 한쪽의 하천변만을 이용하고 있고 건너편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우선은 행사규모에 맞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li> <li>○ 안전관리를 외부 용역을 맡김</li> <li>○ 주차안전을 위한 해병대 봉사대, 행사장 내부 자원봉사 조직, 군청과 산하단체 직원 등이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외부 안전관리 용역회사를 충분히 서포트 한 것으로 평가됨</li> <li>○ 군청 앞, 동진천 하천부지, 동진천을 축제장으로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높이 평가</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 주변의 도로 특히 폼바가 사용하는 장소에 쓰레기가 많았고, 주 행사장 한쪽엔 공사가 진행 중 이라서 아쉬움</li> <li>○ 밤에 하천변에 안내 또는 경비가 없는데 순찰 정도는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음</li> <li>○ 좁은 공간에서 민속놀이 예선과 기차가 함께 움직여서 복잡했음</li> <li>○ 메인 안내센터가 너무 한쪽(주무대 뒤쪽)에 있으면서 안내서 등을 배포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적었음</li> <li>○ 마이크의 중복사용 등 민속경연대회와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행사 안내가 같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혼란스러웠음</li> <li>○ 시끌벅적한 축제분위기는 좋으나, 좁은 장소에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소리를 내면서 진행되는 듯함</li> <li>○ 행사장 동선은 분리가 뚜렷하나 주무대가 푸드트리에 쌓여있고, 그 다음이 체험 부스로 되어있는데 이를 체험부스가 앞으로 오고 음식이 뒤로 가는 것은 어떨까 함</li> <li>○ 동진천에 설치된 난간이 없는 쉼다리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동진천 일대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축제가 지역의 농가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관광 및 산업자원 등의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고추판매와 동시에 고춧가루도 만들어 일괄판매할 수 있도록 해 우선 참가한 많은 고추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li> <li>○ 피산의 고추가 품질이 좋다는 반응이 있는 만큼 축제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li> <li>○ 만족도 조사 용역 등으로 축제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안내에 임하고 있음</li> </ul>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유료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축제 지속가능성을 높임</li> <li>○ 지역주민들의 축제 참여도, 프로그램 체험참여도, 고추 구매도, 먹거리 구매도 등 다방면에서 높은 충성도를 보임</li> <li>○ 고추를 이용한 먹거리, 지역서 식당이 참여한 향토음식점, 부녀회가 운영하는 읍면식당,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운영하는 아시아햇푸드존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먹거리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li> <li>○ 축제조직위원회와 괴산군의 유기적인 협조와 축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높았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자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으로는 입점 부스비(생산자 농가 제외) 정도만 있고, 대표프로그램 참가자도 모든 참가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고 있어 축제 자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임</li> <li>○ 푸드트럭과 주막촌 등의 지역 먹거리가 함께 있어 지역 주막촌에만 손님들이 많은 것으로 볼 때 푸드트럭과 분리해 배치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듯함</li> <li>○ 상시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단체 중심의 조직위를 구성해 축제 준비기간 동안 조직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등 체계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추진기관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 축제를 위한 상시조직 없이 축제 담당하시는 분이 5월 정도에 배치되는 등 조금 급하게 준비하는 것 같음</li> <li>○ 행사장 안전요원들이 너무 안보이며, 운영요원 교육도 전반적인 행사 브리핑은 직접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li> <li>○ 지역 다문화가정이 주관하는 '아시아햇푸드존'의 경우 비전문성 때문에 요리가 다소 영성한 면이 있음. 이들에게 축제 일환으로 사전에 해당분야 전문요리사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와 축제참여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li> <li>○ 읍면식당의 경우 농번기와 겹쳐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추후 부녀회통합식당으로 순번제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li> </ul>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집계</li> <li>○ 소정의 교육을 받아 집계시간 등을 지키고 있음</li> <li>○ 하천과 하천부지를 일부 활용하나 공원녹지형 축제로 집계 개소 5개를 유지했음</li> <li>○ 집계범위, 집계시간, 교육이수, 집계위치 등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계요원의 모바일폰 사용에 대해 차기 축제 때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li> <li>○ 모바일폰 사용은 정확한 집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임</li> </ul>

##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에는 행사장보다 품바거리에 지역민들이 더 많았으며, 이동 놀이시설도 군민들이 많이 즐기고 있음</li> <li>○ 규모가 작더라도 모두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었음</li> <li>○ 지역 연예인을 최대한 활용한 점은 장점일 수 있으나 출연</li> <li>○ 인원이 많으면 출연료 지출이 늘어남으로써 체험형 축제 콘텐츠 개발을 저해할 수 있음.(감점요인) 이점을 감안해 출연인원과 출연료 지출을 보다 줄여 축제 관람객이 직접 즐기는 체험형 콘텐츠를 늘린다면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는 문화관광축제 인증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li> <li>○ 계획된 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함으로써 관람객과의 약속을 원만히 이행함</li> <li>○ 축제장 인근 흥벌식 가옥을 활용한 캠핑 프로그램은 아이디어가 매우 좋은 프로그램임. 수준 높은 캠퍼들 참여로 축제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 전체가 매운 공기가 많았고, 또 행사장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너무 많았음</li> <li>○ 인사말과 참석 인사 소개 등이 모든 행사의 앞부분에 있었으며, 충북다문화페스티벌의 경우에는 30분 정도의 의례식순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조금만 짧아도 좋을 것 같음</li> <li>○ 괴산에 가까운 숙박시설이 많지 않아 숙박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캠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민박 등과 함께 괴산살아보기 등을 유도해 보는 등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임</li> <li>○ 저녁프로그램 등도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는 등 품바를 능가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을 필요가 있음</li> <li>○ 지역 기관장 축사 부분은 더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감점요인) 축제조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지역 정관계 인사의 경우 사회자 소개와 앉은 자리서 기립해서 인사하는 정도가 축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li> <li>○ 지역 해병전우회의 자원봉사는 권장할 만 하나 복장을 군복이 아닌 자원봉사 복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많은 곳이 자원봉사 복장으로 바꾸고 있음</li> <li>○ 외부에서 들어 온 각설이품바장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망됨. 이들에 대한 축제관람객들의 소비가 늘수록 고추구매력과 축제조직위의 유료프로그램 참여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또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경우 사고나 불상사에 대한 책임소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유기농페스티벌, 박람회 등 괴산서 여는 축제나 박람회를 고추축제 기간 내에 포함시키면 외형 확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예 : 순창장류축제 속 순창발효소스박람회)</li> </ul>

## 9

## 음성품바축제

## (1) 개요

- 기 간 : 2019. 5. 22(수) ~ 5. 26(일) / 5일
- 장 소 : 음성 설성공원 및 꽃동네 일원
- 주 최 : 음성군축제추진위원회, 음성예총
- 주 관 : 음성품바축제 기획실무위원회
- 주요행사
  - 놀GO : 품바촌 체험, 전국 품바 길놀이 퍼레이드, 길놀이 2판 4판 난장판, 막걸리·사이다 동창회, 추억의 고고장, 20살커플링찾기 등
  - 즐기GO : 시간여행·추억의 거리, 품바사랑 나라사랑 플래시몹, 남사당놀이, 품바사생대회, 스탬프 투어, 전국품바사진촬영대회, 품바의상패션쇼 등
  - 먹GO : 푸드마차, 향토음식점, 야시장, 품바비빔밥, 레시피경연대회 등
  - 보GO : 열림식/담음식, 품바왕들의 귀환, 관광객과 함께하는 품바공연, 성인전용 품바상설 유료 공연, 품바‘레퍼’강연대회, 품바 가요제 왕중왕전, 품바 의상 패션쇼 등
  - 나누GO : 천인의 옛치기, 천인의 비빔밥 나누기, 사랑나눔장터, 음성군 꽃잔치, 전통한방체 험관, 독거노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노숙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등

## (2) 평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바 축제는 지역축제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하층민의 놀이를 일반인의 놀이로 전환시키고 음성 군민들이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패션쇼와 댄스 등은 현대 트렌드에 맞게 설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특징임</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축제는 단순히 사람을 즐겁게 하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봉사라는 정신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 품바리는 우리의 사라져가는 하층 문화를 즐겁고로서 재해석하여 모든 참여자가 즐길 수 있도록 한 무형의 문화체험 축제라고 평가할 수 있음</li> <li>○ 프로그램을 5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다양한 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자칫 노년층에 편중될 수 있는 위험을 노래, 춤, 먹거리, 패션 등으로 젊은층도 유입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우수함</li> <li>○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한 바, 관광객 유치는 성공적이며 최귀동 자선가의 정신을 이어받은 축제로서 카톨릭 사진전, 불교승려 가요공연, 수녀 식당 운영 등이 있었음</li> <li>○ 지역민 가요대회, 초청가수 공연, 면 지자체별 품바공연, 품바가락배우기, 외국(에쿠아도르) 가수 초청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있었음</li> <li>○ 베트남 터키 러시아 등 외국코너를 만들어 그 나라 특산품을 판매하고 공연도 하여 행사를 살찌게 하였음</li> <li>○ 바베큐, 막걸리, 비빔밥, 수박, 부침전, 조청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여 먹거리가 풍부하였음</li> <li>○ 농업용품, 의복, 인삼 약세서리 등 다양한 잡화품 부스를 만들어 판매하였음</li> <li>○ 어린이 놀이시설도 운영하였음</li> <li>○ 60-70년대의 농촌 및 도시풍경, 학교모습을 주제로 한전시관도 운영하였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를 통해 지역상품 판매에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한 곳에 마련된 시장상인과 판매대는 어느 시장과 차별성이 없이 가능한 숫자대로만 펼쳐 있어 이것만으로 볼 때는 축제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운 점임</li> <li>○ 이 축제의 기원인 음성 꽃동네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 또한 꽃동네에서는 또 다른 행사가 열렸으나, 두 행사가 연결되어서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음</li> <li>○ 꽃동네에서는 종교 행사로서 평범한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품바는 움직이는 모습이 뚜렷했음</li> <li>○ 두 행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면 음성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 줄 것으로 보임</li> <li>○ 많은 품바 프로그램이 어쩔 수 없이 장노년층에 맞춰진 추억의 축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신세대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 프로그램 개발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li>○ 자선가의 봉사정신을 주제로 택하였으나 그 보다는 주로 노래공연과 음식, 잡화 판매에 더 큰 비중으로 두었음</li> <li>* 카톨릭교의 해외사업 선전 전시회, 불우아동돕기 승려공연, 수녀식당 운영 등이 있었으나 좀 더 적극적 사회봉사활동이 필요함</li> <li>→ 불우아동 자매결연, 다문화가정 한테 어울리기, 노인들 참여활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 더 추가되면 좋겠음</li> <li>○ 카톨릭 사진전의 경우도 관계자가 나와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더 생동감있게 설명해주면 좋겠음</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지역을 특화한 전통공연, 특산물, 명사 등을 주제로 기획한 사업은 많이 볼 수 없었음 → 꽃 및 분재 전시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음</li> <li>○ 물건값이 다소 비싸고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매대앞에 가격 표시 요망</li> <li>○ 외국인 공연장소가 협소한 바, 넓은 장소 확보요망, 또한 에쿠아도르뿐 아니라 타 국가의 가수들도 초청하면 행사가 더욱 다채로울 것으로 사료됨(다문화 주민 판매장 동시 운영가능)</li> </ul>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요원 배치는 외지인이 구분할 수 있도록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음</li> <li>○ 행사장까지 접근성은 셔틀 버스가 운영되고 있음</li> <li>○ 안내요원, 자원봉사자, 부수인력 등 인적자원은 모두 배치된 것으로 확인하였음</li> <li>○ 종합안내소를 한군데 집합시켜 운영하였음(의무실, 행사안내, 녹차제공 등)</li> <li>○ 대학생들을 안전요원으로 고용하였고, 휴지청소등도 잘 하고 있었음</li> <li>○ 전통한옥 연못이 있어 행사장으로서의 정취가 가미되었음</li> <li>○ 녹차를 무료로 제공하였음</li> <li>○ 주요 요소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친절하게 안내하였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바 축제장의 범위가 비교적 작은 규모는 아니나, 외부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축제장의 정확한 장소가 눈에 쉽게 발견되어 있지 않아 서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음. 가령, 축제에 대한 다른 정보보다 축제장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적게 배포되고 있고 누구도 쉽게 발견이 되는 표지물이 배치가 부족한 것은 지적될만함</li> <li>○ 행사장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배치되어 있으나, 배차 간격이 지켜지지 않았고, 셔틀버스 장소 요원과 행사장 요원간 정보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버스가 더 많이 활용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임</li> <li>○ 화장실이 2개소에 준비되었으나 협소하고, 떨어진 장소에서 찾기 위한 안내판이 잘 안되어 있었음, 남자 화장실 칸막이도 설치요망</li> <li>○ 주차장이 고교 등에 있었으나 참여자들 대상으로 잘 안내가 되지 못하였음 → 행사장 입구에 사람이 대기할 필요가 있음</li> <li>○ 충주 등 인근도시 주민 참여를 위한 셔틀버스는 운영이 되지 않았음</li> <li>○ 음성향교 등 주변 관광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문이 닫겨있었음</li> <li>○ 행사홍보용 웹사이트에 숙박, 음식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li> <li>○ 수도물을 음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나 생수를 제공해 주면 좋겠음</li> <li>○ 외국인들 위한 통역안내센터 설치 검토요망</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장이 시장통과 매우 근접하여 있어 시장통을 통과해야 축제장을 갈 수 있도록 하여 판촉을 하고 있음</li> <li>○ 품바비빔밥 나눔, 엮치기 행사, 관내 화훼 생산자 단체가 설치한 화원, 푸드트럭, 푸드마차 등은 방문객들이 즐길 거리와 볼 거리, 먹 거리 제공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방문객 참여가 잘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됨</li> <li>○ 축제 요원들은 시 공무원 외에도 봉사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열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임</li> <li>○ 인근지역 주민과 청소년, 대학생들의 축제 참여도가 높음</li> <li>○ 먹거리장터, 어린이 놀이시설, 의류 및 장난감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재원확보노력을 하고 있음</li> <li>○ 군민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였음</li> <li>○ 축제조직도 잘 갖추어져 있고 요원 교육도 잘 하고 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자립 활동에는 특산물 판매가 있으나, 매력적인 판촉 활동이 없이 형식적으로 선을 보이는 형태로 매장이 열거되어 있어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li> <li>○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방문객들이 참여, 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역민의 소득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은 별로 관찰되지 않아, 이런 점은 특별히 신경써서 개발할 필요가 있음</li> <li>○ 방문객이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음</li> <li>○ 지역주민 이외에 외지의 상인들도 많이 참여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으나 가능한 지역주민들로 구성하고, 불가 시 외부사람들로 충원하기를 권고함(지역 농민들이 농사지은 농산물 직접 판매 요망)</li> <li>○ 떡, 오렌지수박 등은 있으나 지역특산품은 별로 없었음</li> </ul>

##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량옆 행사장 입구에서 홍보물을 비치하고 안내원이 두명 있어서 집계와 안내를 하고 있었음 → 두 곳의 집계장소를 확인하였음 → 행사 참여인원은 충분하나 다양한 계층을 초청하면 좋겠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 집계지침이 좀 복잡해 지자체에서 적용이 어려운 것 같음 * 카운터 기계 도입 등 더 쉬운 방법, 혹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요망</li> </ul>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바축제 개선을 위한 의견 : 최귀동의 “더불어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행사에 더욱 많이 반영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녀들의 식당운영, 카톨릭교의 해외 활동 사진전, 불교승려의 불우아동 돕기 가요공연 등이 이번 행사의 주제와 부합하는 활동이었는데 이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의견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원 아동들의 참여활동 강화 및 자매결연 등 추진(부스 설치)</li> <li>-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는 활동 강화</li> <li>- 노인 단체들이 참가하여 공연이나 예술작품을 발표하면 좋겠음(만들기, 글쓰기, 노래부르기 등)</li> <li>- 말기암 환자 등을 초청하여 인근 관광지 투어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지원</li> <li>- 기타 지역 소외계층 참여확대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족, 재소자 등)</li> <li>- 행사조직위원회 내에 자선사업분과 신설요망</li> </ul> </li> </ul> </li> <li>○ 기타 축제 행사 발전을 위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봉사활동자로 참여하게 하여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함</li> <li>- 지역민들이 농사지은 농산품이나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코너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함</li> <li>- 축제기획시 일반 주민들에게도 공모나 제안과정을 거쳐 지역민들에게 공동개최 의식을 고양함</li> <li>- 반기문 총장이 직접 나와서 지역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음성군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강연회도 개최한다.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음</li> </ul> </li> <li>○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행사의 규모나 틀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으나 고객입장에서 세부적인 안내나 시설설치 등을 강화하고 각 프로그램의 성숙도를 높이면 좋겠음</li> <li>- 소외계층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요망</li> </ul> </li> </ul>

## 10

## 한산모시문화제

## (1) 개요

- 기 간 : 2019. 6. 7.(금) ~ 6. 10(월) / 4일간
- 장 소 :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관 일원
- 주 최 : 서천군
- 주 관 : 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 전통모시학교, 저산팔읍 길쌈놀이, 한산모시 롤플레이팅 마당극, 라디오 쇼 모시, 한산모시 퍼레이드, 한산모시 베틀쇼, 한산모시 잠자리 사수대회, 전국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런웨이, 주민모델 패션쇼, 저산팔읍 대탐험 등

## (2) 평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른'이라는 개념정립을 잘 하였으며 축제의 중장기 비전까지 제시한 점은 지역축제에 필요한 기본에 충실한 점으로 보임</li> <li>○ 1,500년을 이어 온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산모시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적인 전통문화유산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본질에 기반을 둔 다양한 재미와 경험을 주고자 하는 기획이 돋보임</li> <li>○ 한산모시문화제 전국 신진디자이너 공모전은 한산모시의 전통성에 기반을 둔 현대화, 실용화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li> <li>○ 저산팔읍길쌈놀이는 충남도 무형문화재 13호로 길쌈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 성격의 놀이로 지역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의미가 큼</li> <li>○ 전통 모시학교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한산모시짜기를 전통방식으로 배우고 수료증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후속세대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li> <li>○ 미니베틀 한산모시 짜기도 쉽고 친근하게 한산모시 짜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직접 짠 결과물을 참여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인 축제공간의 공간디자인을 위해 모시의 디스플레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여 축제장의 포토존을 조성함</li> <li>○ 한산모시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저산팔읍길쌈놀이나 한산모시 거리퍼레이드의 브랜드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자부심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이외에도 미니베틀 한산모시짜기나, 모시라디오 등도 참여율도 높았고, 관심도도 높았음</li> <li>○ 무엇보다도 우수한 점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공하는 식사부스와 지역단체공연프로그램을 같이 묶어서 공동공간에 배치하여 관객 집객효과는 물론 음식판매효과도 높였을 것으로 판단됨.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갖고있는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기획으로 평가할 수 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산모시를 짜는 작업은 고된 노동의 산물로 노동의 고통을 잊기 위해 소곡주를 마셨다는 스토리 전개로 자연스럽게 소득원이 되는 소곡주와 연계시키는 스토리라인전개 필요</li> <li>○ 쉼터공간과 같이 제공된 한산모시 짜기 미니베틀은 특정한 시간이 아닌 상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면 오히려 호응과 축제를 기념할 수 있는 굿즈를 방문자가 가져갈수 있다는 두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 같음. 물론 운영상 어려움은 많겠지만</li> <li>○ 한산모시 잡자리 시수대회도 매우 획기적인 기획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좀더 전략이 필요해 보임</li> <li>○ 한산장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함. 평상시에는 한산장터가 허브 역할을 하면서 한산모시관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해 보임</li> <li>○ 서천군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는 부분은 부족하였음. 특히 축제장소가 서천군의 외곽으로 빠지면서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축제장소만 들렀다가 다시 외부로 나가버려서 정작 서천군 내부를 방문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ul>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 바로인근에는 주차장이 절대부족하였고, 임시주차장을 2군데 배치하여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행사장에 접근하는데 문제는 없었음. 셔틀버스도 언제든지 타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수로 배치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li> <li>○ 축제장 인근의 다양한 공공시설들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제공</li> <li>○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교통통제 등의 노력이 돋보임</li> <li>○ 행사장까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도판 설치가 있음</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예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자연적인 공간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이 구축되었음, 다만 기존의 한산모시전시관, 한산모시홍보관과 공예공방 사이를 대로가 지나고 있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 필요</li> <li>○ 장소는 상설적인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인 한산모시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축제 개최장소로 매우 적합함</li> <li>○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청년, 중년여성, 노인회 회원들도 많이 참여하여 축제가 지역주민 화합의 역할을 제공함</li> <li>○ 축제 방문자센터 운영은 타 축제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타 축제에서도 도입했으면 함</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산모시관, 한산모시홍보관과 공예공방과의 대로를 지하로 설치한다든가 하여 온전한 모시공간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군과 도차원에서 있었으면 함</li> <li>○ 적절한 쉼터가 많이 제공되었으나 규모면에서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보임</li> <li>○ 향토음식마당의 경우 방문자 입장에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으나 텐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기가 통하지 않아 열악한 환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으로 쾌적한 환경이 연출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 필요</li> <li>○ 축제방문자 센터의 포토존 운영이나 모시입고 사진 찍기 등의 컨셉이 매우 의미가 커서 타 축제에 전파 필요</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시제품 및 모시음료 등 축제 상품개발 노력을 통해 축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노력을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끌어내고 있는데 특히 축제에 있어 지역축제위원회와 기획단을 분리 운영하여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음</li> <li>○ 면 단위의 음식부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3회의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개선 노력을 함</li> <li>○ 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상설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획단도 운영되고 있음</li> <li>○ 축제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자체 학습조직화를 통해 노력해 가고 있음</li> <li>○ 지역상품의 판매구역의 모시떡이나, 모시 관련 의류 판매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음</li> <li>○ 지역 내 활동하는 지역특산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들의 참여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 됨 서천감을 홍보하기 위한 카톡등록 행사 등은 서천군의 6차산업 활성화 노력을 홍보하는데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으나, 구석에 배치되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음</li> <li>○ 보다 적극적으로 서천군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구역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6차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별로 기획프로그램으로 배치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재정자립을 위한 활동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li> <li>○ 코레일과 연계한 씨티투어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립생태원, 갈대밭, 소곡주전시관, 서원 등을 연계한 자체 연계관광 프로그램 제공이나 안내를 하였으면 함</li> <li>○ 청년과 모시 맘이 결합한 축제기획단 운영은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 지속적인 진화모형을 고려하여 운영하였으면 함</li> <li>○ 날씨가 더웠던 관계로 떡을 비롯한 음식판매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li> <li>○ 지역내 식음료를 파는 공간 인근에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고, 그늘막 처리도 부족하여, 관람객들의 적극적 구매효과까지 유도해내지 못하였음</li> <li>- 모시 의류는 비교적 고가의 상품으로 판매되어 일반 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나, 일반 의류로 재가공된 상품들은 비교적 저가에 판매되어 관심 있는 사람들의 구매도 높았을 것임. 다만 충분한 홍보효과를 내지 못하였던 것은 아쉬운 점임. 서천군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li> </ul>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계는 5개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배치하여 금요일과 토요일 각각 9시간에 걸쳐 방문객집계지침에 따라 잘 운영하고 있었음</li> <li>○ 본 행사장은 오로지 축제만을 방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만이 있는 곳으로 별도의 지점에서 관람객을 집계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li> <li>○ 과거 군 내부에서 행사가 개최되었던 것에서 군의 외곽으로 축제장소가 옮겨진 것으로 판단되어 주변의 교통접근성은 높아졌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걸맞게 고화상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여 관람객이 상시 볼 수 있도록 제공함. 양희은과 100인의 지역오케스트라협연은 씨줄과 날줄을 모티브로 하여 지역주민에게 좋은 공연을 제공함</li> <li>○ 한산모시주민모델패션쇼는 그 동안 패션쇼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지역주민이 모델이 되어 축제를 즐기며 모시클럽 용궁도 축제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즐기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li> <li>○ 외부 연예인 초청행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음</li> <li>○ 무엇보다도 일반 노점상들을 축제 메인 공간이 아닌 외부로 빼면서 전반적인 축제장소의 쾌적성을 높이면서 모시축제의 고유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한 노력은 충분히 평가할만함</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3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의도에 비해 30주년 기념전시는 약간 소홀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음. 향후 백서 발간 등의 작업을 통해 보완하였으면 함</li> <li>○ 청년과 지역 중년여성들의 지역문화를 통한 기획단 결합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세대 간 갈등구조를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함</li> <li>○ 축제기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이를 평상시에 유지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한산 소곡주와 한산모시가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아울러, 축제 팸플릿에 문화관광유망축제 명기 요망</li> </ul>

## 11

## 서산해미읍성축제

## (1) 개요

- 기 간 : 2019. 10. 1(화) ~ 10. 13(일) / 13일간
- 장 소 : 해미읍성 일원
- 주 최 : 서산시
- 주 관 : 서산해미읍성축제추진위원회(서산문화원)
- 주요행사
  -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 체험 프로그램
    - 주체체험(조선음식 식후경), 병영체험, 숙영체험, 엽전체험 등
  - 공연 및 이벤트
    - 태종대왕 수라상,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 마당극, 야간기획공연, 서산 박첨지놀이 등

## (2) 평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축제내용이 옛것, 우리 것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한 것이 눈에 띄게 좋았음</li> <li>○ 옥사체험, 병영체험, 어린이 활쏘기, 주먹밥먹기 체험, 전통 판소리 공연, 전통상여, 가마, 말달리기, 국궁체험, 전통민요체험 등 순수 우리의 고유문화와 전통적 내용만을 담았다는 것이 좋았음</li> <li>○ 축제 주제에 맞게(현 시대 트레드인 먹거리)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연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색다른 축제 분위기 조성</li> <li>○ 옛 문화와 역사가 잘 어우러지게 프로그램 형성을 다양하게 하였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으나, 야간 행사할 때 좀 더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면 좋았겠다고 보여짐</li> <li>○ 엽전을 사용하여 물건을 사는 행위는 충분히 흥미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너무 이른 시간부터 음식 재료 마감(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생각)</li> </ul>

##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요원의 배치, 행사장의 접근성, 기타 동선의 설계를 해미읍성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좋았음</li> <li>○ 인근의 주차장의 설치 등, 안내요원의 배치, 모든 체험시설에 아이들이 모두 사용하는 형태이다 보니, 이를 지원하는 인력들을 젊은 대학생들을 활용하고자 노력한 것이 보임</li> <li>○ 특히 연예인행사도 없고, 우리전통민요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 것, 야간 텐트 등을 활용한 클래핑도 좋았음</li> <li>○ 방문객 외국인통역 및 관광안내 서비스 운영을 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움</li> <li>○ 행사장까지 도로현수막이 배치되어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었음</li> <li>○ 조랑말 타기 체험 등 어린아이들이 체험하기엔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체험이지만, 많은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있었고 안전요원들이 주어진 업무에 성실한 임하는 태도가 보기 좋았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보았으면 함</li> <li>○ 축제가 야간 진행시 많은 관광객들이 작은 해미읍성 성문으로 몰릴 때 사고의 위험,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li> <li>○ 축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음(통제하는 표지판, 안전요원 필요)</li> <li>○ 접근성은 좋았으나 대중교통의 이용보다는 개인차량 이용이 많아서 매우 혼잡하였음</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팀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았음</li> <li>○ 해미면 상설식당 QR코드로 방문객의 먹거리 편의제공을 하였음</li> <li>○ 재정자립보다는 해미읍성 밖에 사회적 공헌/ 지역 벤처 기업등을 배치하고, 안전시설 배치는 매우 긍정적임</li> <li>○ 흔히 축제장이 많이 오는 외부 이동음식업체가 거의 없었으며, 해미읍성 앞에 있는 인근 식당을 많이 찾는 축제 관광객들이 야간에 너무 많아 지역경제에도 축제가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li> <li>○ 특히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 또는 연인들과 함께 연예인 공연이 아닌 전통공연인데도 축제장을 메우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엽전을 사용하여 다양한 음식 등을 사먹고 즐기는 행위는 좋았으나, 축제장의 크기에 비해 음식이 파는 장소가 너무 적고, 줄이 너무 길고 재료가 저녁시간 전에 떨어져서 다른 관광객들이 엽전을 교환한 후, 이용하지도 못했음</li> <li>○ 음식을 사먹는 사람에 비해 음식 먹을 장소도 턱 없이 부족하였음</li> </ul>

##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계요원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 외지에서 축제참가를 위해 가족단위, 친지 및 연인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음</li> <li>○ 축제 내 지역물건을 옛 엽전으로 이용하게 교환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도 좋아보였음</li> <li>○ 무인측정 집계를 하였음(집계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 중심이다 보니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li> <li>○ 연예인을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 특히 야간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음</li> <li>○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는데, 주변 정리나 쓰레기 정리 등 모두 잘 되어있음</li> <li>○ 축제장 주변 화장실이 많았고, 깔끔하였음</li> <li>○ 응급환자를 위해 구급차가 대기 중이었으며, 의무실이 잘 운행되고 있었음</li> <li>○ 방문객들의 안전 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 등이 많았지만 20~30대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느꼈음</li> <li>○ 축제 평가 날에 방문하였을 때,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볼 수 없었음 더욱 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썼으면 좋겠음</li> </ul>

## 12

## 강경젓갈축제

- 돼지열병으로 인해 축제 미개최



13

부여서동연꽃축제

(1) 개요

- 기 간 : 2019. 7. 5(금) ~ 7. 7(일) / 3일간
- 장 소 : 부여 공남지 일원
- 주 최 : 부여군
- 주 관 : 부여서동연꽃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6대 대표콘텐츠
    - 2019 연꽃축제 점등 퍼레이드 / 천화일화 연꽃 판타지쇼 / ICT 연꽃 주제관 / 세계나라 연꽃 영상쇼 / 연꽃 수박화채 만들기 / 연꽃 전망대

(2) 평가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남지의 연꽃을 주제로 자연생태자원으로 축제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공남지라는 공간과 공남지에 식생하고 있는 다양한 연꽃을 메인 주제로 하여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 문화역사자원과 자연생태자원을 결합하여 축제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음</li> </ul> </li> <li>○ 서동 무왕의 테마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차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서동연꽃축제의 프로그램 중 서동무왕즉위식, 부여연가 발표회, 서동요 연애조작단 등은 문화 및 역사주제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의 차별성도 확보하고 있음</li> </ul> </li> <li>○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꽃을 테마로 활용하여 종이연꽃 만들기, 연꽃시계만들기, 한지 연꽃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제 관람객들의 참여율 및 호응도가 높은 편이었음</li> </ul> </li> <li>○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화일화 연꽃 판타지쇼의 경우 공남지라는 장소성을 활용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매우 차별화된 콘텐츠임</li> </ul> </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연꽃 주제관과 세계나라 연꽃 영상소 등도 연꽃을 주제로 첨단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획이 차별화된 점이 돋보임</li> <li>○ ‘궁남지’라는 역사적 장소와 ‘서동’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활용한 축제 기획은 타 지역과 차별화 됨. 또한, 지역 특화 자원인 ‘연꽃’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대표프로그램의 전문성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연꽃 주제관의 경우 부여서동연꽃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꽃이라는 주제와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관람객들에게 홀로그램을 체험하는 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대표프로그램임</li> <li>- 그러나 관람객수 대비 넓지 않은 공간에 관람객들의 동선이 부딪히며 혼잡도 관리가 보완될 필요가 있었음</li> <li>- 또한 배치된 안내요원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때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사전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li> <li>- 축제의 전문성과 차별화를 위해 주제관의 동선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안내요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보완되어야 함</li> </ul> </li> <li>○ ‘궁남지’라는 역사적 장소와 ‘서동’이라는 역사적 인물, 그리고 연꽃이라는 지역 특화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식에서는 가수 축하무대, 불꽃놀이, 레이저쇼 등 타 지역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으로 지역 특색이 드러나지 않음</li> </ul>

##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과 이격된 대형 주차장 운영으로 혼잡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서동연꽃축제장과 이격되어 있는 주차장을 부여 시내 곳곳에 배치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자가용을 이용, 이용하는 축제관람객들의 동선을 분리하여 축제 혼잡도 관리를 진행하였음</li> <li>- 교통경찰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운영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혼잡도 관리 및 이동안 내에 있어 불편 최소화 노력</li> </ul> </li> <li>○ 종합상황실 내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구급대원과 119 구급차 등 안전요원 배치 등은 충실히 이행함</li> <li>○ 축제장의 전반적인 청결관리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장 전반에 쓰레기 관리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음</li> <li>- 궁남지와 연꽃이라는 자연생태자원을 주제로 하고 있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음</li> </ul> </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우수축제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반쓰레기에 대한 관리도 양호하게 진행되는 편이나 부여서동연꽃축제의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li> <li>○ 행사장 인근 주차장 부족 및 외부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의 셔틀버스 운영이 미흡(인원 예측 및 배차간격 조정 실패 등)하여 관광객 불편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제대교 아래 25인승 버스를 배차하였으나 토요일 관광객이 붐비는 10시~12시 사이에 배차간격이 15분 이상 걸렸으며, 오히려 관광객이 없는 15시 이후에 배차간격이 줄어들음</li> <li>- 행사장과 주차장에 대한 안내가 원활하지 않아 노약자나 영유아 동반 가족들이 축제를 즐기기에 적합하지 않음</li> </ul> </li> <li>○ 주차장 안내 요원이 셔틀버스 타는 곳을 모른다고 하고 셔틀버스 타는 곳에는 안내요원이 없었으며, 행사팸플렛 등이 셔틀버스 타는 곳 근처에 널부러져 있는 등 행사 진행에 있어 부족한 면 다수</li> <li>○ 주차장 운영의 안내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 시내 곳곳에 축제장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도로에 주차장 방향 표시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막상 주차장 안으로 진입한 이후 셔틀버스정차장 표시와 셔틀버스시 간표 등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였음</li> <li>- 축제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차장 운영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함</li> </ul> </li> <li>○ 안전요원 등 운영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지카누체험의 경우 축제 관람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등 기본 안전조치는 취해졌으나, 체험장의 수심에 대한 정보나 체험장 전체를 관리하는 안전요원의 배치는 확인되지 않았음</li> <li>- 연지카누체험의 경우 축제 관람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수상안전 관련 보완이 필요함</li> </ul> </li> <li>○ 주무대 관리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대는 서동무왕즉위식 등 다양한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곳으로 부여서동연꽃축제의 핵심적인 장소이나 공연이 진행될 때 축제 관람객들의 질서 관리요원이 없었음</li> <li>- 공연 및 행사 진행시 축제 관람객들의 질서 관리가 보완되어야 함</li> </ul> </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지속가능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궁남지라는 장소와 연꽃이라는 생태자원의 테마는 축제관람객을 유인하는 매우 강력한 요소로 향후 지속적인 축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li> <li>- 기업체의 광고후원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li> </ul> </li> <li>○ 부여 이외 타 지역 관람객의 참여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서동연꽃축제의 경우 충청도 권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전라도 권역의 관람객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인하는 부여의 지리적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li> </ul> </li> <li>○ 지역 공동체 기반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축제들이 축제기간에 한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행사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부여서동연꽃축제의 경우 궁남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자원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백제문화와 관련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축제의 핵심 행위자임</li> <li>- 이는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li> </ul> </li> <li>○ 개막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지역 특색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보임</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주변의 각종 영업장(각설이, 먹거리 장터, 유원시설 등) 등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겉보기에는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장사꾼들 같았음)</li> <li>○ 축제특성을 살린 지역 기념품 같은 것을 찾기 어려웠음</li> </ul>

##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계시간 : 9시간 집계 진행 준수하고 있었으며, 집계요원 운영시간은 2시간 내로 교체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li> <li>○ 교육이수 : 집계요원 모니터링 결과 사전교육이 없었다고 대답하였음</li> <li>○ 집계위치 : 집계요원은 지정된 곳에서 이탈하지 않고 집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li> <li>○ 산출 : 집계요원 시간당 집계인원 확인결과 1인당 200명에서 700명 사이로 최대 7천명 이하 준수하였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계요원 교육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계요원은 사전교육이 없었다고 대답하였으며, 집계행위 중 주변 지인과 잡담을 하며 집계에 집중하지 않는 등 다른 축제에 비해 집계요원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 하였음</li> <li>- 또한 일부 집계소에서는 축제 만족도 조사가 병행되고 있었으며, 집계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었음</li> <li>- 집계요원에 대한 교육의 보완이 필요함</li> </ul> </li> <li>○ 7.5(금) 저녁과 7.6(토) 오후에 두 번에 걸쳐 1번 주출입구와 3번 간이출입구로 방문하였으나 집계하고 있는 인원을 찾지 못함</li> </ul>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p>우수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컨셉에 부합하는 문화공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예술인 중심으로 공연이 기획되었으며, 대부분의 문화공연이 서동연꽃축제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획되었음</li> </ul> </li> <li>○ 프로그램 진행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된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음</li> <li>- 축제와 무관한 식순이나 행사가 과도하게 포장되지 않았음</li> </ul> </li> <li>○ 연꽃이 많고 좋았으며 연꽃과 연못에 사는 동물들을 활용한 조명 장식 등이 매우 아름다웠음</li> <li>○ 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관광객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었음</li> </ul>
<p>부족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소음관리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남지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자연생태자원으로 경관의 우수성이 축제 관람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li> <li>- 그러나 부여서동연꽃축제 기간 중 축제 행사장에 배치된 자선 공연이나 각설이 공연 등은 궁남지가 상당히 넓은 야외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어려웠음</li> <li>- 축제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당한 소음공해일 수 있으며, 축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소음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li> </ul> </li> <li>○ 인기가수를 동반한 개막식 프로그램 등 전반적으로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이 흥미롭지 않음</li> <li>○ 야간시간에 방문하니 별레가 너무 많았고, 너무 늦은 시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느낌(천화일화 연꽃판타지쇼의 경우 9시 40분 시작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10시에 시작함)</li> <li>○ 7.6(토) 오전 시간(오전 10~14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움</li> <li>○ 영유아나 노인 동반 가족이 방문하기에는 주차장이 너무 멀고 셔틀버스가 불편하였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하였음(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체험시설이 부족, 노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부족)</li> <li>○ 축제장 바로 근처에 있는 음식점은 너무 붐벼서 식사하기가 어려웠으며, 먼 곳에 있는 음식점은 음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불친절하여 부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짐</li> </ul>

## 14

## 고창모양성제

## (1) 개요

- 기 간 : 2019. 10. 3(목) ~ 10. 7(월) / 5일간
- 장 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성
- 주 최 : (사)모양성보존회
- 주 관 : 고창군 각급 사회단체
- 주요행사
  - 체험 프로그램
    - 답성놀이 재연 및 체험, 소원성취 야간 답성놀이 및 강강술래 체험, 답성놀이 상시 체험, 모양성을 사수하라(공성전)!!, 모양성 쌓기 체험, 조신시대 병영문화 체험, 조선시대 군사 훈련, 순라군 재연과 체험, 모양성 전통문화체험 등
  - 공연 및 경연 프로그램
    - 강강술래 재연 및 경연대회, 모양성 English Animation Festival, 낭만 충전 버스킹 및 낭만 달빛 극장, 전통무예 시연 및 마상무예 공연, 모양성 전국 가요제 등

## (2) 평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창읍성이라는 고창만의 문화재와 축제를 연결시켰다는 점이 인상깊었음. 단순히 축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이를 통해 고창이 가진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여타 축제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함</li> <li>○ 답성놀이는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이들이 즐기는 프로그램이었음. 특히나 기념품, 각종 놀이를 통해서 성을 한바퀴 다 둘러보게 만든 것은 좋은 아이디어였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관광지와와의 연계가 미흡했던 것 같음. 고창에는 선운사, 고인돌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 이러한 관광지와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축제를 다 본 후에 어디를 갈지 고민하게 될 것 같았음. 사람들에게 고창의 문화재에 관한 리플렛을 나눠주거나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다른 문화자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li> </ul>

##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장의 동선이 복잡하지 않아 프로그램이나 무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좋았음</li> <li>○ 축제장과 마을이 가까워서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음. 또한 터미널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타지인도 비교적 쉽게 축제장에 도착할 수 있었음. 교통편이 편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곽을 걸을 때 안전장치가 없어서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특히나 아이들의 경우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울타리라도 만들어서 추락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li> <li>○ 축제장에 진행 및 안내요원이 조금 더 많이 배치되어있으면 좋을 것 같음</li> <li>○ 읍성 내부에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성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성 내부에는 버스킹, 페인트볼 사격 등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축제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웠음</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에 대한 정보를 진행요원에게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답해주었음</li> <li>○ 강강술래, 답성놀이, 사물놀이 등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보였음.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축제의 성공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함</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창만의 먹거리를 찾기 힘들었음. 고창의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하는 부스를 여러 개 설치하면 좋았을 것 같음</li> <li>○ 고창모양성제만의 캐릭터가 부재한 것 같아 아쉬웠음. 축제를 대표하는 메인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마케팅(SNS, 기념품 제작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 아쉬웠음. 성 모양의 캐릭터 등을 구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음</li> </ul>

##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 없음
부족한 점	○ 없음

##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 가 내 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마무리되는 것 같아 아쉬웠음.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야 설문조사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li> <li>○ 페인트볼 사격은 고창모양성제외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특히나 과녁 뒤에 안전장치가 없어서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주의 요망</li> </ul>



15

순창장류축제

(1) 개요

- 기 간 : 2019. 10. 18(금) ~ 10. 20(일) / 3일간
- 장 소 :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 주 최 : 순창군
- 주 관 :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테마 프로그램 : 도전! 다함께 순창고추장 만들자, 지상최고의 순창 떡볶이 오픈파티,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장류소스 숯불구이 체험존 등
  - 체험 프로그램 : ‘참 좋은 순창에서 웃어요’ SNS 체험, 전통문화/전통악기 체험, 청소년 꿈나라 체험교실, 장류 워터볼 목걸이 만들기 등
  - 공연 프로그램 : 2019 장류고을 청소년 어울 마당, 제19회 순창군 읍면 농악 퍼레이드, 제31회 순창군 민속놀이 한마당, 제16회 순창고추장 요리경연, 순창 5대 명창 추모공연 등

(2) 평가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장 전역에 관광객 방문도 많았지만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았으며, 다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라 판단됨</li> <li>○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은 남녀노소 내외국인 구분 없이 많은 관광객이 관람하였고 행렬단에 참여한 개개인의 분장과 연출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행렬의 동선을 축제장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람객들을 관람에서 참여로 전환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료됨</li> <li>○ 2019명분의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는 순창장류축제의 대표적인 길러 콘텐츠로 자리잡아 각 언론사의 큰 관심을 받았고, 관광객들의 시각과 미각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프로그램으로 사료됨</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특성을 부각하고자 대표프로그램으로 도전! 다함께 순창고추장 만들자!, 지상최고의 순창떡볶이 오픈파티,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장류소스 숯불구이 체험존 등을 기획하여 운영함으로써 장류라는 먹거리를 소재로 개최하는 축제로서의 콘텐츠를 프로그램으로 잘 표현하였다 판단됨</li> <li>○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의 기능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기법으로 만든 제품 판매로 축제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고 방문객은 품질이 보증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부분이 지향하는 축제의 방향성이라 사료되며, 더 많은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판단됨</li> <li>○ 축제장 전역에 관광객 방문도 많았지만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았으며, 다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라 판단됨</li> <li>○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은 남녀노소 내외국인 구분없이 많은 관광객이 관람하였고 순창고추장의 우수성과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사료됨</li> <li>○ 2019명분의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는 순창장류축제의 대표적인 킬러 콘텐츠로 자리잡아 각 언론사의 큰 관심을 받았고, 도전! 다함께 순창고추장 만들자!, 지상최고의 순창떡볶이 오픈파티,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장류소스 숯불구이 체험존 등을 기획하여 운영함으로써 ‘장류’라는 지역 대표 콘텐츠를 축제 프로그램으로 잘 녹여내었다 판단됨</li> <li>○ 숯불구이 체험존의 참신함이 돋보임</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속의 박람회로 장류축제와 함께 진행된 순창 세계발효소스박람회는 각각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장류축제장과 박람회장이 이분화 된 느낌으로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배치와 상호 프로그램 연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료됨</li> <li>○ 축제장의 인프라 구축은 훌륭하였으나 각각 다른 여러개의 축제를 모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의 공간을 연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정체성을 고려한 구성이 필요하며, 전통고추장민속마을 곳곳을 축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방문객의 동선 유도가 필요하다 판단됨</li> <li>○ 장류체험관이나 장류사업소, 순창메주공장 등과 같은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방안과 각각의 시설들의 협조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료됨</li> <li>○ 장류를 소재로 하는 축제라면 무엇보다 장류를 활용한 음식을 맛보고 느끼고 쇼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본으로, 축제장 곳곳에 고추장된장청국장 등 순창의 장류를 활용한 음식 레시피 개발과 레시피를 활용한 음식점 운영 및 관광객에게 보급 등의 문제를 고민할 시기라 사료됨</li> <li>○ 특히 이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개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소수의 참가자들보다 지역의 주민들이 대거 동참하거나 읍면별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대표하는 메인 프로그램의 강화방안으로 ‘순창고추장임금님진상행렬’ 퍼포먼스에 마을별 주민들과 방문객을 동참시키는 기획과 ‘2019인분 비빔밥만들기’ 프로그램은 만들어진 비빔밥을 섞는 퍼포먼스에서 끝나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역주민, 방문객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로 변화가 필요하다 사료됨</li> </ul>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p>우수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창장류축제장 진입환경과 축제장 전체 규모를 고려한 무료셔틀택시 운행과 축제장 내 관광용 전기차 운행 등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배려한 우수한 기획이라 사료됨</li> <li>○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주변에 입지한 순창장류연구소를 비롯하여 발효미생물센터, 메주공장, 장류체험관, 발효소스토굴, 장류박물관 등은 순창 장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절대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었다 사료됨</li> <li>○ 타 지역 축제와 달리 음식점을 비롯한 상업시설물을 지역민이 운영하는 형태로 최소화함으로써 축제 본연의 목적을 살리는데 중점을 둔 우수한 사례라 판단됨</li> <li>○ 비교적 자원봉사자들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고 특히 깨끗한 축제를 기본방향의 하나로 내세운 이번 축제에서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자들의 태도가 돋보였으며, 축제 운영에 직접 참가하는 지역민 등 참가자의 태도나 표정이 밝고 친절하여 전반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이 우수하였다 사료됨</li> <li>○ 50여 채의 한옥으로 구성된 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장류와 전통발효 음식인 절임류의 시식과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류축제의 장소로 매우 적절하다 판단되며, 이러한 물리적 환경은 다른 축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경쟁적 요소로 장소를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료됨</li> <li>○ 순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와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통역서비스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으며,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적절하게 운영되었으며 특히, 엄마수유방, 아빠수유방을 따로 배치한 운영이 우수했다 판단됨</li> <li>○ 셔틀택시 운영 및 축제장 행사장내 무료 전기차 운행은 넓은 행사장 부지에 대한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아기자기한 재미를 더해주었음</li> <li>○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을 축제 행사장으로 선정함으로써, 민속마을은 물론 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 연구 투자 노력(발효소스토굴, 메주공장, 절임류 지원센터 등)을 군민 및 외지 방문객에게 지역의 산업을 적극 홍보하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됨</li> <li>○ 더불어 축제기간동안 발효소스토굴내 장류전시관 입장을 무료로 진행함으로써 내지인 및 방문객에게 접근장벽을 낮추고 홍보효과는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다고 사료됨</li> </ul>
<p>부족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대, 부무대, 이벤트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제장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의 역량은 프로그램 성공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서 순창장류축제는 MC들이 모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심각한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됨. 단정하지 못한 복장, 더러운 신발, 무시시한 헤어스타일...프로페셔널하지 못한 MC자체의 역량도 문제이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운영측도 책임이 있다 판단됨</li> <li>○ 축제장 안에 있는 고추장민속마을과 장류박물관, 옹기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축제장 곳곳에 어울리는 테마를 부여하여 주제가 있는 골목으로 축제장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를 개최하는 공간이 예전에 비하여 확대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높아졌지만 아직도 각종 체험부스 등의 동선이 어수선하고 너무 많은 내용이 혼용되어 있어 지속적인 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방문객 수용태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li> <li>○ 축제장 세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 대부분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독자적으로 음향을 활용하는 형태로 주무대, 부무대, 이벤트무대, 축제장 길 건너편의 각설이 품바공연 등 축제장은 음향의 불협화음들로 각각의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등 소음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li>○ 전반적으로 운영 및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메인 중앙통로에 가장 큰 부스를 운영하는 '장류 플라워 펜슬만들기' 체험부스는 1시간이라는 점심시간을 운영하여 방문객을 기다리게 하는 등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진행으로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li> <li>○ 또한, 많은 인파로 복잡한 축제장에 학습지 판매 및 노점상 등이 방문객 동선에 방해로 주고 있었으며, 야간공연을 진행하면서 의료부스는 6시전에 문을 닫았고, 안전요원도 부족한 상황으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li> <li>○ 오후시간,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진입한 루트는 편도 2차선 도로가 불법주차로 인해 1차선으로 변하여 오전에 비해 극심한 교통정체를 야기하였음(주차장 자체는 다소 여유가 있었음) 전체 진입로에 대한 보다 엄격한 주차 통제가 요구됨</li> <li>○ 행사장내 무료 전기차 운행은 다수의 대기인원이 발생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방문객 대비 운행빈도가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됨. 추후 편 수 증설이 필요함</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류는 우리나라의 음식을 대표하는 고추장, 간장, 된장은 물론 김치, 장아찌 등 발효음식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Pop 열풍과 한류 열풍은 장류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세계적인 음식테마축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유한 축제라 사료됨</li> <li>○ 순창장류축제는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재정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장류관련 기업체들과 메인프로그램을 비롯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업체와의 스폰서십 등은 축제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됨</li> <li>○ 순창장류축제는 축제기간 순창세계소스박람회를 연계하는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공동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순창장류 판매의 저변확대는 물론 축제 시너지를 극대화하였다 사료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p>우수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창군은 장류축제에 마무리지 않고 세계소스박람회라는 콘텐츠를 연결하는 등 축제에 대한 육성 의지가 뚜렷하며, 이에 따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에서도 나타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li> <li>○ 순창은 고추장의 본 고향으로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고,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순창장류연구소, 장류박물관, 장류체험관, 매주공장, 식품제조기업공장 등 다양한 장류산업 인프라를 확대해 가는 등 순창의 장류를 소재로 한 축제 콘텐츠는 관광 상품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됨</li> <li>○ 장류 관련 기업체들과 함께 메인프로그램을 비롯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여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이러한 기업체와의 스폰서십 등은 축제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고민이 필요함</li> <li>○ 축제기간 순창세계소스박람회를 연계하는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축제 시너지를 극대화하였다 사료됨</li> <li>○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판매하는 장류제품은 대다수가 전통식품인증, 또는 지리적 표시제를 받은 곳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였고 방문객들에게 순창에서 생산한 제품을 크게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사료됨</li> <li>○ 이를 통해 순창=장류(소스)의 대표 고장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축제임</li> <li>○ 순창은 고추장의 본 고향으로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고 순창의 장류를 소재로 한 축제 콘텐츠는 관광 상품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됨</li> </ul>
<p>부족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창장류축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장류와 절임류를 판매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신뢰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장류생산민가의 지나친 호객행위는 축제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됨</li> <li>○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과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노력 등 다양한 관심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나 축제추진주체의 경험부족과 추진역량 부족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초청이나 전담조직 육성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판단됨</li> <li>○ 순창장류축제는 세계발효소스박람회와 함께 국내외 시각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 전통음식과 연계하여 세계인을 순창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발전전략 모색 등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사료됨</li> <li>○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공연이나 체험프로그램도 우수하지만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장류 판매부분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전체를 축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획과 장류업체들의 적극적인 축제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사료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가능성이 높은 축제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주변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축제 소재를 충분히 고려한 독특성과 매력성을 잘 나타내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축제 성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사료됨</li> <li>○ 세계발효소스박람회의 행사 구성이 관련업체 부스설치 중심으로 빈약한 편. 박람회장 확대(행사장 내 타 시설 고려) 및 컨퍼런스 개최 등 축제와 독립하여도 손색이 없는 개최전략이 필요함</li> <li>○ 순창장류 축제는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순창의 장류·소스산업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판단됨. 방문객수, 행사구성 등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및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할 시점이라 사료됨</li> </ul>

##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창장류축제는 기업체의 협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축제재원을 간접적으로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한류의 확산 등 한국 전통 맛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축제라 사료됨</li> <li>○ 순창장류축제는 14회를 이어 오면서 순창군은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장류의 고장으로 이미지를 차별화하였고,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은 대표적인 전통문화관광지로 상시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축제 주제와 연관된 대규모의 연구시설과 산업시설이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된 우수한 대표사례라 판단됨</li> <li>○ 순창군은 장류와 더불어 발효소스 개발을 위한 발효식품공장, 발효소스토굴 등을 건축하여 축제 소재와 장소를 명문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류 가을 음악회', '아미산을 품안에 EDM쇼', '장류마을 쯤비야 놀자' 등의 야간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도와 지역 홍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창장류축제가 지속가능한 성장형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속마을 장류업체의 자율적인 축제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그러나 민속마을의 장류업체들은 판매를 위한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 방문객들에게 축제를 함께하는 민속마을 이미지를 주기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으로 축제를 통한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속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과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 운동 등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li> <li>○ 방문객들의 장류쇼핑과정에서 장류는 순창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으나 장아찌의 원재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장아찌 원재료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사료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 프로그램의 확대로 방문객들은 축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였으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이나 식당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한옥숙박시설, 민속마을 내 대표적인 한식당 운영, 연계관광 상품 개발 등 전반적인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료됨</li> <li>○ 순창장류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류산업의 다양한 인프라와 접목시킬 수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표프로그램의 수준향상, 지역인적자원의 축제운영에 대한 역량제고,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홍보강화 등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한 시기라 사료됨</li> <li>○ 축제 현장평가부스를 방문했으나 담당직원 없이 텅빈부스만이 존재해 자체 평가노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li> </ul>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 무대에 군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이 매우 인상적. 참가팀 한팀한팀이 매우 우수한 실력으로 기량을 뽐냈으며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에게는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군민들간 소속감을 증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축제의 장이 되었음을 높이 평가함</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일 일요일 12시에 진행되는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프로그램은 사전 안내도 없이 13시에 진행됨. 또한 진상행렬에 참가하는 군인들은 탈의실 부족으로 길거리나 화단에 들어가서 탈의를 하는 등 참가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함</li> <li>○ 적십자사 부스는 앞에 설치된 노래방기에서 술에 취해 가무를 즐기는 분들이 보였음. 기기설치 취지는 좋으나 주취자들이 경찰 유니폼을 입고 가무를 즐겼다는 점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이미지가 축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외에도 각종 공연과 음악이 있는 곳에서 주취자가 여럿 존재함</li> </ul>

## 16

## 완주와일드푸드축제

## (1) 개요

- 기 간 : 2019. 9. 27(금) ~ 9. 29(일) / 3일간
- 장 소 : 고산자원휴양림 일원
- 주 최 : 완주군
- 주 관 : 와일드푸드 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와일드 음식체험 : 감자삼gut, 대나무 통구이, 참나무 황토 돼지구이와 연잎밥 등
  - 와일드체험 : 맨손물고기잡기, 족대체험, 화덕체험, 메뚜기체험, 와일드 코스튬 와푸족 의상체험
  - 기타 체험 : 와일드푸드파이터, 리틀 와푸족, 도전! 와일드맨을 찾아라, 올해의 와일드푸드 선정, 와일드 쿠킹쇼, 거리퍼레이드'전통연희, 와푸 in 퍼레이드' 등

## (2) 평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콘텐츠가 돋보였으며 방문객들의 체험, 과거로의 회귀, 추억을 반영한 놀이문화 등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li> <li>○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특산품을 식재료로 이용하여 다양한 식당(푸드코트)을 운영하는 점이 매우 우수한 점으로 평가됨</li> <li>○ 식당(푸드코트)의 운영은 완주군내에 있는 읍면동 부녀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점이 매우 우수한 점으로 평가됨</li> <li>○ 음식의 서빙 및 위생, 친절도, 정리 정돈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음</li> <li>○ 축제가 기획하고자 하는 주제의 명확성이 뚜렷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음</li> <li>○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와일드 푸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축제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먹거리 문화의 활성화를 이끄는 데 기여함</li> <li>○ 와일드 푸드 축제의 컨셉에 맞게 완주에서도 외지에 위치한 고산휴양림을 축제 장소로 선정하여 축제의 컨셉과 분위기를 잘 살린 측면이 있음</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장에 완주의 로컬푸드를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하여 외지 방문객들에게 완주 로컬푸드를 접하고 구매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li> <li>○ 향토음식과 지역특산품, 음악공연 등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음</li> <li>○ 지역관람객이 충분히 모였음</li> <li>○ 농산물 판매장도 거의 지역민들이 주관하여 부스를 운영하였음</li> <li>○ 지역민들을 주축으로 한 다양한 동호회 발표가 있었음</li> <li>○ 연예인을 적절히 초청하여 행사운영에 활기를 띠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축제의 주제인 와일드 푸드의 정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보임. 와일드 푸드가 자연친화적인 푸드 인지 아니면 로컬푸드 인지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곧 본 축제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임</li> <li>○ 와일드 푸드는 혐오성을 조장하거나 독특한 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최소한의 조리과정을 마친 후 접하게 되는 음식인 만큼 그런 점들을 강조하여 앞으로 축제 음식이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li> <li>○ 주로 농산물 전시와 토속음식 판매장을 운영하였으나 전문 요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코너는 볼 수가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 양식, 전주완주 음식, 와일드 푸드 등 종합요리코너</li> </ul> </li> <li>○ 전주지역 비빔밥, 한정식 등 지역의 유명음식을 전시 내지 판매하는 코너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리사 경연대회 등의 행사 개최 검토 요망</li> </ul> </li> <li>○ 이름은 와일드 푸드인데 일반적인 음식이 많았음</li> </ul>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현장 곳곳에 적절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음</li> <li>○ 응급상황에 대비한 병원의 앰블런스 및 경찰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의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음</li> <li>○ 축제행사장을 오픈된 공간 한 곳으로 설정하여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하였으며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자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축제교통 및 동선을 볼 수 있었음</li> <li>○ 충분한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120여명의 지역대학의 자원봉사자, 안내부스 및 서비스 인력이 충분하게 운영되고 있었음</li> <li>○ 축제장의 크기가 넓은 만큼 많은 안전요원이 필요했으며,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었음</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이 워낙 외지인 이유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셔틀버스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너무 좁은 관계로 매년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켰다는 점을 보완하여 올해부터는 교통체증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함</li> <li>○ 곳곳에 자원봉사자나 행사 진행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친절한 안내를 해주고 있었음</li> <li>○ 119, 경찰, 의무 등 안전요원이 잘 배치되어 있었음</li> <li>○ 선거홍보, 전화사기 주의 홍보도 하여 행사의 의미가 더 가미되었음</li> <li>○ 숲속에서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청정지역에서 즐길 수 있었음</li> <li>○ 행사장 입구에 해병대 예비역 등이 배치되어 주차장 등으로 안내가 잘 되었음</li> <li>○ 시내와 떨어진 장소였으나 셔틀버스가 잘 운영되어 교통에 불편이 없었고 전주 등 인근지역민들을 잘 운송하였음</li> <li>○ 시내 여러곳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행사 사전홍보가 잘 되었음</li> <li>○ 행사본부에서 조직력이 우수하여 행사가 순조롭게 운영됨</li> <li>○ 중국,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 외국 음식부스도 운영하여 이색적인 면을 구경할 수 있었음</li> <li>○ 어린이들을 위한 공작교실 등도 운영하여 아동들의 취미활동을 더욱 권장하였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자, 운영위원, 지역주민의 협력, 교통 혼잡의 예방 등은 매우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다소 경직되어 있는 모습과 형식적인 서비스 등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음</li> <li>○ 관광객의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교통 혼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li> <li>○ 행사장이 넓은 관계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li>○ 행사장이 외지인 이유로 술을 마시는 차량 이용 방문객의 경우,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li>○ 식당이외의 곳에서는 물 마실 곳이 마땅하지 않았음: 구입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지자체는 생수 무료공급하는데 검토요망</li> </ul> </li> <li>○ 보고 구경하는 것에서 지역민이 참가하고 즐기는 쪽으로 축제를 조금 더 활성화하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줄다리기, 씨름, 동네별 옷놀이 경기 등</li> </ul> </li> </ul>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은 푸드코트의 운영을 읍면 부녀회에서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음</li> <li>○ 지역의 향우회, 지역의 특산품을 반영하여 판매를 하고 매출을 기획하는 점은 향후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li>○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가 민관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축제운영을 기획하고 있으며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li> <li>○ 재정자립을 위한 소수의 자체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li> <li>○ 지역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음식부스 및 퍼레이드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주민 참여도가 높은 편임</li> <li>○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li> <li>○ 지역업체들이 특산품과 음식판매 등으로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li>○ 상품가격도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구입하였음</li> <li>○ 좀 더 비싸고 고급음식을 현장에서 싱싱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부스도 운영하면 좋겠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축제의 발전을 감안한다면 지자체에서 지출되는 예산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li> <li>○ 예를 들어, 지역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운영위탁매장을 통한 수익발생노력과 농산물판매를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방문객을 위한 인터넷주문과 같은 농산물판매 노력, 농산물 홍보를 통한 수익사업 등과 같은 판매촉진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li> <li>○ 축제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인지 혹은 원주군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지역의 지명도 및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기 위한 것인지 또는 양자를 모두 이루고자 한다면 보다 로컬푸드의 선전 및 홍보전략에 보다 적극적이고 개성이 강한 전략 및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li>○ 축제 총 예산 약 8억원 중 대부분 시설물 설치에 많은 비중이 소요된다고 함.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됨</li> <li>○ 음식축제인 만큼 축제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한 테마이므로 원주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용하여 축제음식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원주 로컬푸드 산업과 축제를 연결시켜 로컬푸드 산업의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li> <li>○ 비빔밥, 붙임개, 묵, 막걸리 등 평범한 음식은 많았으나 우수한 음식을 구경하기가 어려웠음 - 와인, 전통소주 등 육성필요</li> <li>○ 개구리 다리, 물고기 잡기, 매뚜기 같은 것은 동물보호 차원에서 차년도부터 행사지양 요망(심사자 개인의견)</li> <li>○ 지역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음식 부스의 음식은 음식 메뉴를 살펴봤을 때 로컬 푸드의 성격보다는 평범한 음식 수준이었으며, 가격도 비싼 편임. 따라서 본 축제는 주민화합형 축제가 아닌만큼 지역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음식부스보다는 음식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 위주의 부스를 좀 더 마련하여 음식부스 차별화 및 고급화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li> </ul>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관람객의 집계 장소는 4개소로 셔틀버스에서 하차하는 곳, 축제의 본무대가 있는 고산 자연휴양림 쪽 입구 주차장, 마을주차장에서부터 축제장진입로, 그리고 자연휴양림 안쪽 주차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li> <li>○ 집계요원이 총 4개 장소에서 2명씩 조를 이루어 집계하고 있었음</li> <li>○ 집계요원 사전교육 이수와 집계시간 9시간 이상은 준수함</li> <li>○ 집계요원은 2인1조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며 집계활동은 각 2시간 단위로 교대하여 집중력 저하를 예방하는 시도를 하였음</li> <li>○ 집계방법을 기계로 자동계산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을 병행하면 좋겠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축제 프로그램이 매우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었으며</li> <li>○ 다양한 연령층을 배려한 기획이 돋보였음</li> <li>○ 행사장이 넓은 관계로 정확한 집계객이 어려울 듯 보이나 주변에 축제장만 있는 이중 집계객을 하지 않는 한 어느정도의 집계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li> <li>○ 방문객 수 계측장소는 셔틀버스 하차장과 고산자연휴양림쪽 입구 주차장, 동봉마을주차장 입구, 고산자연휴양림 안쪽 주차장이나 축제장 위치 특성상 이중 집계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계측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li> <li>○ 집계방법을 기계로 자동계산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을 병행하면 좋겠음</li> </ul>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예인 동원이 있었으나 과도한 예산사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li> <li>○ 축제의 부실 진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li> <li>○ 축제와 무관한 진행 및 정치인이나 관료의 식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li> <li>○ 본 축제의 주무대 공연에 진주, 김장훈, 조성모 등 90년대 출신 가수들이 출연하였으며 여기에 지출한 비용은 약 5천만원으로 총예산 8억원에 비해 과한 비용은 아니었으며, 방문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li> <li>○ 음식축제인만큼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부스가 많아서 방문객들의 흥미를 끌었으며, 특히 대표 프로그램적인 감자삼국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추억의 음식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물론 아이들에게 옛날 음식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도 일으키고 있어 계속 전승해야 할 프로그램으로 사료됨</li> <li>○ 연예인 등을 적절하게 초청하여 행사의 촉매역할을 하였음</li> <li>○ 동호인 모임도 많아 지역민들이 발표하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구경꾼들의 흥미도 유발하여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음</li> <li>○ 전반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매우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축제라고 평가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 프로그램중의 하나인 메뚜기 체험은 인근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축제 시기도 겹치고 프로그램도 유사성이 있어서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화 측면에서는 아쉬운 측면임</li> <li>○ 로컬푸드를 좀 더 부각시켜 로컬푸드 산업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 중의 하나인 완주를 제대로 홍보하고 로컬푸드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장으로 축제를 적극 활용해야 함</li> <li>○ 인근 지역에서 개최되는 김제 지평선 축제의 경우, 본 축제보다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앞선 축제로 사료되는데, 전북 전체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각각의 축제 개최 시기를 분산하여 김제지평선 축제와 겹치지 않는 시기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본 축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li> <li>○ 지역민들이 노래경연 등에 더 많이 참가하면 좋겠음</li> <li>○ 씨름대회도 개최하면 흥미있을 것으로 사료됨</li> </ul>

17

영암왕인문화축제

(1) 개요

- 기 간 : 2019. 4. 4(목) ~ 4. 7(일) / 4일간
- 장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 주 최 : 영암군
- 주 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행사 :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 주제행사 : 왕인박사 춘향제,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제 29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현장백일장, 제5회 천자문·경전 성독대회, 개·폐막행사 주제퍼포먼스
  - 문화공연행사 : 왕인어린이 재롱잔치, 갈곡들소리, 낭주골어울마당, 삼호강강술래, 개막 식전공연「퓨전 팝페라,」도포제줄다리기, 개막축하방송 등
  - 놀이체험행사 : ① 백제마을 왕인촌(5종), ② 벚꽃마을 노리촌(5종) ③ 힐링영암 노리촌(17종)
  - 연계행사 : 구림벚꽃길 걷기대회, 영암도기박물관 기획전시 및 체험전, 氣찬영암 관광투어, 하정웅미술관 기획전, 구림마을 한옥스테이, 도갑사 템플스테이 등
  - 부대행사 : 벚꽃로드 낭만열차투어, 왕인 SNS 이벤트, 찾아가는 노래방, 왕인&벚꽃 포토존, 교보문고 Book 페스티벌, 왕인판타지 거리극장 등

(2) 평가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인박사 퍼레이드에 지역의 읍면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li> <li>○ ‘왕인박사일본가오’는 퍼레이드가 선행되고 뒤 이어 뮤지컬이 진행되어 왕인박사의 일본행이 가지는 의미를 잘 설명하고 극으로 흥미롭게 표현하였음. 우천 관계로 대표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개최되었지만, 관람객들의 참여비중과 관심도가 높았음</li> <li>○ ‘왕인박사 일본가오’라는 대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주제성을 명확히 하고 관광객, 지역주민, 축제 기획 측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규모 퍼레이드를 만들고 관심을 유도함</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대표성만을 강조한 것을 넘어 뮤지컬과 같은 현대성을 가미하여 자칫 올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젊은 층도 유입시킬 수 있는 매력을 갖추</li> <li>○ 마지막 날에만 진행되는 대표 프로그램을 홍보 겸 맛보기를 위해 미니 퍼레이드는 축제 기간에 넣어 대표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행사로 제시된 왕인박사 일본가요 퍼레이드는 행사의 대표성 대비 축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음</li> <li>○ 퍼레이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야 하였던 것으로 판단. 퍼레이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뮤지컬인 것으로 판단됨</li> <li>○ 그러나 뮤지컬에 대한 사전 소개가 행사브로셔나 주요프로그램에 분명히 표현되지 않아서 관람객이 찾아가서 보는 프로그램으로서의 대표성의 효과는 발휘되지 못하였음.</li> <li>○ 비록 우천으로 시간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프로그램에 분명히 표현해 놓지 않은 것은 문제임. 특히나 뮤지컬에 참여한 출연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어서, 과연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수 없었음</li> <li>○ 이들 뮤지컬 참여 인력이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가질만함. 대신 매일 저녁프로그램에 초청했던 대중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감이었음</li> </ul>

##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요원이나 진행요원들이 곳곳에 배치하여 축제 관람을 효과적으로 지원함</li> <li>○ 임시주차장 배치와 차량 동원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노력한 흔적은 충분히 관찰 가능했음</li> <li>○ 지역 경찰, 소방서의 부스를 축제장 내에 마련하여 축제기간 동안 안전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었고, 각 기관에서도 홍보활동을 전개함</li> <li>○ 지난해에 비해 안내부스를 늘려 방문객 안내를 보다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임</li> <li>○ 주차 안내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동원되었고 자원봉사자만으로는 부족한 면을 예산을 활용하여 보완하였음</li> <li>○ 목포부터 축제장까지 이어지는 백리벚꽃길이 개화시기와 어울려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고, 축제장인 왕인유적지도 벚꽃과 잘 어울려져 이미 지역민들에게 벚꽃놀이 명소가 알려져 있는 곳이라 축제시기와 장소 선정은 탁월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이나 축제장 내부에 진행요원들이 배치되어 안내나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몇몇의 경우는 사람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전시관 내부에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쉬고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던 바, 이와 관련하여 사전 교육이 분명히 되었는지 의문임</li> <li>○ 주차준비는 많이 하였으나 애당초 관람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행사에 참여하는 상인들이나 관계자들이 오전에 거의 다 차지하여, 관람객들이 편하게 주차하기는 어려웠음. 일요일 오전 10시에 도착했어도 축제장 입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오후에는 100미터는 진입하는데 한시간이 소요되는 극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음. 주차문제에 관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li>○ 안내부스에 상주하는 인원이 안내를 받는 방문객이 없을 때는 휴대폰을 보는 등 축제 안내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어. 안내를 담당하는 인원에게 여유가 있을 때 축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해보임</li> <li>○ 평일 이른 시간에도 주차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발생함. 주차 시설의 부족은 아닌 듯 보이나 차를 가지고 오는 방문객에게 불편이 발생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임. 차량방문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주차문제 해결이 필요해보임</li> </ul>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인박사 일본가고 퍼레이드, 읍면동 주민 식당운영,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기업, 문화예술활동 단체 등이 판매, 체험 등으로 참여하여 축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 정도를 이해할 수 있었음</li> <li>○ 지난해에 지역 특산물 시식만 하던 것을 올해는 판매까지 병행하여 참가 지역주민들의 특산물 판매와 홍보에 도움이 됨</li> <li>○ 각 읍면의 식당에서 참가한 먹거리 통합부스를 만들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각 마을마다 대표 특산물인 낙지를 비롯하여 젓갈, 각종 해산물 등 지역 먹거리를 판매하여 지역으로 경제효과가 돌아가게 함</li> <li>○ 수저받침대를 준비하는 등 위생에 신경을 쓴 면이 돋보임. 교보문고가 1,000권의 책을 기증하는 등 민간 기업에서 스폰서를 받는 노력이 향후에도 축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하나, 잡상인들의 규모 수준은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장소를 차지하였음. 잡상인들의 잡다한 음식판매 대신 축제장에 설치한 주민식당, 전통식당 등으로 대체했으면 더 깔끔한 축제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잡상인들의 자리는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겼을 것으로 보임</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상인 구역을 지나면 어린이 대상 소규모 놀이공원은 왕인박사 기념관의 이미지를 상당한 정도 깎아내고도 남은 소음을 발생. 축제브랜드나 이미지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굳이 배치하고자 했다면 축제장 입구쪽은 피했어야 마땅함</li> <li>○ 축제장 안팎을 구분하여 안쪽에는 지역민, 바깥쪽에는 외부인이 부스를 운영하게 만든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함. 궁극적으로는 왕인문화축제만의 브랜드 구축을 위해 지역민이 운영하는 지역만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외부인 부스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li> <li>○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각 테이블에 두루마리 휴지가 비치된 점은 조금 아쉬움. 내년에는 냅킨으로 대체가 되었으면 함</li> </ul>

##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객 집계는 지침대로 3군데에서 집계되었으나, 실제로 방문객 수가 수용가능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한 정도 참여하여, 집계의 의미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판단</li> <li>○ 주체측에서 말하는 하루 최소 8만명 방문은 중복집계로 판단됨</li> <li>○ 방문객 집계 계획대로 3개소에서 집계가 이루어짐</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방문인원이 집계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인력을 통한 집계보다는 빅데이터 또는 기계를 통한 집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방문객 집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li> </ul>

##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요일 오전 10시 이전부터 상당한 관람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할 정도로 축제가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은 알 수 있었음</li> <li>○ 관람객 대상 즉석 퀴즈게임, 왕인스탬프 갤러리, 어린이 왕인스쿨, 아동도서 구매쿠폰, 트릭아트 체험, 행사장 내 방송부스 운영, 민속놀이체험 등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음</li> <li>○ 용산역, 목포에서 영암으로 가는 길, 명동 및 충장에서 퍼레이드 등 축제장 방문 동선과 다른 축제와의 연계성을 통해 축제 홍보를 한 것은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보임</li> <li>○ 축제장 주변에 구림마을, 하정웅 미술관, 기찬랜드 등 축제와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음</li> <li>○ 사생대회나 백일장 등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신청받아 실행하는 것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이 축제에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음</li> <li>○ 각국의 대사와 지자체 유명인사를 초청한 수원이 돋보임</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예산 중에 연예인 공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연예인 공연, 엄청난 규모의 잡상인 구역, 어린이 놀이동산 구역 등이 설치되어 실제 왕인박사 관련 콘텐츠에까지 관람객이 당동하는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예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li> <li>○ 이러한 프로그램이 축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대규모인 경우에 국고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이 됨. 메인 무대 아나운서도 정작 왕인박사 뮤지컬이나 퍼레이드보다는 연예인 공연에 대한 안내방송을 더 많이 하면서 축제의 중요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지 못함</li> <li>○ 전반적으로 벚꽃축제에 방문하여 잠시 왕인박사콘텐츠를 본 뒤 정체불명의 음식의 사먹고 가수 공연을 보고가는 축제로 진행되어서 축제의 특수성 차별성을 찾아내기는 어려웠음.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계속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고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li> <li>○ 개막식 시작 후 내빈소개에 1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다소 과도해보임. 향후에는 방문객의 입장에서 개막식 진행이 이루어지는 노력이 필요함</li> <li>○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는데 대중의 관심이 하락하고 있는 플랫폼보다는 관심이 점차 집중되고 최고조에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플랫폼 변경이 필요함. 기존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입된 인원과 신규 팔로워 모집을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이벤트를 진행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유입부터 시작해야 함</li> <li>○ 축제 이외에 축제장 주변 및 영암 내에 좋은 콘텐츠를 가진 관광지 연계 상품을 방문객에게 소개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li> <li>○ 개막식 시작 후 내빈소개에 1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다소 과도해보임. 향후에는 방문객의 입장에서 개막식 진행이 이루어지는 노력이 필요함</li> <li>○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는데 대중의 관심이 하락하고 있는 플랫폼보다는 관심이 점차 집중되고 최고조에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플랫폼 변경이 필요함. 기존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입된 인원과 신규 팔로워 모집을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이벤트를 진행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유입부터 시작해야 함</li> <li>○ 축제 이외에 축제장 주변 및 영암 내에 좋은 콘텐츠를 가진 관광지 연계 상품을 방문객에게 소개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li> </ul>

## 18

## 고령대가야체험축제

## (1) 개요

- 기 간 : 2019. 4. 1(월) ~ 4. 14(일) / 4일간
- 장 소 : 대가야읍(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대가야생활촌 등) 일원
- 주 최 : 고령군
- 주 관 : (사)고령군관광협의회
- 주요행사
  -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 공연 프로그램 : 마당극 및 스트리트 뮤지컬 공연, 소규모 문화공연, 뮤지컬 '가얏고' 공연 등
  - 체험 프로그램 : 딸기수확체험, 대가야 고상가옥 생활체험 등
  - 기타 프로그램 : 대가야 문화예술작품 전시회,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등

## (2) 평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대가야 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 아이템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가야문화체험에 중점을 둔 축제로 평가됨</li> <li>○ 가야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매우 다양한 체험 거리가 분명하게 존재하며, 이미 갖춰진 가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 장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가야문화라는 공통점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li> <li>○ 고령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은 고분이며 가야금의 원조인 가얏고 스토리를 배경으로 뮤지컬이 매년 개최되고 있음</li> <li>○ 뮤지컬 가얏고는 해당 축제의 주제성을 잘 살린 공연이었으며, 입장료 5천원의 가격을 더 높여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았음</li> <li>○ 고분군 야간 트래킹은 해당 축제장이 가진 공간적인 특성을 잘 활용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에 스토리를 가미한다면 프로그램에 재미와 감동까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li>○ 대가야의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간 연계성 우수함</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단체에서 체험프로그램 부스가 제공되어 있으나, 가야문화와 맥락이 잘 맞지 않아 강조하는 면이 약했던 것으로 판단됨. 거대한 테마파크를 다양한 아이টে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상업적 관광효과를 노리고 있으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깊이가 더해질 필요가 있음</li> <li>○ 대형의 가야문화체험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하드웨어에 비해 축제라는 소프트웨어는 전반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평가됨. 미래존의 경우 로봇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나, 외부단체와 외부 상인이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가야 문화의 역사성과 맥락이 어색하게 만들어져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li> </ul>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요원 배치는 외지인이 구분할 수 있도록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음</li> <li>○ 행사장까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움직이는 테파마크 용 차량이 있어 별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장소 선정의 적합성은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축제는 대형 테마파크에서 진행되었고, 동선구성과 편의시설 역시 그 시설과 연계되어 고정적으로 구축된 것임. 안내요원, 자원봉사자, 부수인력 등 인적자원은 모두 배치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그 운영은 관광관련 민간 협회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음</li> <li>○ 자원봉사자, 안내인력 배치는 부족함이 없고, 친절하였음</li> <li>○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영하였고, 주차 공간도 넓어 축제장에서 흔히 겪는 주차 문제는 없었음</li> <li>○ 대가야생활촌,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전체를 축제장으로 활용하여 축제 공간이 매우 넓어, 다니기에 복잡함은 없었고, 부스 배치 등 공간 활용 등은 우수하였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가야 고분도 이 축제에 포함된 자원으로 특징적이었으나, 환경적으로 추락 위험이 있지만, 그에 대한 안전대책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음</li> <li>○ 주변에 대구 등 큰 도시로부터 방문객들이 많았고, 특히 외국인이 다소 눈에 많이 관찰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특별한 인적 물적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가령, 전시물의 경우 영어 등 외국어 안내가 별로 없었고, 이들에 대한 안내 요원도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았음</li> <li>○ 다수의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축제장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의 운행시간은 7시에 마감되어, 야간프로그램을 이용 후에는 주차장까지 걸어서 이동해야하는 등 관광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다소 부족함</li> <li>○ 축제 공간이 매우 넓은데 반해 식당 등은 축제장 입구 쪽에 집중되어 있고, 축제장 중간에는 간식거리 위주로만 구입할 수 있어, 다소 불편하였음</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자립 활동에는 특산물 판촉과 말 유료 체험 등이 있으나, 타 지역 축제처럼 고령 특산물 농산물 업자들이 부수를 개설한 것이 많았음. 로봇 유료 체험이나 기타 유료 체험이 있으나, 그것들이 얼마나 군 재정이 도움이 될지는 불명한 것으로 보임</li> <li>○ 원칙적으로 이 축제는 테마파크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타 지역에 비해 하드웨어가 잘 구축되어 상대적으로 축제 추진 주체는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음</li> <li>○ 축제의 주제성을 반영한, 미니 가야금, 대가야 활, 대가야 칼 만들기 체험 등 유료 프로그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으며, 축제의 수익성 제고 및 축제 기념품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li> <li>○ 축제 전담기구로 (사)고령군관광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축제 운영</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드웨어 체험장의 경우 리모델링이 비교적 잘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테마파크의 단점이라고 보임</li> <li>○ 뮤지컬이나 무대 행사 등에 지역주민의 관람은 많으나, 그 행사 자체는 모두 전문인이 진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음</li> <li>○ 지역의 특산물은 딸기와 멜론으로 행사장 밖에 더 많은 지역민들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특산물의 다양한 생산자들에 비해 행사장 내 참여자는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음</li> <li>○ 고령군의 유명 농산물을 판매하고는 있으나, 해당 농산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먹거리 개발은 다소 부족함</li> </ul>

##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 없음
부족한 점	○ 없음

##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 없음
부족한 점	○ 없음

19

영덕대게축제

(1) 개요

- 기 간 : 2019. 3. 21(목) ~ 3. 24(일) / 4일간
- 장 소 : 강구항 해파랑공원 일원
- 주 최 :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
- 주 관 :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상설프로그램 : 영덕대게문화전시 & 대게특산물 플래마켓, 컨셉역할극 ‘왕의 대게 납시오’, 용궁가는 길 & 영덕대게 포토존, 영덕대게 읍·면 푸드코트, 영덕대게 푸드코트 (Take out), 게릴라 버스킹 공연, 대게감짜이동경매 등
  - 부대행사 : 바다 속 왕의 대게 찾아라!, 전국 디카 폰카 사진촬영대회,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 방송영덕대게축제 발전 포럼, 제7회 경북 동해안 수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해경 연안구조정/형사기동정 승선체험 등

(2) 평가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덕군은 대게의 주산지로 대게제품의 가공, 유통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대게 종주지라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형 축제의 개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li> <li>○ 특히 천년동안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 사랑 받아 온 대게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왕의 대게 진상식’을 진행한 것은 영덕대게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영덕대게 축제의 우수한 홍보 프로그램으로 평가됨</li> <li>○ ‘왕의 대게, 빛이되다’ 주제공연과 ‘영덕대게 아리랑’ 축하공연으로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한 부분과 축제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임무,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 계획, 분야별 추진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프로그램 구성은 대계낚시 프로그램을 어린이와 성인으로 구분하여 진행, 대계와 흥계 맛을 구별하는 '나들이 영덕대계 맛을 알아?', 박달대계경매, 대계신고달리기, 인간장기대회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더불어 주제공연과 축하공연 등 문화예술공연을 기획하여 대계라는 한정적인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시킨 기획력이 우수하다 사료됨</li> <li>○ 지역의 특산물인 영덕대계를 매개로한 축제 컨셉트가 분명하여 관심도도 높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음</li> <li>○ 축제의 기획의도에 따른 주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li> <li>○ '영덕판타지-왕의 대계 빛이 되다'는 크레인을 활용한 플라잉 퍼포먼스로 매우 환타스틱함. 하늘 땅 바다를 잇는 공간을 활용한 것을 매우 바람직함 시도임</li> <li>○ 스토리텔링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축제를 상징하는 문화 퍼포먼스로 확장하여 대계와 더불어 축제의 명품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li> <li>○ 전체적으로 대 주제를 전제로한 각종 공연과 체험과 이벤트 등이 통일성을 지향하고 있음</li> <li>○ 영덕의 대표특산물인 대계를 활용한 축제 구성</li> <li>○ 기획과 주제의 선정범위가 명확</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덕대계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 컨셉과 운영 등 영덕대계축제만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축제추진위원회는 보다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됨</li> <li>○ 영덕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류형 축제로의 기획방안으로 축제장과 영덕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li> <li>○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보강과 더불어 지역의 전통문화를 담아 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li> <li>○ '영덕대계'를 매개로 한 축제의 성격으로 볼 때 주최측도 자체적으로 분석, 진단하였듯이 영덕대계의 자원부족 문제 등을 해소할 방안 모색할 필요 있음</li> <li>○ 이를 위해선 영덕군수가 인사말을 통해 스스로 제시했듯이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해, 음식-문화축제로의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li> <li>○ 영덕 대계를 매개로한 음식축제와 더불어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공연물(퍼포먼스)등 콘텐츠 개발로 문화축제로서 위상 제고할 필요가 있음</li> <li>○ 주제의 선정(대계)은 좋으나 구체적인 기획이 다른 축제에서 흔히 보이는 기획들에 한정되어 있고 참신한 기획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 대계잡이 등 : 화천산천어축제 등</li> </ul> </li> <li>○ 일부 프로그램은 주제와 무관(ex: 인간장기)</li> </ul>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p>우수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영덕대게축제는 축제를 개최하면서 형성된 지역주민들의 높은 자부심과 축제추진위원회 및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축제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li> <li>○ 축제장소가 바닷가와 인접해 바람이 영향을 많이 받는 장소적 문제점을 극복한 대형 TFS천막 설치로 방문객의 쉼터제공과 동시에 위생적 환경의 먹거리 제공, 운영요원들의 친절도 등이 높게 평가됨</li> <li>○ 주제공연 영덕판타지 ‘왕의 대계, 빛이되다’는 추가적인 무대설치 없이 해파랑 공원의 물리적 공간과 자연공간을 활용한 축제공간 구성으로 영덕의 밤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연 연출이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됨</li> <li>○ 콘셉트 역할극 ‘왕의대계 납시오!’는 조선시대 복장을 한 연기자들이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방문객에게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였고, 정기적인 공연으로 축제장 분위기를 업 시키는 등 방문객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신선하다 사료됨</li> <li>○ 축제의 메인 행사장을 중심으로 경찰, 소방, 의료 등 안전 문제와 관련 준비가 잘 되어 있음</li> <li>○ 주 행사장인 해파랑공원은 일목요연하게 축제를 진행 할 수 있는 집합공간으로 적절한 공간활용(상설대계문화-전시홍보관, 공연 무대 등)으로 관람객과 관광객의 동선에 문제가 없음</li> <li>○ 방문객들의 안내와 편의를 위한 종합상황실 및 안내소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강구역까지 셔틀버스를 운용하여 관람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음</li> <li>○ 화장실 5군데와 모유수유실(기저귀 교환실) 2군데를 설치, 편의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음</li> </ul>
<p>부족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공연 때만 필요한 크레인이 축제기간 내내 메인무대 옆에 고정으로 위치하여 주요 조형물을 가리고, 공사장 같은 분위기를 재현하는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한 디테일한 장소 디자인 연출이 요구됨</li> <li>○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축제장 진입까지 30분 이상이 걸리는 심각한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가 시급한 사항이라 판단됨. 또한 여기저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을 통제, 유도하는 진행요원 배치도 필요함</li> <li>○ 주무대와 대계신고달리기 등이 펼쳐지는 체험무대 공간설정이 지근거리에 있어 음악을 동반한 프로그램 진행시 음악이 서로 겹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해파랑공원 전체 공간활용시, 시간과 공간을 적절히 분배하여 프로그램 간의 변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li> <li>○ 주무대의 경우 무대와 객석이 너무 이격되어 있어 관객 호응도를 높이기 어려움. 물론 ‘영덕판타지-왕의 대계 빛이 되다’ 공연의 높기 때문으로 이해는 되나 가능한 무대와 객석 사이를 좁힐 필요가 있음</li> <li>○ 대계 신고 달리기, 황금대계낚시 등 체험 프로그램은 관심 끌 요소는 갖고 있으나 참여율이 다소 부족했으며 밤대계 낚시 프로그램(추운 날씨 등 외부요인)은 모객과 참여율이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대안찾기가 필요함</li> <li>○ 진입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다소 협소</li> <li>○ 야외프로그램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해당 축제에 하루종일 참가가 어려운 한계를 고려할 때 짧은 체류시간에도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계문화전시관을 만들어 역대 축제포스터 등 다양한 영덕대계축제 이미지 전시 및 대계 관련 상식 및 특산품 전시·판매 등의 공간 활용은 좋았으나, 콘셉트에 부합한 아이디어 활용으로 보다 퀄리티 높은 공간 구성이 요구됨</li> <li>○ 축제장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 대부분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독자적으로 음향을 활용하는 형태의 진행이다 보니 축제장은 음향의 불협화음으로 축제장 방문객들에게는 불만의 요인을 제공함. 따라서 향후 축제장 소음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최대의 대계 주산지로 지역특색을 지역브랜드로 승화시켜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축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축제라 사료됨</li> <li>○ 영덕대계축제는 지역특산품을 소재로 다양한 형태의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에 문화예술공연을 가미해 축제화 함으로써, 타 축제와 구별되는 변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상인들의 소득향상과 연결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축제로 사료됨</li> <li>○ 축제의 주인은 지역주민으로 상인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추진위원, 내빈들이 스스로를 위한 축제를 위해 후원금을 내고 드레스코드로 화합과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축제를 즐기는 '대계인의 밤' 프로그램은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전달하는 모범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사료됨</li> <li>○ 영덕대계라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특산물에 더해 지역문화축제로 승화시켜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 시키려 노력함</li> <li>○ 군과 지역상인간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축제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열망이 높음</li> <li>○ 22회라는 기간 동안 축제를 진행하여 추진축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담당자와 운영자들은 축제의 성격과 방향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안내 역시 친절함</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장을 찾는 대부분의 관람객은 축제장 인근의 식당을 방문하므로 축제기간 축제조직위는 상인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도모하여 서비스 및 할인 등 상인회가 축제와 동참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li> <li>○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축제 자체의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여행업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축제장을 방문 유도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연계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li> <li>○ 축제의 자생력 확보 및 축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관에 재정적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단체나 기업과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축제의 지속적 발전도모가 요구됨</li> <li>○ 대계 문화전시관을 영덕지역 향토음식관 입구에 설치, 관람객을 유도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였으나, 향토음식관 이용객과 동선이 겹쳐 변별력을 각기 어려움</li> </ul>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계부스는 '안내/집계' 간판을 달고 축제장 진입로 3곳에 배치되어 있었음</li> <li>○ 실행계획서에는 22일, 23일 2일간 집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집계부스 안내소에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집계를 한다는 안내가 쓰여 있었음</li> <li>○ 축제가 열리는 주 행사장으로 한정하여 방문객 집계함</li> <li>○ 주 행사장 입구 즉 집계범위에 접하여 부스를 설치, 방문객 집계를 함</li> <li>○ 집계장소가 5개 이하이나 행사규모로 보아 문제점 없음</li> <li>○ 아침 8시부터 저녁 8까지 12시간 2인 1조로 집계함</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스마다 1~3명씩의 관계자는 앉아 있었으나 방문객 만족도 설문지 진행만 하고 있었고, 방문객집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음</li> <li>○ 방문객 집계는 어디서 하는지 물어 보았으나 잘 모르겠다고 하는 대답과 또 다른 부스에서는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음</li> <li>○ 2인 1조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집계를 하고 있다고 함</li> <li>○ 아침 시간대에는 관람객들이 찾기 어려움으로 시간대를 행사가 열리는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대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li> </ul>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예인 동원 등 과도한 예산지출은 없는 것으로 보임</li> <li>○ 22일 밤 열린 영덕 판타지와 대게인의 밤 행사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컨셉트로 의도는 매우 신선했음 (단 이날은 날씨가 추워 참여율이 적고 다소 산만하였는데 날씨 문제에 따른 보완책과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봄)</li> <li>○ 축제의 홍보를 위해 축제 전인 3월9일 서울 광화문에서 왕의 대게 진상식을 열어 영덕대게 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려 홍보이벤트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됨. 대게의 유래와 더불어 축제 홍보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li> <li>○ &lt;제안&gt;영덕대게축제를 영덕과 대게를 매개로한 문화축제 즉 바다퍼포먼스형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면 어떨까함</li> <li>○ 예를 들어 영덕대게의 원조마을인 차유마을에서의 퍼포먼스-영덕대게 배타기(예약관광객)-강구항 입항-영덕판타지 공연-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파티 형식으로 스토리텔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림</li> <li>○ 축제장 인근 주변에서 대게생산자, 판매자와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의 직거래가 가능한 장소적 특성으로 지역상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대게를 지역브랜드로 연계함으로써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됨</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기간은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의 생활을 탈피하여 대동적으로 한마당이라는 유희공간을 구성하여 즐기고, 외지의 관광객들은 그 모습을 구경하며 함께 어울리는 일탈성과 동질성 확보로 축제 본연의 감동을 준 '대게인의 밤'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도가 높아져 주민결속과 대게축제의 자기정체성 확립에 적합한 우수사례로 판단됨</li> <li>○ 바닷가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등 장소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 TFS천막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기획은 우수하나, 대게라는 콘셉트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 디자인 연출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영덕대게축제만의 명확한 지향가치(value)와 중장기적인 육성로드맵을 고민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사료됨</li> <li>○ 영덕대게축제의 심각한 문제점은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정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 사료됨. 곳곳에 원활한 통행을 위한 인원배치는 물론, 대안으로 축제기간 2차선 도로를 원웨이 방식으로 시범적 운영방법을 제안함</li> <li>○ 축제방문객들의 충성도를 담보하고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축제 프로그램의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됨. 대게축제라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대게를 테마로 이루어진다면 지루하고 한정적으로, 대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서를 찾아 남녀노소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li> <li>○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대게축제와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예술가 활용 방안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li> <li>○ 공연 이후 대게인의 밤이 이어지는데 음식 등 시설준비로 인한 시간적인 겹으로 인해 행사가 끊어짐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li> <li>○ 대게인의 밤과 영덕판타지 공연을 별개로 이원화하여 진행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덕판타지공연은 그 자체로 좋은 퍼포먼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게축제의 메인 공연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li> <li>○ 컨셉트로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행사였지만 관광객들의 참여율이 낮고 동화되기가 낯설다고 인터뷰함</li> <li>○ 어린이 대게원정단, 플래시몹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li> <li>○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대게를 먹으러 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 어시장이나 상권과 적극 연계해 축제기간이 아닐 때 방문하는 방문객에 비해 축제기간에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함</li> </ul>

20

포항국제불빛축제

(1) 개요

- 기 간 : 2019. 5. 31(일) ~ 6. 2(화) / 3일간
- 장 소 : 포항 형산강체육공원 일원
- 주 최 : 포항시
- 주 관 : (재)포항문화재단
- 주요행사
  -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 불빛 퍼레이드, 데일리 뮤직 불꽃쇼, 그랜드 피날레(대한민국), 불빛 라디오 라디오는 〈별책 부록〉, 팡팡 버스킹 페스티벌, 고퇴경과 함께하는 랜덤플레이 댄스, 랫츠씽 팡팡 페스티벌, 주제공연 〈불의 노래 철의 도시 이야기〉, 나눔나라 동화나라, 스탬프투어, 불빛 테마존 〈불빛 동물원 III〉, 불빛 마켓존 등

(2) 평가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축제의 전형적인 모습보다 전반적으로 세련된 도시적 콘텐츠를 지닌 축제로 평가됨</li> <li>○ 사전불꽃은 좋은 아이디어임. 기대심리 및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완화할 수 있음</li> <li>○ 포항제철, 철강산업 쇠와 불꽃의 연관성으로 불꽃의 의미가 축제에 잘 들어나며, 불빛으로 폭넓은 축제 명을 통해 잘 구현하고 있음</li> <li>○ 운하를 통한 거리페스티벌, 시민참여가 우수했고, 많은 시민들의 관람이 있었음</li> <li>○ 헝가리 침몰 상황에서 축제의 개막식에 앞서 추모의 메시지는 매우 훌륭했음. 참사나 국가적 불행이 있을 경우 축제가 그 불행에 대하는 자세에 대해 공유됐으면 하는 사례</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꽃축제 그랜드피날레 이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와 즐거움이 연결되지 않고 바로 흩어져 콘텐츠의 흐름의 단절이 아쉬움</li> <li>○ 향 후 불꽃쇼 이후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연계성에 시민들의 즐거움을 어떻게 이어나가게 할지 후속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임</li> </ul>

##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축제임에도 불꽃쇼 이후 이동동선 등을 잘 통제하여 무난하게 해산이 이루어짐</li> <li>○ 메인무대가 그랜드피날레에서 철거되어 관람의 시야가 확보된 계획이 좋았음</li> <li>○ 좌우측의 전광판설치, 메인 무대에서 길게 펼쳐진 몽골텐트, 시야 확보를 위한 낮은 텐트 설치, 119, 안전요원등의 배치, 차량통제가 우수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규모에 비해 안전요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보임. 따라서 의자이동 등으로 인한 통제가 안되어 갈등 발생</li> <li>○ 형산강 건너에서 보이는 전광판은 꼭 필요하지 않은 시정홍보 등을 함으로써 축제 집중도를 떨어뜨림</li> <li>○ 흡연장이 정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데서나 흡연을 하며 택시 정차장소부터 축제장까지 안내표지 부족함. 판매돈 음식을 먹을만한 장소가 다소 부족함</li> <li>○ 간이화장실 중 여자화장실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 화장실쪽의 긴 줄이 축제에 가장 불편해보이는 상황이었음. 여성화장실의 비율을 높이고, 개막식 메인 무대 주변 몽골텐트 뒤편으로 집중배치 하는 편의성이 확보됐으면 함</li> <li>○ 그랜드 피날레 이 후 포스코 제철 강 하구에 여러곳에 화재가 발생 바로 진화가 됐지만, 포스코 사업장에 불이 옮겨붙었다라는 생각에 아찔했음. 불꽃을 더 높이 쏘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소방대책을 사후가 아닌 사후 대책을 새우길 바람. 또한 포스코도 방화대책등 비상상황 필요</li> </ul>

##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스의 안정화와 다양한 먹거리가 다양했음</li> <li>○ 축제 담당자들이 적극적이었고, 축제에 관한 긍지가 높았음</li> <li>○ 안전요원들의 배치가 많았고, 티셔츠와 명찰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음. 불꽃축제가 있을 당시 포항시 공무원들이 발광하는 템버린을 가지고 흔드는 점도 인상깊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메밀꽃 축제에서 메밀꽃 머리핀을 나누어진 사례를 참고 했으면 함. 불꽃을 가져갈 수 있는 상징화된 기념품을 배포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함</li> <li>○ 축제의 장소가 넓고 흡연자들이 많아,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거나 안내했으면 함</li> </ul>

##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 집계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음
부족한 점	○ 없음

##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꽃이 쏟아 올리기 전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보기 좋았음. 시민들이 작은 무대가 아닌, 메인 무대에서 펼쳐진 공연은 매우 감동적이었음</li> <li>○ 시민 문화향유자와 활동가들의 자원을 통해 축제 앞뒤, 그리고 연계된 자매 지역에서의 문화 공연이 어우러졌음</li> <li>○ 축제를 통해 타 문화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꽃행사의 중요한 시점에 내빈소개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이루어져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li> <li>○ 흥을 돋구기 보다는, 체면과 군수홍보같은 인상이 깊었음. 군수가 출연해서 지역의 축제라는 의미를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 갔으면 함. 예를 들어 군수가 지역에서 작은 불꽃을 쏟아올리는 영상을 순차적으로 틀어도 시민들에게 흥미를 충분히 줄 수 있고, 군수의 참여도 확보될 수 있음</li> <li>○ 불빛축제에서 하이라이트는 불꽃의 장관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작은 디테일 작은 즐거움이 부족해 보였음. 거리 퍼레이드가 그것을 채웠으나, 지역먹거리, 지역의 과거나 생활사, 지역민이 축제에 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다양한 움직임등이 수반된다면 더 풍성한 축제가 될 것 같음</li> <li>○ 휠체어 장애인을 배려한 장소가 특정됐으면 함</li> <li>○ 메인무대 진행자와 공연자의 소리가 주 무대를 벗어나면 잘 들리지 않았음. *전광판의 개수를 늘렸으면 함</li> </ul>

## 21

## 밀양아리랑대축제

## (1) 개요

- 기 간 : 2019. 5. 16(목) ~ 5. 19(일) / 4일간
- 장 소 : 경남 밀양시, 영남루 및 밀양강변 일원
- 주 최 : 밀양시
- 주 관 : (재)밀양문화재단
- 주요행사
  -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 대표프로그램 : 아리랑주제관, 밀양강 오딧세이
  - 주제프로그램 : 응답하라 1919, 밀양아리랑경연대회, 밀양아리랑 토크콘서트, 아리랑주제공연, 국민대통합아리랑, 역사맞이 거리퍼레이드, 거리예술공연 등
  - 문화프로그램 : 밀양행운찾기, 밀양역사탐방, 밀양 농업&먹거리 상상관, 밀양 은어잡기·시식체험, 스탬프투어, 해천뮤직페스티벌, 무형문화재공연, 농악경진대회, 미량초우 브랜드홍보관, 불씨 채화·고유제, 아리랑규수선발대회·제향 등

## (2) 평가

## ①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양강오딧세이, 아리랑 주제관 운영, 밀양아리랑 경연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가 밀양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엮여 있어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li> <li>○ 특히, 주제관의 경우 토크콘서트에 이어 밀양아리랑과 전통악기를 배우는 공간이 바로 이어져 있어 그 주제를 잘 살리고 있음</li> <li>○ 밀양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전통과 현재의 농축산업 등을 각각의 주제관을 별도로 설치해 이들을 축제와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li> <li>○ 행사시 불꽃놀이가 자연스럽게 대표프로그램 속에 녹아져 있어 타 축제와도 차별적으로 보임. 축제마다 따라다니는 풍물패 등과 완전한 분리를 통해 대표프로그램이나 주제프로그램들의 운영을 공고히 하고 있음</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양아리랑창작경연대회, 밀양아리랑 토크콘서트, 밀양아리랑 창작가사 공모 전시 등 아리랑 콘텐츠를 확대하고자 노력함</li> <li>- 밀양아리랑의 가사, 음악 등 콘텐츠 요소를 활용하여 시, 랩, 국악, 대중음악, 댄스 등으로 확장하는 다양한 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예술적으로 결합하는 작업(art work)을 통해 민속보존의 개념을 넘어 예술의 영역으로 확대 확장하는 플랫폼으로서 축제가 일정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음</li> <li>- 향후 밀양아리랑의 변주, 변화를 축제 방문객들이 좀 더 쉽게, 자주 접하고 흥얼거릴 수 있도록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응용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li> <li>- 시각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BI를 개발하고 상품판매를 위한 시각적 구성을 위해 VMD를 개발하듯이 밀양아리랑의 청각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SI(sound identity)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li> <li>- 밀양아리랑 체험존을 설치하여 장단과 놀이를 체험할 수 있었음. 다만, 단순한 게임들로 이루어져 있어 차별적인 흥미를 느끼기 어렵고 단조로움. 밀양아리랑의 특성을 독창적으로 드러내는 밀양아리랑 놀이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li> <li>○ 밀양강오딧세이를 대표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콘텐츠화하며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방문객에게 밀양에 대한 이해를 높임</li> <li>- 몇 사람의 역사적 영웅을 부각하는데 그치지 말고 역사를 이끌어온 이름없는 영웅으로 밀양시민을 승화시키는 극적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꼬마선비들의 귀여운 양반춤사위는 관객의 호응도가 높았음. 백중놀이 등 밀양아리랑의 토대가 되는 밀양의 무형문화재를 연계하여 밀양강오딧세이의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꼭지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li>- 밀양강오딧세이에서 창출된 콘텐츠를 축제에서도 계속 활용함으로써 대표프로그램의 축제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일례로 마지막 장면에서 주민배우들이 모두 나와서 함께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 춤을 축제기간 내내 게릴라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선보이고, 관객이 따라하고 함께 추는 등 통합적으로 축제의 밀양아리랑 콘텐츠 구축을 고려하여야 함</li> <li>○ ‘밀양강 오딧세이’ 프로그램은 동 축제의 대명사처럼 대외적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볼거리로 자리매김하였음. 공연 자체의 완성도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겠으나, 주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하여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형식은 타 축제와 확연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li> <li>○ 축제 기획과 주제가 다소 권태로운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리랑’, ‘애국’이라는 일관성과 명확성을 지니고 있음</li> <li>○ 지역 특색 문화자원인 밀양아리랑에 기반하였고, 밀양이 역사적 맥락에서 가지고 있는 의의들을 축제에 접목하려는 의도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음</li> <li>○ 액션뮤지컬 ‘멋진 친구들’은 정성껏 만들고 준비한 걸 느낄 수 있었는데, 17(금) 19:00~20:10에 1회 공연만 한 것이 아쉬움. 이 공연을 1회밖에 하지 못한 사유를(예산 상의 제한때문인지 프로그램 배치의 제한때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으로서 예산비중이 크고 스케일이 큰 만큼 밀양강오뎃세이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이 필요함. 5년차가 되었음에도 밀양강오뎃세이하면 떠오르는 명장면이 없으며,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극적 장면이 부족함. 또한, 밀양아리랑이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쓰이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움. 그리고, 기술력과 연출력에 있어 보강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주제인 아리랑보다 밀양의 역사인물 이야기, 이순신 이야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큰 줄기는 밀양아리랑으로 잡고 밀양의 역사와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서 내용을 이루는 구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다량의 무빙라이트가 영남루와 강변, 산기슭 등 곳곳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이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의외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시야의 확장으로 인한 산만함이 발생함. 절제와 여백을 통해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출 변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무빙라이트, 워터스크린 위주로 기술적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올해는 수상 무대시설(부교 등)을 설치하였으나, 활용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음. 거북선 비행은 관객의 호응이 좋았고 피날레와 잘 어울렸음. 향후 LED, 기계장치, 4차산업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며, 국내외의 현대적인 연출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인상시리즈, 송성천고정 시리즈 등)</li> <li>-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 과정과 출연 장면에 대한 이미지 작업도 필요함. 이러한 작업들이 과거지향적인 역사인물에서 벗어나 현실의 밀양 시민이 축제의 상징으로 현재화되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li> <li>- 밀양강오뎃세이 시민배우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공연에 따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시민배우들이 밀양아리랑에 대해 학습하고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li> </ul> </li> <li>○ 주제공연이 소극장용 연극 포맷으로 구성되어 야외축제에 어울리지 않음. 대사보다 몸짓, 무대보다 마당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야외에 적합한 내용과 포맷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li> <li>○ 축제정신으로 내세우는 사명대사, 김중직, 아랑은 엄밀히 보았을 때 아리랑축제와는 관련성이 미미함. 밀양아리랑 테마로 축제성을 표출하기에 도움이 되거나 어울리는 요소는 아님. 실제로도 축제전반에 관통한다기보다는 밀양강오뎃세이, 퍼레이드에 일부 들어가는 정도임. 축제정신으로 까지 설정하여 밀양의 지역인물에 과도하게 집중하기 보다는 밀양아리랑으로부터 어떻게 축제성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 축제기획의 초점을 맞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함. 밀양아리랑을 대주제로 삼아 프로그램, 운영 등 축제 전체의 핵심으로 삼고, 인물, 문화, 예술, 자원 등 다양한 밀양 성(密陽性)을 소주제들로 삼아 재구조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② 축제의 운영

점검의견	평가내용
<p>우수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축제 구성과 운영이 정돈이 잘 되고 체계화되었으며 문화관광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음</li> <li>○ 해천항일운동테마거리, 밀양아리랑 체험존, 은어잡기, 수상체험, 아리랑불빛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해 새로 편성되어 축제의 즐길거리가 풍부해졌음</li> <li>○ 축제를 방문하고 지역에서 1박2일 체류하는 15대의 관광버스를 유치함. 향후 문화관광축제로서 관광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li>○ 풀대, 천막벽면 등을 이용한 전시 프로그램들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디자인이 잘 되어있어 시각적으로 미감을 느끼게 하고 있음(다만, 주차차량들로 인해 효과가 반감됨) 향후에도 이러한 디자인적, 예술적 작업들을 지속하여 축제의 수준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음</li> <li>○ 행사 곳곳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인기가 많은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 때 특히나 많은 요원들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li> <li>○ 평가자를 처음 맞이한 사람은 밀양역 앞에서 부채와 프로그램 리플릿을 나눠준 요원들인데, 그 분들의 유쾌한 인사 덕에 이 축제에 대한 ‘첫인상’이 한층 더 좋아졌음. 축제 어디서든 물으면 본인 소관이 아니어도 타직원에게 물어가며 답하던 요원,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음</li> <li>○ 시외버스와 KTX 등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인근 주차장을 안내하는 등 교통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li> <li>○ 밀양강 둔치는 영남루 등이 위치한 밀양의 중심지역이며, 기차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중간 정도로 많은 주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는 등 개최장소가 좋고 주민들의 주거지와 멀지않게 분리되어 좋은 개최지로 볼 수 있음</li> <li>○ 응답하라 1919는 나름 시설배치와 역사성 그리고 적절한 동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됨</li> <li>○ 비가 오자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우비를 준비해 제공하는 등 기상악화에 따른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li> <li>○ 많은 안내요원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행사임에도 오랜기간 동안의 전통과 준비기간 등으로 체계적으로 행사가 치뤄지고 있음</li> <li>○ 행사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안내가 인상적이었으며, 거리 곳곳에 있는 홍보탑도 축제 분위기를 돋우고 있음</li> </ul>
<p>부족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셔틀버스 승차장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탑승시간이 어디에도 게시되지 않아 실제 이용객은 낮을 것으로 보임</li> <li>○ 밀양강오딧세이 공연시 제방위에서도 많이 보는데 공연시 어둡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 제방위에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었으면 함</li> <li>○ 아리랑 불빛존은 빛이 너무 강해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 한쪽면만 하거나 불빛을 약간 줄이는 등 산책에 적절한 밝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li> <li>○ 푸드트럭이 제방위에 있어 주문자와 행인이 얽혀 복잡하고 위험해 보임(장소 재배치 또는 안전요원 등 필요)</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p>○ (관객 시야 확보) ‘밀양강 오딧세이’는 관람객이 많이 몰려서 좌석이 늘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무대 앞에 있던 의자들을 공연 후 좌측으로 방향을 돌려서 관객들이 앉을 수 있게 조치해주면 좋겠음. 실제로 일부 관객들은 스스로 의자들을 돌려서 앉아 보기도 했음</p> <p>-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 시에는 바닥에 앉아서 보는 관객들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진행요원들이 관객석 앞을 지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앉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음(빨강색 부분). 공연 시에는 통제선 범위를 좀더 넓게 잡아서(잔디밭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그림 파랑색 부분)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잔디밭과 관객석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실 것을 제안함</p> <div data-bbox="576 880 1251 1173" style="text-align: center;"> </div> <p>부족한 점</p> <p>○ (영남루 숲에 비추는 영상 제안)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 동안에 축제장 맞은편인 영남루 옆쪽 숲에도 영상을 투영하는데, 태극기가 펄럭이는 영상이 매우 자주 나타나서 단조로운 느낌이 들었음. 나레이션이나 잔디밭 실제 공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인지 모르겠으나, 펄럭이는 태극기 외에도 몇 가지 영상을 다양하게 선보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림</p> <p>○ (축제 마친 후 이동하는 길) ‘밀양강 오딧세이’를 마치면 관객들이 일제히 축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푸드트럭이 있는 위쪽 길에서는 오키기는 관객들과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까지 뒤엉켜서 매우 혼잡한 상황이 벌어짐. 푸드트럭을 이용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아래쪽 길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p> <p>○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행사차량일지라도 주차 동선을 관객 시선과 동선에서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함</p> <p>○ 방문객을 위해 서비스를 추가하여 준비했으나 실제로는 이용이 빈약한 경우가 더러 있음. 준비한 만큼의 충분한 안내와 유효적절한 공간배치가 필요함</p> <p>- 더위에 대비하여 컨테이너로 쿨존을 설치한 것은 좋았으나,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휴식처로 쓰이고 있음. 개방된 구조와 관객동선에 가까운 곳으로 변경 설치가 필요함</p> <p>- 햇볕가리는 발을 설치하여 강변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체험존에 설치했으나 이용빈도는 높지 않음</p> <p>○ 응답하라 1919는 비가 와서 그런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천시에도 나름의 재미를 붙여넣을 수 있는 요소들이나 지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추가하는 것이 좋음</p>

<표 계속>

점검의견	평 가 내 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변을 사용하는 행사로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천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임(행사 취소상황 공지나 강변에 질퍽한 잔디밭 등 시설부분 등)</li> <li>○ RCY학생들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인사하는 것은 좋은데 봉사시간 보내는 정도라서 작은 교육 등으로 행사장소안내 등도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음</li> <li>○ 비가 와서 행사장소가 변경된 것에 대한 안내가 없어 아쉬웠음(무형문화제 공연이 강변둔치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 등)</li> </ul>

③ 축제의 발전가능성

점검의견	평 가 내 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음</li> <li>○ 밀양시에서 아리랑 진흥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문화재단을 새롭게 설립해 축제를 전담케 하는 등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축제의 발전가능성은 높아 보임</li> <li>○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축제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축제를 즐기러 나오는 등 즐기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음</li> <li>○ 아리랑 먹거리존에서는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들로 준비해 판매하는 등 나름대로의 먹거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거리 퍼레이드의 경우 참여하는 주민들의 얼굴 면면에서 밝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으며 참여열기가 높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각 읍면동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예술가(단체)를 출전 팀에 매칭하여 코칭하는 제도를 만들어 퍼레이드를 만드는 과정과 출연의 과정이 주민들에게 더욱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안배할 필요가 있음</li> </ul> </li> <li>○ 3년간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꾸준히 개선 노력을 경주함</li> <li>○ 문화재단이 전담팀을 편성하여 축제사무국의 역할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음. 시청에서는 밀양아리랑팀을 설치하여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li> <li>○ 미량초우 브랜드 홍보관, 먹거리존, 푸드트럭이 잘 준비되어 먹거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음. 특히 미량초우는 축제와 지역경제자원을 잘 연결한 좋은 사례임</li> <li>○ 농산물 홍보관 운영에 그치지 않고 슬러시 이벤트, 푸드트럭 이벤트, 농특산물 상품 제공 등 축제 사이사이에 지역경제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li> <li>○ 이 축제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한 ‘밀양 행운 찾기’ 는, 딸기주스 컵 바닥에 행운 스티커를 붙여서 저렴하게 판매(천원)한 것이었음. 싸게 음료를 마시고 행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재미있어서 인상적였음</li> <li>○ 평가자는 특산물인 얼음골사과 과자를 사왔었는데, 맛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추가로 주문할 계획임. 이 축제가 지역특산물을 소개하고 구매하게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상품홍보관을 아리랑주제관 바로 옆에 배치한 것도 매우 효율적인 배치로 보임</li> </ul>

##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음</li> <li>○ 밀양시에서 아리랑 진흥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문화재단을 새롭게 설립해 축제를 전담케 하는 등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축제의 발전가능성은 높아 보임</li> <li>○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축제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축제를 즐기러 나오는 등 즐기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음</li> <li>○ 아리랑 먹거리존에서는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들로 준비해 판매하는 등 나름대로의 먹거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거리 퍼레이드의 경우 참여하는 주민들의 얼굴 면면에서 밝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으며 참여열기가 높았음</li> <li>- 향후 각 읍면동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예술가(단체)를 출전 팀에 매칭하여 코칭하는 제도를 만들어 퍼레이드를 만드는 과정과 출연의 과정이 주민들에게 더욱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안배할 필요가 있음</li> <li>○ 3년간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꾸준히 개선 노력을 경주함</li> <li>○ 문화재단이 전담팀을 편성하여 축제사무국의 역할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음. 시청에서는 밀양아리랑팀을 설치하여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li> <li>○ 미량초우 브랜드 홍보관, 먹거리존, 푸드트럭이 잘 준비되어 먹거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음. 특히 미량초우는 축제와 지역경제자원을 잘 연결한 좋은 사례임</li> <li>○ 농산물 홍보관 운영에 그치지 않고 슬러시 이벤트, 푸드트럭 이벤트, 농특산물 상품 제공 등 축제 사이사이에 지역경제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li> <li>○ 축제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수입 수준이 '자립'을 할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보아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동 축제 예산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수익 내역)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지출대비 자체의 수입이 너무 낮은 수준이므로 축제연계 상품 개발이 필요함(밀양의 실정을 잘 모르지만 예를들어 특산물을 도매로 구입해 소매로 판매하는 등)</li> <li>○ 밀양의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겠다는 판매장이 있었으면 함(초우 시식장 뿐만 아니라 판매장, 행사장 주변에서 판매하고 있는 산딸기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등)</li> <li>○ 관광객과 주민들의 참여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아리랑이라는 주제와의 관련성도 다소 적어보임(비가 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음)</li> <li>○ 많은 참여자가 있는 만큼 많은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행사관련 기본사항 정도는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스텝, 자원봉사자 등)</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 가 내 용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학생들이 우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자원봉사 참여에 그치고 있음. 평소에 밀양아리랑을 상시적으로 접하고 창의적으로 적용해보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러한 활동을 거치면서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수별로 자긍심을 느끼는 청소년 문화기획자, 밀양아리랑 서포터즈로 발전할 수 있음</li> <li>○ 지역사회 협력과 협업,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축제와 관련하여 지역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축제준비기간에 진행할 필요가 있음(밀양아리랑 축제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밀양아리랑대축제 민관 네트워크 파티 등)</li> </ul>

④ 축제의 효과

점검의견	평 가 내 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형으로 2인1조로 집계하고 있어 기본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었음</li> <li>○ 6개 집계소에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음</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행사장에서 영남루를 다녀오는 사람들은 중복집계될 수 있음</li> </ul>

⑤ 기타 사항

점검의견	평 가 내 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서의 행사 등에 연예인이나 화려한 불꽃놀이 등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li> <li>○ 비가 와서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는데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있었음</li> <li>○ 밀양아리랑을 영남루, 밀양강 등의 자연과 연결하는 Sound Scape(소리풍경, 음악적 파노라마) 개념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환경, 연출 등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밀양시 차원에서 밀양아리랑 콘텐츠 구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밀양시 차원에서 구축되는 콘텐츠들이 축제라는 플랫폼을 통해 창작, 변주, 표출, 공유, 확산될 수 있을 것임</li> <li>○ 축제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향후 전문성과 체계성이 더욱 요구될 것임. 축제 개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략적·기획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현장에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총감독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국제 자매도시 사진전을 개최하였고, 평가자가 사진전을 볼 때 우연히 해당 도시의 방문단이 사진전을 보러 왔었음. 사진전 자체의 사진들도 멋졌으며, 자매도시간에 단순히 오고가는 방문이 아니라 서로를 알기 위한 행사를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 방문단들은 서막식에서도 소개 받고 관객들에게 인사하였으며, 밀양 주민과 관광객들도 그들에게 환영의 박수를 쳐주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음</li> </ul>

〈표 계속〉

점검의견	평가내용
우수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탬프 투어를 계기로 축제장 인근의 관광지도 두루 돌아다닐 수 있었고, 상품으로 주머니를 받았는데 식상하지 않고 예쁘고 실용적여서 기뻐함</li> <li>○ ‘불빛존’에 예술가의 작품도 이 축제의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같은 야간 경관도 전문 예술가의 손길이 닿아서인지 더욱 아름답기도 했고 품격높게 느껴졌음. 아이들이 모형 열기구 (하늘에 뜨는 큰 풍선 달린 것)에서 사진 찍는 모습을 자주 보았음</li> <li>○ 동 축제의 행 멘트에서 자주 들었던 것이 “3년 연속 문체부 선정 축제”이며 이에 대한 시와 축제측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음. 그만큼 축제 운영의 완성도 수준을 높게 기대하기 때문에,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보안을 요청드렸다는 점을 알려드림</li> </ul>
부족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숙박시설 등의 개보수가 필요해 보임</li> <li>○ 밀양역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와 밀양아리랑축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li> <li>○ (행사 시간 공지) 밀양아리랑 경연대회도 올해 신규 프로그램이어서 관심있게 보았음. 평가자는 창작부 경연의 중반까지 관람했었는데, 경연자들의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서 놀랐음. 다만, 운영 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기재하고자 함. 경연대회장 내에 무대 현수막에는 창작부문 경연 시간이 5.18.(토) 13:00~16:00라고 적혀 있고, 측면 현수막에는 5.18(토) 12:30~18:00이라고 적혀 있으며, 리플릿에는 5.18(토) 12:30~18:00이라고 적혀 있었음. 3개의 정보가 각기 다른데, 일관되게 통일해주시기 바람</li> <li>○ (행사장 둘레 현수막) 은어잡이 체험은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게 됐는데, 행사장을 감싸고 있는 현수막이 매우 높았음. 행사장 둘레의 현수막을 조금 낮추면, 행사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관광객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li> <li>○ (전선 처리) 영남루는 축제장 바로 건너편에 있고, 동실동실한 가교를 걷는 재미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가교를 통해서 영남루에 갈 것으로 예상됨. 평가자는 아랑의 시신이 유기되었다는 곳을 보러 가다가, 무릎 높이까지 올라올 정도로 전선이 이어진 것을 발견하였음. 동 축제는 영상과 조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곳곳에 전선을 연결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관광객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꼼꼼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람</li> </ul>



## 2019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

◆ 설문조사결과 종합

김 재 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황 영 주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김 현 성 (인하공업전문대학 연구원)

---

발 행 : 2020년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http://www.mcst.go.kr>

국내관광진흥과 [TEL : 044)203-2854]

---

ISBN : 979-11-6357-306-7 93330

2019 —————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비매품/무료  
9 3330  
9 791163 573067  
ISBN 979-11-6357-306-7

